국 / 민 / 과 / 언 / 론 / 을 / 이 / 어 / 주 / 는, / 언 / 론 / 중 / 재 / 위 / 원 / 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국 / 민 / 과 / 언 / 론 / 을 / 이 / 어 / 주 / 는, / 언 / 론 / 중 / 재 / 위 / 원 / 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선 5기째인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 ·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출해 역사상 최대인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뤘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5%로 과거 5번 치뤄진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야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높였고, 천안함 침몰 · 세종시 논란 · 노풍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키운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함에도 대형 이슈에 묻혀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선거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특집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리더십 평가, 후보자 공약 분석 등 바람직한 선거보도 유형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언론은 과거의 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수 언론은 천안함 침몰 이후 관련 내용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기사화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선거기간 초기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가 이뤄지다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된 때부터 급격하게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조사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제재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제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여덟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 삼 승

160건의 자체심의 및 18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 · 의결했습니다.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중 가장 많았고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의결건수 8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등 선거 종류가 늘어났고, 지역언론에서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 신문 중에는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7곳이나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이 명백하고 의도성이 농후한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 유형 중 경고문 게재문의 형식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제재를 내렸습니다.

선거기사심의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심의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설화가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의 · 의결 유형을 잘 분석해 향후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의기준 및 제재 유형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 관련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선거기사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 심의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ontents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007

제1장 위원회 구성 008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010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012

제2부 심의 · 의결 현황 015

제1장 심의개요 016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017

Ⅰ. 심의 · 의결 현황 017

1. 자체 심의 017

2. 시정요구 심의 019

Ⅱ. 자체심의 분석 020

1. 위반유형별 분석 020

2. 결정내용별 분석 026

3. 매체유형별 분석 035

Ⅲ. 시정요구심의 · 의결 현황 042

1. 정정보도문 게재 043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043

3. 경고문 게재 044

4. 반론보도문 게재 045

5. 기각 046

제3부 종합평가 049
제1장 심의위원 평가 050
제2장 결산좌담 058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069
제1장 자체심의 070
1. 경고결정문 070
2. 경 고 098
3. 주 의 282
4. 권 고 369
제2장 시정요구심의 401
1. 정정보도문 게재 401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405
3. 경고문 게재 411
4. 반론보도문 게재 428
5. 권 고 439
6. 기 각 441
7. 각 하 450

부 록 453
1. 선거기사심의기준 45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457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69
4. 심의대상 매체현황 481
5. 색 인 484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설치 · 운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010년 2월 2일 전일인 2월 1일부터 선거일후 30일(2010년 7월 2일)까지 활동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 · 운영기간 변경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자에 포함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협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양 삼 승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현변호사협회	
부위원장	박 기 동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위 원	박 문 용	공선협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시민단체)	
	원 병 설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 병 철	전 세계일보 주필	한나라당	
	한 국 연	전 CBS 상무이사	언론중재위원회	
	배 정 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신문협회(언론인단체)	
	김 동 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당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 · 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 · 의결한다.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전문 모니터요원과 실무팀은 심의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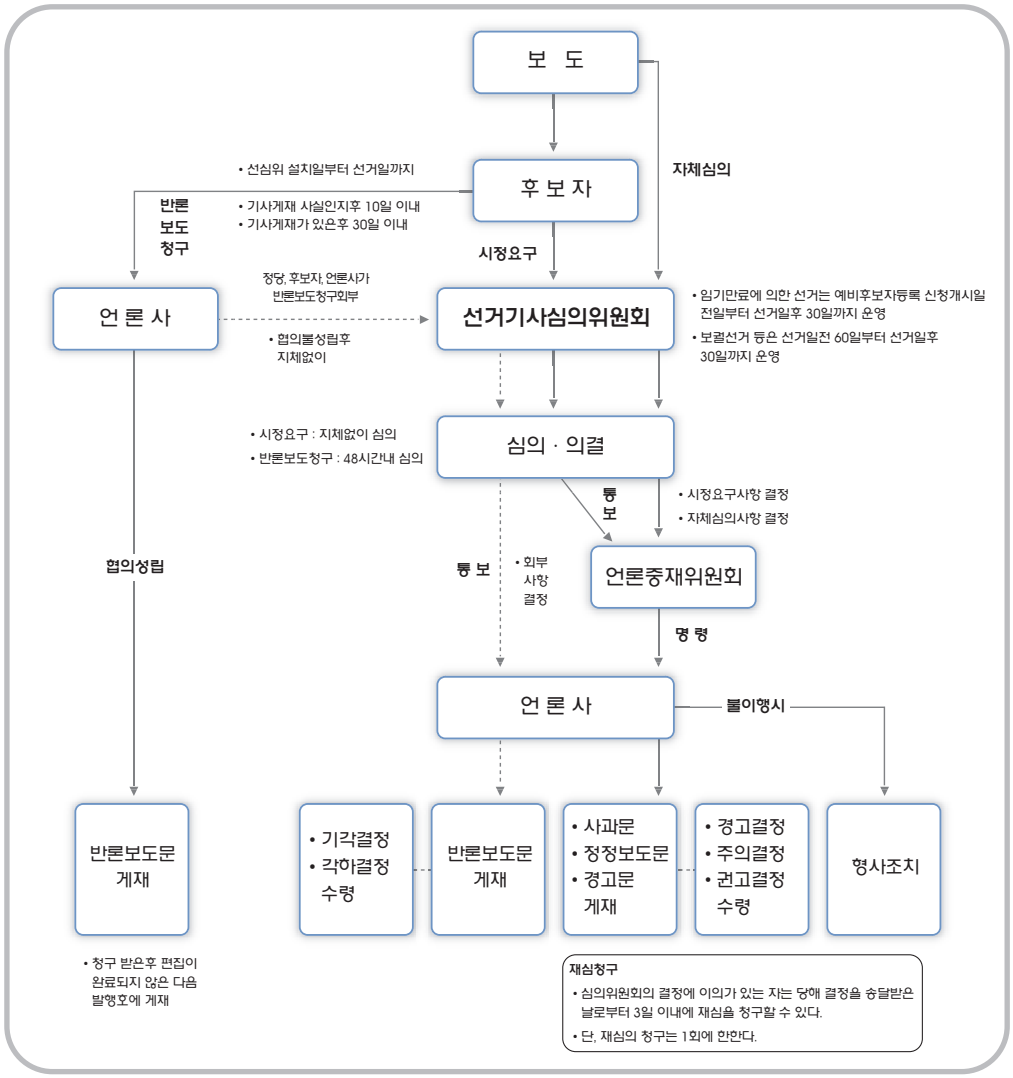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

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 · 의결 흐름도



※ 처벌조항 : 결정사항 불이행 시, 공직선거법(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위원회 관련)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2010. 1. 25.시행)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중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기간 변경이다. 그동안 재 · 보궐 선거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 · 보궐 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했다.

둘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정당이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했다.

셋째,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기간이 변경되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했던 반론보도청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전면 개정(2010. 1. 26.)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 추천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요구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요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개정 「공직선거법」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보도에 관한 조항인 제1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심의기준에 포함했다.

즉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의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신설하여 언론사가 정당 ·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보도할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서는 안되도록 했으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지표 · 기준 ·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도록 했다.

제2부

심의 · 의결현황

제1장 심의개요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 1 장

심의개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사과문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사과문게재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정보도문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결정하도록 했다.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은 정정보도문게재 결정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하기로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불공정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기로 했다.

'경고' 결정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보도하거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광고 게재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의',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의도성이 거의 없거나 위반 수위가 미약한 경우 경중을 따져서 내리도록 했다.

제 2 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Ⅰ. 심의 · 의결 현황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심의실무 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종, 지역일간지 100종,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등 446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교육 관련 매체를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160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60건 중 경고가 91건(56.9%)로 가장 많았고, 주의 45건(28.1%), 권고 16건(10.0%) 그리고 경고문 게재 결정 8건(5.0%)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24건(15.0%)이었다.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2차	28	28						6	16	6
3차	28	20	2			6		8	12	8
4차	17	7	5			5		10	7	
5차	24	8	2		3	11		19	4	1
6차	4	3				1	1	2		1
7차	9	6	1			2		9		
8차	9	4	1			4		8	1	
9차	5	3	2					2	3	
10차	7	4	2			1		6	1	
11차	16	10	4		1	1	4	12		
12차										
13차	6	2	4				1	5		
14차	4	2	1			1	2	2		
15차	3	3						2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11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종합일간지는 10건, 지역종합일간지는 92건, 일반경제지 4건 그리고 스포츠지와 무료일간지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22건(19.6%),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6건(1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일간지의 경우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21건으로 타 매체 유형보다 많은 제재를 받았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5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9건(34.8%), 권고 11건(9.8%) 그리고 경고문게재 결정이 6건(5.4%)으로 나타났다.

주간지는 40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종합주간지는 16건, 지역주간지는 24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21건(52.5%), 외부기고 9건(22.5%),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7건(17.5%), 광고제한 3건(7.5%)이다. 특히 지역주간지 또한 지역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외부기고로 인한 제재(6건, 25%)가 많았다. 결

정내용별로는 경고가 28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와 권고가 각각 5건(12.5%) 그리고 경고문게재가 2건(5.0%)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으로 6건, 외부기고 1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6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1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기각되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지	중 앙	20	11	8			1		9	6	5
	지 역	92	62	8		1	21	6	47	33	6
종합주간지		16	7	6			3		11	4	1
지역주간지		24	14	1		3	6	2	17	1	4
월 간 지		7	6				1		6	1	
뉴 스 통 신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18건으로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 및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했으며, 처리결과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문게재 4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4건으로 2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 중 일부인용은 1건, 원심 취소는 1건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구분 / 간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사과문 게재 등	경고문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고문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권고	기각	각하
일간지	중앙	1			1						1	
	지방	7	1	1	5		1		4	1	1	
지역주간지		8	2	2	4	2	1	3			1	1
지역월간지		1			1						1	
뉴스통신		1	1					1				
총계		18	4	3	11	2	2	4	4	1	4	1
		100.0%	22.2%	16.7%	61.1%	11.1%	11.1%	22.2%	22.2%	5.6%	22.2%	5.6%

Ⅱ. 자체심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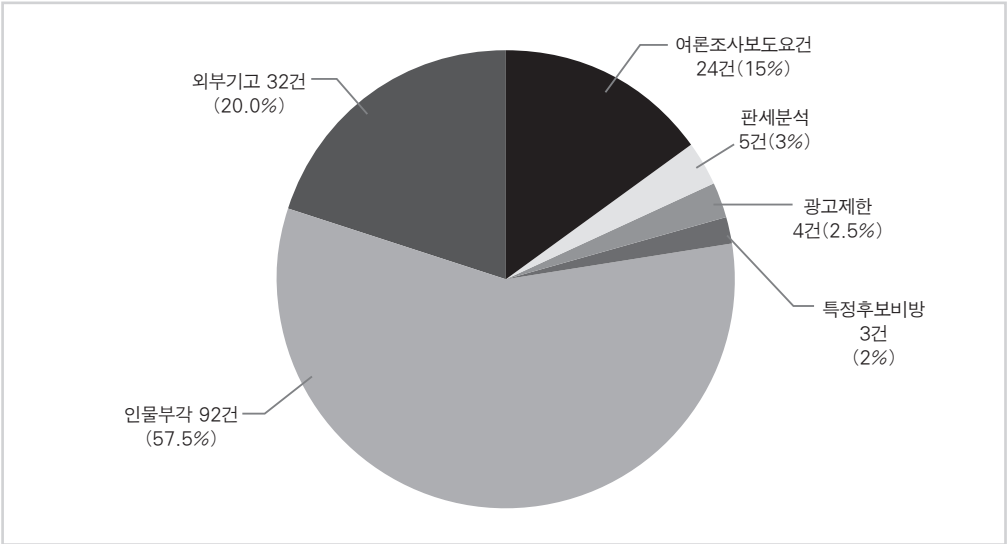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해 제재조치를 한 선거기사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부기고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 중 특이한 점은 선거기간 초반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가 내려졌으며,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제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할 경우 제재를 했으며 선거에 임박할수록 제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도 있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해 의결한 총 160건을 위반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칼럼 등 외부기고가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24건(15.0%), 광고제한 위반이 4건(2.5%)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을 세분해 살펴보면 인물부각이 92건, 판세분석이 5건, 특정 후보 비방기사가 3건이다.

위반유형별 분포도



가. 공정성 및 형평성

(1) 인물 부각

선거기사 중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유형은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지자체장의 실적과 성과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많았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과 성과를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당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후보에 대한 부각기사가 많았다.

일부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해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스포츠월드는 2010년 2월 4일자 20면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비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모 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일간지인 호남매일은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

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최초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6명임에도 여성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인물부각 기사 중 특정 후보의 활동만을 수 차례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전남지역 지역주간지인 강진고을은 군수로 출마한 현 군수의 동향 및 실적을 다룬 기사와 인터뷰를 인물 사진과 함께 3주에 걸쳐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으며, 같은 지역주간지인 나주투데이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력과 활동사항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출마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호의적으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충청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 충남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는 특별히 인터뷰를 할 계기가 없음에도 특정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으며, 인터뷰 내용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정치철학, 인맥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다뤄 그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동일한 후보에 대한 부각 기사라도 게재 시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무료일간지인 데일리노컷뉴스와 더데일리포커스 그리고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에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인물부각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게재시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반면, 동일 인물에 대한 부각 기사를 게재한 지역일간지인 중부일보와 우리일보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때임을 감안, '경고' 결정을 내렸다.

(2)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 보도 형태는 주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데, 이번 지방선거 선거보도에서도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거나 특정정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과 본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우세나 열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5건의 보도에 대해 제재를 했다. 5건 중 지역일

간지가 4건, 중앙일간지가 1건이고, 결정 유형별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이다.

충청일보는 선거를 앞둔 5월 25일자 1면과 5면에 각각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5면에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4번 1위를 차지했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두 건의 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광주일보는 2010년 2월 8일자 5면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제하의 기사에서 제목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만 소개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2010년 5월 3일자 5면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제하의 기사와 도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각 정당별 판세를 분석했고, 도표(경남도지사)에는 기사내용과 달리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표기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3) 비방기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해 제재를 받은 기사는 3건이다. 3건 모두 '경고' 결정을 받았으며, 2건은 지역일간지이고 1건은 지역주간지이다.

아시아일보는 2010년 4월 14일자 7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

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현직 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강남내일신문은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뭘로보고 60살 넘은 여성후보야"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청일보는 2010년 4월 29일자 23면 "배신의 계절" 제하의 칼럼에서 전임 부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재임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배신이라고 비방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 외부기고 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32건의 기사에 대해 자체심의 의결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주간지가 6건, 중앙일간지와 월간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가 2건, 경고문게재와 주의가 각각 1건이었다.

외부기고 금지는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우선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 ·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건이다. 영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13면 "인사발령" 제하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신문은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인천시장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고 해 '주의' 조치했다.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것은 30건이다. 이 중 심의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칼럼을 게재할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다. 새만금일보 2010년 4월 2일자 15면 "따뜻한 카리스마" 제하 칼럼의 경우 '권고' 조치했는데, 이 칼럼은 전주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작성한 것이다.

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정치계 · 학계 · 언론계 등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여론조사 및 그 보도 형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에서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다만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4건이다. 경고 결정이 가장 많은 14건이고 주의가 9건, 권고가 1건이다. 여론조사 보도 공표요건 미준수로 제재를 받은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8건, 지역일간지가 8건, 시사주간신문은 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언론사명이나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 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명과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겨레는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 … 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타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인용 매체의 보도일자 및 매체명을 밝혀 독자들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라. 광고제한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의견광고와 상업광고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언론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되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고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총 4건으로 지역일

간지 1건, 지역주간지 3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조치했다.

4건 가운데 3건은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명서 발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게재지면의 위치와 무관하게 이를 의견광고로 판단했다. 거창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지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는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대구일보는 2010년 5월 10일자 2면 광고란 '부고'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보자의 성명, 경력을 부각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2. 결정내용별 분석

가. 경고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8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지역주간지가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된 선거기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월간지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발행이 될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고결정문 게재 유형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을 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원 보도의 게재지면과 관계없이 1면 우측 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게재하도록 했으며, 수위에 따라 그 게재문 형식과 지면을 다르게 하도록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 8건 중 중급 정도 제재를 받은 것은 2건이며, 나머지 6건은 낮은 수위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2010.3.1. 2010.3.8. 2010.3.15. 2010.3.22. 2010.3.22.	1 6 1 1, 4 6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2010지선152	호남매일	2010.5.4.	7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2010지선153	호남신문	2010.4.20.	9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2010지선154	호남신문	2010.4.19. 2010.4.28. 2010.4.30.	1 1 1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2010지선156	강진고을	2010.4.21. 2010.4.28. 2010.5.5.	1 23 1, 3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2010지선169	충청일보	2010.5.25	1 5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2010지선176	내외일보	2010.5.6. 2010.5.10.	6 8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77	우리일보	2010.5.26	14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정당의 횡포 무상급식 tv토론기회 박탈

나. 경 고

자체심의로 의결한 160건 중 경고 결정은 91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9건, 지역일간지 47건, 지역주간지 17건, 종합주간지 11건, 월간지 6건, 뉴스통신 1건이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 9건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반면, 지역일간지의 경우 인물부각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 총 47건 중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반 유형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신문들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현직 지자체장들이나 후보를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전국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일간지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신문제작진들이 선거법이나 심의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경고결정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5건, 외부기고 28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4건, 광고제한 4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45건 중 41건은 인물부각으로 경고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4	뉴스저널	2월호	108~109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실물경제 전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2010지선5	시사매거진	2월호	38~39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2010지선6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 2. 4.	20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2010지선7	중앙매일	2010. 2. 11. 2010. 2. 16.	16 16	지역 경제 살리기 · 신(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2010지선15	전라일보	2010. 2. 11.	14	"주민 복리 · 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2010. 2. 9.	16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2010지선32	내외일보	2010. 2. 10.	16	오원석총장,통합시동북아의성장동력만들겠다 "우리는두려움보다는희망이라는 가능성을 선택했다"
2010지선35	수도일보	2010. 3. 8.	16	살기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2010지선43	전주일보	2010. 3. 4. 2010. 3. 8.	16 16	명품 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2010지선62	중앙매일	2010. 3. 3.	16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지선63	중앙매일	2010. 3. 10.	16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단양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지선64	중앙매일	2010. 3. 19.	16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년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3월호	32~33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터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2010. 3. 22.	10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2010. 3. 23.	5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2010. 3. 24.	15 16	진안군의 '우공이산' 을 기대한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2010지선85	전주일보	2010. 3. 22.	16	'지성감민' 시정 운영…참 공약실천 '앞장'
2010지선86	일요서울	2010. 3. 21.	12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2010지선109	중부일보	2010. 4. 2.	21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2010지선110	중부일보	2010. 4. 9.	21	'안상수' 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2010. 4. 15.	17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2010. 4. 15.	17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2010. 3. 31.	7	‘작은 도서관’ ...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2010. 3. 23.	2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2010지선118	서경신문	2010. 3. 15.	17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2010지선119	한국시사	2010. 3. 15.	17	거창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10. 4. 20.	3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10. 4. 19.	11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대백제전 · 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010. 4. 14.	7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2010지선128	강남내일신문	2010. 4. 8.	1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은 여성후보야”
2010지선136	중도일보	2010. 4. 29.	9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 역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010. 4. 29.	23	배신의 계절
2010지선141	매일신문	2010. 4. 29.	4	“각종 인프라 신(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2010지선142	우리일보	2010. 5. 4.	14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안상수
2010지선143	월간중앙	5월호	288~289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2010지선151	전남매일	2010. 4. 19.	10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2010지선155	일요서울	2010. 5. 2.	34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2010지선157	전광일보	2010. 5. 10.	14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 ‘희망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10지선158	호남신문	2010. 5. 10.	9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2010지선159	시사IN	2010. 5. 8.	28~30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010. 4. 25. 2010. 5. 9.	6~7 4~5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 교체 이끌겠다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2010지선168	evening	2010. 5. 24.	17	정당 후보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2010지선178	종로저널	2010. 5. 24.	5	선거 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
2010지선182	월간중앙	6월호	64~68	54% 지지율 ‘훈風’ 이 부는데... 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010. 5. 19.	4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2010. 3. 4.	19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2010. 3. 8.	11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2010지선55	시민일보	2010. 3. 5.	7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2010지선56	인천일보	2010. 3. 4.	16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2010지선57	인천일보	2010. 3. 9.	16	다섯가지 인간의 질
2010지선67	강원일보	2010. 3. 9.	7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2010지선68	동국일보	2010. 3. 18.	15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포럼
2010지선69	대전일보	2010. 3. 9.	22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2010지선70	인천일보	2010. 3. 18.	15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2010. 3. 12.	16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2010. 3. 18.	2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 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한다
2010지선92	서울신문	2010. 3. 25.	30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2010. 3. 22.	19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2010지선94	광주일보	2010. 3. 18.	17	학교 내 강압 · 폭력 절대 안된다
2010지선95	인천신문	2010. 3. 10.	14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2010지선96	충북일보	2010. 3. 24.	14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2010. 3. 19.	17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2010지선98	시사신문	2010. 3. 21.	5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99	시사신문	2010. 3. 28.	5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2010. 3. 31.	13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101	성북신문	2010. 3. 18.	3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10. 4. 13.	17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10. 3. 25.	15	은혜로운 언어행실
2010지선130	경북일보	2010. 4. 21.	22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2010지선131	중구신문	2010. 4. 13.	3	“건강보험공간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010. 4. 14.	2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5월호	10~13 99~100	여수! 박람회 준비 이대로 좋은가 솜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010. 5. 6.	3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74	충청일보	2010. 3. 17.	7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10. 4. 12.	54~55 55~56	62 지방선거-충남지사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 · 이태복 신경전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與 현명관 · 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경쟁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10. 4. 13.	6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2010지선146	아주경제	2010. 5. 10.	A4	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
2010지선147	연합뉴스	2010. 5. 10.	6.2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판 '요동' .. '돈뭉치' 파문
2010지선163	조선일보	2010. 5. 14.	A13	한나라8 민주3 선진 1곳 우세...4곳은 혼전
2010지선164	한겨레	2010. 5. 11.	15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2010지선165	아주경제	2010. 5. 11. 2010. 5. 12.	A4 A4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경전철이냐 9호선 연장이냐
2010지선166	민주신문	2010. 5. 16.	12~13	당의 운명 걸고 선거전 스타트
2010지선170	서울신문	2010. 5. 24.	8 9	경기도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부평 · 중구 초접전…與 수성 쉽지않을듯
2010지선172	세계일보	2010. 5. 20.	6	野 단일화효과 기대속 '北風' 변수
2010지선173	중앙일보	2010. 5. 25.	22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010. 5. 20.	1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 연출 관심 높았다
2010지선179	사건의 내막	2010. 5. 30.	4 5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한나라' 박성효vs '선진당' 염홍철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2010. 3. 18.	2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0	거창신보	2010. 3. 9.	13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1	한국시사	2010. 3. 8.	14 15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0지선162	대구일보	2010. 5. 10.	2	부고

다.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45건에 대해 내려졌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33건, 종합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9건, 외부기고 위반 1건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2	광주일보	2010. 2. 8.	5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010. 2. 23.	22	"노인인력 방치 사회, 경제적 낭비"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 2. 3.	14	살고싶은 도시...3년 연속 '환경대상'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010. 2. 4.	5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010. 2. 18.	8, 16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2010지선16	전북일보	2010. 2. 12.	12 13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발전 디딤돌로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010. 2. 9.	20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010. 2. 10.	20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010. 2. 8.	16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22	전국매일	2010. 2. 5.	20	새출범 통합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2010지선23	전국매일	2010. 2. 11.	20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2010지선24	전국매일	2010. 2. 19.	20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지선25	중도일보	2010. 2. 5.	9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점. 올해 기반 조성에 심혈
2010지선26	중도일보	2010. 2. 11.	9	인구 100만 시대 대비…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지선27	중부일보	2010. 2. 4.	17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 발 더…'
2010지선28	중부일보	2010. 2. 9.	12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 프로젝트' 시동
2010지선36	시민일보	2010. 3. 2.	20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맸다'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2010. 2. 24.	8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2010지선38	우리일보	2010. 2. 19.	20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2010지선39	우리일보	2010. 2. 26.	20	꿈과 희망! 힘찬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2010지선40	인천일보	2010. 2. 25.	12	집에서 의료, 교육, 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2010지선41	전주일보	2010. 2. 19.	16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
2010지선42	전주일보	2010. 2. 24.	16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2010지선44	현대일보	2010. 3. 5.	4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2010지선45	시사뉴스	2010. 3. 15.	46~47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50	주간함양	2010. 2. 15.	6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2010지선51	경제풍월	3월호	64~69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2010지선60	경기신문	2010. 3. 16.	14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2010지선61	일간전북타임스	2010. 3. 2.	12	세계로 뻗어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2010지선65	충북일보	2010. 3. 11.	4	'눈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2010지선81	대전일보	2010. 3. 27.	5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2010. 3. 17.	16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2010지선135	조선일보	2010. 4. 22.	E3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청정자연 속에 편히 쉬다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2010. 5. 3.	5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2010. 5. 31.	4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9	경북일보	2010. 2. 17.	4	예비후보자 오차범위 내 접전
2010지선72	광남일보	2010. 3. 9.	3	'수성vs탈환' …광주 · 전남 광역 · 기초단체 9곳
2010지선73	전남일보	2010. 3. 17.	5	유창동, 선두 최형식 맹추격
2010지선75	일요서울	2010. 3. 7.	10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2010. 3. 23.	20	친이 · 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2010. 3. 17.	3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2010지선103	월요신문	2010. 3. 21.	7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2010지선138	국민일보	2010. 4. 28.	3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2010지선139	동아일보	2010. 4. 28.	A8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29	인천신문	2010. 4. 20.	15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라. 권 고

권고 결정은 16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5건, 지역일간지 6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3건, 외부기고 위반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주로 내려졌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2010. 2. 2.	5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2010. 2. 4.	10	첨단 · 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 것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2010. 2. 5.	15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2010지선10	기호일보	2010. 2. 1. 2010. 2. 4.	20 3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2010지선11	동국일보	2010. 2. 11.	3	녹색의 도시 IT · 명품의 도시로 비상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2010. 2. 10.	14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2010. 2. 23.	A12	"콤팩트 · 스마트, 그리드가 인천 미래"
2010지선34	경기신문	2010. 2. 23.	14	살기좋은 '고품격 친환경 도시' 이끈다
2010지선46	시사저널	2010. 3. 2.	40~43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2010. 2. 12.	4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2010. 2. 11.	12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편의 감동드라마
2010지선49	주간시정신문	2010. 2. 18.	20	특급 손님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2010지선87	강원리뷰	2010. 3. 6. 2010. 3. 19.	12~13 8~9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위해 혼신의 노력다할것" "국제특구 도시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 다할터"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2	영남일보	2010. 3. 2.	13	인사발령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2010. 4. 2.	15	따뜻한 카리스마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8	세계일보	2010. 2. 22.	4	서울시장 · 경기지사 한나라 앞서/충남지사 · 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3. 매체유형별 분석

제5회 지방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대별해 총 446종으로 일간지 131종(중앙지 31, 지역지 100),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14개, 지역일간지 46개, 종합주간지 12개, 지역주간지 22개, 월간지 5개, 뉴스통신 1개 등 모두 100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22.4%로 지역일간지(46%)와 중앙일간지(45.2%)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간지는 31개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14개 매체에 대해 경고 9건, 주의 6건, 권고 5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8건, 외부기고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100개 매체 가운데 46개 매체에 대해 92건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47건, 주의 33건, 권고 6건이고,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 외부기고 2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8건, 광고제한 1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는 34개 자체심의 대상 매체 중 12개 매체에 대해 16건의 제제를 했다.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6건, 외부기고 3건이다.

지역주간지와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243종 중 22종에 대해 24건의 제재를 했다.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6건, 광고제한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5개 매체에 대해 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종합월간지 4개, 지역월간지 1개이다. 경고 결정이 6건이었으며, 주의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이었고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심의대상 매체 중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7곳으로 대부분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일간지였다. 특히 인천일보는 총 5회 제재를 받았다.

매체별 위반현황

간별	매체명 \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일간지	국민일보	1		1						1	
	더데일리포커스	1	1								1
	데일리노컷뉴스	1	1								1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1	1	
	동아일보	1		1						1	
	서울신문	2		1			1		2		
	세계일보	2		2					1		1
	스포츠동아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중앙일보	1		1					1		
	파이낸셜뉴스	3	3						1	1	1
	한겨레	1		1					1		
	헤럴드경제	1	1							1	
	evening	1	1						1		
	소 계	20	11	8			1		9	6	5
지역일간지	강원도민일보	2					2		2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2	2							1	1
	경인종합일보	2	2							2	
	광남일보	1		1						1	
	광주일보	2	1				1		1	1	
	경북일보	2		1			1		1	1	
	기호일보	1	1								1
	내외일보	2	2					1	1		
	대구일보	1				1			1		
	대전일보	2	1				1		1	1	
	대한매일신문	2	2						2		
	대한투데이	1	1							1	
	동국일보	2	1				1		1		1

간별	매체명 \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매일신문	1	1						1		
	새만금일보	4	2	1			1		1	2	1
	새전북신문	1					1		1		
	수도권일보	2	2						1	1	
	수도일보	1	1						1		
	시민일보	2	1				1		1	1	
	아시아경제	1	1							1	
	아시아일보	3	3						1	2	
	아시아투데이	1	1								1
	아주경제	2		2					2		
	영남일보	1					1				1
	우리일보	4	3				1	1	1	2	
지	인천신문	2					2		1	1	
역	인천일보	5	1				4		4	1	
일	일간전북타임스	1	1							1	
간	전광일보	1	1						1		
지	전국매일	3	3							3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라일보	1	1						1		
	전북일보	1	1							1	
	전주일보	4	4						2	2	
	중도일보	3	3						1	2	
	중부일보	4	4						2	2	
	중앙매일	4	4						4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2	1				1		1	1	
	충청일보	4	2	2				1	3		
	충청투데이	3	1				2		3		
	현대일보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3	3					2	1		
	소 계	92	62	8		1	21	6	47	33	6

간별	매체명 \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종합주간지	뉴스포스트	1	1						1		
	민주신문	1		1					1		
	사건의내막	1		1					1		
	시사뉴스	1	1							1	
	시사신문	2					2		2		
	시사IN	1	1						1		
	시사저널	1	1								1
	시사포커스	2	1				1		2		
	월요신문	1		1						1	
	위클리경향	1		1						1	
	일요서울	3	2	1					2	1	
	주간조선	1		1					1		
	소 계	16	7	6			3		11	4	1
지역주간지	주간 강남내일신문	1	1						1		
	강남포스트	1					1		1		
	강원리뷰	1	1								1
	강진고을신문	1	1					1			
	거창군민신문	1				1			1		
	거창신보	1				1			1		
	경기헤럴드	1					1		1		
	교육연합신문	1	1						1		
	김천문화신문	1	1						1		
	나주투데이	1	1					1			
	마포타임즈	1	1						1		
	미래교육신문	1	1								1
	밀양사람들	1		1					1		
	서경신문	1	1						1		
	서해안신문	1	1								1
	성북신문	1					1		1		
	종로저널	1	1						1		
	주간 시정신문	2	1				1		1		1

간별	매체명	구분 계	위반유형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결정내용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역주간지	주간함양	1	1							1	
	중구신문	1					1		1		
	중구자치신문	1					1		1		
	한국시사	2	1			1			2		
	소 계	24	14	1		3	6	2	17	1	4
월간지	경제풍월	1	1							1	
	뉴스저널	1	1						1		
	시사매거진	2	2						2		
	여수여수사람들	1					1		1		
	월간중앙	2	2						2		
	소 계	7	6				1		6	1	
뉴스통신	연합뉴스	1		1					1		
	소 계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가. 중앙일간지

제재를 받은 14개 중앙일간지를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지 7개, 경제지 2개, 스포츠지 2개, 무료지 3개로 나타났다. 종합지는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지는 파이낸셜뉴스가 3건, 헤럴드경제가 1건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지는 데일리스포츠월드가 2건, 스포츠동아가 1건이고, 무료지는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노컷뉴스, evening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55%),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8건(40%)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대부분 인물부각(10건)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중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다른 매체 유형보다 많았는데, 특히 종합일간지의 경우 총 9건 중 8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국 선거판세 분석 기사에서 판세분석의 근거가 되는 타 언론사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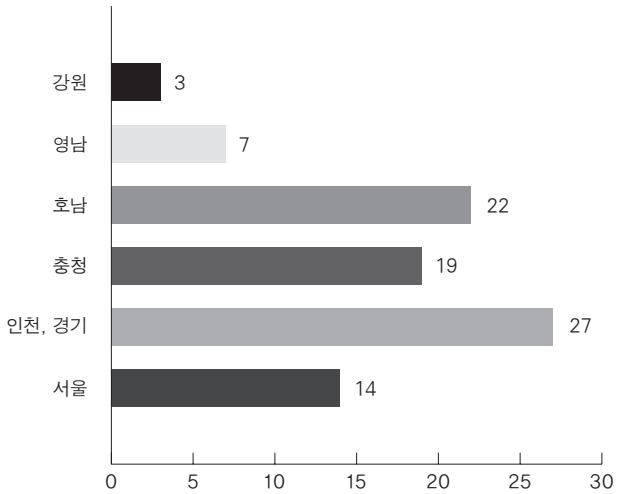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9건, 주의 6건, 권고가 5건이다. 종합일간지는 경고 6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나타났고, 경제지는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초반에는 인물부각에 대한 제재가 많다가 선거에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다.

나.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는 100개 심의대상 매체 중 46%인 46개 매체가 9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기고 위반 21건(21%),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8건(8%), 광고제한 위반 1건(1%)순이었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47건(47%), 주의 33건(33%), 권고 6건(6%), 경고문게재 6건(6%)이었다.

발간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 경기지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지역 22건, 충청지역 19건, 서울지역 14건, 영남지역 7건, 강원지역 3건으로 나타났다. 후보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매체수가 많은 호남지역의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지역별 위반현황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의 경우 제재를 받은 41건(서울 14건, 인천 · 경기 27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1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지역 일간지(16건, 72.8%)와 충청지역 일간지(13건, 68.4%)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강원지역 일간지의 경우 3건 모두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영남지역 일간지는 외부기고 위반이 3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은 지역일간지는 내외일보, 우리일보, 충청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이다. 내외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은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해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았으며, 충청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판세분석을 왜곡해 제재를 받았다. 우리일보는 선거 직전 특정 후보자의 논평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다.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종합주간지는 심의대상 34개 매체 중 12개 매체가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시사주간지와 시사주간신문이 각각 6개 매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6건, 외부기고 위반이 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매체 유형과는 달리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았다. 선거 판세 분석을 하면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이다. 위클리경향과 주간조선은 도지사 선거관련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했으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사건의 내막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만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종합주간지는 시사IN, 시사뉴스,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뉴스포스트, 일요서울 등이다. 시사신문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 230개 매체 중 20개 매체, 22건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13개 매체 중 2개 매체에 대해 2건의 제재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위반이 6건, 광고제한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이었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남 8

건이었으며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이 각 1건이었다. 호남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주간지 중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나주투데이와 강진고을이었으며, 두 매체 모두 특정 후보자를 수차례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영남지역 주간지의 경우, 거창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에 대해 광고제한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했으며, 특정 거창시장 후보를 부각보도한 서경신문과 한국시사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라. 월간지, 뉴스통신

월간지는 종합월간지 8종, 여성지 6종, 지역월간지 16종, 교육월간지 6종 등 총 36종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 중 월간지 5종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종합월간지 4종, 지역월간지 1종에 대해 7건의 결정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의 경력이나 인생관, 정치적 소신과 향후 포부 등을 다룬 특집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월간지인 여수여수사람들은 후보자의 칼럼을 같은 호에 두 차례 게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5월호와 6월호에 각각 광진군수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통신사 중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는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판세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Ⅲ. 시정요구심의 · 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18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2건, 경고문 게재 결정 4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4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재심청구는 4건이었으며 기각 2건, 인용 2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와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다. 시정요구인 현황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시장 후보 6건, 구청장 후보 4건, 군수 후보 5건, 시의원후보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경기와 인천 각 1건, 충청 6건, 호남 2건, 영남 5건, 제주 1건이다.

1.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이다. 보령시장에 출마한 임세빈 후보가 보령지역 주간지인 '주간보령'과 '보령시민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주간보령은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잘못 기재했으며, 보령시민신문은 후보자의 출마기호를 잘못 기재했다. 해당 언론사는 편집 실수로 발생됐다는 의견진술을 했으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이후 바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구로오늘신문은 2010년 4월 10일자 1면과 3면에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징수를 해주고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구청장은 시정요구서를 통해 징수유예를 해준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 구청장의 친동생 소유 골프클럽부지가 용도변경이 된 바 없음에도 부제목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적시한 것은 바로 잡아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일간대구경북은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으로 전묘순씨가 확정되자 영천지역 대부분 단체들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4년 전 비례대표 내정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가 적절하지 않다고 알린 바 있고,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비례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한 바 없으며, 4년 전 본인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없고, 가정문제상담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4년 전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가정문제상담소 운영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기사화한 반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3. 경고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지역주간지가 3건, 뉴스통신이 1건이다. 시정요구인은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군수 후보 2건이다.

함안지역 주간신문인 THE함안신문은 2010년 2월 12일자, 26일자, 3월 11일자에 6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향된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는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인 현 함안군수를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청구 이유도 없고 재심청구 취지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다.

제주지역 주간신문인 제주프레스는 2010년 3월 31일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 현명관 후보는 위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인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피시정요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지역주간지인 진천군민신문은 2010년 5월 27일자 1면, 2면, 3면, 4면, 5면, 7면에 걸쳐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내용과 진천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연합 진천군수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천군 사업 관련 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이유도 없고 피시정요구대상 매체가 격주간 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도의 시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 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에서 오근량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에 배달되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

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근량 시정요구인은 음해성 투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제보자가 확실하지 않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정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4. 반론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모두 지역일간지에 대해 내려졌다. 시정요구인 유형별로는 시장 후보 2건, 구청장 및 군수 후보 각 1건이다. 시장 후보 2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요구한 것이다.

한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경상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사업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정정보도 게재를 인용할 수 없지만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한 점을 고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인천일보는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조문을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 이흥수 후보는 사진은 조문과 무관하고 선거에 홍보할 목적은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 사진 배경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임에도 제목에서 애도현장이라고 적시해 마치 빈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양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기사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부분은 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정정보도 게재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피시정요구인은 원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반론보도문 게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반론보도문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결정했다.

5.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4건이다.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월간지 각각 1건이다. 구청장 후보와 군수 후보가 각각 2건을 시정요구 했다.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는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보도가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전남지역주간지인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김 후보가 공천심사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김 후보의 재심신청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후속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으나, 함평천지신문은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김 후보가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 원심 결정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했다.

매일신문은 2010년 3월 23일자 3면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 특보라고 보도했으나,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매일신문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가 게재됐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홍성신문은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서 김용일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후보단일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요구도 수용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측의 입장과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의견표명으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배 정 근 위원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1. 총평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미디어는 그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름이다. 현대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주요한 선거 이슈 등을 미디어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도 작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많은 점에서 역대 선거와는 다른 양상과 진기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선출 인원 자체가 3,99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1만 명에 육박하는 후보자들이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에서 교육의원까지 무려 8명을 한 번에 뽑는 생소한 투표방식에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 선거운동도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행태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선거환경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심의해야 할 매체들도 많아지고, 심의 안건도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160건의 자체심의 안건을 다뤘는데, 이 수치는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밀려드는 심의 안건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주일에 두 번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의 안건이 급증한 배경에는 과거 선거에 비해 불공정한 보도가 많아진 까닭도 있겠지만, 선거보도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되고 정교해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자체심의는 대폭 늘었으나, 시정요구는 과거 선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선거보도 감시가 그만큼 제 기능을 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추상적인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제재 결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도의 공정성이다(제8조). 이 법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중립성을 심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회적 또는 학문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객관성이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공정성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객관성이 공정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현실은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개입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적 보도란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부당의 자세로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건강한 상식은 심의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그런 전제에서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기사의 주체, 기사의 양, 편집 방식, 기사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선거에 임박하면 할수록 제재 강도를 높인다거나, 같은 언론사가 동일한 문제로 다시 심의기준을 어길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등의 몇 가지 원칙에도 사전합의를 보았다.

위원회는 또한 사후 제재 못지않게 올바른 선거기사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언론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관심을 쏟았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자들의 취재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 언론 현실이다. 분초를 다투는 속보경쟁을 하다보면 기자들은 늘 시간에 쫓긴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매체의 출현으로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언론사들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력확충을 기피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그 결과 엄격한 내부 게이트키핑 기능이 약화되어 완성도가 낮은 기사들

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다. 선거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이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심의에 저촉되는 기사를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바로 언론사에 알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언론이 선거기사에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3차례 심의결과를 정리해 언론에 공표했다. 특히 예민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모든 심의대상 언론사에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기사 심의가 사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언론보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시했다. 전체 결정의 절반 이상이 '경고' 또는 '경고문게재'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았던 배경이다. 지면에 직접 반영되는 경고문게재는 언론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결정이다. 제재의 실효성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경고문게재 결정도 다시 상·중·하 3단계로 세분화했다. 가장 상위 단계에서는 '엄중경고'라는 문구를 제목에 포함시키고, 위치도 1면 상단에 눈에 띄게 싣도록 했다. 하지만 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언론사에 충분한 소명 및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

2. 심의에서 드러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지난 지방선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심의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편파적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자체심의로 의결한 160건의 위반사항 가운데 95건이 특정인물을 부각시킨 기사라는 사실을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기사들은 편집방식이나 기사 내용 등에서 해당 후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언론에서 특정후보를 미화하는 기사를 실으면 해당 후보측은 그 신문이나 잡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유권자에게 뿌리는 검은 거래도 있다. 이는 공정하게 선거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며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가. 편파적 보도

대표적인 유형은 인터뷰 형식을 빌려 현직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기사였다. 이런 기사들은 신문 1개 면 전체, 잡지의 경우 여러 쪽에 걸쳐 특집식으로 편집하고, 후보의 사진과 이력을 크게 다룬다. 흡사 홍보전단지를 방불케 한다.

언론 입장에서 지자체장은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뉴스메이커임이 분

명하다. 지자체장과 개별 인터뷰를 갖는 기회도 흔한 일은 아니다. 때문에 지자체장과의 인터뷰는 다른 기사에 비해 크게 취급하는 것이 언론의 관행이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기사들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뉴스가치가 있는 현안들은 거의 다루지 않은 채 주인공의 치적만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똑같은 지자체장을 다룬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기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지자체장 쪽에서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사의 편파성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표현하는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서민 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식으로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상실한 제목들이 많았다.

아무런 뉴스성이 없는 후보를 크게 다룬 기사들은 더욱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충청지역의 몇몇 일간지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도의원 후보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수많은 도의원 가운데 유독 그 의원만을 인터뷰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보도는 중앙일간지보다 지역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이번 선거기간 중 최소한 번 이상 제재를 받은 100개 언론사 중에서는 지역일간지가 46개로 가장 많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에서도 지역일간지(46%)가 제일 높았다. 지역에서도 광역보다는 군 단위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좁은 지역사회의 속성 상 언론과 후보가 유착관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쓰는 경우다. 전남의 한 지역주간지는 군수에 출마한 현 군수의 기사를 3주에 걸쳐 1면, 3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전남의 또 다른 지역주간지도 특정 여성 시장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기사와 칼럼을 5차례에 걸쳐 실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여성 시장후보를 지지한 이 주간지는 최소한 겉으로는 객관적 보도를 표방하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드러내놓고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이 주간지는 진보적 노선을 가진 후보를 지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선거 기간에 신문사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서구 언론들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정론지(政論紙)에서 시작된 역사적 전통과 무관치 않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하더라도 이는 사설과 사고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게 전부다. 대신 일반적인

선거보도에서는 신문의 입장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보도방식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특정 후보를 비판, 비방하는 보도 역시 편파적 보도의 전형적 유형이다. 예를 들어 경남의 모 지역 주간신문의 경우 군수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기사를 6차례에 걸쳐 우호적으로 보도한 반면 현직 군수에 대해서는 비판적 보도만 하는 편파적 태도를 노골화했다. 충남의 모 일간지는 전임 부단체장이 단체장선거에 출마하여 재임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맞서게 되자 이를 '배신'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나. 부정확한 판세 보도

편파적 보도와 함께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흥미위주의 경마식 보도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선거운동의 양상과 판세 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이다.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후보 간의 지지율이 어떠하다든지,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그런 유형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여론조사는 정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그 생생한 증거이다. 서울과 인천, 경남도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선거 전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판도와는 전혀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대변한다.

따라서 선거판도 분석 기사는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럴진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정 후보가 유, 불리하다고 보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관행처럼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선거판세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곤 한다. 충청지역의 한 일간지는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았다. 실제 선거결과에서도 그 후보는 당선되지 못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 선거기사심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전형적 위반사례다. 자체심의 결정에서 여론조사 보도미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5%에 이른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언론사명이나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물론 일간지의 경우 선거기사를 쓰는데 있어 지면제약이 심하고, 많은 지역 기사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면 여론조사 방법까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도 이를 감안해 출처,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같은 최소한의 조사방법만 제시됐으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사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여론조사인양 보도해서 제재를 받았다.

다. 언론인의 전문성 부족

많은 언론인들은 진실 추구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론적 회의도 있지만 언론인이 추구하는 진실은 다분히 기능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그 요체는 철저한 사실확인과 검증, 진정한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들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취재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취재한 사실도 이중, 삼중으로 재차 확인하는 엄격한 취재윤리를 미덕으로 삼는다. 벽돌로 집을 짓듯이 이렇게 철저히 검증된 개별 사실들이 모여 진실이라는 집을 완성한다고 믿는다.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취재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취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인도 있었다.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쓴 한 지역 주간지 기자는 그 이유를 묻자 "상대 후보는 우리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뉴스통신사는 지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사에 배달됐다는 기사를 썼다. 이 우편물은 발신자가 누구인지조차 적혀있지 않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논문 표절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문제된 논문이 정말 표절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기사 끝 부분에 표절 사실이 없다는 후보의 반론을 함께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취재보도 활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매우 전문적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사회적 사명을 잊지 않는 윤리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제도개선 제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사 심의는 매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로 3원화되어 있다. 매체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선거기사 보도 행태를 충분히 감안해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위원회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다. 매체 사이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 자체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소관기관도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실제 결정사항이 최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기사 심의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심의의 일관성 문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내부에도 구조적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직이다. 따라서 이전 위원회 활동에서 수립되고 적용된 심의기준과 노하우가 다음 위원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다. 태생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상설조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사심의기준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도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를 제공한다. 주요 심의 원칙인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평성은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 배열에 균형 유지', 객관성은 '정확한 사실보도'와 '다양한 관점과 견해 취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천차만별의 사안과 기사를 다루다보면 포괄적인 심의기준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현행 심의기준이 실질적인 심의활동에 참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건의했다.

선거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기사심의는 사후 징벌적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언론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공정한 보도관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제재방식이 그런 효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제재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결정은 위원회에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과문게재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상태다. 나머지 제재수단 가운데 '경고문게재 결정'을 제외한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은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적다.

특정 후보와 유착된 언론사가 작정하고 편파적 보도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장치는 마땅치 않다. 또한 일간지와 달리 발행 간격이 긴 주간지와 월간지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더라도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라는 제재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고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가 이를 자신들의 매체에 공지하도록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경고를 받는 사실만을 알리기 때문에 경고문게재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언론사 스스로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개하는 셈이어서 해당 언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언론기금 지원 심사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공적인 제재는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부분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거나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한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거나 경감 조치했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제재결정이 공직선거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떤 경우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은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밝히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제8조의3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내용심의와 관련해서는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외의 제재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보다 충실할 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이상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프로필

고려대졸
뉴욕주립대 석사
고려대 언론학 박사 수료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現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제 2 장

결산좌담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 2010. 6. 24.(목) 09: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참 석 자 명 단

양 삼 승(심의위원장, 변호사)
박 기 동(부위원장, 변호사)
박 문 용(공선협 공동대표)
원 병 설(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조 병 철(전 세계일보 주필)
한 국 연(전 CBS 상무이사)
배 정 근(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김 동 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용 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2월 1일에 구성되어, 151일 동안 자체심의 160건, 시정요구 18건을 처리했으며, 재심은 5건 청구되어 이를 심의 ·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사심의팀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설치기간 동안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사건 18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의결건수인 8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자체심의 160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지역주간지 24건, 중앙일간지 20건, 종합주간지 16건, 월간지 7건, 뉴스통신 1건순이었습니다. 결정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 91건, 경고문 게재 8건, 주의 45건, 권고 16건순이었습니다. 또한,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100건, 외부기고 금지 32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는 24건, 광고위반이 4건을 차지했습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전체 18건 중 12건에 대해 정정보도문 · 경고문 게재 등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원장 : 이는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시정요구는 약간 줄었지만 자체심의를 포함한 전체 의결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 지 10여년이 지나 심의시스템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는 건수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자체심의가 늘어난 것은 선거기사심의가 활성화 되고 모니터링도 안정화 되었다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 자체심의가 늘어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선거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지역 언

론사에서 의도성이 짙은 기사를 많이 게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선거기사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의 안건이 제4회 지방선거 때 보다 늘었다는 것은 선거보도 전반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자체심의의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선거보도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심의위원장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자체심의 안건 중에서도 해당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체별 심의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신문 중에서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매체 중에서는 경기 및 충청 지역의 언론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연 위원 : 심의 · 의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체심의 의결사항과 시정요구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알려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불공정한 보도를 방지해야 총체적인 선거기사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심의 의결건수가 늘어난 것은 심의가 활성화되고 모니터링도 안정화 되었다는 지표라고 생각 … 재 · 보궐선거에도 운영되므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화가 필요"

- 원병설 위원

김동규 위원 : 제재의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제재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와 관련된 세 기구가 연합하거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단독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정근 위원 : 매체별로 선거기사심의 기구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각 파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운영성과를 논의하는 세미나 자리를 가지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기사심의기준 중 외부기고 금지나 여론조사공표는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들이 예규로서 실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제재수위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여 집약하면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 · 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므로 상설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 … 심의위원회 상설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면 한다"
- 박문용 위원

박문용 위원 :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입후보자들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의식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덜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선거가 민주적으로 잘 마무리된 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심의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오면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개진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병철 위원 :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수위가 신속하고도 강력해야 할 것인데, 이는 언론자유의 신장과는 상충되기도 합니다. 외부기고 금지와 광고제한과 같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1차에서 바로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선거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법령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천되거나 낙선할 것을 예상한 후보자가 상업성을 띤 영세한 지역 언론과 공모하여 불공정한 보도가 나가는 경우 처음부터 제재수위를 높여 선거기간 중에 그러한 보도가 중단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준상설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후 운영성과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의미있을 듯 … 특정 후보자만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

- 배정근 위원

배정근 위원 : 심의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기사는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는 기사였으며, 이슈와는 무관하게 한면 전체를 인물 홍보성 내용으로 채우는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를 했습니다.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일정 시점부터는 이런 형태의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이번 선거보도에서 최악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일 것입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 기준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여론조사가 잘못 실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심의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집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보도로 인해 언론사도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언론사가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보도로 인해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

- 김동규 위원

조병철 위원 : 한국의 여론조사는 조사기법의 수준이 높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정파성도 강합니다. 여론조사에는 중립성이 중요한데, 외형적으로는 중립성을 지키지만 의뢰기관의 성향과 구미에 맞게끔 조사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한데,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언론이 자기의 의견에 유리한 것만 인용하면서 출처를 안 밝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부정확하게 인용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언론사에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해주고 해당 조항을 조금 더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장 : 외부기고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망설임 없이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사된 여론조사결과를 정확히 보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불공정한 보도 방지해야 선거기사 질도 향상될 듯…제재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권고와 주의를 통합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연 위원

한국연 위원 : 제재종류에는 권고, 주의, 경고, 경고문게재, 사과문게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단계의 권고와 주의는 하나의 제재로 합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권고와 주의로 나누어 제재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면 권고와 주의는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철 위원 : 제재종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제재내용을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 기사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토록 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에 임박하여 보도의 영향력이 커지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문 게재를 상중하로 나누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선거일로부터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언론사의 자유를 존중하여 강한 제재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재가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세한 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보도 보다는 선거를 통한 영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하거나 예방이 중요할 것인데, 언론현실을 생각해보면 예방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연 위원 : 경고문 게재 외에도 제재의 내용을 간단히 공지하도록 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철 위원 : 제재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보도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매체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심의단계에서부터 이 차이를 고려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한다…심의기구 통합은 매체별 심의의 차별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

- 이용성 위원

심의위원장 :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권고, 주의, 경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므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정도만 간단히 제재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주의와 권고는 실효성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언론사에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과 형식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해야 위원 구성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심의할 수 있을 듯"

- 박기동 부위원장

박기동 부위원장 : 심의기준은 제재수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내부적인 효력만 있는데, 법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해두면 다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위원구성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로 하여금 제재 받은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 도입 필요 … 부정확한 여론조사 부정확하게 인용해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 악순환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조병철 위원

이용성 위원 :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도 적용되는데, 매번 결산좌담회 때마다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고 새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심의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매체별의 차이인데, 예컨대 정간물의 경우 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매체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심의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하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됨으로써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나뉘어져 있고 심의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 심의에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선거기사심의기구를 통합하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체별 차이에 따라서 각기 심의하고 있는 3개 심의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깨질 우려가 있어서 상설화 문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뒤에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상설화 문제에 대해 이용성 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매체 간 특성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상설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설화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통합은 매체 간 특성이 있어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지만, 상설화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상 설치기간이 단절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주요 선거 시에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재·보궐선거 시에도 운영이 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상설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연 위원 : 심의기준의 형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에 양형기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심의·의결 유형을 잘 분석해 향후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의기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듯"

- 양삼승 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 : 원론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활발히 논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언론사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내부적인 판단 기준에 맞게 적절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도 그러하듯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나친 세분화는 판단의 재량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호 의논하고 양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법원 판례가 쌓이는 것과 같이 결정 유형을 잘 모아서 차후 심의 · 의결 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 1 장

자체심의

1. 경고결정문

의 결 번 호	2010지선10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나주투데이 전남 나주시 이창동 191 대표이사 이 민 교
심의대상기사	나주투데이 2010년 3월 1일자 1면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및 2010년 3월 8일자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및 2010년 3월 15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및 2010년 3월 22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식회사 나주투데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나주투데이〉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3월 22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사의 부제목("혁신도시 · 민생정치 반드시 지키겠다")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 후보예정자인 주향득 씨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등 주 후보의 출마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3.1.자 1면 「신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2010.3.8.자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2010.3.15.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2010.3.22.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여성정치인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와 관련, 본지가 주향득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주 후보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주향득씨 "출마하라" 여론 급물살

(전략)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시장의 명예회복과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부인인 주향득씨를 후보로 내세워야한다며 추대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시민들도 주향득씨의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정가가 주씨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후략)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전략)많은 이들이 신 시장 못지않은 능력과 출중한 지혜로 조직을 이끌어 오는데 내조를 해 온 검증된 그의 부인 주향득씨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능력과 조직 장악력으로 치자면 그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게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투수처럼 보인다.(중략)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무주공산 노린 시장선거 요동칠 듯

주향득씨 "출마하라" 여론 급물살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신정훈 시장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시장직위를 잃으면서 나주시정 운영방향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화해법인 조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금고형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무주공산"을 노린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단 우의동 보이는 전라나주 부소속 시장으로 당선됐던 신 시장의 복귀로 민주당이 절호의 설욕 기회를 맞으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신 시장 낙마로 일단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제소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경선이 조기 과열되면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시장후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던 김대동 전 시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대통 공식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의 결집이 약해질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는 무리는 수십억원을 썼다는 소문이 분분하고 돈 없이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금품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무소속인 신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 조직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시장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동력을 뒤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때는 공식입장을 밝힌 지는 않고 있지만 신 시장을 대신할 후보로 누가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 부시장과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홍석대 전남도건설방재국장을 영입하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시장의 명예회복과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부인인 주향득씨를 후보로 내세워야한다며 추대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시민들도 주향득씨의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정가가 주씨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신 시장은 화해법인 조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부정보 유죄판결받은 2천 지급에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8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김민주기자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논설위원 김 노 금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든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면 억지스럽다. 주향득 그는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의 꾸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나주 시민들의 의식 속에 나주시장감으로 이미 그녀가 인식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후략)

주향득 나주시장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잔략)추대위는 신정훈 전 시장과 함께 나주에서 20여 년 동안 농민운동을 하며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향득씨를 나주 시장 시민후보로 추대키로 했다.

이들은 신 전 시장이 수많은 고소고발 등 반대

주향득 나주시장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나주시민 500여명 왕곡자택방문

시민과 추대위 간절한 뜻 거절하기 힘들듯

세력의 발목잡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농민이 잘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농민들을 위하고, 나주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대위는 "주향득 씨는 신 전 시장의 농정개혁과 민생중심의 지방자치를 계승할 적임자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들의 꿈을 실현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추대위는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삶의 문제를 정치의 의제로 만드는 우리시민 모두의 희망과 꿈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더욱 가꾸어 가기 위해 주향득 씨가 가장 믿음직하고 소신 있게 밀고 갈 후보라"고 강조했다.(중략)

이날 시민들과 추대위의 후보추대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시민과 추대위의 간절한 뜻을 거절하기 힘들것으로 알려져 주향득씨가 출마를 선언하면 시장선거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86년, 89년 두 차례 투옥,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

(전략)89년 구속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수세 강제징수에 항의하다. 잡혀간 신정훈을 면회하러 갔다가 즉석에서 수감된 것이다. 이를 두고 농민회원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냐?"고 놀려댔다. 이듬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출마 결심
무소속연대 통한 지방자치 실현 의지 천명

나주시장 예비후보

수세투쟁 최후진술 피울내며 마음 추슬러

시민의 꿈과 희망 당리당략에 좌초 위기

민의 외면하는 지역패권주의 이젠 안녕

맨주먹 맨노동자처럼 행복한 삶 지킨 터

■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86년, 89년 두 차례 투옥,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

출마 결심케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해 두 사람은 동지적 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 한 길을 걷게 된다.

주향득을 말할 때 2001년 '쌀 생산비 보장'을 외치며 농협중앙회 정문에서 8시간 동안 철제셔터에 매달렸던 고공시위는 지금도 빠질 수 없는 일이다.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셔터문에만 매달려 있는 주 예비후보에게 건강을 염려해 내려올 것을 권유하던 재야대표도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농민생존권 투쟁의 현장에서 이처럼 몸을 아끼지 않았기에 지금도 주 예비후보의 이름 앞에는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이 붙어있다.

주 예비후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농사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대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자식만은 농사를 안 짓게 하겠다"며 광주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켰지만, 어머니가 몸져누우면서 대신 농사를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 농사를 '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주 예비후보의 아버지는 주씨가 계속해서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했다.(중략)

농민운동으로 다져진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도 인정 많고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민의 신망을 받았던 주 예비후보가 딸 같고 며느리 같이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나주의 여성정치인들

(전략)나주시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강력한 수락 촉구에 몇 번이나 거절했던 주향득 그가 이제로 나주시장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지역의 원로요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팔순이 진득 넘으신 한두현 전 나주시 노인회장과 오양호 전 남 도의원이 수락을 촉구하는 공동 상임대표를 맡은 부분이 어쩐지 크나큰 무게감으로 와 닿는다.

이미 전남은 화순과 장성에서 남편의 후광을 업은 여성자치 단체장이 선출된 예가 있다. 그러나 주향득 후보는 남편 신정훈을 만난 20수 년전부터 어렵고 소외된 이 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조직을 꾸려온 검증된 후보임에 마음이 놓인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세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주를 지켜가도록 그를 지키하는 모든 이에게 주향득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화답해 줄 것인지 자못 기대가 된다.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여성정치인들

논설위원 김 노 금

결정 후 보도문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3.1.자 1면 「신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2010.3.8.자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2010.3.15.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2010.3.22.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와 관련, 본지가 주향득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주 후보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에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2(자심)
언 론 사	(주)호남매일신문사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대표이사 구 양 술
심의대상기사	호남매일 2010년 5월 4일자 7면『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매일〉 7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고영을 광주시 교육감 후보")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여성 최초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 부터 2010년 5월 4일자 4면 (친밀함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광주시교육감)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5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만을 한 개면 전체에 소개하며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경력 및 활동상황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 고영을 광주시 교육감후보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교육 복지에 투자
공교육 살리는 길 올인, 교원잡무 대폭 축소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적임자' 임을 주장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에 여념 없다.

특히 올 지방선거는 지난 민선 4기때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까지 직선제로 뽑게돼 적잖은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과거 교육위원들만의 투표권이 시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마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저마다 각축전을 벌이며 멀고 먼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기한 공약이나 비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고영을 광주시 교육감후보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도모"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 교육 복지에 투자

공교육 살리는 길 올인, 교원잡무 대폭 축소

올해부터 민선 5기 광주시 교육감도 직접선거로 뽑는다. 거기에 여성 교사 출신인 고영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과거 교육위원이나 시의원 등에 여성들이 일부 진출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번처럼 여성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는 초유의 일이다. 출마의 변에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편집자 주

전 제시는 여타 선거와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을 되풀이 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 초반부터 식상한 분위기다.

상황이 이러니 교육감 선거 후보는 눈길조차 주어지지 않은 분위기다.

담장에 자녀를 두고 학교와 밀접하게 살아 가는 학부모들 조차 매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선거 초반부터 관심을 사고 있는 후보가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중 유일한 홍일점 후보이자 스스로를 '엄마교육감'이라 자처하는 고영을 씨(사진)가 주인공.

우선 우리네 정서상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교육감 후보에 여성이 당당하게 나선것도 그렇지만 된장내음 나는 친서민적 정책이 유독 눈에 들어 온다.

그녀가 애써 교육감직에 출사표를 던진데는 실제 일선학교교사(중등)로 32년간 재직하다 느낀 경험을 살려 보다 차원 높은 미래교육을 구현하고 싶어서다.

타성에 젖은 교육환경의 구태를 없애는데는 무엇보다 일선의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물론 타 후보들의 교단 경험도 없지는 않으나 가장 최근 까지의 교사생활을 접고 바람직한 교육행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접목시키려는 용기는 찬사받을만 하다.

여기다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을 준다.

'엄마교육감'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교육자라는 영역에 안주하기 보다 학부모 시각에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거기엔 요즘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공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보고자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말로만 강조하는 대안 제시보다 그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은 더 한층 이채롭다.

지금까지 주 한, 두시간에 그치는 형식적인 방과 후 학습에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그녀가 실제 교단에서 느낀 '과중한 잡무'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는 것.

학생들을 위한 교육현장이 온통 교육 외적인 잡무로 일관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조교사제를 충원하고 행정 보조 시스템을 가동,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하여 '교단 로드맵'을 제시 했다.

이 같은 고후보의 공약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평소 "교사들이 학생을 위한 교안연구나 교과연구, 교외지도 등에만 나설수 있도록 미국의 시스템처럼 수석교사와 조교제를 시급하게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

벌써부터 교과부의 움직임과 이런 비전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경우 가능성은 얼마든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 부터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광주시 교육감)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5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만을 한 개면 전체에 소개하며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경력 및 활동상황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3(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4월 20일자 9면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신문〉 9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 '변화와 발전' 내건 젊은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업적 및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4.20.자 9면 『'힘있는 여당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전면에 게재하며 후보자의 출마 사유, 주요 업적, 학력,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서울대와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하버드대 초빙연구원, 연세대 연구교수, 동경대 객원연구원 등으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학력과 경력을 가졌다.

그가 잘 나가던 교수직을 버리고 누군가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광주시장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중략)

- 그 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워낙 민주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유가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온 만큼 광주시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상가 방문을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에 주

력하느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서민들을 직접 만나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광주지역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인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TV토론도 민주당 후보들만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도도 민주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광주시민 모두를 위해 보편타당한 소식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를 보도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광주시민에게 민주당 이외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하게 말하면 언론사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여당 후보를 배제하는 보도행태는 광주를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 후보를 무시하는 언론의 행태는 광주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시대정신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한나라당이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이 한나라당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변화와 발전' 내건 젊은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한나라당 후보로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 광주에 출마한 이유는?

-공주시에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 생각이십니까.

-금호 항을 끼고 나니까 이번에는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 등에 대한 부도 도미노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에 대해서도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집권여당에 지역 이익 대변할 사람 없어 '출마'

광주지역 언론 보도 민주당 집중 '편파'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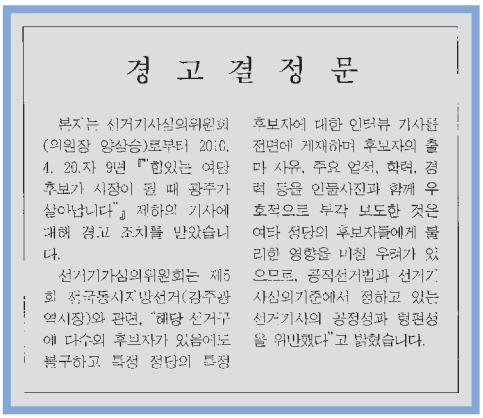
남양 부도사태 청와대에 적극적 지원 대책 촉구

지, 시대정신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0%대를 넘나들고 있고, 광주에서도 20~30%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한나라당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또 저 정용화가 광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광주의 미래는 광주시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에게 광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출마를 포기한 박광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중앙당이 원하는 사람이 광주시장이 되는 어쩌구니 없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정체되어 있는 광주, 사람들이 떠나는 광주, 민주당만 신경쓰는 시장을 원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잘 사는 광주, 당당한 광주, 세계속의 광주를 원하신다면 저 힘잇는 여권 후보인 정용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 현명하고 당찬 광주시민들의 현명한 결단을 믿습니다.

결정 후 보도문



경 고 결 정 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 4. 20.자 9면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전면에 게재하며 후보자의 출마 사유, 주요 업적, 학력,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4(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4월 19일자 1면 『"잘 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2010년 4월 28일자 1면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10년 4월 30일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신문〉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4월 30일자 1면 기사의 부제목("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소식과 주요 공약, 특별 공약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면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4.19.자 1면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2010.4.28.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3차례에 걸쳐 1면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이청 장성군수가 6·2지방선거를 위해 16일 장성군선관위에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청 군수는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선을 위해 무소속 현직 군수로는 첫 주자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청 군수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포부와 비전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거짓 없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청 군수는 지난 2007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2년 반 동안 군정을 이끌어 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6월 2일 선거 직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청 군수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첨단 농업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채비'

무소속 현직 군수로 본 선거전 첫 출발 신호탄

'이제 인물로 심판하는 시대' 깨끗한 선거 제안

'원스톱 건강 천국'·테라피밸리 조성 등 제시

이청 장성군수

'전국 유일' 여성 군수

2년 반 동안 군정 수행

낙후 장성 획기적 개선

이청 장성군수가 6·2지방선거를 위해 16일 장성군선관위에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청 군수는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선을 위해 무소속 현직 군수로는 첫 주자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청 군수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포부와 비전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거짓 없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청 군수는 지난 2007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 전국 유일의 여성 군수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2년 반 동안 군정을 이끌어 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6월 2일 선거 직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청 군수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침단 농업 소득원의 개발, 대대적 지원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원스톱 건강 천국' 실현 ▲기업 유치 TF전담반 구성, 일자리 창출 유도 ▲축령산 치유의 숲, 테라피밸리 조성 ▲황룡강의 문화.건강 공원화 사업 추진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 등 관광지개발 ▲600만 장성 관광객 유치 선언 등을 내걸었다.

이청 군수는 재임 기간동안에 낙후된 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의 국비를 이끌어온 것을 비롯, 군단위 전국 최초 국민임대아파트 800세대를 유치하고, 첨단 나노산단 조성과 500억 토지매입 자금 확보, 전남 최초의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광역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국고지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현재 무소속으로 춤마를 선언한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은 이청 장성군수를 비롯, 황주홍 강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성웅 광양시장 등이며 광주광역시에서는 황일봉 남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와함께 무소속 후보군으로서 강력한 주자들로 부상하고 있는 송병태 국민참여남 광산구청장 후보(전 광산구청장),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 임호경 전 화순군수, 신정훈 나주시장의 부인 주향득 후보, 전경배 전 구례군수 등이 예비후보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10여 곳의 강력한 주자들이 최근 알고 있는 민주당 각성론에 힘입어 무소속 연대본 등을 펼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민철 기자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농업 우대정책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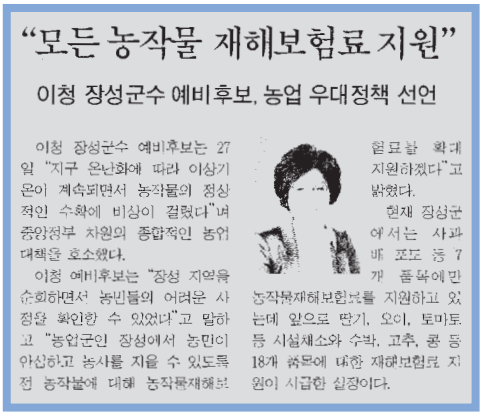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에 비상이 걸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업대책을 호소했다.

이청 예비후보는 "장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농업군인 장성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7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와 수박, 고추, 콩 등 18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설정이다.

소득원의 개발, 대대적 지원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원스톱 건강 천국' 실현 ▲기업 유치 TF전담반 구성, 일자리 창출 유도 ▲축령산 치유의 숲, 테라피밸리 조성 ▲황룡강의 문화, 건강 공원화 사업 추진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 등 관광지개발 ▲600만 장성 관광객 유치 선언 등을 내걸었다.

이청 군수는 재임 기간동안에 낙후된 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의 국비를 이끌어온 것을 비롯, 군단위 전국 최초 국민임대 아파트 800세대를 유치하고, 첨단 나노산단 조성과 500억 토지매입 자금 확보, 전남 최초의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광역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국고지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후략)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농업 우대정책 선언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에 비상이 걸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업대책을 호소했다.

이청 예비후보는 "장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농업군인 장성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7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와 수박, 고추, 콩 등 18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

이청 장성군수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장성의 경우 4만 7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어르신층"이라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실버권리주장을 선언했다.

이 군수는 "65세 이상 어르신층이 10년 뒤에는 150만명, 20년 뒤에는 2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는 경제적 궁핍, 외로움, 질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 들이 공동생활 중심의 일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 후보는 공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순차적으로 펼치며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반찬비와 김장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원과 읍면 단위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완벽 어르신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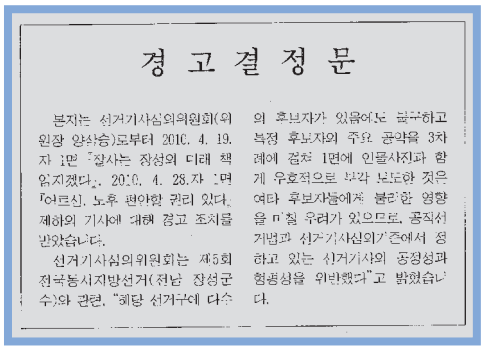
이청 장성군수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장성의 경우 4만 7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어르신층"이라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실버권리주장을 선언했다.

이 군수는 "65세 이상 어르신층이 10년 뒤에는 150만명, 20년 뒤에는 2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경제적 궁핍, 외로움, 질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 들이 공동생활 중심의 일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 후보는 공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순차적으로 펼치며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반찬비와 김장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원과 읍면 단위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완벽 어르신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후 보도문



경 고 결 정 문

본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 4. 19.자 1면 「잘사는 장성의 디딤 책임지겠다」, 2010. 4. 28.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3차례에 걸쳐 1면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6(자심)
언 론 사	유한회사 강진고을신문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25 대표이사 이 원
심의대상기사	강진고을 2010년 4월 21일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2010년 4월 28일자 1면 『황주홍군수 55% 확실한 1위』,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학대에 성공』, 2010년 5월 5일자 1면 『"당 보다는 사람을 선택"』 및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유한회사 강진고을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강진고을〉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4월 28일자 3면 기사의 제목('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학대에 성공)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 및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3주에 걸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회 양삼승)로부터 2010. 4. 21.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 성공』, 2010. 4. 28자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2010. 5. 5.자 1면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의 재임 중 지역교육 성과, 활동상황, 인터뷰 등을 담은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3주간 4회에 걸쳐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 성공

(전략)◆ 황주홍 군수 '강진교육 살리기' 승부수

정치학 박사로 건국대 교수 출신인 황주홍(59) 강진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를 "침체된 강진교육에 새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 군수 중 유일한 교육군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2004년 취임하자마자 황 군수는 "교육으로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2005년 4월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군민들의 기부가 일상화되면서 매년 20억원이 모였다. 군민 4만2000여명 중 9000여명이 10만원 미만의 쌈짓돈으로 참여했다.(중략)

자신은 못 배우고 가난해도 자식·손자는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군민의 염원이 쌓인 것일까. 농어민·식당주인·공무원·교직원·기업인·군인·경찰·독거노인·출향인사 등 각계 각층에서

정성을 보탰다. 이렇게 모은 장학기금이 설립 4년 만에 기금액 100억원 돌파해 현재 180억원에 달한다.

수능 1등급 전국 29위… 강진교육 성공 비결은?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해 지역교육 정상화 견인

장학재단은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비롯해 원어민 강사 지원, 축구 꿈나무 육성, 중3 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 등 지역 교육발전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고교 졸업생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에 합격하면 4년 동안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다양한 교육여건이 제공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힘으로 공교육을 살려낸 강진군의 기적은 4만 군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학생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군수 55% 확실한 1위

(전략)황 군수의 압도적 우세는 ‘현직 프리미엄(premium)’으로 분석된다. 외생적 변수가 발생해도 지지도 흐름에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안정된 지도자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의 심리, 또 지방행정은 주민 생활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와는 별개로 생각하려는 유권자의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직인 황 군수에게 유리한

강진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

황주홍 군수 55% 확실한 1위

2위 강진원 후보 28.1% 기록

‘황주홍 대세론(大勢論)’ 굳어져

국면이 전개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진군수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진의 ‘바닥 민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결국 6·2 강진군수 선거가 황주홍 현 군수의 대세론으로 굳어질 공산이 매우 커졌음을 방증(傍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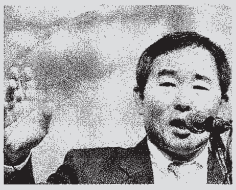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황주홍(59) 강진군수를 생각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강진군민장학재단’, ‘스포츠마케팅’, ‘깨끗한 공무원인사’, ‘공무원 드림팀제’, ‘군정 일기’, ‘무소속’ 등의 이미지들이 줄줄이 연상된다.

황 군수의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황군수는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 ‘범국민적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주도하면서 ‘스타 군수’로 대중에게 이미 각인됐다.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교육복지로 새로운 기대와 지지층을 불러 모아



황주홍(59) 강진군수를 생각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강진군민장학재단’, ‘스포츠마케팅’, ‘깨끗한 공무원인사’, ‘공무원 드림팀제’, ‘군정 일기’, ‘무소속’ 등의 이미지들이 줄줄이 연상된다.

황 군수의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황 군수는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 ‘범국민적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주도하면서 ‘스타 군수’로 대중에게 이미 각인됐다.

여기에 지역민들에게 황 군수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인 똑똑함과 부지런함의 이미지까지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강력한 포스(force)를 발휘하고 있는 황 군수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지난해 9월 이후 정책 및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GH KOREA, 아이비정보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황 군수의 현실과 미래를 암시하는 주요 텍스트(text)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주홍 군수가 ‘부동(不動)의 1위’에 랭크됐다. 강진 ‘민심(民心)’이 이대로면 가히 ‘황주홍 대세론’으로 읽힐 만하다.

‘대세론’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황주홍 독주(獨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황 군수는 누가 지지하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연령·직업·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지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황주홍을 지지했던 계층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20·30대에서 황 군수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즉, 황 군수 지지층의 외연(外延)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지지층을 확장시킨 것일까.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을 주도하며 보여준 소신있는 모습이다. ‘신뢰’와 ‘약속’이란 키워드(keyword)를 일관되게 노출하며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은 분명 ‘스타군수 황주홍’을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이 정치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 하나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단있는 모습’이란 기준을 만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황주홍의 새로운 컨텐츠(content)’이다. 2005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지역 사회에 선보이기 시작한 ‘교육(敎育)’과 ‘복지(福祉)’라는 컨셉(concept)이다.

일종의 ‘선점 효과(first mover’s advantage)’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 출신인 황 군수가 ‘교육복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대와 지지층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지금까지 황 군수의 행보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6·2 지방선거까지는 37일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황 군수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관건은 역시 ‘황주홍 컨텐츠’이다.

주요한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이 제기됐을 때 황 군수가 기존의 이미지를 확대 보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황 군수의 지지율은 또 다시 변곡점을 그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승환 기자

여기에 지역민들에게 황 군수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인 똑똑함과 부지런함의 이미지까지 심어주었다.(후략)

황주홍 강진군수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4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황주홍 강진군수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4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황주홍’이란 홍보 문구를 크게 내걸었고종일 지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질 않아 행사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황후보는 “89세 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데, 5만 군민을 어머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고 자평하고 “어머님께서는 출근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5년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는 5만 군민의 희망사항이며 5천만 국민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고향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곽창옥 선거사무장의 멘트에 따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열기로 가득 했으며 끝까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 했다.

〈송하훈 기자〉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황주홍’이란 홍보 문구를 크게 내걸었고 종일 지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질 않아 행사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황부호는 “89세 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데, 5만 군민을 어머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고 자평하고 “어머님께서는 출근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5년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는 5만, 군민의 희망사항이며 5천만 국민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고향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곽창옥 선거사무장의 멘트에 따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열기로 가득했으며 끝까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무소속 황주홍 후보

(전략)4일 “민생(民生)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무소속 황주홍(59) 군수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이슈의 키를 쥔 중심인물로 부각(?)

사상 최초로 강진군수 3선(選) 도전에 나선 황 후보는 현역 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오는 6 · 2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키(key)를 쥔 중심인물로 부각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명참모 중의 하나로 1997년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 과정에도 깊숙이 간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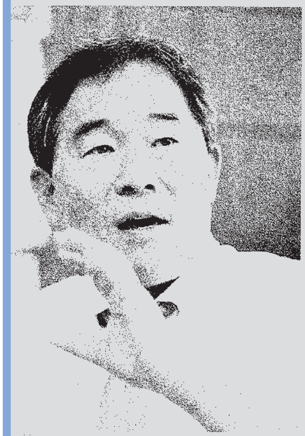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회 정책연구실장(1급)과 아태평화재단 기획실장 등으로 활동하다 중앙 정치무대의 ‘전략가(戰略家)’로, 대학교수로, 그리고 민선 강진군수로 그가 보여준 모습이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황주홍 후보를 검색해 보면 관련 검색어가 눈길을 끈다. 통합검색을 했을 경우 강진군수, 건국대 정외과 교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등이다.

반면 뉴스검색을 했을 경우 스타 군수,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고려청자 세일즈’ 나선 황주홍 군수, 스포츠 마케팅 등이다.(중략)

그와의 인터뷰는 모처럼 만의 유쾌, 상쾌, 통쾌한 인터뷰였다. 5월 4일 오후 6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막 끝난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지만, 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무소속 황주홍 후보

이슈(issue)의 중심인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가시방석이 아닐까.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철학과 소신대로 자기 할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 남들은 ‘무모한 사람’, 자신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4일 “민생(民生)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무소속 황주홍(59) 군수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이슈의 키를 쥔 중심인물로 부각(?)

사상 최초로 강진군수 3선(選) 도전에 나선 황 후보는 현역 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오는 6 · 2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키(key)를 쥔 중심인물로 부각됐다.

그는 고(故)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명참모 중의 하나로 1997년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 과정에도 깊숙이 간여했다.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회 정책연구실장(1급)과 아태평화재단 기획실장 등으로 활동하다 중앙 정치무대의 ‘전략가(戰略家)’로, 대학교수로, 그리고 민선 강진군수로 그가 보여준 모습이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황주홍 후보를 검색해 보면 관련 검색어가 눈길을 끈다. 통합검색을 했을 경우 강진군수, 건국대 정외과 교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등이다.

반면 뉴스검색을 했을 경우 스타 군수,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고려청자 세일즈’ 나선 황주홍 군수, 스포츠 마케팅 등이다.

뉴스와 검색엔진이 만들어낸 관계워레지만 ‘황주홍’이란 사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키워드(keyword)들이 아닐까 싶다.

한 누리군은 포털사이트에 ‘왜, 황주홍 강진군수는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올려놓았다. 답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70%가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 본 황주홍 후보는 “정당 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악(惡)한 제도”라며 “이를 양심적으로 거부한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모처럼 만의 유쾌, 상쾌, 통쾌한 인터뷰였다. 5월 4일 오후 6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막 끝난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지만,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는 대답과 거침없는 태도로 취재기자를 ‘울고 웃게’ 만들었다. 적당한 재치와 수다로 인터뷰 내내 분위기를 띄운 황 후보는 “편안하게 인터뷰 하자”면서도 이 날 만큼은 ‘철저히 취재대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솔직담백한 풀스토리를 풀었다.

■ 고향의 ‘가난 해방’에 관심 많은 황주홍 후보

황 후보는 누구보다 고향을 비참하게 하는 ‘가난 해방’에 관심이 많다.

2004년 10월 강진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58.7% 득표율)됐고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76.1%)에 성공한 그는 행정가로서 가난과 낙후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황 후보는 인구 4만1000여명에 불과한 강진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메카’로 키워냈다.

그는 스포츠가 피폐해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은 축구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겨울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황 후보는 강진군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적인 인프라(infra) 구축 외에 모든 군민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펼친 것을 들었다.

황 후보를 보고 있으면 ‘고군분투(孤軍奮鬪)’라는 말이 떠오른다. 낙후된 고향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걸 극복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황 후보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건 진짜 ‘검투사(劍鬪士)’였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다음은 황 후보와 일문일답.

▶ 3일 광주전남 무소속 전 · 현직 기초단체장 7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 연대선언에 노관규 순천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이청 장성군수, 함일봉 광주 남구청장과 저 이렇게 7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당들은 필요도, 명분도 없는 정당공천을 강행해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당이 아니라 지역발전 정책과 인물을 보고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

▶ 무소속 연대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나.

▷ 무소속 연대는 정당공천제의 여러 가지 폐해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무소속 연대를 꾸렸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초로 3선 군수에 도전하는데 각오는.

▷ 지난 5년 4개월간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뛰어 청자골 강진의 미래, 전남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

강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인재 육성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해 강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군민의 출산 ·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탑(one-stop)서비스 제공, 강진 청자의 세계화 추진, 스포츠 마케팅의 메카로서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강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광주일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겸 연구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선 강진군수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요 저서 및 번역서

『현대정치와 국가』(연세대출판부, 1991)
『서양정치사상』(문학과지성사, 1993)
『토니블레어 :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중앙M&B, 1998)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풀빛출판사, 2000)
『패자부활전 : 희망의 다른 이름』(풀빛, 2002)
『지도자론 :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건국대출판부, 2002)
『황주홍 교수의 미래학 산책』(조선일보사, 2002)

떤 질문에도 막힘없는 대답과 거침없는 태도로 취재기자를 '울고 웃게' 만들었다. 적당한 재치와 수다로 인터뷰 내내 분위기를 띄운 황 후보는 "편안하게 인터뷰 하자"면서도 이 날 만큼은 '철저히 취재대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솔직담백한 풀스토리를 풀었다.

■ 고향의 '가난 해방'에 관심 많은 황주홍 후보

황 후보는 누구보다 고향을 비참하게 하는 '가난 해방'에 관심이 많다.

2004년 10월 강진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58.7%득표율)됐고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76.1%)에 성공한 그는 행정가로서 가난과 낙후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황 후보는 인구 4만 1000여명에 불과한 강진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메카'로 키워냈다.

그는 스포츠가 피폐해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은 축구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겨울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황 후보는 강진군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적인 인프라(infra) 구축 외에 모든 군민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펼친 것을 들었다.

황 후보를 보고 있으면 '고군분투(孤軍奮鬪)'라는 말이 떠오른다. 낙후된 고향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걸 극복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황후보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건 진짜 '검투사(劍鬪士)'였다.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경고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 4. 21.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2010. 4. 28.자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2010. 5. 5.자 1면 『당 보다는 사람을 선택』,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의 재임 중 지역교육 성과, 활동상황, 인터뷰 등을 담은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3주간 4회에 걸쳐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9(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 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5월 25일자 1면『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및 5면『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제하의 기사
주 문	(주)충청일보 재단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신문〉 1면 우측 상단에 〈별지〉「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의 부제목(대전 · 충북 오차범위 밖 격차) 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24번에 걸쳐 1위를 차지하였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제6조(사실보도),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항 및 제14조(기사제목),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5일자 1면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 5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의 제목을 통해 특정 후보자들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한 근거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외의 차이이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한 것처럼 제목을 표기하거나 '압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행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80(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169(자심))
재 심 청 구 인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번지 충청일보 빌딩 발행인 이 규 택
재심청구대상 기 사	충청일보 2010년 5월 25일자 1면『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및 5면『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169(자심) 경고결정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 보도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한 뒤 기사화 한 것으로 기사내용에 여론조사보도 요건을 정확히 명시했으나, 대전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겠으나「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제하의 기사는 25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첨부해 기사화했기 때문에 도표를 확인한 독자라면 기사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 기사와 관련해 상대 후보측이나 일반 독자들로부터 불만제기가 없어 독자들이 잘못 판단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여지므로 원심 결정을 재고하는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결정문 게재」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한 바,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염홍철 · 정우택 · 안희정 '황금분할'

수도권과 영 · 호남권 등 비교적 판세가 뚜렷한 지역과 달리, 전국 최대 관심 선거구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중략)

각 언론사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기존 조사를 반영하면, 대전시장과 충북지사선거는 오차 범위 밖 1~2위가 고착화 될 가능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지방선거 D-8

대전·충북 오차범위 밖 격차
충남 팽팽…최대 격전지 부상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비교적 판세가 뚜렷한 지역과 달리, 전국 최대 관심 선거구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한국일보가 G1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 충북 유권자 600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4.0%p)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46%의 지지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34%를 12%p 앞섰다.

충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37.7%를 얻어 2위인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24.9%보다 2.8%p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한나라당 남해춘 후보 지지도는 17.2%에 그쳤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충북 유권자 1000명을 CATI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서도 한나라당 정우택 충북지사 후보는 43.1%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35.2%에 비해 7.9%p 앞섰다.

도 전국적인 부표의사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우택 45.3%, 이시종 37.1% 등으로 8.2%p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S의 3차례 여론조사는 △5월 3~5일(정우택 40.6%·민주당 이시종 30.9%) △5월 14~16일(정우택 43.4%·이시종 39.2%) △5월 22~23일(정우택 43.1%·이시종 35.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3~5일 9.7%p의 격차가 이시종·이재정 단일후 후인 5월 14~16일 4.2%p로 줄어들었다가 5월 22~23일 또 다시 7.9%p로 벌어지는 등 '정우택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KBS의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27%로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25.1%를 1.9%p 앞섰고, 한나라당 남해춘 후보는 15.2%에 그쳤다.

국민일보가 GH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충북 유권자 700명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7%p)에서도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50.8%의 지지율로 43.6%인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7.2%p 앞섰다.

충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38.4%의 지지율로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28.5%를 9.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기존 조사를 반영하면, 대전시장과 충북지사선거는 오차범위 밖 1~2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충남지사 선거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충청남지사 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올 25차례 실시…24:1로 이시종 앞서

올 들어 25차례 실시된 각 언론사의 충북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24번에 걸쳐 1위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이시종 후보는 단 1차례 승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우택 후보는 연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최대 21.5%p 앞서는 등 '압도적 1위'를 기록하다가 5월 13~14일 후보등록 시점에 지지율 격차가 3.2~4.2%p로 좁혀졌지만, 5월 24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최소 7.2%p, 최대 12%p로 격차를 벌렸다.(후략)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올 25차례 실시…24:1로 이시종 앞서

올 들어 25차례 실시된 각 언론사의 충북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24번에 걸쳐 1위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이시종 후보는 단 1차례 승리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정우택 후보는 연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최대 21.5%p 앞서는 등 '압도적 1위'를 기록하다가 5월 13~14일 후보등록 시점에 지지율 격차가 3.2~4.2%p로 좁혀졌지만, 5월 24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최소 7.2%p, 최대 12%p로 격차를 벌렸다. <도표참조>

정우택·이시종 후보 간 지지율 대결은 스윙보트 스마트폰 스세종시 수정 논란 스정주·정원 통합 스후보단일화 스선거운동 원칙 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등 5가지의 쟁점이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지난 2월 중 CJB 청주방송과 충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우택·이시종 후보 간 격차는 5.14%~11.7%p에 달했다. 반면, 충북대학이 지난 1월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정우택 후보를 3.6%p 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월에 실시된 한겨레신문과 충북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9%~11.9%p 차이를 드러냈고, 3월 중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8.2%p에서 최대 21.5%p 차이를 드러내는 등 여론조사 결과가 등락하였다.

1~2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우택 후보는 단 한차례 이시종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가 3월 2일 충청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21.5%p의 격차를 벌렸다. 지금까지 실시된 25차례 여론조사 중 가장 큰 격차였다.

4월에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5.7%p~15.1%p를 유지했다. 후보등록 이전인 5월 13일 이전에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6.7%p~9.0%p에 달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후보등록과 동시에 실시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동아일보=9.3%p △한겨레신문=3.2%p △KBS·MBC 4.2%p 등으로 지지율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격차가 줄어든 원인으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이른바 부활 및 수도권 아성다원화와 따른 충청권 '나비효과', 정부의 행나라당 내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 강행 움직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최소 7.2%p~최대 12%p 15으로 또 다시 격차를 벌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우택·이시종 후보 간 정책·공약·인물 대결이 본격화된 데다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바닥에 쌓여있던 각 후보진영의 중심전략이 유권자 등에게 노출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4주는 정두가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23~24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이후 실시된 여섯인 2~3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결정 후 보도문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5일자 1면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5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의 제목을 통해 특정 후보자들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한 근거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외의 차이이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한 것처럼 제목을 표기하거나 '압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6(자심)
언 론 사	(주)내외엔이더불유에스(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5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박 길 덕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0년 5월 6일자 6면『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양태흥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
주 문	(주)내외엔이더불유에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내외일보〉 6면에 〈별지〉「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6일자 6면『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의 부제목("필요한 사항 빠짐없이 점검할 것")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사업 추진계획 및 발주 공사 지역쿼터제 도입에 대한 주요 공약을 2차례에 걸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6일자 8면 '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 '양태흥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심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지방)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3명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2차례에 걸쳐 인물사진 등과 함께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양태흥(사진)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구리뉴타운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공약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조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팀은 주민이 불투명하고 비리로 얼룩진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태흥 예비후보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준비하는 자세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실천방안도 갖추고 시민들게 내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성을 갖춘 책임있는 공약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흥 예비후보, " '지역쿼터제' 도입"

발주공사 관내업체 최대 49% 의무적 참여

구리시 양태흥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7일 구리시장으로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최대 49%를 구리 관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쿼터제 도입은 지난 4년간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안기식의 석연찮은 계약으로 인해 구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주를 가거나 패해의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

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필요한 사항 빠짐없이 점검할 것"

양태흥(사진)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구리뉴타운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공약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조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팀은 주민이 불투명하고 비리로 얼룩진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태흥 예비후보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준비하는 자세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실천방안도 갖추고 시민들께 내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성을 갖춘 책임있는 공약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 기자

양태흥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발주공사 관내업체 최대 49% 의무적 참여

구리시 양태흥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7일 구리시장으로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최대 49%를 구리 관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쿼터제 도입은 지난 4년간 다소 형평성에 맞지않게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안기식의 석연찮은 계약으로 인해 구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주를 가거나 피해의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의 업체들이 구리시에 입점해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구리시를 아끼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

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의 업체들이 구리시에 입점해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구리시를 아끼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원장 양삼승)으로부터 2010년 5월 6일자 8면 '양태흥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 '양태흥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심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3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2차례에 걸쳐 인물사진 등과 함께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7(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92번지 두손브랫슬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5월 26일자 14면『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제하의 기사
주 문	(주)우리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우리일보〉 1면에 〈별지〉「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 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26일자 14면『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제하의 기사 제목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우리일보는 2010년 5월 26일자 14면『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제하의 기사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교육감)와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논평을 게재했으나,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26일자 14면『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장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토론기회조차 박탈',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교육감)와 관련, '특정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 '인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대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알려왔습니다.

보도내용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흑백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최첨단 3D TV에 재현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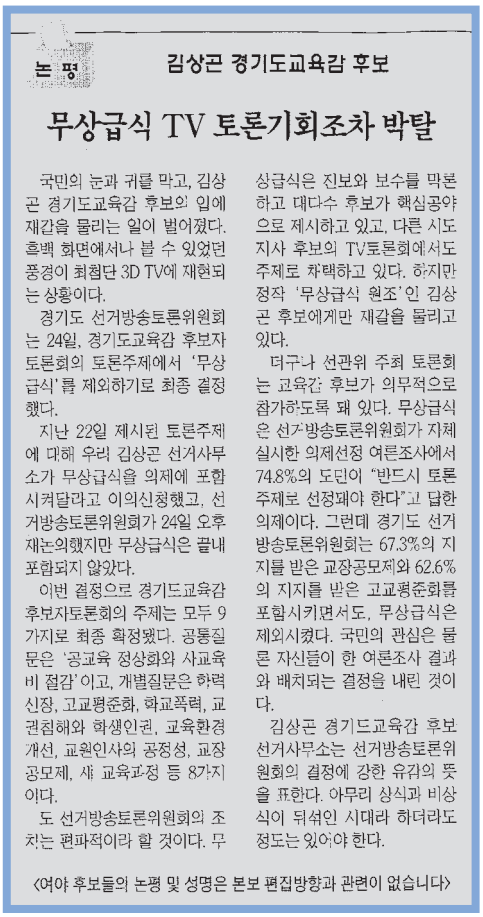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2일 제시된 토론주제에 대해 우리 김상곤 선거사무소가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4일 오후 재논의했지만 무상급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9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고,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는 편파적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상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교육감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인 도민이 "반드시 토론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답한 의제이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를 받은 교장공모제와 62.6%의 지지를 받은 고교평준화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 국민의 관심은



논평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흑백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최첨단 3D TV에 재현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2일 제시된 토론주제에 대해 우리 김상곤 선거사무소가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4일 오후 재논의했지만 무상급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9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고,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는 편파적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상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교육감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의 도민이 "반드시 토론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답한 의제이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를 받은 교장공모제와 62.6%의 지지를 받은 고교평준화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 국민의 관심은 물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무리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인 시대라 하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의 논평 및 성명은 본보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보신당 인천시장 성명서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기사제보 · 광고문의 ☎ 813-6699

물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선거사무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무리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인 시대라 하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진보신당 인천시장 성명서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진보신당은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후보자 초청 MBC TV토론회에 인천시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해 토론회를 개최를 원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안 후보와 민주당 송 후보에게 공식요청 했으나 유독 송 후보만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해 왔다.

송 후보 측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되지만 흑색선전하는 백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송 후보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 15일(광복절)~20일 당시 열린우리당 386의원 5명과 베트남을 방문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성접대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상승)로 부터 2010년 5월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토론기회조차 박탈',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교육감)과 관련, '특정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 '인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알려왔습니다.

2. 경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4(자심)
언 론 사	(주)뉴스저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6층 대표이사 박 상 민
심의대상기사	뉴스저널 2010년 2월호 108~109면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및 110~111면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없이 후보예정자인 현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학력 · 경력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이지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상임위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 1백억원을 삭감하여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 등으로 반영하여 주목을 받았다.

예산안 심사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안정망 차원의 공공일자리를 더욱 늘려가야 한다며 경기침체와 내부수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중략)

한편, 이지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특위활동을 펼쳤다.(중략)

이 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강동은 서울 동부권의 관문이며 중심지역이면서도 경제활동 규모나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나 강동이 처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뛴 결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후략)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앞으로는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 상환이 한결 여유로워 진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봉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 조례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고등교육 및 학비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자금대여제도가 청년실업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북도 호벌치전투에서 3부자가 전사, 병조판서로 추서된 채홍국 호남의병대장의 15대손이기도 한 채봉석 의원은 초등학교 때 전북 부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 섬유산업 CEO로 활동해오다 서울시의원이 되었다.

그는 서울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서는 늘 깐깐한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낭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후략)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위원장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서울시의회 채봉석 의원

의 결 번 호	2010지선5(자심)
언 론 사	시사매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7 시사매거진 B/D 3층 대표 김 길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매거진 2010년 2월호 38~39면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이념, 경력 등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로 옛 명성 찾기 위한 초석 될 터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과 그의 행정부 출범이 크게 이슈화 된 것은 미국정치 역사에 처음을 장식하는 흑인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이 선택한 그들의 리더가 너무도 젊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30대의 도지사를 비롯해 20대 여성 초선의원이 지역구의 중역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되는 등의 파란이 일고 있다. 세계의 정치가 젊어지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동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키워드를 젊은 인재들의 트인 생각과 과감한 도전정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 정치지도자 바람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문화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동대문구 개발프로젝트 기획으로 지역민들의 삶 업그레이드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계의 블루칩으로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정치의 기초를 쌓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가 차세대 젊은 정치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치이념에 있어서도 남다른 자기고집을 과시한다. 그가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이다. 그동안 이어져오던 권위주의적 태도를 타파하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런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하우를 발휘하여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최근까지 각종 지역현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

출하고 있다.

고 의원의 지역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곳, 바로 동대문구다. 대형 재래시장이 많은 이곳은 한때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가장 부유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서울의 명소였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런 과거의 영광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철저한 장 · 단기 계획과 이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리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대문구의 경우, 철저한 계획 수립의 미흡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을 제댈 알고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의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고 의원은 이런 아쉬움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개발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역민들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중략)

젊음이 만들어 나가는 정치문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보좌관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22년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자신이 의정활동을 직접 할 수 있기까지 국회에서부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전 세계 160여개 도시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국제적 환경과 국회 경험은 의정활동에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노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보낸다. 이 밖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현안에 발벗고 나서 의회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고 의원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48시간처럼, 일분 일초 시민과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실천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 정치에서 과감히 젊은 리더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고정균 의원, 그가 만들어갈 동대문구 미래 도시의 모습이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로 옛 명성 찾기 위한 초석 될 터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과 그의 행정부 출범이 크게 이슈화 된 것은 미국정치 역사에 처음을 장식하는 흑인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이 선택한 그들의 리더가 너무도 젊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30대의 도시사를 비롯해 20대 여성 초선의원이 지역구의 중역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되는 등의 파란이 일고 있다. 세계의 정치가 젊어지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동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키워드를 젊은 인재들의 [illegible] 생각과 과감한 도전정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 정치지도자 바람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문화와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동대문구 개발프로젝트 기획으로 지역민들의 삶 업그레이드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계의 [illegible]으로 젊은 시선부터 차근차근 정치의 기초를 쌓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가 차세대 젊은 정치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치이념에 있어서도 남다른 자기고집을 과시한다. 그가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이다. 그동안 이어져오던 권위주의적 태도를 타파하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illegible]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런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하우를 발휘하여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최근까지 각종 지역현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고 의원의 지역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곳, 바로 동대문구다. 대형 재래시장이 많은 이곳은 한때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가장 부유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서울의 명소였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런 과거의 영광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철저한 장 · 단기 계획과 이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리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대문구의 경우, 철저한 계획 수립의 미흡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의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고 의원은 이런 아쉬움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개발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북권 르네상스의 실현, 살기 좋은 명품도시

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구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청량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illegible] 이루고 있는 도시 사업은 청량리 지역의 개발을 통해 현재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타파하여 인구의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과 또 하 [illegible]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비롯해 축구장, 15~20층 높이의 지하도시를 건립해 시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이 고정균 의원의 야심찬 계획이다.

현재 서울특별시탁구협회장인 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가슴깊이 사랑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illegible]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청량리역-석계역 구간 1호선을 지하화하고 폐선 부지의 지하철 선로를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8월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되고 주변 청량리 역세권에 60층, 40층 이상 고층건물의 멀티시티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역세권 인프라로 인해 향후 약 35만 명의 유동인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 의원은 이곳에 대규모 15~30층 깊이의 청량리 지하도시를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통한 새로운 관광 명소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세계최초의 국제규격의 지하 돔 야구장을 건설해 세계야구대회를 유치하고, 국제규격의 지하 돔 축구장을 신설해 2022년 한국 월드컵대회 유치 시, 최초의 지하 월드컵 경기 방송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활 밀집형 지하도시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동대문구 주민이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동북권 주민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던 청량리역-석계역 구간 지상전철의 지하화는 약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지금까지 주민들을 괴롭혔던 소음 방지는 물론,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상선로로 운영되던 부지는 도로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동북권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동부간선도로를 길이 없애고 중랑천을 이용한 수변문화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한강의 지천인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생활하천이 동시에 개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북지역 350만 명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랑천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중랑천은 중심으로 나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미인가 불법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불법 도로로 인해 지금까지 낭비되고 있던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개발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생태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면 경제 · 문화 중심기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 500만 주민의 새로운 생활공간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다양한 지역사업은 현재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발로 뛰고 노력해 성과를 실현을 목전에 둔 것이다. 이런 '명품도시' 건설이 있기까지는 지역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고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젊음이 만들어 나가는 정치문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보좌관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22년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자신이 의정활동을 직접 할 수 있기까지 국회에서부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전 세계 160여개 도시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국제적 환경과 국회 경험은 의정활동에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노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보낸다. 이 밖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현안에 발벗고 나서 의회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고 의원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48시간처럼, 일분일초 시민과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실천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 정치에서 과감히 젊은 리더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고정균 의원, 그가 만들어갈 동대문구 미래 도시의 모습이 기대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6(자심)
언 론 사	(주)데일리스포츠월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년 2월 4일자 20면『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서초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서적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예정 소식을 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정치나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에 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30년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풍부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행복디자인'을 펴냈다. 도시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박 구청장은 30여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의 해법을 제시한다. 멀게만 느껴지는 '행정'의 실상을 39가지 주제별로 정리, 행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39가지 '행정의 실상' 소개
6일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서 출판기념회 열려

'신형 엔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추진력이 뛰어난 박 구청장이 인구 43만의 서초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져 있던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극복과정도 실감나게 그렸다.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는 특히 국내외 수백가지 사례, 그리고 고사 성어와 격언 등을 섞어가며 행정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다.

저자는 행복해지려면 머뭇거리지 말라고 외친다. 왜 먼저 변화하고 직원들과 나아가 주민, 기업까지 어떻게 글로벌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갔는지, 또 의사소통과 목표달성에 있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초구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구청 여러 부서를 돌아야만 했던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OK민원센터'를 도입하는가 하면 관공서 영어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어간부회의를 단행하기도 했다. 기초지자체인 서초구가 왜 영어통용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누에다리'라는 독특한 디자인 다리 건설과 경부고속도로를 덮어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왜 추진하려는지 그 이유도 밝혔다.

저자는 특히 책에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앞날을 밝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국가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우선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전통의 현대적 승화, 의전의 중요성, 선진국의 우수사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춰

야 덕목들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밖에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도 수록했으며, 친구의 중요성, 시련을 이기는 법 등 인생 철학도 진솔하게 이야기 한다.

국수 이창호와 대국일화, 주민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사연, 호주 퍼스 여시장의 특별한 인연, 학창시절 여학생들을 사로잡은 노트이야기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박 구청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하며 명품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때로는 작은 실수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참다운 행복을 디자인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그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좀 더 행정을 이해하고 행복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디자인' 출판기념회는 6일 오후 4시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주)페이퍼엠엔씨 펴냄, 312쪽. (02)529-4124

박성중 서초구청장 에세이집 '행복디자인' 출간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행복디자인
열정으로 가꾸는 콘텐츠
박성중 지음, 쁘페이퍼엠엔씨 펴냄

쉽게 읽을 수 있는 39가지 '행정의 실상' 소개
6일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서 출판기념회 열려

의 결 번 호	2010지선7(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2월 11일자 16면『지역 경제 살리기 · 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2010년 2월 16일자 16면『"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양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군정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두 번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중앙매일 신년대담〉 최명오 청양군수에게 2010 새해설계를 듣다

지역 경제살리기 · 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난해 청양군청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청양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차원 높게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양군의 위상제고와 함께 군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농촌활력과 지역개발, 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준공한 천장호 출렁다리와 칠갑산 천문대에 연말까지 36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기반 사업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지역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청양고추구기자축제는 세계고추산업 박람회를 병행 개최하면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선진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당농공단지는 ADM21을 비롯한 유망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신설비의 노인요양원을 신축해 품격 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자원봉사활동과 위기가구 지원, 이동빨래방 운영 등 주민복지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양군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전국 우수상, 체육분야 풀뿌리 자치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대전 최우수상, 지역협력단 운영 최우수상, 추계도로 정비 최우수상, 작목별 연구회 육성 우수상, 제2회 하모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찾아내 업무를 개선하고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0년 청양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군은 2010년도에 정부정책변화에 부응하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견인사업을 적극추진하며 지역경제살리기와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게 됩니다.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 건설 △한 차원 높은 주민복지실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성장기반 구축 △관광 · 체육 · 문화시설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와 실용을 중시한 공직사회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적기집행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자율과 참여의 민 · 관 협치행정 및 민간역량 접목으로 군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전환점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체류하는 관광으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판단 외국체험 관광마을조성, 까치 내 관광휴양지조성, 칠갑산 오토캠핌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 누구나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청양'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며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통한 농업비전제시로 지역경제의 소득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파워7갑특화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명품화를 통한 소득화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뤄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22% 증액된 527억원을 편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며 군민 모두의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인연령층 사회보장체계 확대를

〈중앙매일 신년대담〉 최병우 청양군수에게 2010 새해설계를 듣다

지역 경제살리기 · 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도모하는 한편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과 방문진료, 무료건강검진확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모두의 교육기회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군정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역동적인 지역개발로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중략)

6〉 마지막으로 청양군민들과 독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해는 민선4기의 알찬마무리와 민선5기 출범 기반을 구축하게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청양군수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군민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의 미래 가치는 밝고 높습니다. 군민 모두와 함께 반드시 청양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 할 것"

2010 새해설계

김시환 청양군수

"청양군은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 건설'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시환 청양군수는 "정부정책변화에 부응하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견인 사업을 적극추진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 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잘사는 청양건설에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 김시환 청양군수

대담 = 최명오 청양주재 국장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2009년 청양군정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청양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인데요.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계십니까?

▲맑은 공기, 밝은 태양, 깨끗한 물로 상징되는 청양군만의 청정자연환경을 살린 관광기반구축을 위한 계획은?

▲청양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지원시책으로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의 추진계획은?

▲마지막으로 청양군민들과 독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노승원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5(자심)
언 론 사	(주)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0년 2월 11일자 14면 『오늘의 전북인 '뚝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주민복리 · 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의회 의원) 후보 예정자인 현 시의회 의원의 철학, 의정활동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늘의 전북인 '뚝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주민 복리 · 전주발전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명지의원(우아1, 호성동 · 사진)은 의회 안팎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뚝심의원'으로 통한다.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의원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의정활동에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며 특유의 순발력과 치밀함은 물론 리

오늘의 전북인 '뚝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주민 복리·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명지의원(우아1, 호성동 · 사진)은 의회 안팎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뚝심의원'으로 통한다.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의원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의정활동에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며 특유의 순발력과 치밀함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춰 많은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라선복선화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그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6지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나름의 신조를 밝혔다.

곧 주민을 반들고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

그의 지역구인 우아1동과 호성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전주 동부권 개발에 분주하다. 35사단 이전에 따른 호성동지역과 연계한 북부권 개발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향후 전주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터미널의 전주권 인근 이전과 관련, 버스와 철도를 연결하는 종합 교통망이 필요하다면서 주민 편의에 맞춘 전주시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의원 임기 5개월여를 남겨 둔 그는 "지난 8년여 동안 주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에도 주민 복리와 전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희성기자 · khs@

더십까지 갖춰 많은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라선복선화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그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6지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나름의 신조를 밝혔다.

곧 주민을 받들고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

그의 지역구인 우아1동과 호성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전주 동부권 개발에 분주하다. 35사단 이전에 따른 호성동지역과 연계한 북부권 개발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향후 전주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터미널의 전주권 인근 이전과 관련, 버스와 철도를 연결하는 종합 교통망이 필요하다면서 주민 편의에 맞춘 전주시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의원 임기 5개월여를 남겨 둔 그는 "지난 8년여 동안 주민들을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에도 주민 복리와 전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9(자심)
언 론 사	(주)대한매일신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 신관 402호 대표이사 김 기 수
심의대상기사	대한매일신문 2010년 2월 9일자 16면『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재임 중 구정활동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4컷의 관련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지하 경전철 유치 기억남아
'역동적 발전 이미지' 제고할 것
민생안정 재정 조기집행 '총력'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지난해 44억 원보다 2배 많은 87억 원을 투입한다.

서 구청장은 평소 리더가 될수록 겸손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정책들로 이를 보여준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 이번 민선 4기 임기 중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꼽아주신다면.

▲ 지역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임기 중에 잇달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고 또 대규모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제가 서울시에 처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선을 연장하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우이-정릉-신설 간 지하경전철사업도 2008년 10월에 착공이 됐고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의 경우,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디어를 내 여론을 조성하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무척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洞) 통폐합도 기업에 남습니

다. 30개였던 동을 20개로 대폭 줄였는데요, 단순히 동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제 임기 중에 '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이라는 성북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람을 느낍니다.

- 올해 구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2010년은 성북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또한 "2010 성북비전"을 완성하고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해 인근 교통문제 해소하고 길음·정릉 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고품격 주민 행복공간으로 조성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지역특성이 감안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성북동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체험지대를 조성하고 주민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뜨락예술무대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예술무대의 장으로 더욱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다문화 음식축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성북다문화빌리지 센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다.

이미 착공된 우이~정릉~신설동 간 지하경전철사업에 이어 앞서 말씀드린 종암~월곡~장위지역을 통과하는 지하경전철 동북선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 세대에 활력을 드리고 있는 성북구민의 실버남성요리교실과 실버모델교실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후략)

시한교 성북구청장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지하 경전철 유치 기억남아

'역동적 발전 이미지' 제고할 것

민생안정 재정 조기집행 '총력'

▲ 성북구청 복원사업 개가식

▲ 서경로 개선사업 준공행사

▲ 성북 수제 목재 소품들

▲ 성북 문화재

- 올해 구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 일부 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올해 들어 소외된 이웃을 돌본다든지, 고령군을 제고 등(등) 신년인사회를 눈치우기 등으로 진심행고 있습니다.

-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 결 번 호	2010지선32(자심)
언 론 사	(주)내외엔이더불유에스(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5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박 길 덕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0년 2월 10일자 16면『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통합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특정 후보자의 출마의 변, 시정활동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립 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이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해 통합시인 마창진 초대 시장 자리를 놓고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과 함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마창진 통합시장의 출마를 선언한 오원석 총장이 밝힌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도립 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이 8일 마산시 구암동 소재 국립 3.15 묘지를 방문해 분향한 뒤 참배하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통합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총장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맞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창진의 통합으로 새롭게 비약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와 기대를 더욱 갖게 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중략)

끝으로 오 총장은 "자신이야 말로 경험, 이론, 정책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의 전문가이며 통합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끌어올릴 실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며 피력했다.

마산 출신인 오 총장은 마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특채시험을 통해 경남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남도 공보관, 거제부시장, 농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립 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이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해 통합시인 마창진 초대 시장 자리를 놓고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과 함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마창진 통합시장의 출마를 선언한 오원석 총장이 밝힌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오원석 총장이 마창진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도립 거창대의 오원석 총장이 8일 마산시 구암동 소재 국립 3.15 묘지를 방문해 분향한 뒤 참배하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통합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총장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맞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창진의 통합으로 새롭게 비약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와 기대를 더욱 갖게 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그는 "마창진 통합은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합모델이 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통합시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것이며 화합과 통합의 행정이다"며 "이제 남은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과 단결로서 저는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통합시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원석 총장이 국립 3.15 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 총장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통합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지역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수구 기득권층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소명으로 108만 시민 여러분들과 새로운 통합시의 새 역사를 꿈꾸며 지방선거에 뛰어나라는 후보로 출마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오 총장은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위협을 극복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새로운 경남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앞선 선택이다"고 말하며 "통합시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매달리는 지도자가 아닌,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고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신처럼 새로운 인물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창진 통합시에 대한 비전에 대해 오 총장은 "통합시를 태평양을 향해 열린 동북아 시대의 핵심거점 도시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는 성장 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통합시와 문화·예술·교육·환경도시, 첨단산업과 행정중심도시, 물류와 산업·경제·관광도시로 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총장은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비전을 밝혔다.

창원을 동북아 경제권 중심지역으로

먼저 "창원은 첨단산업과 행정의 중심도시로 중국과 인도,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문화가 결합한 기술융합형 전략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더욱 개발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약속했다.

마산을 행복한 주거 중심도시로

두번째로 "마산은 해양관광산업과 문화예술,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산만을 살리고, 푸른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로봇랜드의 산업과 연구개발 단지를 통한 인구 유입은 통합시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것이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진해를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

마지막으로 "진해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밝히며 "여기에 해양레저·관광휴양도시로 경쟁력을 입혀 통합시의 중요한 역할을 구축할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국제적인 도시,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오 총장은 통합시 전체에 관한 비전으로 "통합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일자리의 창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확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제도는 바로 세우고, 시민이 도시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참여 공동체,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위해서 자신만이 통합시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시에는 정책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 지방행정 전문인으로서 변화와 개혁, 권익을 위해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도덕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고, 경남도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지역사회의 참 일꾼인 자신과 같은 폭 넓은 시정과 안목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 총장은 "자신이야 말로 경험, 이론, 정책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의 전문가이며 통합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끌어올릴 실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며 피력했다.

마산 출신인 오 총장은 마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특채시험을 통해 경남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남도 공보관, 거제 부시장, 농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어환수 기자
사진/이진화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35(자심)
언 론 사	수도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5-6 석산빌딩 5층 대표이사 임 승 수
심의대상기사	수도일보 2010년 3월 8일자 16면 『살기 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양평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기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다음은 김선교 군수와의 일문일답니다.

- 최근 친환경 주거지로 양평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다. 양평이 수도권에서 친환경적인 전원생활 하기에는 최적이다. 또한 물이 좋고 공기좋고 사람살기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원지로 생각하고 많이 이사를 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내에 서울을 도착할 수 있는 통근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해 말 용문역까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진입이 1시간 이내로 가까워 졌으며 지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여러가지 이유 중 서울과 가깝고 중앙선 복선이 개통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개통효과가 있는지.

지난 해 12월23일 개통돼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전철 개통이후 양평역과 용문역의 경우 1일 평균 6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개통 전보다 이용객이 2~4배 가량 늘었다.

매일 코레일에서 통계숫자가 나오고 있다.

또 역에 놓이는 관광책자 및 양평소식지가 금방금방 동이 날 정도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으며 전통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택시, 식당영업 부분의 매출액이 30~40% 가량 크게 늘었다.

또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용문산을 정점으로 등산객이 많이 늘었고 65세 이상은 전철요금이 무료다 보니 연세드신 등산객들도 많아졌다.(중략)

-친환경 주거지로 주목받는 양평이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두 세 곳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더 생긴다는데,

우선, 2012년 개통예정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재 옥천면에 시공중인 양평IC가 강북 산악지역과 수변구역에 위치해 개발가용지가 부족하고 향후 개통시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개발가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통이 원활한 양평읍 시가지와 직접 연결되는 강상 IC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설치를 해야 양평읍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통과할 수 있으므로 교량이 하나 신설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사업비는 13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우리군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후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경제성 분석방법 등의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상 IC설치는 인구 17만의 양평시 건설과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과 연계돼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후략)

김선교 양평군수 인터뷰

지난해 용문역 개통돼 1일 이용객 2~4배 증가

입주예정 현대성우·코아루 아파트 주거 개선

서울과 인접한 양평군이 새로운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더우기 서울과 양평을 잇는 중앙선이 개설되면서 이제 양평은 기존 전원도시의 틀을 벗어나 개발형도시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갑자기 늘어나는 유입인구와 관광객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 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은 김선교 군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김선교 양평군수

의 결 번 호	2010지선4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3월 4일자 16면 『'명품 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2010년 3월 8일자 16면 『차별화된 '명품 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및 역점 추진사업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유사 내용의 기사를 두 번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품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진안은 예로부터 산고수장(山高水長)의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자연을 가지고 있다. 진안 인삼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향이 진하고 항암효과에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높다. 생산량은 전국 인삼의 7.9%다. 인삼은 수삼으로 판매되거나 홍삼으로 가공되어 판매된다. 연간 수삼판매를 통해 4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홍삼가공을 통한 소득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은 홍삼한방산업을 진안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다.(후략)

소비자 신뢰가 해외시장 공략 성패 좌우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 홍삼의 해외시장 공략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를 소비자의 신뢰로 꼽았다.

그는 "물량 공세를 앞세운 미국산과 중국산 홍삼에 밀려 국제무대에서 한국 홍삼의 위상이 지난 199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진안 홍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신뢰를 얻는 방안으로 진안 홍삼 명품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총사업비 66억원을 들여 최근 문을 연 홍삼연구소를 통해 고기능성 홍삼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인삼농사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인삼밭에서 소비자까지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며 표준화된 인삼을 생산해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삼·한방산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안 홍삼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무공해친환경재배방법 확산, 홍삼가공기술 표준화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한국 홍삼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서는 고려인삼을 위조해서 판매할 정도로 고려인삼의 명품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다"며 "국제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별 기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품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홍삼가공으로 연간 1000억 판매고
진한향·사포닌 함량 높아 전국명성
홍삼·한방산업 메카 도약 가속도

인터뷰

송영신 군수

소비자 신뢰가
해외시장 공략
성패 좌우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감도

홍삼연구소

진안홍삼 중앙판매장

#.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전략)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형근 중국 선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선양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애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빙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 홍삼과 김치 등 지역 특산품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선양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후략)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진안 홍삼·특산품 해외시장 진출진안군은 홍삼종합산업과 아토피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홍삼종합산업은 진안홍삼한국수출 농협 주상의 명품화의 홍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홍삼 명품화 개발과 우수마케팅 위도지점시장, 농협·산림농공단지로 있는 등 홍삼·한방산업의 주도를 내고 있다. 올 여일까지 특라스터 국내에 남았는 모든 작업을 완료해 고 20년부터는 홍삼 가공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고 있다.

산안군은 중서 파안림과 지배주인은 호에 해외도시의 굳두보고 호보하고 심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경쟁력 제보다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중국지사 문 열어 심양시와 협약 국제경쟁력 강화 잰걸음

진안군의 진안군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중국지사가 오픈과 관광 농산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지원, 중국 심양시와 교류 협력을 등 추진이 나섰다. 지난 지난 1일 중국 심양시를 방문해 진안홍삼관광클러스터(위원장 이하 사업단)의 중국지사무소 및 진안삼 홍보부스 개소와 한·중 관광테마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시장에 진안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 관광테마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심양종합시 이 공무원과 사업단의 주재원 및 관계 심양시 담당주임 당원, 관광사관 경제담당, 관광회 경제담당 등이 진안삼의 중국산업에 관한 트렌드 이보다 진안삼에 대한 중국인지에 관심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이 진안삼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심양종합시, 조선족기업가협회 및 관광회 등 주요 인사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사업단의 중국지사무소는 조선족기업가협회 산하에, 홍보부스는 요령성 중앙전시관 안에에 위치하며 심양시 동부에서 부산으로 운영하였다.

중국의 방문한 송영선 군수 일행과 중국의 관 방문이 주제하고 있다.(사진 위) 산림과 중국 심양종합시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 송영선 군수의 "나는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오는 6월 제1회 '중국세계한상대회' 참가 특별전시관 갖추고 진안홍삼·특산품 홍보

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 된다.

지난달 25일 진안군 중국 심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심양총영사관의 도움과 본아 진안에 진안홍삼관광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에 지사개설을 성사하고, 진안홍삼 홍보와 개발 및 중장 관광테마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때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 홍삼과 같이 등 지역 특산품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심양총영사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심양총영사는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우선 중국 동북성지역 도시들과 진안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참석은 2010년 6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회 중국세계한상대회에 진안홍삼 특별전시관을 만들고, 대회 메인행사인 홍삼과 한스타일을 주제로 한 패션쇼와 제산쇼이 진안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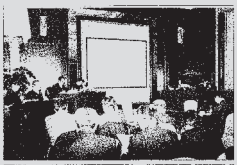
중국 북경 6월 열리는 제1회 중국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를 위한 최 경제 심포지엄 관람자가 6만 명이 참 관하고, 대회로 중국 전역에 판로와 한인상품은 2500억원과 중국관지 상품은 3000억원이 상거래 기준 전시, 상담, 마케팅, 보험 등을 행사를 펼치게 된다.

참여하는 회원사는 제약회사로 알려진, 생활 화장품과 의사이트, 애용 대중성 있 음식점, 중고자동차 관리 비즈니스 중보로, 진안홍삼 직매장 등이 선보인 예정이다.

진안군은 앞으로 심양시 농촌정책 의 왕래 협의 심양도시와 농업정책 협력, 경시관광 등에 유인임 정보와 협력하는 중 시장확장 파스칼에 노력할 계획이며, 6월 이달의 "사업성과를 높아" 위해 중국에 대한 진안 홍삼·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 김태안 기자

송영선 군수는 지난 1일 중국 심양시를 방문해 진안농업관광클러스터사업단의 중국시무소 및 진안삼 홍보부스 개소와 한·중 관광테마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국시장에 진안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안군은 지난 1일 소국에서 한·중 관광테마 연구개발에 대한 관광의 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3(자심)
언 론 사	(주)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심의대상기사	강원도민일보 2010년 3월 4일자 19면『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회 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에 맞는 일이 강원도 속초와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주시민에게는 달콤한 꿀로서 원주 문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속초시민에게는 배속에 칼을 빼 속초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초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할 당시 시유지 5만 4900여평을 평당 1900여원에 총 1억여원 들여서 학교용지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헐값에 매입하고 이중 토지비의 10%인 817만원을 납부하고 81년 3월에 개교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유지를 불하한 것은 속초시민들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기부하였던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동우대학은 그어느 사학재단보다 운영이 잘되었고 엄청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얼마전 언론에 동우대 전재욱 이사장이 지난 2000년에 동우대의 교비 257억을 횡령해 경문대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다가 횡령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억원의 죄값을 치렀다고 보도됐다. 또 동우대는 현금보유액으로 599억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고, 2008년에도 9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우대에서 주장하는 학생 모집이 힘들어서 학교운영의 안되서 원주로 옮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동우대학은 지난 2005년 1월21일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원주로의 이전 학과는 등록율이 22.8%에 불과한 폐과 직전의 학과만 원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3월 동우대와 주민대책위원장간의 합의서에는 보건계열5개학과 신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우대학은 주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2009년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쟁력 있는 보건계열학과를 모두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에 무한한 열정과 사랑을 보내왔다. 교육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기부받다시피한 땅을 매입해 교육장사를 하고 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에 더하여 속초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동우대학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속초시내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지역경

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동우대학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공동화시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속초시와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우리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우대의 원주이전도시계획 요구를 수용할 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외침은 강원도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초시민은 강력히 원한다. 당초 합의한 대로 보건계열학과는 속초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속초가 살고 동우대학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기 고

김 시 성

도의원(속초)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에 맞는 일이 강원도 속초와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주시민에게는 달콤한 꿀로서 원주 문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속초시민에게는 배속에 칼을 빼 속초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초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할 당시 시유지 5만4900여평을 평당 1900여원에 총 1억여원 들여서 학교용지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헐값에 매입하고 이중 토지비의 10%인 817만원을 납부하고 81년 3월에 개교했다.

이렇게 쓴값에 시유지를 불하한 것은 속초시민들이 대학을 유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이면 조건도 없이 기부하였던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동우대학은 그 어떤 사학재단보다 운영이 잘되었고 인정년 많은 수익을 올렸다. 얼마전 언론에 동우대 진재옥 이사장이 지난 2000년에 동우대의 교비 257억을 횡령해 경남대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다가 횡령혐의로 장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 2년에 벌금10억원의 최값을 치렀다고 보도됐다. 또 동우대는 현금보유액으로 599억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고, 2008년에도 9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우대에서 주장하는 학생 모집이 힘들어서 학교운영의 안되서 원주로 옮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동우대학은 지난 2005년 1월21일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원주로의 이전 학과는 등록율이 22.8%에 불과한 폐과 직전의 학과만 원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3월 동우대와 주민대책위원장간의 합의서에는 보건계열5개학과 신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우대학은 주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고, 2009년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쟁력이 있는 보건계열학과를 모두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에 무한한 열정과 사랑을 보내왔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기부받다시피한 땅을 매입해 교육장사를 하고 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에 더하여 속초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동우대학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속초시내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동우대학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공동화시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속초시와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우리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우대의 원주이전도시계획 요구를 수용할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외침은 강원도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초시민은 강력히 원한다. 당초 합의한 대로 보건계열학과는 속초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속초가 살고 동우대학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4(자심)
언 론 사	(주)새전북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청1길 6 현대빌딩 4층 대표이사 박 명 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0년 3월 8일자 11면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전주 시민강좌서 인생의 감동 담아가길

학습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준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학습을 통해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는 젊고 건강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적은 사회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급속한 노화와 쇠퇴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만이 무한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도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20대까지의 초기교육 중심에서 인생전반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고용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회구성원의 안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입각해서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평생학습과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인재 자체가 지역경쟁력의 필수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 · 인문교육, 평생학습 전문강사 배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는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저명인사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 문화 · 건강 · 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강연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 강지원 변호사, 김홍신 전 국회의원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비롯해 전원주, 이상벽, 사미자씨 등 자신

의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스타 강사들이 전주를 찾았다. 45회에 이르는 열띤 강연을 찾은 시민도 2만5,000명에 이른다.

호기심에 찾았다가 매번 참석하는 열혈 청강생으로 바뀐 시민도 부지기수고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평생학습에 재미를 느껴 전주시가 제공하는 다른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바쁜 시정활동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필자 역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의 열렬한 팬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고 삶이나 시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인생의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희망찬 새 봄, '2010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도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벌써부터 공부의 즐거움에 빠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때로 익히는(學而時習 · 학이시습)'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하며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에 대한 많은 참여와 성원 당부 드린다.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기고 송하진 / 전주시장

학습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준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학습을 통해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는 젊고 건강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적은 사회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급속한 노화와 쇠퇴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만이 무한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도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20대까지의 초기교육 중심에서 인생전반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고용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회구성원의 안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입각해서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평생학습과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재 자체가 지역경쟁력의 필수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인문교육, 평생학습 전문강사 배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는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저명인사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건강·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강연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 강지원 변호사, 김홍신 전 국회의원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비롯해 전원주, 이상벽, 사미자씨 등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스타 강사들이 전주를 찾았다. 45회에 이르는 열띤 강연을 찾은 시민도 2만5,000명에 이른다.

평생교육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전주 시민강좌서 인생의 감동 담아가길

호기심에 찾았다가 매번 참석하는 열혈 청강생으로 바뀐 시민도 부지기수고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평생학습에 재미를 느껴 전주시가 제공하는 다른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바쁜 시정활동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필자 역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의 열렬한 팬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고 삶이나 시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인생의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희망찬 새 봄, '2010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도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벌써부터 공부의 즐거움에 빠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때로 익히는(學而時習 · 학이시습)'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하며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에 대한 많은 참여와 성원 당부 드린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5(자심)
언 론 사	(주)시민일보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601호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0년 3월 5일자 7면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시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녹색환경도시를 가꾸자

향후엔 녹색국가를 이룩해야만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녹색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 복지를 포함하여 내용적으로도 선진화 되어야만 선진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구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모든 부문에 녹색성장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조직을 이끌며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엔 제주도에 세계환경 보존 총회를 유치하며 선진국과의 환경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국민의 환경의식 구조를 재조명하며 녹색환경 도시를 이룩하고자 몇자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환경 여건이 유럽과 다른 한국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먹는 물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공사를 하는 중에도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비료 때문에 발생되는 인을 강 밖으로 처리토록 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고, 특히, 샛강을 우선 정비하여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먹는 물, 버리는 물을 깨끗이 해야한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하수는 고도처리하고, 가능하면 강변 여과수 처리로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건물, 아파트 등도 중수도 처리를 활성화시켜서 물을 아껴써야 한다.

물은 현명한 이용이 최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향후엔 업소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도입해서 버리는 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개인별로 탄소 포인트제를 만들어 세금가면을 해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차타고 오신 분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오신 분과는 차별화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물도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연료를 안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LED 조명과 자동차도 적용시키고 향후엔 기름값도 이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지규제 방식을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 공장에서 해로운 것이 배출되면 규제를 하고, 무해하게 배출이 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예로,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진출하여 수질관리 및 수질을 정화시켜 주고 있다.

최근 석면, 미세물질 나노, 분진, 라돈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의 아토피병, 젊은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등도 여기에서 기인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감시하고, 산업체에서는 무해성 물질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육성하여 환경물질 병원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녹색을 생활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녹색제품의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녹색지도자가 꾸준히 계몽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한적이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로 여름철엔 냉동기 역할로, 겨울엔 보일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안정된 에너지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열은 금융지원과 지속적인 A/S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실천해 온 것들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 · 관 ·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실천하도록 제언해 본다.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단 상

구 효 서
경기 광주시의원

향후엔 녹색국가를 이룩해야만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녹색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 복지를 포함하여 내용적으로도 선진화 되어야만 선진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구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모든 부문에 녹색성장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조직을 이끌며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엔 제주도에 세계환경보존 총회를 유치하며 선진국과의 환경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국민의 환경의식 구조를 재조명하며 녹색환경 도시를 이룩하고자 몇자 제언하고자 한다.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환경 여건이 유럽과 다른 먼국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먹는 물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공사를 하는 중에도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는 하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때문에 발생되는 인을 강 밖으로 처리토록 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고, 특히, 댓강을 우선 정비하여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먹는 물, 버리는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하수는 고도처리하고, 가능하면 강변 여과수 처리로 많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건물, 아파트 등도 중수도 처리를 활성화시켜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

물은 현명한 이용이 최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앞으엔 업소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도입해서 버리는 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개인별로 탄소 포인트제를 만들어 저탄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타고 오신 분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오신 분과는 차별화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물도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연료를 안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LED 조명과 자동차도 적용시키고, 앞으엔 기름값도 이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자규제 방식을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 공장에서 해로운 것이 배출되면 규제를 하고, 무해하게 배출이 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예로,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진출하여 수질관리 및 수질을 정화시켜 주고 있다.

최근 석면, 미세물질 나노, 분진, 라돈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의 아토피병, 젊은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등도 여기에서 기인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감시하고, 산업체에서는 무해성 물질을 생산토록 해야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육성하여 환경물질 병원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녹색을 생활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녹색제품의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녹색지도자가 꾸준히 계몽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한적이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로 여름철엔 냉동기 역할로, 겨울엔 보일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안정된 에너지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열은 금융지원과 지속적인 A/S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실천해 온 것들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 · 관 ·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실천하도록 제언해 본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6(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4일자 16면『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 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방안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기 위해선 도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띤,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인천시 도시정책, 특히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는 구도심개발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안상수 시장 8년 동안 인천시 도시정책은 송도국제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2009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투입된 25조원의 사업비 중 17조원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인천에는 송도밖에 없느냐는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인천시는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220곳의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지정해 일방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구도심 개발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은 안중에 없고 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수용 당하고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노력조차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둘째, 서민들의 이주대책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수용 당하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서민들의 재정착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삶의 평형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삶이 존중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세계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구도심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구도심개발의 중심은 주민이 돼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적 정책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돼야 한다. 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수익적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구도심 개발방향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단순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하드웨어적 환경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교육, 경제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 환경개선이 더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또한 구도심개발은 계획은 공공이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시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 행정이며 행정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공공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간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 개발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 고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기 위해선 도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띤, 인간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수용 당하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서민들의 재정착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삶의 평형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삶이 존중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세계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인천양륙의 구도심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구도심개발의 중심은 주민이 돼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적 정책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돼야 한의 삶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인천시 도시정책, 특히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는 구도심개발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안상수 시장 8년 동안 인천시 도시정책은 송도국제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2009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투입된 25조원의 사업비 중 17조원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인천에는 송도밖에 없느냐는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인천시는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220곳의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지정해 임방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구도심 개발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은 안중에 없고 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수용 당하고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노력조차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둘째, 서민들의 이주대책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수익적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구도심 개발방향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단순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하드웨어적 환경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교육, 경제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 환경개선이 더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또한 구도심개발은 계획은 공공이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시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 행정이며 행정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공공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간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 개발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의결번호	2010지선57(자심)
언론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9일자 16면『다섯가지 인간의 질』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구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섯가지 인간의 질

이 세상에는 약 6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 한반도에는 7천 400여만명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며 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의 질(質)은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질은 가장 좋은 특질이다.

특질은 자기를 희생해 조국과 민족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위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바친 예수그리스도 왕자의 몸이면서도 인간과 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걸었던 석가. 온갖 쾌락을 멀리한 채 유학을 정리하고 후배 양성의 길만을 걸었던 공자. "악법도 법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청소년 교육에만 일생을 바친 소크라테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온갖 명예를 마다한 채 아프리카의 무지하고 몽매한 식인종들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로 일관한 슈바이처.

열여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행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 잔악한 일제에 목숨을 빼앗긴 유관순 열사.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수 많은 부하들을 살려 낸 강제구 소령 등이 특질의 인간이다.

둘째는 양질이다.

옆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이웃이 병들고 배고플 때 함께 나누어주고 거들어 주는 사람, 질서를 지키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 겸손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이다.

셋째는 범질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내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완수는 하되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는 생각으로 자기 본위로 사는 사람이 범질의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저질의 사람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 질서 안 지키고 아무 데나 침뱉고 휴지 버리는 사람, 한 마디로 덜 떨어진 사람이 저질이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 사람이다.

남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기, 강간, 강도, 폭행 등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악질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인간의 질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질의 인간이 되어야 할까. 자기가 어느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에서 쟁취하는 것이다. 값진 자유는 힘든 싸움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온갖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청소년들은 좋은 질의 인간이 되기 위해 값진 노력을 끝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세상 思

조봉휘

전 인천남구의회의원

다섯가지 인간의 질

이 세상에는 약 6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 한반도에는 7천400여만명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옹다옹 다투며 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의 질(質)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질은 가장 좋은 특질이다.

특질은 자기를 희생해 조국과 민족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위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왕자의 몸이면서도 인간과 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걸었던 석가, 온갖 쾌락을 멀리한 채 유학을 정리하고 후배 양성의 길만을 걸었던 공자, "약법도 법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청소년 교육에만 일생을 바친 소크라테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온갖 멸예를 마다한 채 아프리카의 무지하고 몽매한 식인종들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로 일관한 슈바이처.

열여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행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 잔악한 일제에 목숨을 빼앗긴 유관순 열사,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수 많은 부하들을 살려 낸 강제구 소령 등이 특질의 인간이다.

둘째는 양질이다.

옆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이웃이 병들고 배고플 때 함께 나누어주고 거들어 주는 사람, 질서를 지키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 겸손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이다.

셋째는 범질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내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완수는 하되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는 생각으로 자기 본위로 사는 사람이 범질의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저질의 사람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 질서 안 지키고 아무 데나 침 뱉고 휴지 버리는 사람, 한 마디로 덜 떨어진 사람이 저질이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 사람이다.

남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기, 강간, 강도, 폭행 등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악질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인간의 질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질의 인간이 되어야 할까. 자기가 어느 종류의 질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느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 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에서 쟁취하는 것이다.

값진 자유는 힘든 싸움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온갖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청소년들은 좋은 질의 인간이 되기 위해 값진 노력을 끝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62(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3일자 16면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년 새해설계 남상우 청주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시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전략)▲ 올 해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등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시정운영방향과 시정목표는?

올해에는 차츰 경기도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2010년은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시정운영 방향은 첫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정하고 향토기업 육성과 서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맑은 고을 녹색청주로 도약하기 위해 녹색수범도시 청주의 강점을 살려 전국 제일의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상생의 광역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시민복지'를 구현하고, '수준높은 교육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행복주는 감동행정'을 확산시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해 1800여 공직자는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발전에 꼭 필요한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시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후략)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 새해설계

남 상 우 청주시장

"경인년 새해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우 시장은 이를 위해 향토기업 육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그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남 시장은 이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대,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지원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과 첨단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계형 일자리 확대 등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본지 한완교 청주본부 국장이 남상우 청주시장(사진 오른쪽)과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 = 한완교 청주본부 국장

▲취임 3년 8개월여 동안의 성과와 보람을 느꼈던 주목할 만한 성과는?

[illegible]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경제한파로 서민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 데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illegible]

▲올 해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등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시정운영방향과 시정목표는?

[illegible]

▲중부권에는 가볼 곳이 흔히 마땅치 않다고들 합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청주의 대표 브랜드 직지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마케팅 전략은?

[illegible]

▲정상인들도 요즘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장애인과 여성,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등 긴급구호 대책은?

[illegible]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주청원 통합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llegible]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지역발전 구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llegible]

감사합니다!

정리=최재영 기자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63(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10일자 16면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단양 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년 새해설계 김동성 단양군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단양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동성 단양군수는 "올해는 민선 4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적성대교가 개통되고,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확정과 구군부대 이전지 개발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면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말하고 올해에도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남한강 물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의 구상과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단양, 휴양관광의 진흥과 저 탄소 녹색성장 청정 환경의 조성, 함께하는 감동행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에 본지는 김동성 단양군수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 경인년 새해의 군정 운영의 핵심은?

2010년도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4.0% 이상의 실질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경기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세입은 소폭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금년도,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매여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유익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민선 4기 군정목표를 알차게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후략)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단양 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 새해설계

김동성 단양군수

김동성 단양군수는 "올해는 민선 4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 지난해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적성대교가 개통되고,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확정과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면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고 말하고 올해에도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남한강 물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의 구상과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단양, 휴양 관광의 진흥과 저 탄소 녹색성장 청정 환경의 조성, 함께하는 감동행정을 위해 전 행 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밝혔다. 이에 본지는 김동성 단양군수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 = 김선용 단양주재 부장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사진 오른쪽) 단양 방문시 별곡지구 개발을 건의하고 있는 김동성 단양군수.

▲경인년 새해의 군정 운영의 핵심은?

[illegible]

▲지난해 중앙정부와 충북도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에서 거둔 성과가 있다면?

[illegible]

▲관광 단양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illegible]

▲단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illegible]

▲기업하기 좋은 단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역점 계획은?

[illegible]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과 단양 지역의 발전과 연계한 전략이 있다면?

[illegible]

▲단양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단양수중보 사업에 대해서는?

[illegible]

▲끝으로 단양군민에게 한 말씀과 2010년의 군정계획을 밝혀주십시요?

[illegible]

정리=최재영 기자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의결번호	2010지선64(자심)
언론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19일자 16면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년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최승우 예산군수는 "그 동안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1년 예산 방문의 해에 발맞춰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인년 새해 예산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친절과 봉사, 신뢰, 행정을 밑거름으로 쌓아온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는 먼저 황새마을 조성 및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10만㎡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에 유치하여 앞으로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텃새 황새 복원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은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1년 예산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에서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해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국내에서 6번째로 가입완료하였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슬로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조성에 매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 밸리,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구와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1개 지

구, 충남 테크노파크의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과 신암농공단지내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의약품 기반 구축 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첨단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읍 대회리 일원 아파트 조성 및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후략)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최승우 예산군수는 "그 동안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쌓을때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2010년 대충첨권 방문의 해와 2011년 예산 방문의 해에 발맞춰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황도사과 명품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담 = 박제희 예산주재 국장

▲ 민선4기 그동안 여러 문제에 걸쳐 추진한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지난 4년간 벌린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경인년! 새해 예산군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부문은 중두면 최초로 슬로시티 만들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기업유치분만 아니라 농·축산 분야의 성장과 발전도 선순위 과제가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농축산분야의 육성사업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 문화예술부문에서 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예산군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끝으로 예산군민들과 독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태수 오원록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66(자심)
언 론 사	시사매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7 시사매거진 B/D 3층 대표 김 길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매거진 2010년 3월호 32~33면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경기도의회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이념, 경력 등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사명에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자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각 기업과 지자체도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일꾼들이 있기에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효의 도시 경기도 수원,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인 수원시는 조선 22대왕 정조 때 제2의 한양 건설이 추진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민들의 가슴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돌봄이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며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진정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다소 불안하고 어렵지만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바로 지역에 터를 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수원시민들이 연대하고 소통한다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씨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잘 보지 않는 곧은 성격,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이루고 마는 열정. 이러한 뚝심이 있었기에 오늘 날 자신이 있었다고 밝힌다.

차희상 의원은 "열정이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남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수원 토박이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 지역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중략)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발전 견인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의회 6대를 거쳐 현재 7대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신풍초 총동문회장,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자혜학교 후원회장, 아주정책포럼 회장, 수원해병전우회 명예회원, 경기도 태권협회, 국민생활체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6K2FZL), 수원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보존연합회,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 대한노인회, 스페셜스야구단, 한국B.B.S.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 상임부회장, 경기국학원,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공동대표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이 차 의원의 열정과 에너지다. 그는 특히 봉사활동에 욕심이 많다. 30년 가까이 국제로타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 노숙자, 한가족부불우이웃돕기 공부방 등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의원으로서가 아닌 이웃으로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그는 수원시 자혜(정신지체자)학교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신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사명에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자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각 기업과 지자체도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일꾼들이 있기에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

지역민들의 가슴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등불이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효의 도시 경기도 수원.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인 수원시는 조선 22대왕 정조 때 제2의 한양건설이 추진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민들의 가슴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등불의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며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진정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다소 불안하고 어렵지만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바로 지역에 터를 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수원시민들이 연대하고 소통한다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씨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자신이 보기는 것은 잘 보지 않는 곧은 성격,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이루고 마는 열정, 이러한 뚝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있었다고 밝힌다.

차희상 의원은 "열정이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남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수원 토박이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 지역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를 명품도시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그의 바람

차희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남다른 애향심으로 내 지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봉사활동에 욕심이 많다. 30년 가까이 국제로타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 노숙자, 한가족부 불우이웃돕기 공부방 등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의원으로서가 아닌 이웃으로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지역에 더욱 애착을 갖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가장 변두리이자 개발이 되지 않은 곳으로 정치활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권선구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 따뜻한 지역민이 많기에 그는 이곳을 발전시키고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차 의원은 "현재 개발지역에 대두되고 있는 지역과 이에 따르는 부가적인 문제들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 시설, 학교, 체육시설, 종합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최

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바람이 있다. 수원시 권선구를 명품도시로 새롭게 개발해 경기도 수원시 110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수원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는 차희상 의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발전 견인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의회 6대를 거쳐 현재 7대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신풍초 총동문회장,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자혜학교 후원회장, 아주정책포럼 회장, 수원해병전우회 명예회원, 경기도 태권도협회, 국민생활체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6K2FZL), 수원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보존연합회,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 대한노인회, 스페셜스야구단, 한국B.B.S.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 상임부회장, 경기국학원,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공동대표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이 차 의원의 열정과 에너지다. 그는 특히 봉사활동에 욕심이 많다. 30년 가까이 국제로타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 노숙자, 한가족부불우이웃돕기 공부방 등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의원으로서가 아닌 이웃으로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그는 수원시 자혜(정신지체자)학교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신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인드와 노력으로 그는 2009년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과 노인복지 유공의원에 선정되었다.

또한 차희상 의원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한다고 판단한 그는 아이들의 미래에 안정성 있는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이 사는 구운동산환아파트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불편했는데 정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과 국가는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발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정활동의 평가자는 지역민들이기 때문이지요"라는 차 의원에게서 지역과 지역시민들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의원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취재 박순규 부장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의 어려운 곳도 꼼꼼히 돌보고 있는 차희상 의원. (수해복구(좌), 보건소 방문(우))

의 결 번 호	2010지선67(자심)
언 론 사	(주)강원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대표이사 이 희 종
심의대상기사	강원일보 2010년 3월 9일자 7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요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부가가치 상품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스포츠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동계스포츠 강국이라던 나라들을 제치고 종합성적 5위에 우뚝 선 우리나라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동안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을 땄기에 어딘가 부족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도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만의 희망이 아닌 국가적 대사이자 필수적인 과제로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오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위한 신청도시 파일(비드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10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와 약속했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여객과 산업물류의 대동맥 효과가 기대되어 선정된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국가기간 SOC 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투자가치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어, 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환영했었다.

총 연장 120.46㎞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건설된다면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삼척 LNG기지는 물론 동해안권의 연 2,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물량 등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간 철도망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강릉~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 시 수도권, 중서남부권 등과 이어지는 등 그 사업효과와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단선'으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민자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2조7,832억원이 소요되고 복선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3조4,9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업비 절감액은 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강릉 전철사업을 단선으로 건설할 경우 완공 10년 후인 2030년이면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해 추가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때 다시 복선으로 확장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하니 정부의 경제성 명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시 두 번이나 복선전철로 건설하겠다고 보증하고도 그 약속을 변경하려는 것 같아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정부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이 강원도만을 위한 SOC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 교통망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도시 파일에 '고속화 철도'가 아닌 '복선전철'로 명기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정부와 체육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듯이 '동계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해 본다.

강원포럼

최재규 도의장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요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부가가치 상품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스포츠는 흥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동계스포츠 강국이라던 나라들을 제치고 종합성적 5위에 우뚝 선 우리나라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동안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을 땄기에 어딘가 부족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의 열원도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만의 홍랑이 아닌 국가적 대사이자 필수적인 과제로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오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위한 신청도시 파일(비드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10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와 약속했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공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여객과 산업물류의 대동맥 효과가 기대되어 선정된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국가기간 SOC 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투자가치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어, 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환영했었다.

총 연장 120.46㎞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건설된다면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삼척 LNG기지는 물론 동해안권의 연 2,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물량 등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간 철도망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강릉~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 시 수도권, 중서남부권 등과 이어지는 등 그 사업효과와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단선'으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민자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은 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2조7,832억원이 소요되고 복선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3조4,9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업비 절감액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강릉 전철사업을 단선으로 건설할 경우 완공 10년 후인 2030년이면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해 추가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때 다시 복선으로 확장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하니 정부의 경제성 명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시 두 번이나 복선전철로 건설하겠다고 보증하고도 그 약속을 변경하려는 것 같아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정부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이 강원도만을 위한 SOC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 교통망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도시 파일에 '고속화 철도'가 아닌 '복선전철'로 명기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정부와 체육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듯이 '동계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해 본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6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국일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194-1 대표이사 장 영 미
심의대상기사	동국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5면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세계화와 양극화의 극치라는 반세계화 세력의 비난도 있지만, 다보스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반향이 적지 않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글로벌 의제 선점 및 이슈화에 탁월한 역할을 해왔고 글로벌 리더들의 대표적 모임이 되었다는 점이 클라우스 슈바프 교수가 1971년 유럽의 기업인을 초청해 시작한 다보스포럼이 올해로 벌써 40회째 이어지며 전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엄청난 회비 및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이 속속 몰려든다. 이번 다보스포럼 역시 역대 최다 인원인 2,7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취리히에 내리자마자 호텔방의 TV에서는 연신 다보스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다.

다보스 뿐 아니라 스위스 전체가 포럼으로 뒤덮인 것 같다.

하긴 스위스 정부는 작은 오지마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관광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보스라는 지역이 19세기 영국에 의해 개발된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이니까 당연히 관광지로서의 입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TV의 자막에는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 다보스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온다.

스위스 정부는 포럼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 및 악천후 대비를 위해 최대 5,000명의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등 다보스포럼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적한 겨울 스포츠 휴양지 다보스는 스키를 매고 다니는 남녀, 썰매형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 등 한편으로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의 교통통제 및 보안 검색 등으로 철통같은 보안 태세를 보여주는 상반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각국 정상만 20여명, 빌 게이츠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인은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니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보안 덕에 이대통령은 정상회담만 5번이나 할 수 있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 지도자, 언론인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양자 혹은 다자회담 및 개별세션은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다보스포럼의 가진 힘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이런 토론 포럼 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춥고, 미끄럽고, 호텔도 넉넉지않은 이 불편한 오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새삼스레 부러워졌다.

다보스 포럼은 언제나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올해는 유달리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 금융 위기 탈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화두이지만(포퓰리즘적 선거용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선언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서 폭발력을 과시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서, 오지로 가는 새벽 어둠 속의 특별열차안에서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비판론부터 시작해서 월가가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슈바프회장과의 일문일답 시간에 정리되었다. 금융산업의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는 필요하나 이것이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종사자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버클레이즈 은행장이 '과도한 규제가 은행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론하고, 조지 소로스가 '오바마의 규제 방향은 찬성하나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등 격론이 이어졌으니, 역시 금융개혁은 내내 뜨거운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내가 만난 몇몇 은행장들 역시 이에 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바마식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산업계의 우려는 확실히 큰 것 같다.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자본주의의 도덕적 개조론'은 오바마의 금융개혁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하튼, 금융개혁논쟁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특별 연설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설하자'는 슬로건에 바로 맞닿아 있다. 국제 금융위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세계화와 양극화의 극치라는 만세계화 세력의 비난도 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반향이 적지 않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않는다.

글로벌 의제 선점 및 이슈화에 탁월한 역할을 해왔고 글로벌 리더들의 대표적 모임이 되었다는 점이 클라우스 슈바프 교수가 1971년 유럽의 기업인을 초청해 시작한 다보스포럼이 올해로 벌써 40회째 이어지며 전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엄청난 회비 및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이 속속 몰려든다. 이번 다보스포럼 역시 역대 최다 인원인 2,7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하여 내리자마자 호텔방의 TV에서는 연신 다보스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다.

다보스뿐 아니라 스위스 전체가 포럼으로 뒤덮인 것 같다.

하긴 스위스 정부는 작은 오지 마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관광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보스라는 지역이 19세기 영국에 의해 개발된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이니까 당연히 관광지로서의 위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TV의 자막에는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 다보스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온다.

스위스 정부는 포럼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 및 악천후 대비를 위해 최대 5,000명의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등 다보스포럼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레서인지 한적한 겨울 스포츠 휴양지 다보스는 스키를 매고 다니는 남녀, 썰매형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 등 한편으로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의 교통통제 및 보안 검색 등으로 철통같은 보안 태세를 보여주는 상반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각국 정상만 20여명, 빌 게이츠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인은 쉴 수도 없을 정도이니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고, 그런 보안 덕에 이대통령은 정상회담만 3번이나 할 수 있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 지도자, 언론인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양자 혹은 다자회담 및 개별 세션은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다보스 포럼의 가진 힘이 아닐까 싶다.

나 경 원

〈한나라당의원〉

우리도 이런 토론 포럼 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춥고, 미끄럽고, 호텔도 넉넉지않은 이 불편한 오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새삼스레 부러워졌다.

다보스 포럼은 언제나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올해는 유달리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 금융 위기 탈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화두이지만 (포퓰리즘적 선거용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선언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서 폭발력을 과시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서, 오지로 가는 새벽 어둠 속의 특별열차안에서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비판론부터 시작해서 월가가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슈바프회장과의 일문일답 시간에 정리되었다. 금융산업의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는 필요하나 이것이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산업 종사자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버클레이즈 은행장이 '과도한 규제가 은행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론하고, 조지 소로스가 '오바마의 규제 방향은 찬성하나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등 격론이 이어졌으니, 역시 금융개혁은 내내 뜨거운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내가 만난 몇몇 은행장들 역시 이에 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바마식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산업계의 우려는 확실히 큰 것 같다.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자본주의의 도덕적 개조론'은 오바마의 금융개혁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하튼, 금융개혁논쟁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특별 연설은 이번 다보스포럼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설하자'는 슬로건에 바로 맞닿아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도국, 저개발국을 포함하지 못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갭(gap)의 개선 필요성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이상 소수 선진국만의 거버넌스로는 안 된다는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의 의사를 적극 수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을 역할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G20 의장국의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의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 단독 특별연설자로의 초청된 것이나 각국으로부터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것에 비추어 보면 중간자로서의 한국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아이티 재건도 아이티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클린턴전 미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힘'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헬리를 타고 온이 폭폭 빠져 구두는 신기도 어려운 이곳 작은 마을 다보스에 모인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나라별 기업별 행사에 부지런히 기웃기웃한다. 무슨 정보를 나눌 것은 없나, 나의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나 해서이다.

한국의 밤 행사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빛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유수의 참석자들이 행사의 격을 높였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 및 막걸리가 참석자들의 눈과 귀, 혀를 만족시켜 준 까닭이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니 좋은 행사가 되고 홍보한 외교성과가 된다.

이제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조화를 이루어 품격을 높여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몰아오는 현재의 위기 현장 너머로 보이는 곧게 뻗은 저 전나무처럼…

독자들의 실랄한 비판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투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동국일보 dgyonhap@hanmail.net

기 이후 신흥개도국 저개발국을 포함하지 못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갭(gap)의 개선 필요성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이상 소수 선진국만의 거버넌스로는 안 된다는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의 의사를 적극 수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을 역할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G20 의장국의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위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 단독 특별연설자로의 초청된 것이나 각국으로부터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중간자로서의 한국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아이티 재건도 아이티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힘'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협궤를 타고 눈이 푹푹 빠져 구두는 신기도 어려운 이곳 작은 마을 다보스에 모인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나라별 기업별 행사에 부지런히 기웃기웃한다. 무슨 정보를 나눌 것은 없나, 나의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나 해서이다.

한국의 밤 행사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빛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유수의 참석자들이 행사의 격을 높였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 및 막걸리가 참석자들의 눈과 귀, 혀를 만족시켜 준 까닭이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니 좋은 행사가 되고 훌륭한 외교성과가 된다.

이제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조화를 이루어 품격을 높여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협궤의 유리 천정 너머로 보이는 곧게 뻗은 저 전나무처럼…

의 결 번 호	2010지선6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전일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3월 9일자 22면 『한자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한자 교육이다.

한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 이후 40여 년간 소홀히 해 왔다.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공용언어로 역사와 문화, 정서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국민교양과 의사소통, 어휘력 신장에 도움되며 아시아 및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문화수준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G2국가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지당한 일이다. 지난 2002년 민관식 외 13명의 전직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전직 총리 20명이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 161명 중 145명(90%)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적극 찬성하였다. 2010년 1월엔 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찬성하였고,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포함. 명문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자 교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부분적으로 지도하였을 뿐이며, 중학교는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환경, 직업 등과 함께 학교별 임의선택 지도하였으며, 고등학교도 교양과목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별로 임의 선택하여 지도하였다. 현재 '2007년 개정교육과정' 에서도 초중고교 공히 재량활동 시간에 임의선택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 정규교과로 지정하거나 강조하는 어구는 찾아볼 수 없다. 한자 교육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 · 영 · 수' 와 함께 필수교과 또는

필수선택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이며 다양화 시대이다. 세상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인이 있고 한글이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가, 세계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중하여 '동방의 횃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글 한글과 한자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양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과 한자공용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열린마당

최 기 환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한자 교육이다.

한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 이후 40여 년간 소홀히 해 왔다.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공용언어로 역사와 문화, 정서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한국의 70% 이상이 한자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국민교양과 의사소통, 어휘력 신장에 도움 등 동아시아 및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문화수준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G2국가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지탄할 일이다. 지난 2002년 민관식 외 13명의 전직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전직 총리 20명이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 161명 중 145명(90%)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적극 찬성하였다. 2010년 1월엔 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찬성하였고,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포함 범문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자 교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부분적으로 지도하였을 뿐이며, 중학교는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에 성취도, 환경, 직업 등과 관계 학교별 임의선택 지도하였으며, 고등학교도 교양과목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별로 임의 선택하여 지도하였다. 현재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임의선택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 정규교과로 지정하기는 강조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 한자 교육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영·수'와 함께 필수교과 또는 필수선택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이며 다양화 시대이다. 세상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인이 있고 한글이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가, 세계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중하여 '동방의 횃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글 한글과 한자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양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과 한자 공용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전 대전둔원고등학교 교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7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5면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2009년도 법정전입금 917억5천1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 원 등 모두 2천270억5천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18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현황' 자료를 보면 시는 3천978억100만원의 예산 중 76.94%인 3천60억5천만원만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2009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금 917억5천100만원은 그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고, 미전입률은 전북(73.79%)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오늘날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나쁘다', '대학 진학 성적이 뒤진다'는 등 그 원인과 책임을 교육계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은 교육계에 있지 않고 인천교육행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등의 부족한 교육적 지원노력과 교육재정 지원 실적에 있다.

필자는 교육재정 투입의 몇 가지 교육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교육 효과의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성장 발달단계에 맞춰 제때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습력을 결정하는 교육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재정은 이들 3가지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다.

둘째, 시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교육의 준비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교육의 준비 원칙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학습준비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물리적 학습 환경, 훌륭한 선생님과 보조교사, 보조 인원 등 인적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학습효과가 크게 오른다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인적 학습환경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이전인 2월과 8월의 방학 시기 등에 미리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학습준비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을뿐더러 적정한 선생님과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게 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정전입금은 시교육청에 시장 맘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고무줄 재정'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법정전입금이다. 이들 법정전입금은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해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지급을

전제로 시장에게 일시 맡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시장이 이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치 않고 미룬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시장이 다른 항목,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은 오늘의 지역사회 경제이며,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의 바탕이다. 시장이 법정전입금 등을 장기간 늦춰 교부하는 동안 인천의 교육환경이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자 결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교육환경이 뒤진 인천을 떠나고 있다.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고 나면 자연히 지역사회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고용 기회도 함께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재인 두뇌와 인재가 인천을 떠나면 인천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회는 법정전입금 미지급 사유와 그 배경을 밝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군·구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기 고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2009년도 법정전입금 917억5천1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 원 등 모두 2천270억5천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18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시는 3천978억100만 원의 예산 중 76.94%인 3천60억5천만 원만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2009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금 917억5천100만 원은 그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고, 미전입률은 전북(73.79%)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오늘날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나쁘다', '대학 진학 성적이 뒤진다'는 등 그 원인과 책임을 교육계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은 교육계에 있지 않고 인천교육행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등의 부족한 교육적 지원 노력과 교육재정 지원 실적에 있다.

필자는 교육재정 투입의 몇 가지 교육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교육 효과의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성장 발달단계에 맞춰 제때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습력을 결정하는 교육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재정은 이들 3가지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둘째, 시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교육의 준비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교육의 준비 원칙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학습 준비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물리적 학습환경, 훌륭한 선생님과 보조교사, 보조 인원 등 인적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학습효과가 크게 오른다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인적 학습환경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이전인 2월과 8월의 방학 시기 등에 미리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학습준비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을 뿐더러 적정한 선생님과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게 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정전입금은 시교육청에 시장 맘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교부금 재정'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법정전입금이다. 이들 법정전입금은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해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지급을 전제로 시장에게 일시 맡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시장이 이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치 않고 미룬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시장이 다른 항목,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은 오늘의 지역사회 경제이며,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의 바탕이다. 시장이 법정전입금 등을 장기간 늦춰 교부하는 동안 인천의 교육환경이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자 결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교육환경이 뒤진 인천을 떠나고 있다.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고 나면 자연히 지역사회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고용 기회도 함께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재인 두뇌와 인재가 인천을 떠나면 인천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회는 법정전입금 미지급 사유와 그 배경을 밝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군·구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1(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0년 3월 12일자 16면『청렴이 아름다운 미래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계룡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艶姿(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청렴한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선비 정신의 바탕은 재물 욕심이 없는 청렴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풍백화점 참사일 것이다. 원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시공과정에서도 숱한 불법변경이 있었으며,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시공을 했고,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주고 건축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수백명의 인명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2002년부터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하고 각 기관들은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예방 및 척결노력을 해나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계룡시는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결과 전국 161개 시·군 자치단체중 종합청렴도 8.92점으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2009년도에는 충남도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받는 등 우리시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하나하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시는 반부패 청렴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 계룡' 구현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렴 실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생활 특강 등을 통한 윤리의식 고양, 6.2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 ▲부패 취약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반부패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배부와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비위공직자 척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신고 분위기 조성 ▲온라인을 통한 신고, 고발 기능 강화 등 비위 및 부패공직자 척결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 · 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전직원의 청렴 혁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청렴도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졌지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38위로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경쟁국 보다 한참 아래로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렴도 세계 1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세계 복지선진국인 핀란드 보다 더 높은 청렴 선진국 건설을 위하여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청렴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고

최 홍 묵
계룡시장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蠶室(염지)牧之本務(목지본무)萬善之源(만선지원)諸德之根(제덕지근)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청렴한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비 정신의 바탕은 재물 욕심이 없는 청렴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38위 공직자 역할·노력등 필요

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풍백화점 참사일 것이다. 원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시공과정에서도 숱한 불법변경이 있었으며,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시공을 했고,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주고 건축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수백명의 인명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2002년부터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하고 각 기관들은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예방 및 척결노력을 해나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계룡시는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결과 전국 161개 시·군 자치단체중 종합청렴도 8.92점으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2009년도에는 충남도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받는 등 우리 시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하나하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시는 반부패 청렴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물한 계룡' 구현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렴 실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생활 특강 등을 통한 윤리의식 고양, 6.2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 △부패 취약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반부패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배부와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비위공직자 척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신고 분위기 조성 △온라인을 통한 신고고발 기능 강화 등 비위 및 부패공직자 척결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전직원의 청렴 혁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청렴도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졌지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38위로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경쟁국 보다 한참 아래로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렴도 세계 1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세계 복지선진국인 핀란드 보다 더 높은 청렴 선진국 건설을 위하여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청렴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4(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충청일보빌딩 3,4층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3월 17일자 7면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자유선진당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후보(민주당)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태복 후보 선거사무소가 의뢰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충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304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을 이용해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결과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은 남성 50대 이상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안과 정부에서 수정발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이 58.7%로 수정안 2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원안 찬성 지지층은 남성 30~50대 공주시 · 논산시 · 서산시 · 서천군 · 연기군 · 홍성군 ·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후보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후보선택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자유선진당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후보(민주당)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태복 후보 선거사무소가 의뢰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충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304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을 이용해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결과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은 남성·50대 이상·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안과 정부에서 수정발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이 58.7%로 수정안 2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원안 찬성 지지층은 남성·30~50대·공주시·논산시·서산시·서천군·연기군·홍성군·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후보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후보선택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천안=김병한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80(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3월 22일자 10면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사진)의 애칭은 '삼각산 도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25개 자치구청장과 화상회의 때 그를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단다.

그는 삼각산과 인연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가 추구하는 구정 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다. 강북구 '행복'의 근원을 삼각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구정 철학이다.

'솔직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곳 강북구'라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하면 낙후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결론은 삼각산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돼 구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 이런 명산이 있겠는가"라는 그가 삼각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

우이동 도봉도서관 앞에 있는 솔밭공원 역시 명품이다. 이곳은 최소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1000여그루나 자라고 있는 자연 녹지 공원으로 찾는 이들은 4계절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당초 이곳은 사유지인데 온갖 쓰레기더미로 방치된 애물단지였다가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어 삼각산에 많이 피는 진달래를 활용, 축제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들을 설득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직원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선 지난 2004년 보광사로 이어지는 길에 진달래 2만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이듬해 4월부터는 '삼각산 진달래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와 함께 곁들인 글짓기와 사생대회에 의외로 주민들이 큰 반응을 나타냈다. 삼각산의 문화관광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치과의사, 문화원장 등을 하면서 이곳 강북구

에서만 40년 이상 살아온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단다.

"주민들이 믿든 안 믿든 구청장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관광이 제격이라고 믿었기 때문.

김 구청장은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사진)의 애칭은 '삼각산 도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25개 자치구청장과 회상회의 때 그를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단다.

그는 삼각산과 인연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가 추구하는 구정 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다. 강북구 '행복'의 근원을 삼각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구정 철학이다.

'솔직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곳 강북구'라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하면 낙후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결론은 삼각산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돼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 이런 명산이 있겠는가"라는 그가 삼각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

우이동 도봉도시관 앞에 있는 솔밭공원 역시 명품이다. 이곳은 최소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1000여그루나 자라고 있는 자연 녹지 공원으로 찾는 이들은 4계절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당초 이곳은 시유지인데다 온갖 쓰레기더미로 방치된 애물단지였다가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다.

區 상징 관광단지로 조성

진달래 필땐 축제도 열어

사람들 찾다보니 소득도 '쑥'

내년까지 테마공원 만들 것

이어 삼각산에 많이 피는 진달래를 활용, 축제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들을 설득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직원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선 지난 2004년 보광사로 이어지는 길에 진달래 2만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이듬해 4월부터는 '삼각산 진달래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와 함께 곁들인 글짓기와 사생대회에 의외로 주민들이 큰 반응을 나타냈다. 삼각산의 문화관광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치과의사, 문화원장 등을 하면서 이곳 강북구에서만 40년 이상 살아온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단다.

"주민들이 믿든 안 믿든 구청장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관광이 제격이라고 믿었기 때문.

김 구청장은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82(자심)
언 론 사	(주)대한매일신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 신관 402호 대표이사 김 기 수
심의대상기사	대한매일신문 2010년 3월 23일자 5면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삼각산(북한산) 일대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한국 민족의 얼과 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이 찾아 서울 도심의 유일한 명산으로 꼽히는 삼각산(북한산) 일대, 이곳에는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다가 순국한 이 준 열사를 비롯해 손병희, 여운형, 이시영, 김창숙 선생 및 안중근 의사의 장녀인 안현생, 오상순, 이용문, 16기의 독립 유공자묘가 있다. 또한 신익희, 신숙, 조병욱 선생 등 건국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 등의 묘가 있는 역사적 장소다. 하지만 묘역을 찾는 이들이 드물고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애국지사 묘역을 성역화, 국립화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 시설을 확충해 삼각산 일대를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묘지와 사업은 묘역 성역화와 함께 순례코스를 조성, 역사문화관과 산악박물관, 민속박물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강북구의 삼각산문화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을 갖춘 역사문화성지로 조성 된다.

국립공원 수유분소~ 조병옥 선생 묘역~ 통일교육원~ 솔밭공원~ 손병희 선생 묘역의 탐방로 등이 하나로 이어지고 우이령을 따라 양주시로 넘어가는 명상길까지 이으면 삼각산을 한바퀴 돌아오는 '도심 올레길'이 탄생하게 된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수천년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삼각산이야말로 최고의 관광자원"이라며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묘지를 방문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순국선열 묘역까진 참배하지 않더라."며 "관심 밖에 놓인 묘역에 탐방로와 기념관 등 순례코스를 조성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문익환 목사 생가인 통일의 집도 있다.

"모든 시설은 2016년에 완성이 된다."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를 '삼각산(북한산) 도사'로 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때 붙여준

별명이다. 이 대통령은 화상회의 화면에 한복차림으로 나타난 김 구청장을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했고 이후 애칭이 됐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본래 이름인 삼각산으로 조만간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옛 이름을 되찾게된다. 김 구청장이 지난 7년 재임기간 지명찾기 운동에 앞서왔다고 한다.

구는 묘역 국립화 추진을 위해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국립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성역화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 사적 지정 등 성역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김현풍 강북구청장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이금연 기자 / "삼각산(북한산) 일대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한국 민족의 얼과 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이 찾아 서울 도심의 유일한 명산으로 꼽히는 삼각산(북한산) 일대. 이곳에는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다가 순국한 이 준 열사를 비롯해 손병희, 여운형, 이시영, 김창숙 선생 및 안중근 의사의 장녀인 안현생, 오상순, 이용문, 16기의 독립 유공자묘가 있다.또한 신익희, 신숙,조병옥,선생 등 전국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 등의 묘가 있는 역사적 장소다.하지만 묘역을 찾는 이들이 드물고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애국지사 묘역을 성역화,국립화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 시설을 확충한 삼각산 일대를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묘지화 사업은 묘역 성역화와 함께 순례코스를 조성, 역사문화관과 산악박물관, 민속박물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강북구의 삼각산문화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을 갖춘 역사문화성지로 조성 된다.

국립공원 수유분소~ 조병옥 선생 묘역~통일교육원~ 솔밭공원~손병희 선생 묘역의 탐방로 등이 하나로 이어지고 우이령을 따라 양주시로 넘어가는 명상길까지 이으면 삼각산을 한바퀴 돌아오는 '도심 올레길'이 탄생하게 된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수천년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삼각산이야말로 최고의 관광자원"이라며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2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묘지를 방문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순국선열 묘역까진 참배하지 않더라."며 "관심 밖에 놓인 묘역에 탐방로와 기념관 등 순례코스를 조성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문익환 목사 생가인 통일의 집도 있다.

"모든 시설은 2010년에 완성이 된다."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를 '삼각산(북한산) 도사'로 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때 붙여준 별명이다. 이 대통령은 화상회의 화면에 한복차림으로 나타난 김 구청장을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했고 이후 애칭이 됐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본래 이름인 삼각산으로 조만간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옛 이름을 되찾게된다. 김 구청장이 지난 7년 재임기간 지명찾기 운동에 앞서왔다고 한다.

구는 묘역 국립화 추진을 위해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국립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성역화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등 국가 사적 지정 등 성역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5면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2010년 3월 24일자 16면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만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 및 칼럼에서 군정활동 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나이 아흔의 우공은 길을 막고 있는 태항산과 왕옥산을 옮기려고 온 가족을 동원해 산의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날랐다.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우공은 자손 대에까지 계속 흙 나르기 작업을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우공의 분투에 감동한 상제는 신선을 보내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바로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離山)의 고사(故事)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불가능한 목표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한 고사성어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마부위침, 磨斧爲針),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연못을 이룬다(적수성연, 積水成淵), 티끌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진합태산, 塵合泰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는 4년간의 제작 기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해냈다. 괴테는 6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완성했다.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가 40년의 인생을 바쳐 건축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아주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

각설하고, 진안군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안군의 2010년 화두가 바로 우공이산(愚公離山)이다. 농업·농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한 삽 한 삽 파내려 가면서 산을 옮긴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송영선 군수는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 군수는 진안의 대표적 상품인 홍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15곳에 홍삼 판매장을 열고, 홍삼·한방농공단지도 분양에 나섰다. 또 홍삼을 활용해 아토피를 예방하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진안은 대규모 공단이 없어서 청정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심한편이 아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청정 자연은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한약재의 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인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힘입어 2007년 25농가에 불과했던 연소득 1억 이상 부농숫자가 지난해에는

148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25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사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홍삼을 비롯해, 약초, 고추, 오디, 깻잎 등 특화 및 틈새 작목을 집중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2년 사이 6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진안군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실현의 목표는 결코 무리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시골 군에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연임을 계산한다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포장이나 다리 건설 같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힘은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발은 현실을 딛고 서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은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더 나가서는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인고의 세월 끝에 얻게 되는 달콤한 결실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꿈꾸어온 큰 목표를 포기하고 보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우직한' 우공을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늙은이'로 치부해 버릴지 모를 일이다.

눈앞의 이익과 성과에만 급급한다면, 인생의 성공도 지역과 나라의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혹여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만을 재촉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송영선 군수의 우직한 '우공이산 ·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 매회 평균 200명 총 3만2000여명 경청

진안군이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앞장

칼 럼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전 용 성
진안담당 국장

나이 아흔의 우공은 길을 막고 있는 태항산과 왕옥산을 옮기려고 온 가족을 동원해 산의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날랐다.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우공은 자손 대에까지 계속 흙 나르기 작업을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우공의 부부에 감동한 상제는 신선을 보내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바로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故事)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발로 불가능한 목표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한 고사성어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마부위침, 磨斧爲針),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연못을 이룬다(적수성연, 積水成淵), 티끌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진합태산, 塵合泰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는 4년간의 제작 기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해냈다. 괴테는 6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완성했다.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가 40년의 인생을 바쳐 건축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아주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

각설하고, 진안군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안군의 2010년 화두가 바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농업 · 농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한 삽 한 삽 파내려 가면서 산을 옮긴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송영선 군수는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 군수는 진안의 대표적 상품인 홍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15곳에 홍삼 판매장을 열고, 홍삼 · 한방농공단지도 분양에 나섰다. 또 홍삼을 활용해 아토피를 예방하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진안은 대규모 공단이 없어서 청정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심한 편이 아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청정 자연은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한약재의 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인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힘입어 2007년 25농가에 불과했던 연소득 1억 이상 부농숫자가 나난해에는 148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25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사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홍삼을 비롯해, 약초, 고추, 오디, 깻잎 등 특화 및 틈새 작목을 집중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2년 사이 6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진안군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실현의 목표는 결코 무리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시골 군에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연임을 계산한다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포장이나 다리 건설 같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힘은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발은 현실을 딛고 서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은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더 나가서는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인고의 세월 끝에 얻게 되는 달콤한 결실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꿈꾸어온 큰 목표를 포기하고 보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우직한' 우공을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늙은이'로 치부해 버릴지 모를 일이다.

눈앞의 이익과 성과에만 급급 한다면, 인생의 성공도 지역과 나라의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혹여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만을 재촉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송영선 군수의 우직한 '우공이산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송영선 진안군수 인터뷰

2006년 12월 시작한 마이학당, 주민·공무원 시대변화 대응할 수 있는 지식 배움터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강사들 매주 목요일 강의… 다양한 분야 정보 제공

■ 매회 평균 200명 총 3만2000여명 경청

진안군이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온 것은 지난 2006년 민선4기 송영선 군수 취임이후부터다.

송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마이학당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쁨·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마이학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매주 한 번씩 교육 강좌를 열다보니 시행 초기에는 일부 반발도 있었다. 시간과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 때마다 송 군수는 "지속적인 교육은 진안의 변화를 더 빨리 불러올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달라"고 설득을 거듭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교육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진안은 교육을 통해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생태건강도시 진안'을 향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문지식·정보 습득의 장

진안군은 많은 물과 깊은 계곡, 기지가 될 수 있는 자연전화적인 지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안 명품인 용삼과 경쟁력 있는 청정농산물도 많다. 이 같은 내부의 지산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는데 사람을 갖고 있는 진안군은 앞으로 1~2년이 무엇을 좌우할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

2006년 12월 시작한 마이학당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하는 배움터다. 국내 최고의 강사들이 매주 목요일 살아 숨쉬는 지식과 경험을 1200분 주인 중이었다.

장만기 한국인권개발연구원장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골전도사 장수관 박사 등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152명이 다녀갔다.

매회 평균 200명 총인원 3만1,000명이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교육을 통해 농업·관광·경제·공화·교육·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연예인 등 화려한 강사진

마이학당 강사들은 유명 연예인, 전직 장관과 강사위장 등 이력만 대충 다 알만한 유명인사다.

박동수(문화복지기획단장), 이성호(서울신문 명예 논설위원), 홍혜경(의학박사나스트), 황수관(인제대 교수), 구성태, 이상용, 이수영(여성 방송인), 장석영(소설가), 정영희(경제대 객원교수), 한승헌(전 감사위장), 하영호(탐험가) 등 152명이 강사로 초빙했다.

강의 내용도 다양하다. 특급선 건국대 교수의 '잘 알아야 이긴다', 조동훈 밝은가정협의회 회장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동해결 전 의학전문기자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 등 발상풍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주대 장석열 교수의 '아토피 없는 새상 만들기', 김병준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진안 문화 컨텐츠의 미래', 정진영 한국유기농업협회장의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인제가 친환경 농업의 방향'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받았다.

특히 김경호 아이지메이킹센터 소장의 '리더십을 키우는 좀 좋은 아이지', 황윤원 공인대학교 사용동의 '인제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등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만한 내용도 있었다.

군은 강사들이 다녀간 뒤 내용을 정리해 매마다 강연집을 발간하고, 직원지역 학교, 주민자치센터,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다.

· 전용성기자/bogmoss@hanmail.net

· 편집=김민영기자/zoroklover@hanmail.net

"평생 공부 안에 미래가 있다"

"평생 공부 안에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진안군의 희망이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송영선 군수는 "교육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크고 알찬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며 "마이학당은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진안의 미래비전을 이루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진안의 여건에서 타시도 주민, 타시도 공무원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낙후의 악순환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처음 마이학당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안군의 교육 핵심으로 성장했다"며 "2010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내용으로 군민과 공직자 개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이학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3월 22일자 16면 『'지성감민' 시정운영… 참 공약실천 '앞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김제시장의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개최 소식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성감민' 시정 운영… 참 공약실천 '앞장'

이건식 김제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선 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전환하여 각 업무기능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 부서별 점검을 통해 5대분야, 4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확정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을 정례화해서 예산 미확보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 공약사업 98% 이행 · 모든 분야 A등급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경제활성 기여

김제시는 도내 지자체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동참했고, 참 공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두차례의 수상으로 공약이행에 대해 이미 대내외적으로도 검증받은 바 있다.(중략)

지난 16일, 민선4기 김제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결산 및 성과보고회에서 4년동안 이 시장은 공약사업의 98.06%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분야별 평정에 있어서는 5대 분야 모두가 성공적 이행수준(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 A등급(성공적 이행수준)으로 평가받기 까지 이시장은 공약 전반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장공약사항관리 지침을 제정,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으며,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시장은 공약의 모토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 시정을 운영하며 열악한 지역 여건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70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 지역지정, 새만금 간석지 210만평에 5,000여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농어업 회사 설

립, 240억원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향후 10년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검토 대상사업(1개)인 시민이 주인되는 우수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예의 주시해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성감민’ 시정 운영… 참 공약실천 ‘앞장’

이건식 김제 시장

이건식 김제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선 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전환하여 각 업무 기능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 부서별 점검을 통해 5대분야 4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확성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을 정례화해서 예산 미확보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
공약사업 98% 이행 · 모든 분야 A등급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경제활성 기여

김제시는 도내 지자체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동참했고, '참 공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우수사례의 수상으로 공약이행에 대해 이미 대내외적으로도 검증받은 바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 공약사업은 5.31 지방선거 시장 후보 정책공약을 당선 후 민선4기 김제시장 공약사업으로 전환하여 각 업무 기능별 시행계획보고회를 개최한 후 부서별 점검을 통해 5대분야 40개세부사업으로 분류, 작성하였다.

김제시는 그 동안 공약사업의 분기별 추진상황을 자체점검을 정례화해서 예산미확보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민선4기 김제시장 공약사업 40개사업중 예산사업 35개사업, 비예산사업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45억원이다. 재원별 투자금액은 총 9,745억원 중 국비 2,710억원, 도비 507억원, 시비 1,550억원, 민자 등 기타사업비가 4,977억원이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자치역량과 교육키우기에 장학금지원 확대(법인설립) 등 10개사업, 농업과 경제살리기에 [illegible]한우특구 및 사육단지 조성 등 9개사업, 사랑의 복지나누기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 홈" 조성 등 7개사업,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동부권 웰빙 농촌모델 도시 조성 등 6개사업, 특화된 문화돋우기에 벽골제 복원 및 세계화 추진 등 8개사업이다.

지난 16일, 민선4기 김제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결산 및 성과보고회에서 4년동안 이 시장은 공약사업의 98.06%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자체평가 결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민과 약속한 40개 사업중 완료가 26개사업, 진행중인 정상추진사업이 13개, 장기검토 사업이 1개이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자치역량과 교육키우기 10개사업중 완료 9개, 장기검토가 1개이며 농업과 경제살리기 9개사업중 완료가 2개, 정상추진이 7개, 사랑의복지나누기 7개사업중 완료 6개, 정상추진이 1개이다. 또한 쾌적한 도시만들기 6개사업중 완료 3개, 정상추진이 3개, 특화된 문화돋우기 8개사업에 완료 6개, 정상추진이 2개이다.

금번 이행평가는 민선4기 김제시장 취임 후 4년의 시점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므로 임기내 완료공약과 계속추진중인 공약으로 구분하여 완료, 정상추진, 부진, 불이행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업이행을 위해 예산확보상황, 계획성, 목표달성 정도, 효과성 등 4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고, 평가방법은 성공적 이행수준(A), 보통의 이행수준(B), 부진한 이행수준(C)으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별 평정결과 전체 40개사업 가운데 98.56%에 달하는 39개사업이 성공적 이행으로 나타났으며 2.5%에 해당하는 1개 사업은 장기검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평정에 있어서는 5대 분야 모두가 성공적 이행수준(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 A등급(성공적 이행수준)으로 평가받기 까지 이시장은 공약 전반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장공약사항관리지침을 제정,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시장은 공약의 모토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 시정을 운영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70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지역지정, 새만금 간척지 210만평에 5,000여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240억원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향후 10년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검토 대상사업(1개)인 '시민이 주인되는 우수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예의 주시해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한유승 기자

분야별 주요 공약사업 평가

◇ 공직 역량강화·교육환경 개선 주력

일반행정·교육분야에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각계 각층 시정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찾아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운영, 지평선학당 운영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고, 지평선 아카데미, 여성교육, 농업인대학(지평선대학)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수준을 높였다.

특히, 90년대 이후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이 계속되어 밖으로 향한 인구, 경제, 문화의 화살표를 김제로 돌려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믿고 자녀를 김제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 기금목표 278억원중 220억원을 조성하였고 파격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상위권 10%이내 학생들이 관내고교에 진학하였다.

지평선학당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여 3학년 입시생 전원(40명)이 수도권 명문대(10명), 지방대(전북·전남대 등 30명) 합격하였다.

◇ 농업중심 → 첨단산업도시로 변신

농(산)업·경제분야에서는 FTA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첨단 농기계클러스터, 생산기반,전문화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중심에서 첨단 산업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지구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노력 등 '새만금 김제몫'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김제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활한 옥토, 청정 김제 '지평선' 단일 고품격 브랜드를 사용, 농·축산물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하였고 통합브랜드 지평선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 19개 상품류 상표등록과 품목별 통합 품질관리, 연합마케팅을 전개하였다. 논에서 벼농사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탈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전 지역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자급률을 높이고 경관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변모하였다.

백산면 일원 293만㎡(89만평)에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산업은행과의 금융권 PF약정체결, 기공식('10. 1.20) 등을 추진, 분양면적 중 85% 입주를 희망하는 등 조기 분양되었고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25,000개 일자리, 4조7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운영

복지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을 조성해서 2006년 2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2009년까지 76개소로 확대하였고, 올해 19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최첨단 IT와 접목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 2,500여세대에 무선외출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환경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도시환경분야에서는 녹과 숲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로 신호대기시간 1분 절감, 신호대기시 공회전이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1개소당 연간 3억5천만원의 비용절감과 연료비·시간절약, 도시경관, 매연방지 등 1석 7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벽골제 복원 및 주변정비를 통해 원시농업부터 첨단농업까지 총 망라하여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6년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를 통해 벽골제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몫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국내·외 관광객 150여만명이 벽골제를 방문, 27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체육공원내 수변 산책로를 여가, 산책, 운동을 즐기는 가족형 웰빙공원으로 조성함은 물론,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레포츠공원과 인접한 생활체육활동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41억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스포츠 이용시설 확대와 여가선용,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제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제시장은 민선4기 출범이후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10만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2006년대비 1,231억원의 재정규모가 늘어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2.5%가 높아졌으며, 국·도비 확보액도 증가했다. 2006년 취임당시 지방채 264억원중 22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41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김제=한유승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86(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3월 21일자 12면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에서 가족관계와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융합의 성남, 여성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

"성남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다른 광역시보다 크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으로 성남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 4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현 차병원 그룹 부회장)의 친동생이다. 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아온 황 예비후보는 특이하게도 청와대에서 세 번씩이나 근무한 경력을 가져 국정운영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인맥으로는 경남지사에 출마할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후배이며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대학 선후배 관계로도 유명하다. 풍부한 여야 인맥과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강조하며 '통합의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중략)

"출마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 있었다" 간접 시사 "황영기 동생 황준기 아닌 황준기 형 황영기로"

- 공직을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하게 된 배경은 뭔가.

▲ 성남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몸집은 광역시 급이다. 그리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여타 광역시 보다 크다. 이젠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도시와 경쟁을 하고 실제 대도시급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제 경기도가 아닌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중앙정부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경험했고 폭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성남의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각부처의 장 차관, 청와대 등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중략)

-성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성남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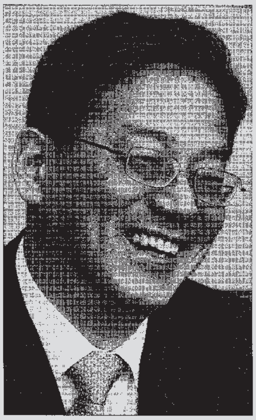
가지, 판교, 분당 등이다. 각자 성격이 다른데 판교는 판교대로 미래 멋거리를 창조해 가야하고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구 시가지는 적어도 10~20년 후에 분당, 판교 보다 더 잘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6·2 지방선거 '화제의 후보' 인터뷰❶ 성남시장 후보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성남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다른 광역시 보다 크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으로 성남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 4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현 차병원 그룹 부회장)의 친동생이다. 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아온 황 예비후보는 특이하게도 청와대에서 세 번씩이나 근무한 경력을 가져 국정운영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인맥으로는 경남지사에 출마할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후배이며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대학 선후배 관계로도 유명하다. 풍부한 여야 인맥과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강조하며 '통합의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융합의 성남, 여성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


〈사진=맹철영 기자〉

지난 11일, 최근 호화청사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성남시장 출사표를 던진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성남시는 '첫정'을 봉한 도시라고 인연을 소개했다. 공직 첫 보직으로 성남시 감사실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잠시 성남을 떠났다 2001년 두 번째로 성남으로 이사했다. 이후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활동을 통해 여성부 차관으로 충실히 근무했다.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출마 배경과 관련해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장차관에 있는 인사는 마음대로 출마를 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사전에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성남시 청사진 관련 '통합의 성남시를 만들겠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황 전 차관은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나은 도시로, 판교는 시작하는 명품도시로, 구 시가지는 미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 전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출마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 있었다" 간접 시사

"황영기 동생 황준기 아닌 황준기 형 황영기로"

- 공직을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하게 된 배경은 뭔가.

▲ 성남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몸집은 광역시 급이다. 그리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여타 광역시 보다 크다. 이젠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도시와 경쟁을 하고 실제 대도시 급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제 경기도가 아닌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중앙정부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경험했고 폭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성남의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각 부처의 장 차관, 청와대 등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 성남시와의 인연을 소개한다면.

▲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성남이다. 고시합격 해서 수습을 마치고 성남시 감사실장으로 정식 발령 받았다. 첫 보직으로 성남에 6개월 밖에 안됐지만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이게 첫 번째 인연이다. 두 번째 인연은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고 95년도에 입주를 했다.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였는데 정자중학교에 입학했다. 이것이 성남과의 두 번째 인연이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이 사실상 무산 되는 분위기인데…

▲ 일단 기존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 정부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 지리라 본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3개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좋겠다.

- 전 여성부 차관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한다면.

▲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봐야 한다. 여성들은 신체적 특성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또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불편하게 살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여성 정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면 이런 여성 문제들이 줄어든다. 성남에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끼는 것 등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웠던 것들을 보완 할 것이다

-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간의 업적 중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한 것이다. 북한과 경기도가 농업협력사업을 하면서 단 1원의 현금지원 없이 평양 인근 30만평 농지에 경기도가 농약, 비료, 농기구, 인력 등을 제공했다.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2006년 본격 사업에 착수했는데 협력사업 이후 생산량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 이대엽 시장의 호화청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청사 문제 같은 것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축소나 재건축 할 가능성은 있나.

▲ 예산을 다뤄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동네에 좋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건물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 성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성남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구 시가지, 판교, 분당 등이다. 각자 성격이 다른데 판교는 판교대로 미래 멋거리를 창조해 가야하고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구 시가지는 적어도 10~20년 후에 분당, 판교 보다 더 잘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인터뷰=홍준철 정치부장
정리=전성무 기자〉

mariocap@dailypot.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8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기헤럴드 경기 군포시 금정동 725-2 태을빌딩 6층 대표이사 임 종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헤럴드 2010년 3월 18일자 2면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통합 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경기헤럴드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군포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이와 동일한 유형의 후보예정자의 칼럼, 저술을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 노재영시장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4년의 지방자치가 비리와 뇌물로 종말을 고했다.

주민의 공익을 위한다면서 출범한 한나라당 지방 행정이 지역이권과 시장의 탐욕이 결합되면서 군포시민들을 농락하고 치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한나라당이 또 다시 시장 후보를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행정 권력을 달라고 한다. 무슨 목적인가? 다음에는 비리를 저질러도 법망을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미인가? 후안무치와 실종된 책임정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군포 선거판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떠한가?

한나라당 시장이 구속되자 다음에는 이미 자신들이 시장이나 다 된 것처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부경선 문제서부터 한국 정치사상 최초인 5야당 선거연합정치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추진하는 등 오만함과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무책임한 정치의 극을 달린다.

이것은 이번 한나라당 4년 이전에 8년간의 민주당 시장 행정에 대한 군포시민의 거센 비판과 거부감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 4년간의 비리와 주민무시 행정이나 당시 민주당 8년간의 '비리백화점' 행정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군포시민들의 평가를 일거에 망각하는 철면피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이 뇌물비리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사가 어떻든 시민들이 무조건 민주당한테 다음 시장을 맡길 것이라는 오만과 판단착오에서 기인한다.(중략)

이에 민주당은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5+4 정치협상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고집하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시장후보를 포기하여 진보정당과 시민진영의 통합적 후보에 동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오만과 탐욕으로 자신들이 또다시 군포

시정을 독차지하겠다고 후보를 출마시킬시에는 진보정당과 시민후보 진영에서 단일화된 범진 보통합후보는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세를 몰아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모아 반성할지 모르는 탐욕과 독선적인 민주당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0. 3. 12.
민주노동당 군포시장후보 송재영

성명서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 노재영시장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4년의 지방자치가 비리와 뇌물로 종말을 고했다.

주민의 공익을 위한다면서 출발한 한나라당 지방 행정이 지역이권과 시장의 탐욕이 결합되면서 군포시민들을 농락하고 치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한나라당이 또다시 시장 후보를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행정 권력을 달라고 한다. 무슨 목적인가? 다음에는 비리를 저질러도 법망을 잘빠져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미인가? 후안무치와 실종된 책임정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군포 선거판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떠한가?

한나라당 시장이 구속되자 다음에는 이번 자신들이 시장이나 다 된 것 처럼 과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부경선 문제서부터 한국 정치사상 최초인 90명 선거연합정치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추진하는 등 오만함과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무책임한 정치의 극을 달린다.

이것은 이번 한나라당 4년 이전에 8년간의 민주당 시장 행정에 대한 군포시민의 거센 비판과 기부감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 4년간의 비리와 주민무시 행정이나 당시 민주당 8년간의 '비리배화점' 행정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군포시민들의 평가를 일거에 망각하는 철면피한 행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이 뇌물비리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시가 어떻든 시민들이 무조건 민주당한테 다음 시장을 맡길 것이라는 오만과 판단착오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군포시민들의 자존심을 일거에 무시하는 것으로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올바른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군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염원에 대한 배반이요 정치적 횡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를 심판하려는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의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시장후보를 포기하고 지역의 진보정당 및 시민진영에서 단일후보로 결정되는 후보에 동참함으로써 민주당의 과거사를 반성함과 동시에 범진보세력에 동참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후보 진영은 시민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주체가 되어 단일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의 "시민참여단일화경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풀뿌리지방자치이기 때문이며 시민주체의 폭발적 참여가 가능할 때만이 그동안 난도질당하고 부정비리로 만연된 군포의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치세력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5+4 정치협상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고집하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시장후보를 포기하여 진보정당과 시민진영의 통합적 후보에 동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오만과 탐욕으로 자신들이 또다시 군포시정을 독차지하겠다고 후보를 출마시킬시에는 진보정당과 시민후보 진영에서 단일화된 범진보통합후보는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세를 몰아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모아 반성할지 모르는 탐욕과 독선적인 민주당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0. 3. 12.
민주노동당 군포시장후보 송재영

의 결 번 호	2010지선89(자심)
언 론 사	(주)군민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32 대표이사 김 순 란
심의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0년 3월 18일자 2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거창군민신문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줄행랑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원의 주민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람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 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 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 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 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 하건대 강석진 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중략)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 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 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2.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 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3. 강석진 씨는 지금이라도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 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 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성명서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출행방을 했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특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득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 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 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우리 거창에 상처의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 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 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하건데 강석진 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권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칙론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한미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발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청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 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 씨가 스스로 팽개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 의원은 진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의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 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 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2.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 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3. 강석진 씨는 지금이라도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90(자심)
언 론 사	(주)거창신보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02 대표이사 박 정 자
심의대상기사	거창신보 2010년 3월 9일자 13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거창군민신문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성명서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89(자심) 참조

성 명 서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줄행랑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 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 번 치룰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하건대 강석진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단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칙론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행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씨가 스스로 팽개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의원은 진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의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강석진씨는 지금이라도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91(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사정보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 3층 대표이사 백 강 희
심의대상기사	한국시사 2010년 3월 8일자 14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년 3월 8일자 15면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한국시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 및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방법 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 및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 기사는 2010지선89(자심) 참조

〈거창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군수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거창을 잠시 떠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과 아쉬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배려와 격려로 새 정부의 중추기관인 청와대에서 정치 · 행정의 경륜을 더 쌓게 되었고, 숱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치상황,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은혜와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최근에 고위공직자단, 2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거창 군민 여러분!

거창 군민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창 군민과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보은하는 길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거창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보은하고, 거창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에도 보은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에서의 폭 넓은 국정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다양한 인맥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는 거창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상처의 톱 모델"인 오바마 대통령은 "상처는 희망의 토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도 "사퇴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중략)

농민에게는 농업에서 희망을, 공무원은 업무에서 희망을, 교육,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품위와 격조 높은 농업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전국 최고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임하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거창 군민 모두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도시로, 변화를 창조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거창!" "살고싶은 도시 거창!"으로 전국 최고의 군으로 일구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5

강 석 진 드림

〈강석진씨 거창군수 출마 선언에 대한 거창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줄행랑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입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하건대 강석진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단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칙론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챙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씨가 스스로 팽개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의원은 진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와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씨를 군수 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강석진씨는 지금이라도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거창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기신 군수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거창을 잠시 떠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과 아쉬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배려와 격려로 새 정부의 중추기관인 청와대에서 정치 · 행정의 경륜을 더 쌓게 되었고, 숨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치상황,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은혜와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최근에 고위공직자단, 2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거창 군민 여러분!

거창 군민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창 군민과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보은하는 길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거창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보은하고, 거창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에도 보은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에서의 폭 넓은 국정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다양한 인맥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대는 거창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상처의 톱 모델"인 오바마 대통령은 "상처는 희망의 도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도 "사회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공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희망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황하던 시절에도 부모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재혼 실패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부모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였고, 열등감 투성이의 상처를 희망과 자신감의 씨앗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여 "희망을 상징하는 리더"가 된 오바마!

저는 오바마가 보여주는 희망의 미소를 좋아하고, 또 닮고 싶습니다. 거창 곳곳을 누비며, 중앙을 오르내리며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한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창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통합시로 가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 거창이 중심이 되도록 반드시 일구어 내겠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업에서 희망을, 공무원은 업무에서 희망을, 교육,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품위와 격조 높은 농업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전국 최고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거창 군민 모두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도시로, 변화를 창조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거창!" "살고 싶은 도시 거창!"으로 전국 최고의 군으로 일구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5.

강 석 진 드림

의 결 번 호	2010지선92(자심)
언 론 사	(주)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0년 3월 25일자 30면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노원구청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 · 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 · 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동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넷째, 경직된 관료주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발언대

이 노 근
서울 노원구청장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 · 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 · 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동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넷째, 경직된 관료주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 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3(자심)
언 론 사	(주)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심의대상기사	강원도민일보 2010년 3월 22일자 19면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한다'는 환경론은 교육학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며, 교육의 미래,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보았다.

강원지역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0.9%, 중학교 4.8%로 각각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4.1%로 8위를 차지하는 등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학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구는 초등학교 평가에서 기초미달 비율이 사회과목에서 1명만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4개 과목은 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며, 한국 사교육 시장의 상징인 서울 강남의 초교생들의 학력과 비교해도 앞서는 것이어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전형적인 농촌에 인구도 2만여명에 그치고 1개의 분교를 포함한 11곳의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1411명에 불과한 작은 고을에서 기적이 나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교육 성공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는 일본 아키타 산골학교의 교육기적에 필적할 만하다. 일본 47개 지역 가운데 평균소득이 최하위권인 아키타 현이 도쿄 등 대도시를 제치고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학원도 적고 경제력도 없는데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라게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양구와 많이 닮아 있어 세간에 '양구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듯하다.

하지만 양구의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교육, 방과 후 학교, 종일 돌봄 교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교사와 학교, 교육청, 학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양구군은 강원도 최초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조례를 재정하여 양구군 지방세의 40%를 교육발전전입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61억 4600여만원이 조성된 양록장학금은 작년에만 167명의 학생에게 총 1억 94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양구고와 양구여고가 기숙형 공립고 전환, 강원외고 개교 등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을 위해 떠

나는 사람들에게 강원교육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강원도의 오랜 문제점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강원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인 무료급식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낳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장들은 의지를 가지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업성적과 함께 높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백년지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멍석을 펼쳐주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 고

이 기 찬
도의원(양구)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교육이 '빈익빈 부익부',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한다'는 환경론은 교육학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며, 교육의 미래,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보았다.

강원지역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0.9%, 중학교 4.8%로 각각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4.1%로 8위를 차지하는 등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학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구는 초등학교 평가에서 기초미달 비율이 사회과목에서 1명만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4개 과목은 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며, 한국 사교육 시장의 상징인 서울 강남의 초교생들의 학력과 비교해도 앞서는 것이어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전형적인 농촌에 인구도 2만여명에 그치고 1개의 분교를 포함한 11곳의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1411명에 불과한 작은 고을에서 가적이 나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교육 성공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는 일본 아키타 산골 학교의 교육기적에 필적할 만하다. 일본 47개 지역 가운데 평균소득이 최하위권인 아키타 현이 도쿄 등 대도시를 제치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지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학원도 적고 경제력도 없는데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라게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양구와 많이 닮아 있어 세간에 '양구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듯하다.

하지만 양구의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교육, 방과 후 학교, 종일 돌봄 교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열정적인 교사와 학교, 교육청, 학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양구군은 강원도 최초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양구군 지방세의 40%를 교육발전전입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61억 4600여만원이 조성된 양록장학금은 작년에만 167명의 학생에게 총 1억94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양구교와 양구여고가 기숙형 공립고 전환, 강원외고 개교 등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에게 강원교육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강원도의 오랜 문제점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강원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인 무료급식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낳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장들은 의지를 가지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업성적과 함께 높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백년지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멍석을 펼쳐주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4(자심)
언 론 사	(주)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대표이사 유 제 철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7면『학교 내 강압 · 폭력 절대 안된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 내 강압 · 폭력 절대 안된다

지난 2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졸업생들의 뒤풀이 행태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졸업식을 마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졸업식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대낮에 알몸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선배들 또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학교교육에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복을 찢는 까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졸업을 했으니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소비행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자기가 안 입으면 후배들에게라도 물려주면 될 일이다. 교복값이 비싸다고 학부모들이 나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이는 학교도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물려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의 학창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멀쩡한 복장에 이물질을 뿌리고 갈기갈기 찢고 있으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이라지만 물건을 아끼는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이 교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을 한 듯해 더욱 씁쓸하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경건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별다른 감동이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오늘날 누구나 받는 것이 학교교육인데, 학교 졸업이 무슨 큰일이냐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선배들이 졸업식 뒤풀이를 빙자해 후배들에게 옷을 벗도록 한 것은 분명 하나의 폭력이다. 아무리 졸업을 축하한다지만 추운 날씨에 누군들 야외에서 옷을 벗고 싶겠는가?

선배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겠지만, 문제는 그런 강압과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왜 하필 옷을 벗는 일을 시켰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같은 모든 것은 교육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인생의 통과의례의 하나인 졸업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기념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성교육을 통해 예절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공동체사회에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기 고

한 이 춘

지난 2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졸업생들의 뒤풀이 행태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졸업식을 마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졸업식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땅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대낮에 알몸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을 한 듯해 더욱 씁쓸하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경건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별다른 감동이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오늘날 누구나 받는 것이 학교교육인데,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선배들 또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학교교육에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복을 찢는 까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졸업을 했으니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불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소비행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자기가 안 입으면 후배들에게라도 물려주면 될 일이다. 교복값이 비싸다고 학부모들이 나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이는 학교도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물려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의 학창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멀쩡한 복장에 이물질을 뿌리고 갈기갈기 찢고 있으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이라지만 물건을 아끼는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졸업이 무슨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선배들이 졸업식 뒤풀이를 빙자해 후배들에게 옷을 벗도록 한 것은 분명 하나의 폭력이다. 아무리 졸업을 축하한다지만 추운 날씨에 느닷없이 야외에서 옷을 벗고 섰겠는가?

선배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런 강압과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왜 하필 옷을 벗는 일을 시켰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같은 모든 것은 교육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인생의 통과의례의 하나인 졸업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기념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성교육을 통해 예절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공동체사회에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9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인천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96-1 대표이사 이 광 림
심의대상기사	인천신문 2010년 3월 10일자 14면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나는 각종 교육 비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도 이를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로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1년 반 전쯤에 교육계의 부조리와 교육비리 척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장천감오(長千監五 · 교장이 되려면 1천만원, 교감은 500만원을 써야 한다는 말)'를 소재로 기고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모든 교장과 교감들이 전부 '장천감오'로 승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자는 교육계의 '오래되고 구조화된 일부 인사 비리'를 반드시 없애려는 마음에서 글을 썼었다.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로 인해 일부 교육 단체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다시 불거지는 교육계의 비리를 보면서, 그 비리들이 전체 교육자들이 아닌 일부 교육계 권력 상층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이기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반성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 각종 학교 공사 비리, 심지어 방과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문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 문제, 학교 시설 부실 시공 및 부적절한 계약과 관리 · 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끼친 문제, 학교 급식 업체 선정, 순위를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이해할 수 없는 급식 행정 문제 등이다. 또 몇 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천시교육청 감사 시 장학관과 교장 승진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당시 교육감 등이 '줄 경고'를 받았던 문제, 최근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문제 등 일일이 지면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인천에도 있었다.

이런 교육계 부조리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 재발해 온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 방편, 땜질식 대응을 해온 교육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요즘 다시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대책을 세우라고 일선 시 · 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자 인천의 경우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만 입듯이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외부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

여주기식 개선책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의 문제'인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전히 못 느끼는 듯하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고 장기화할 때 반드시 부패한다. 교육 권력을 차지한 이들 역시 그들의 권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을 독점할 수 있는 '교육 마피아'를 형성해 깨지지 않는 끈끈하고 두터운 패밀리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한 팀이 돼 서로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전해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들이 그 어떤 교육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작은 파이를 배분받았다고 느끼거나 조직에서 배제되어 배반할 때만이 이 교육 마피아 조직에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증명하듯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자녀교육을 잘해 주리라 믿으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성실하게 교육세를 내는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교과부나 검·경이 이번에는 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각오 없이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단지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교육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기 고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나는 각종 교육 비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도 이를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로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1년 반 전쯤에 교육계의 부조리와 교육 비리 척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이 되려면 1천만원, 교감은 5000만원을 써야 한다는 말)'를 소재로 기고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모든 교장과 교감들이 전부 '장천감오'로 승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자는 교육계의 '오래되고 구조화된 일부 인사 비리'를 반드시 없애려는 마음에서 글을 썼었다.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로 인해 일부 교육 단체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다시 불거지는 교육계의 비리를 보면서, 그 비리들이 전체 교육자들이 아닌 일부 교육계 권력 상층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이기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반성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 각종 학교 공사 비리, 심지어 방과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문제들이 피노키오처럼 스쳐갔다. 일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 문제, 학교 시설 부실 시공 및 부적절한 계약과 관리·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끼친 문제, 학교 급식 업체 선정 순위를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이해할 수 없는 급식 행정 문제 등이다. 또 몇 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천시교육청 감사 시 장학관과 교장 승진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당시 교육감 등이 '줄 경고'를 받았던 문제, 최근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문제 등 일일이 지면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인천에도 있었다.

이러 교육계 부조리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 재발해온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 방편, 관질식 대응을 해온 교육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요즘 다시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대책을 세우라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자 인천의 경우 인고 있던 옷을 뒤집어만 입듯이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외부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선책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의 문제'인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전히 못 느끼는 듯하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고 장기화할 때 반드시 부패한다. 교육 권력을 차지한 이들 역시 그들의 권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을 독점할 수 있는 '교육 마피아'를 형성해 깨지지 않는 끈끈하고 두터운 패밀리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한 팀이 돼 서로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전해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들이 그 어떤 교육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작은 파이를 배분받았다고 느끼거나 조직에서 배제되어 배반할 때만이 이 교육 마피아 조직에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증명하듯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자녀교육을 잘해 주리라 믿으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성실하게 교육세를 내는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교과부나 검·경이 이번에는 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각오 없이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단지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교육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6(자심)
언 론 사	(주)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로 100 대표이사 변 근 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4면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 사수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요즈음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심지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 이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번 소외됐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증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줘 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정수뇌부와 경기도지사는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중단발언에 이어 9월에는 뉴욕투자유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에서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세종시의 도시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법개정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국정수뇌부와 경기 지사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실소할 노릇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 과거에 수도권에 과밀됐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로 이전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

통령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의 맹비난을 일삼는 경기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김 지사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마치 청와대, 광화문청사, 국회 등 중앙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양 선언적인 발표를 일삼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이송되면 의결만 남아있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등 세종시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로 지난해 10 · 28 재보궐 선거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도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 세종시 해법은 공통분모를 찾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오로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 시점이다.

기고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박양규
진천군의회의원

요즈음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심지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이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번 소외됐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 줘 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헌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정수뇌부와 경기도지사는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중단발언에 이어 9월에는 뉴욕 투자유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에서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세종시의 도시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법개정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국정수뇌부와 경기 지사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실소할 노릇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 과거에 수도권에 과밀됐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로 이전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의 맹비난을 일삼는 경기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김 지사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마치 청와대, 광화문청사, 국회 등 중앙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양 선언적인 발표를 일삼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이송되면 의결만 남았 있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등 세종시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로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도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 세종시 해법은 공통분모를 찾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오로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 시점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7(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0년 3월 19일자 17면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여군수)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2010세계대백제전은 반세기 동안 지역축제로 이어져온 백제문화제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로 만들기 위한 메카 프로젝트이다.

백제는 한성, 웅진, 그리고 사비로 이어지는 700년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진출한 백가제해(百家濟海)의 대제국이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다시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구촌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소중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2010세계대백제전이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개최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하나 하나 착실한 준비를 해왔고 충청남도가 함께 확대되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정식 승인과 함께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도비등 24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 20만 명을 비롯한 260만 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고 관광객 단순 소비지출만으로도 17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백년이 넘은 백제문화제는 불과 수 년전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몇십배의 성장을 이뤘고, 지역축제에서 국내 축제로 다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0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면서 부여의 관광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논산간, 공주간 국도가 확장 개통되었고, 백제문화단지 진입도로,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등 관련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가 상반기에 조기 완공되고,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도 7월 오픈된다.

백마강을 오르내릴 7척의 황포돛배, 전선 지중화와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소나무길 등 도시경관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구드래길 음식특화거리, 서동요 역사관광지와 서동공원, 부소산과 구드래의 사비 왕궁원과 백제역사마을 조성 등 손님맞이을 위해 한참 단장중에 있다.

올 해는 한국방문의 해이자 대충청 방문의 해이다. 그리고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가졌고, 부여를 비롯해 교토, 파리, 아테나, 비엔나 등 55개국 85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는 공식 후원을 결정하였고, 136개국 1000여 자치단체 모임

인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진흥기구, 그리고 국내외 12재 자매도시들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의 초등학교 교과서 편성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대백제전이 부여와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격조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찌우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잘 맞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모셔야 한다.

군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고 군민 모두가 백제역사를 새롭게 펼치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무한 동력이 되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할 때이다.

특별기고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김 무 환

부여군수

2010세계대백제전은 반세기동안 지역축제로 이어져온 백제문화제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로 만들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이다.

백제는 한성, 웅진, 그리고 사비로 이어지는 700년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진출한 백가제해(百家濟海)의 대제국이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다시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구촌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소중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2010세계대백제전이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하나 하나 착실한 준비를 해왔고 충청남도가 함께 하면서 확대되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정식 승인과 함께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도비등 24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 20만 명을 비롯한 260만 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고 관광객 단순 소비지출만으로도 17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백년이 넘은 백제문화제는 불과 수 년전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몇십배의 성장을 이뤘고, 지역 축제에서 국내 축제로 다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0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면서 부여의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논산간, 공주간 국도가 확장 개통되었고, 백제문화단지 진입도로,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등 관련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가 상반기에 조기 완공되고,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도 7월 오픈된다.

백마강을 오르 내릴 7척의 황포돛배, 전선지중화와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소나무길 등 도시경관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구드래길 음식특화거리, 서동요 역사관광지와 서동공원, 부소산과 구드래의 사비 왕궁원과 백제역사마을 조성 등 손님맞이을 위해 한창 단장중에 있다

올 해는 한국방문의 해이자 대충청 방문의 해이다.그리고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가졌고, 부여를 비롯해 교토, 파리, 아테나, 비엔나 등 55개국 85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는 공식 후원을 결정하였고, 136개국 1000여 자치단체 모임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진흥기구,그리고 국내외 12재 자매도시들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의 초등학교 교과서 편성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대백제전이 부여와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격조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찌우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잘 맞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모셔야 한다.

군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고 군민 모두가 백제역사를 새롭게 펼치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무한 동력이 되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할 때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8(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신문)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강 동 오
심의대상기사	시사신문 2010년 3월 21일자 5면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시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당동, 봉천동, 흑석동……독산동, 도곡동, 원효로……저는 20대 이후 서울 시내 30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의 어두운 면, 밝은 면 구석구석을 온 몸으로 겪으며 제 삶의 터전인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서울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울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교육비리는 1등이고, 학업성취도는 꼴찌입니다.

합계출산률은 0.96으로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되곤 했습니다.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울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정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제1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우고,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곳,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겠습니다. 일.교.집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멈춰버린 뉴타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풀어내 서민과 중산층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철

도지하화, 광화문 광장 재구성, 저탄소 녹색도시 플랜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겉치레 행정을 배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통과 나눔, 균형과 조화를 시정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도약기에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칼럼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시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 에 섰습니다. 사당동, 봉천동, 흑석동…… 독산동, 도곡동, 원효로…… 저는 20대 이후 서울 시내 30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의 어두운 면, 밝은 면 구석구석을 온 몸으로 겪으며 제 삶의 터전인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서울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울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교육비는 1등이고, 학업성취도는 꼴찌입니다.

합계출산률은 0.96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되곤 했습니다.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울의 결모습을 치장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정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제1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우고,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곳,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겠습니다. 일.교.집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멈춰버린 뉴타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풀어내 서민과 중산층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철도지하화, 광화문 광장 재구성, 저탄소 녹색도시 플랜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겉치레 행정을 배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통과 나눔, 균형과 조화를 시정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도약기에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9(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신문)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강 동 오
심의대상기사	시사신문 2010년 3월 28일자 5면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울시민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움직임은 부산한데, 시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는 벗어났다는데 취직은 여전히 어렵고 아이 낳아 잘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서울을 만든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600년 수도 서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논란에서 보듯, 600년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서울은 여전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챙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분할 세력에 맞서, 서울 발전의 잠재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분할 시정, 대권 시정이 아닌 실용 시정과 생활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일 중심의 실용 시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하는 생활 시정만이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서울시장, 대권만을 바라보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선 이유입니다. 현명한 서울시민과 우리 당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과의 소통 부족, 전시행정, 예산 낭비 논란이 새로운 서울 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또 반복되어야 할까요?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준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 서울 재창조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수도 서울 재창조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

제, 역사문화, 관광여가,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시대의 세계 4대 도시 서울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산업, 창조 문화 산업, 녹색 산업 등을 서울 각 권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보육, 교육,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으로 은퇴한 노장년층이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쉼터와 녹색 공간, 열린 공간을 확대해 거리, 공원, 광장 등을 마음껏 즐기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대기를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시민소통시정으로 시민의 창의와 감성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뜰시정으로 세금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협력시정으로 당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청과 의논하여 시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성공한 여성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칼럼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울 시민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정의 움직임은 부산한데, 시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는 벗어났다는데 취직은 여전히 어렵고 아이 낳아 잘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서울을 만든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600년 수도 서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논란에서 보듯, 600년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서울은 여전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챙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분할 세력에 맞서, 서울 발전의 잠재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분할 시정, 대권 시정이 아닌 실용 시정과 생활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일 중심의 실용 시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하는 생활 시정만이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서울시장, 대권만을 바라보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선 이유입니다. 현명한 서울시민과 우리 당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과의 소통 부족, 전시행정, 예산 낭비 논란이 새로운 서울 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또 반복되어야 할까요?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준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 서울 재창조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수도 서울 재창조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제, 역사문화, 관광여가,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시대의 세계 4대 도시 서울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산업, 창조 문화 산업, 녹색 산업 등을 서울 각 권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보육, 교육,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으로 은퇴한 노장년층이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쉼터와 녹색 공간, 열린 공간을 확대해 거리, 공원, 광장 등을 마음껏 즐기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대기를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시민소통시정으로 시민의 창의와 감성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뜰시정으로 세금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협력시정으로 당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청과 의논하여 시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성공한 여성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0(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포커스)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박 강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포커스 2010년 3월 31일자 13면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0지선98(자심)〉 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101(자심)
언 론 사	성북뉴스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90-701 대표이사 박 정 자
심의대상기사	성북신문 2010년 3월 18일자 3면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요즘 관내 숭곡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이 달라졌다.

맨 땅에서는 서서 뛰며 놀 수 밖에 없던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에서는 앉아서 놀고 엎드려서 놀며, 뒹구면서 노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거칠게 욕하며 싸우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잔디운동장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노는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학교내외 폭력예방교육에도 일조하게 된다는 점은 교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연친화적인 잔디운동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많다.

첫째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 늘 맨 땅에서 노는 아이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기 일쑤이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먼지가 없으므로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신발에 묻어 들어오던 먼지가 교실이나 복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학교 전체에 먼지가 없어 아동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잔디 운동장에 뿌리는 칩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코팅된 것을 사용하면 아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또 체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맨 땅으로 된 운동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퍽질퍽하여 한 동안 체육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물빠짐이 좋아 비가 그친 뒤 한시간 정도가 지나면 언제든지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눈이 그치면 잔디운동장에서는 흙이 묻지 않은 눈으로 눈싸움을 하고 놀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아래 공부에만 내몰려 달리 뛰어놀기 어려운 아동들의 체육수업은 그나마 보장되는 신체활동이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빼 먹었던 체육수업을, 비만 그치면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으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관내에 좀 더 많은 잔디운동장이 신설

되어야 하는 이유다.

부디 더 많은 학교 운동장에 잔디운동장시설이 갖추어지길 바라며, 월곡축구잔디구장, 월곡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 등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교체해 건강한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정형진 구의원(민주당 바선거구)

요즘 관내 숭곡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이 달라졌다.

맨 땅에서는 서서 뛰며 놀 수 밖에 없던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에서는 앉아서 놀고, 엎드려서 놀며, 뒹구면서 노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거칠게 욕하며 싸우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잔디운동장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노는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학교내외 폭력예방교육에도 일조하게 된다는 점은 교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연친화적인 잔디운동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많다.

첫째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 늘 맨 땅에서 노는 아이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기 일쑤이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먼지가 없으므로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신발에 묻어 들어오던 먼지가 교실이나 복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학교 전체에 먼지가 없어 아동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잔디 운동장에 뿌리는 접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코팅된 것을 사용하면 아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또 체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맨 땅으로 된 운동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퍽질퍽하여 한 동안 체육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물빠짐이 좋아 비가 그친 뒤 한 시간정도가 지나면 언제든지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눈이 그치면 잔디운동장에서는 흙이 묻지 않은 눈으로 눈싸움을 하고 놀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아래 공부에만 내몰려 달리 뛰어놀기 어려운 아동들의 체육수업은 그나마 보장되는 신체활동이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빼 먹었던 체육 수업을, 비만 그치면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으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관내에 좀더 많은 잔디운동장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다.

부디 더 많은 학교 운동장에 잔디운동장시설이 갖추어지길 바라며, 월곡축구잔디구장, 월곡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등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교체해 건강한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9(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4월 2일자 21면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화군수)와 관련하여, 유천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과 함께 유 후보의 경력과 자질 등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유천호. 강화 바닥서 그 이름 모르면 '강화인'이 아니다. 그만큼 유명세가 붙은 사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화'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의 인물로 자치사에 기록될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으니 그렇다. 유천호(인천광역시) 의원은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압축한 상징적 인물이 됐다.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치의 시대가 그를 키웠다. 권위주의시대였다면 한량명부에 들어가야 맞다. 유천호 의원의 강화군수 출마소식에 접하면서 얼핏 떠오른 그에 관한 콘셉트다.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다. 일성은 간결했다. "강화 재정자립도 16%서 뱅뱅 돌고 있다"고 강화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이것 가지고 강화민의 삶의 질, 어쩌고 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특산물 생산을 연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 찬 그림을 그려냈다.

우리는 강화를 너무도 잘 안다. '항몽 40년'서 출발할 만큼 강화인의 인고(忍苦) 역사는 한국인의 모진 역사와도 같다. 유천호는 이런 기질적, 그리고 강화적 언저리를 훑어내는 데 익숙해, 한때 기자의 소양을 발휘했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공명심'에 강했다. 아니 강화를 누구보다 아꼈다. 강화를 위해선 뒷골목은 그에게 없었다. 큰 길만을 걸을 만큼 강화를 위해서라면 전면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문교사회위원장을 맡으면서 강화 위한 활약은 그래서 강화인 모두가 높이 샀다. 학교마다 스쿨버스며 실내체육관 건설은 역시 그다웠다. 그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 지방의원의 기질을 보여준 대목이다. 초선에 인천시의회 부의장 자리 올라탄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료화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진부한 모습 그대로다. 탁상 아닌 현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경영이 주축을 이룰 때 주민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 오랜 관료화의 수직적 행정은 '자치'가 아닌 시혜의 중앙집권적 틀을 벗지 못한 기형아다. 스스로가 찾고 개척하는 길만이 중앙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다. 바로 이것은 오늘의 강화군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단체장의 CEO적 기질이 광폭(廣幅)으로 치달아 주민서비스 결여를 자초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제어장치로 행정을 기능적으로 책임화

시키는 단체장의 이원적 경영 스타일로 조정될 수 있다. 유천호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책임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구상이 바로 이 같은 새 모델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강화군은 그 특성상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16%라는 부끄러운 자립도의 열악성을 벗지 못하면 강화는 영영 중앙의 수직적 간섭의 예속 틀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치시대란 바로 한 번쯤 이런 낙후성의 늪을 벗어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치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화와 유천호라는 특수관계는 新강화시대를 열어가는 기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천호 의원은 그의 지난 족적에서 어쩌면 기이하다할 만큼 의외성을 많이 보여 왔다. 이번 유천호의 강화군수 출마가 의외성과 필연성이 함께 하는 이유다. 낙후지역의 자립화, 새로운 개척 기대를 해볼 만 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가져다주는 의외성의 미래다. 유천호 모델 말이다.

사 설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유천호. 강화 바닥서 그 이름 모르면 '강화인'이 아니다. 그만큼 유명세가 붙은 사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화'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의 인물로 자치사에 기록될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으니 그렇다. 유천호(인천광역시) 의원은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압축한 상징적 인물이 됐다.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치의 시대가 그를 키웠다. 권위주의시대였다면 한량 명부에 들어가야 맞다. 유천호 의원의 강화군수 출마 소식에 접하면서 얼핏 떠오른 그에 관한 콘셉트다.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다. 일성은 간결했다. "강화 재정자립도 16%서 뱅뱅 돌고 있다"고 강화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이것 가지고 강화민의 삶의 질, 어쩌고 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특산물 생산을 연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 찬 그림을 그려냈다.

우리는 강화를 너무도 잘 안다. '항몽 40년'서 출발할 만큼 강화인의 인고(忍苦) 역사는 한국인의 모진 역사와도 같다. 유천호는 이런 기질적, 그리고 강화적 삶의 언저리를 훑어내는 데 익숙해, 한때 기자의 소양을 발휘했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공명심'에 강했다. 아니 강화를 누구보다 아꼈다. 강화를 위해선 뒷골목은 그에게 없었다. 큰 길만을 걸을 만큼 강화를 위해서라면 전면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문교사회위원장을 맡으면서 강화 위한 활약은 그래서 강화인 모두가 높이 샀다. 학교마다 스쿨버스며 실내체육관 건설은 역시 그다웠다. 그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 지방의원의 기질을 보여준 대목이다. 초선에 인천시의회 부의장 자리 올라탄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료화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진부한 모습 그대로다. 탁상 아닌 현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경영이 주축을 이룰 때 주민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 오랜 관료화의 수직적 행정은 '자치'가 아닌 시혜의 중앙집권적 틀을 벗지 못한 기형아다. 스스로가 찾고 개척하는 길만이 중앙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다. 바로 이것은 오늘의 강화군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단체장의 CEO적 기질이 광폭(廣幅)으로 치달아 주민서비스 결여를 자초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제어장치로 행정을 가능적으로 책임화시키는 단체장의 이원적 경영 스타일로 조정될 수 있다. 유천호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책임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구상이 바로 이 같은 새 모델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강화군은 그 특성상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16%라는 부끄러운 자립도의 열악성을 벗지 못하면 강화는 영영 중앙의 수직적 간섭의 예속 틀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치시대란 바로 한 번쯤은 이런 낙후성의 늪을 벗어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치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화와 유천호라는 특수관계는 新강화시대를 열어가는 기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천호 의원은 그의 지난 족적에서 어쩌면 기이하다할 만큼 의외성을 많이 보여 왔다. 이번 유천호의 강화군수 출마가 의외성과 필연성이 함께 하는 이유다. 낙후지역의 자립화, 새로운 개척 기대를 해볼만 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가져다주는 의외성의 미래다. 유천호 모델 말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0(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4월 9일자 21면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사업추진 실적 및 자질 등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인천시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기지사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현 단체장을 각각 공천키로 한 것은 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는 김문수 지사가, 인천시장에는 안상수 현 시장이 각각 한나라당 후보로 나란히 공천됐다. 물론 이런 결정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와 달리 안상수 시장은 한동안 경합자가 있어 설왕설래 했던터다. 안 시장의 8년 치적과 크게 벌여 놓은 사업의 연결성을 높이사 '안상수'를 빼면 그 뒷처리를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안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이 '결자해지'의 뜻에서 선택됐다고 봐야 옳다.

우리는 지난 8년 재임기간 추진한 안상수 시장의 인천 개혁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상전벽해라 할 인천의 개혁정책은 '안상수'가 아니고는 감히 개혁의 고삐를 잡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안 시장은 타고난 결단력과 후천적 경륜이 포개져 이루어 놓은 새 인천의 적임자로 꼽혀왔다. 누구나 남이 해 놓은 성과물에는 쉽게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발하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의 도시를 시대에 맞게 바꾸기란 간단치 않다. 기존 도시의 개혁틀은 보존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상수 시장이 8년전 새 인천 프로그램을 만들때 가장 고심했던 것이 이 대목이었다. 안상수의 새 인천 기본틀은 구상부터가 달랐다. 이미 8년전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먼저 그는 떠올렸다. 인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 활용, 세계적 중심도시의 꿈을 그는 펼친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 '허브도시'다.

안 시장의 구상은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신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 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천투자기업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안으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생이 그래서 됐다. 인천의 새 역사를 여기서 새로 쓰는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새 인천의 진행형은 그래서 그 누구도 바라 볼 수 없을 획기적 인천개혁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었다. 인천 도시 균형의 콘셉트는 보이지만 그 찬란한 인천경제의 매듭은, 그리 쉽게 다가서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교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확실히 보여

야 들어오는 외국 기업인의 속성은 여전히 현재 인천 미래를 잿빛으로 가려 놓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필요와 공천이 불가피한 이유다.

우리는 이같은 '인천경제'의 진행형에서 안상수를 굳이 한번 더 인천시장으로 권유한 한나라당의 공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갈대밭에서 출발한 인천의 역사는 15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많은 역사의 질곡속에서도 끈기로 오늘에 이른 인천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눈앞에 둔 인천은 앞이 그리 밝게만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오늘의 이 고비를 잘 넘어서야 안상수도 살고 새 인천의 여명이 보일 수 있게돼 있다. 이번 안상수 시장의 또 한번 출마 권유는 그래서 인천시민에게도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기속의 인천을 감당할 인물로 안상수를 공천한 이유다.

사 설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인천시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기지사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현 단체장을 각각 공천키로 한 것은 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는 김문수 지사가, 인천시장에는 안상수 현 시장이 각각 한나라당 후보로 나란히 공천됐다. 물론 이런 결정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와 달리 안상수 시장은 한동안 경합자가 있어 설왕설래 했던터다. 안 시장의 8년 치적과 크게 벌여 놓은 사업의 연결성을 높이사 '안상수'를 빼면 그 뒷처리를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안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이 '결자해지'의 뜻에서 선택됐다고 봐야 옳다.

우리는 지난 8년 재임기간 추진한 안상수 시장의 인천 개혁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상전벽해라 할 인천의 개혁정책은 '안상수'가 아니고는 감히 개혁의 고삐를 잡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안 시장은 타고난 결단력과 후천적 경륜이 포개져 이루어 놓은 새 인천의 적임자로 꼽혀왔다. 누구나 남이 해 놓은 성과물에는 쉽게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발하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의 도시를 시대에 맞게 바꾸기란 간단치 않다. 기존 도시의 개혁 틀은 보존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상수 시장이 8년전 새 인천 프로그램을 만들때 가장 고심했던 것이 이 대목이었다. 안상수의 새 인천 기본틀은 구상부터가 달랐다. 이미 8년전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먼저 그는 떠올렸다. 인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 활용, 세계적 중심도시의 꿈을 그는 펼친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 '허브도시'다.

안 시장의 구상은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신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 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천투자기업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안으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생이 그래서 됐다. 인천의 새 역사를 여기서 새로 쓰는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새 인천의 진행형은 그래서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획기적 인천개혁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었다. 인천 도시 균형의 콘셉트는 보이지만 그 찬란한 인천경제의 매듭은, 그리 쉽게 다가서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교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확실히 보여야 들어오는 외국 기업인의 속성은 여전히 현재 인천 미래를 잿빛으로 가려 놓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필요와 공천이 불가피한 이유다.

우리는 이같은 '인천경제'의 진행형에서 안상수를 굳이 한번 더 인천시장으로 권유한 한나라당의 공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갈대밭에서 출발한 인천의 역사는 15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많은 역사의 질곡속에서도 끈기로 오늘에 이른 인천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눈앞에 둔 인천은 앞이 그리 밝게만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오늘의 이 고비를 잘 넘어서야 안상수도 살고 새 인천의 여명이 보일 수 있게돼 있다. 이번 안상수 시장의 또 한번 출마 권유는 그래서 인천시민에게도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기속의 인천을 감당할 인물로 안상수를 공천한 이유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4(자심)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0년 4월 15일자 17면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파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정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변화와 경쟁을 주도하는 파주시, 그 발전에 만족할 수 없으며 안주는 퇴보를 뜻한다는 류화선 파주시장은 어제의 성공방식으로 내일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류 시장은 인구 50만명의 도시 확장을 앞두고 시민행정주의를 나열, 3대 종점시책인 민원행정, 깨끗한 파주 만들기, 클로징10 시책의 결실을 떠나 더 새롭고 더 많이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개발 · 보급 · 이용 촉진 및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춘 녹색생활 시민운동 확대를 이끌어내 그린(Green)을 핵심가치로 자연과 생태를 보전하고 친환경 공간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시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 무겁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DMZ 생태자원화 및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는 무관함을 강조, 흔들림 없는 평화와 반영의 길을 가기 위해 공무원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합법 · 합리 · 투명 · 윤리행정을 금과옥조로 삼아 정직과 신뢰의 시장구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일보 창간 19주년을 맞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시정,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파주 이미지 및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 올린 류화선 파주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편의 행정을 들어본다.(중략)

올해 중정 추진할 문화 사업에 대해

공공도서관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읍 · 면 · 동 별로 1개 또는 인구 5만명당 1개 시립도서관을 목표로 우선 52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 예산으로 5개 도서관 건립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10개의 시립도서관을 갖게 된다.

100평 이상의 시립도서관 건립과는 별도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인구 1만명당 1개를 목표로 4~5개 시범 · 운영방안 검토 및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2곳을 만들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독서스쿨을 운영해 큰 성과를 봤다. 이들 도서관은 앞으로 독서스쿨의 거점으로 운영돼 창작 · 예술활동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파주삼릉정비 및 장릉개방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실현시키고 제2출판도시 내에 3만1967㎡규모의 문화시설 용지 확보계획을 갖고 있다.(중략)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숲이 아무리 울창하다 한들 그 숲속에 들어가 보면 고사목과 부러진 나뭇가지, 벌레 먹은 나무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죽은 나무가 있고 부러진 나뭇가지, 벌레 먹은 나무가 있더라도 숲은 숲이다. 소지역 이기주의나 소집단 할거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파주의 발전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인터뷰 류 화 선 파주시장

변화와 경쟁을 주도하는 파주시, 그 발전에 만족할 수 없으며 안주는 퇴보를 뜻한다는 류화선 파주시장은 어제의 성공방식으로 내일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류 시장은 인구 50만명의 도시 확장을 앞두고 시민행정주의를 나열, 3대 중점시책인 민원행정, 깨끗한 파주 만들기, 클로징10 시책의 결실을 떠나 더 새롭고 더 많이 신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용 촉진 및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춘 녹색생활 시민운동 확대를 이끌어내 그린(Green)을 핵심가치로 자연과 생태를 보전하고 친환경 공간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시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 무겁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DMZ 생태사원화 및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는 무관함을 강조, 흔들림 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 공무원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합법·합리·투명·윤리행정을 금과옥조로 삼아 정직과 신뢰의 시정구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일보 창간 19주년을 맞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시정,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파주 이미지 및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 올린 류화선 파주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변역 행정을 들어본다.

류화선 파주시장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책, 전국서 벤치마킹
원스톱 서비스 대응 '다목적복합건물' 신축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지역경제 큰 기여
연말 '신세계첼시 프리미엄아울렛' 개장
DMZ 생태·평화벨트 관광자원화 추진
52억원 투입 5개 시립도서관 건립 예정

#시가 펼치는 행정에 대해

파주시의 시민주의 행정은 다른 자치단체 선정의 대표사례 행정이다. 시민주의 행정은 시민만족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고객만족 경영을 하듯 시청은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는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위주의 행정을 의미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경영행정을 할 수 있으며 낭비와 불균형을 없애고 드라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날마다 달라져야 한다. 법대로 규정대로만 외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시간을 끌면 시민들은 복장행정에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파주시의 행정은 스피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파주시정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핵심시책으로 도입해 법정 기간의 절반을 목표로 했으나 60~70%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 시책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 맞는 시정을 강조한 그 의미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세수가 늘어나 재정면에서 자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능 및 시민욕구의 다양함을 높 수 있겠다. 파주시 인구 증가는 대부분 타 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다.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같은 도시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다. 파주시는 28개의 간선 도로가 개설 또는 확·포장 됐다. 현재 31개 사업 건설 및 추진 중에 있다. 제2자유로 파주시 구간은 상반기 중 반드시 준공시킬 것이다. 다만 조리~법원간 56호선, 78호선 확장공사가 경기도 재원부족으로 지체되고 있지만 공사의 탄력이 가해지고 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올해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 고양시에 노선버스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롱 첨단소재단지 진입도로, 문산~연풍간 도로개설 같은 시·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월롱할방처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필요시설을 역시 계획대로 건설 중에 있다.

#시가 신청한 교하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승인에 대해

2014년 교하지구 최초 입주 이전까지 1조1600억원을 들여 도로확장 및 신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으로 교하신도시 북단에서 일산 대화역까지 연결하는 6~8차선 사업, 교하읍사무소~교하택지간 시·도 1호선 4~8차선 확장, 김포~관산간 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6개 지점 주요교차로 입체화 및 경의선 운정역, 탄현역 사이 신역사(가칭 야당역) 개설을 포함, 신교통수단 투자비로 3000억원이 들어가 있다.

#GTX(대심도 광역전철)사업과 관련, 일산 킨텍스로 밝힌 출발점을 교하신도시로 출발점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GTX의 출발점은 당연히 교하신도시 몫이다. 교하신도시는 향후 인구 30만명 선후의 큰 도시로 성장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수요를 도외시한 킨텍스 출발점은 편의성 및 경제성의 교통정책에도 어긋난다. 국토부는 파주시가 신교통수단으로 책정한 사업비를 지난 12월 승인해 오는 7월 적중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GTX 출발점은 반드시 교하신도시가 돼야한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한 대책은

다목적복합건물 신축에 힘을 쏟고 있다. 문산행복센터(올해 완공예정) 및 복합커뮤니티센터(2곳) 착공. 적성 복합건물 완공은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역 커뮤니티 구심점 역할도 기대가 된다.

#시청사 건립 추진상황은

올해 안으로 청사건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사부지는 기존에 확보돼 있는 C3블록과 금릉택지지구 내 용지를 매입, 용역발주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청사를 복합건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할 문제로 청사부지 내 또는 택지지구 내 공원부지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근 공설운동장,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또는 실내체육관이 한곳에 모여 있게 돼 복합건물은 아니더라도 행정복합타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파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LG디스플레이 8세대 공장에 3조원의 추가 투자가 끝나면 올해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LG디스플레이 인근 첨단 첨단소재단지에는 LG화학, LG이노텍 공장이 들어선다. 최근 몇 년 사이 LG직원 1만6000명이 파주시 인구로 유입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세계첼시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상황은

올 연말 개장계획으로 1000명~3000명의 고용 기대가 예상된다. 여주보다 넓은 사업장으로 160여개 브랜드를 취급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지역 및 인천, 인근도시 거주민 등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잠재고객으로 지리적 여건의 장점을 갖고 있다. 김포·인천공항이 근접해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된다. 쇼핑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간접효과 기대가 크다 하겠다.

#올해 중점 추진할 문화 사업에 대해

공공도서관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읍·면·동 별로 1개 또는 인구 5만명당 1개 시립도서관을 목표로 우선 5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 이 예산으로 5개 도서관 건립예정으로 올해 내까지 10개의 시립도서관을 갖게 된다.

100평 이상의 시립도서관 건립과는 별도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인구 1만명당 1개를 목표로 4~5개 시범·운영방안 검토 및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2곳을 만들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독서스쿨을 운영해 큰 성과를 봤다. 이들 도서관은 앞으로 독서스쿨의 거점으로 운영돼 창작·예술활동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파주산림장비 및 장릉 개방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실현시키고 제2출판도시 내에 9만1967㎡규모의 문화시설 용지 확보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 분야 중점시책은

복지시책 역시 선 투자 개념의 접근성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의 의식주, 건강, 교육 및 주거시설에 대해 시가 책임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룹희망멘토링제도는 공무원 조직을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을 돕는 시책이다. 연간 9원에 이르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정액을 자율적으로 기부, 기부된 돈만큼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지원의사를 비치고 있어 공무원 기부액, 시 예산, 기업 지원금 등으로 지원된다. 파주시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룹희망멘토링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줬으면 좋겠다.

#녹색시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용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 주택이나 지열을 이용한 농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 대형건물의 열효율 등급제 실시 등을 할 수 있겠다. 탄소배출권 거래도 시범 실시할 생각이고 LED 조명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축분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사업 확대 및 폐열 판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낙하리 소각장 폐열을 LG디스플레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LG는 그 동안 수입해온 LNG 대신 저렴한 소각장 폐열로 대처한다.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대비, 접경도시의 이점을 살리는 복안에 대해

파주시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 통일의 중심지역이다. 남북 상생·공영의 중국, 러시아, 유럽을 겨냥한 산업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마주한 파주지역을 통일경제특구 만드는 방안과 관련, 일부 국회의원과 함께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고 법안화 작업 및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남북교류접경벨트 아이디어를 제시해 채택시킨 바도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지구에서 파주는 통일경제특구, 국제문화예술교류협력단지, 북한문화교류타운, 남북경협단지와 그 배후도시로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지구 구상과 관련, 파주는 인근 접경도시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중국, 러시아, 유럽을 겨냥한 소재부품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특구는 파주지역만을 국한시키기보다 인근 북한지역(개성, 해주권)을 포함시켜 파주지역과 함께 통일경제특구로 묶으면 세계적인 소재부품의 공급기지 역할에 우뚝 설 수 있다.

#DMZ을 생태·평화벨트 관광자원화 구상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의 구상은 DMZ에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을 지정, 생태평화공원 조성으로 평화의 상징적 지역에 맞는 특·장점을 잘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DMZ내의 희귀생태자원, 전쟁유적 등을 잘 활용하면 생태·평화와 관련한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난번 지역위원회의 당시 대통령께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회의 시 DMZ을 적극 활용할 것과 파주 DMZ 인근에 평화병원 신축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DMZ을 생태 및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만들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관련 국제기구 유치도 쉽게 이뤄지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숲이 아무리 울창하다 한들 그 숲속에 들어가 보면 고사목과 부러진 나뭇가지, 벌레 먹은 나무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죽은 나무가 있고 부러진 나뭇가지, 벌레 먹은 나무가 있더라도 숲은 숲이다. 소지역 이기주의나 소집단 할거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파주의 발전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파주/김영선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15(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포커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박 강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포커스 2010년 4월 15일자 17면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관악구청장) 후보예정자의 경력 및 구체적인 공약과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지방행정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며 "깨끗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의 비전을 관악구에서 실현시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번 6.2 지방선거 민주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관악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영부 전 노사모 회장 등 유망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 예비후보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써 서울시 및 구청에서 30여 년 간 주택, 복지,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1급 고위공무원으로 검증된 '행정전문가'라는 평가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서울시 행정 경력을 두루 섭렵하면서 민주당 당원은 물론 서울 시 주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가 관악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남다르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현재 한나라당 출신 전 관악구청장이 비리로 연루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해 구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 결과 53만의 관악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 구민들께서 청렴한 전문행정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구현하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중략)

이처럼 김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가운데 지방선거 첫 관문인 민주당내 경선을 임하는 필승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관악구청이 비리로 얼룩진 만큼, 먼저 구정을 투명하고 주민편익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관악구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자체감사 시 민간 전문가 명예감사관제 도입, 시민사회 단체 참여 구정협의체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민본정신을 구현을 하고자 ▲행정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원처리 실시간 온라인 공개시스템 확립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신규도입 ▲주요사업주민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관악구의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 개선 등 구민들의 생활 편의 도모는 물론 관악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 · 중산층이 살기 좋은 관악구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시설개선, 확충 등 여성사회 참여여건 향상 ▲초 · 중 · 고 교육환경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지방행정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며 "깨끗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의 비전을 관악구에서 실현시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번 6.2 지방선거 민주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관악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영부 전 노사모 회장 등 유망 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 예비후보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써 서울시 및 구청에서 30여 년 간 주택, 복지,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1급 고위공무원으로 검증된 '행정전문가'라는 평가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서울시 행정 경력을 두루 섭렵하면서 민주당 당원은 물론 서울 시 주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가 관악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남다르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현재 한나라당 출신 전 관악구청장이 비리로 연루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해 구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 결과 53만의 관악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 구민들께서 청렴한 전문행정가를 필요로 하는 민심 이를 구현하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민과 가까이하면서 직접 주민들에게 봉사는 주민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 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뒤, "품격있는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21세기 지방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사회 개혁, 지방분권, 경제정의 실현의 가치가 구정(區政) 전반에 확연히 드러나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특히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계층-세대 양성을 아우르는 지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월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직후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고자 봉천역 주변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선거캠프를 조직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핵심 지원 조직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일환으로 지역대의원 및 당원 접촉, 각 단체 순방, 주요 거점별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활용 등 대중 접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가 IT선거전을 방불케 하면서, 김 예비후보는 20~4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미니홈피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면서 유권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김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가운데 지방선거 첫 관문인 민주당내 경선을 임하는 필승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관악구청이 비리로 얼룩진 만큼, 먼저 구정을 투명하고 주민편익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관악구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자체감사 시 민간 전문가 명예감사관제 도입, 시민사회 단체 참여 구정협의체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민본정신을 구현을 하고자 ▲행정정보공개 범위 확대▲민원처리 실시간 온라인 공개시스템 확립▲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신규도입▲주요사업주민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관악구의 수기환경과 교통 환경 개선 등 구민들의 생활 편의도 모는 물론 관악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 · 중산층이 살기 좋은 관악구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보육시설개선, 확충 등 여성사회 참여여건 향상▲초 · 중 · 고 교육환경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F

취재/시평곤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1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한샘이엔씨(교육연합신문)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5-1 청진네오스빌 205호 대표이사 한 승 균
심의대상기사	교육연합신문 2010년 3월 31일자 7면 『'작은 도서관'…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파주시장)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에서 지방 교육발전과 관련 구체적인 시정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작은 도서관'…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전략)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 우선 이 지역의 현실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파주는 현재 교육부문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소극적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간다. 파주는 현재 신도시 건설과 대형 생산시설, 출판인쇄단지의 조성 등으로 서울 등 타지에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교육문제이다. 채 완공조차 되지 않는 신설 학교, 학교 주변의 정비되지 않은 환경 등 시설문제를 비롯해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주민이 자녀를 일산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학교로 보내고 있다.

결국 현재 파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학부모들이 실력과 안전 모든 면에서 학교를 믿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고 관할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체계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도서관'은 파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비용으로도 파주의 부족한 교육과 문화인프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본인은 파주시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문고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다.

문고사업을 더욱 확대해 동네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책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운동'이다.(중략)

파주의 출판, 문화, 인쇄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앞서 말한 것처럼 파주에는 국내 최대의 출판 · 인쇄단지 '북시티' 가 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기업과 협조한다면 가격이나 품질 등에 있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양질의 도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작은 도서관'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시티' 에서는 해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련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도서관마다 더욱 알찬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 ·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작은 도서관' 과 '북시티' 가 연계해 파주만의 독특한 도서 · 문화축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시티' 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순천을 넘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후략)

'작은 도서관' …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길을 걷다보면 여기 저기 큼지막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들이다. 그런데 현수막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가 '교육' 이란 두 글자이다. 구의원 후보에서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까지… '교육' 을 전면에 내세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교육' 을 제일의 화두로 내세우는 것이야 이상할 것 없지만 기초, 광역을 가리지 않고 다른 후보들이 '교육' 을 이처럼 중히 여기는 현상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요즘처럼 '교육' 이란 두 글자가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적은 없었다. 더구나 '입시' 나 '진학' 이 아닌 '교육' 그 자체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이며 본질이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떼어 놓고 생각 할 수도 없다.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 없이는 지방교육이 발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수장이 될 예비후보들이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갖는 모습은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의원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 가운데 '지방교육 발전' 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 파주시장 박재홍 예비후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 '교육+문화+복지' 의 지역공동체 형성

출판·인쇄단지 인프라 적극 활용…예산은 '(가칭)인력양성재단' 통해 조성

의 결 번 호	2010지선11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김천문화신문 경북 김천시 모암동 161-3 3층 702 대표이사 박 해 경
심의대상기사	김천문화신문 2010년 3월 23일자 2면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천시장)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과 프로필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있는 추진력으로 발전 기약

서른여섯에 지방정계에 입문, 시의원을 거쳐 도의회 3선 부의장을 지낸 김응규 도의원 예비후보의 갈망은 고향 김천사랑이다. 현직 시장에 맞서 현재로서는 다른 후보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의 열정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그로부터 희망과 비전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출마의 배경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김천시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출마배경 토하며 강한비전 제시

전국 5대 시장을 이루었고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김천의 자존심을 지키고 김천 경제를 살리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천은 2010년 2월 현재 135,664명으로 줄어드는 등 2005년 이후 5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김천이 희망과 비전 없는 도시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천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김천 경제시대를 활짝 열어 가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희망과 비전, 누가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장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김천은 KTX역사가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김천시장은 추진력 강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김천 강한 김천 건설이 저의 목표이자 14만 시민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의 살아온 결과 제시한 공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왜 김응규가 시장선거에 출마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김응규 반드시 김천 경제를 살려, 선진 대한민국은 이끌어가는 김천 시대를 기필코 열어가겠습니다.(후략)

김응규 김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있는 추진력으로 발전 기약

서른여섯에 지방정계에 입문, 시의원을 거쳐 도의회 3선 부의장을 지낸 김응규 도의원 예비후보의 경력은 고향 김천시랑이다. 현직 시장에 맞서 선제로서는 다른 후보자가 동두방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한 그의 행보를 흥미롭 지은 본다. 그로부터 해방과 비전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부부의 삶에 숨내의 배경을 찾아본다. (편집재주)

김천시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출마배경 토하며 강한비전 제시

[illegible]

안중근의사 쾌거 가슴에 담고살아 김천발전 안의사처럼 몸던져 실행

[illegible]

저의역정(歷程), 김천사랑이 전부였지요 주민숙원사업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지원

[illegible]

푸드밸리 건설 반드시 이룰 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건립추진 시민지혜 힘 모으는 공청회실행

[illegible]

도의회 독도개원 제안한 민족애 16년의정활동 빛나는 금자탑쌓아

[illegible]

▲주소
△김천 삼현시 두직동 /90번지 세칭선 서무내
▲학력
△김천초 · 중 · 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사자격)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사회조직학과 졸업 (석사)
▲경력 경력
△전주향토 및 한나라동지사 김천시 지구당 당장
△신한국당 김천시지구당 사무국장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사회 경력
△김천청년회 역임 회장
△한국사회문제연 경북도지회 및 김천시지부 상임회 회장
△새천년 송설동창회김천지회장 겸임국제대표장
△학교법인 서문학원 직선중학교 감사 (현)
△대구 · 경북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운영위원
△재향군인회 김천시지회 시문학회원
△송파동동상회 부회장회
△김천초 동동창회 부회장회
△부곡시회부지은 운영위원장 (현)
△김천대학 산학개발보건복지과 외래교수
△회원 경력
△초대 김천시의회 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원 회장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저서
△'아들이 마땅하다'

나의 꿈은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저를 일꾼으로 뽑아주셔도 똑 같습니다

[illegible]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18(자심)
언 론 사	(주)서경신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40 대표이사 소 영 태
심의대상기사	서경신문 2010년 3월 15일자 17면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청와대로부터 격려화분을 받는 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경력 및 업적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거창딸기 청와대에 납품…거창사과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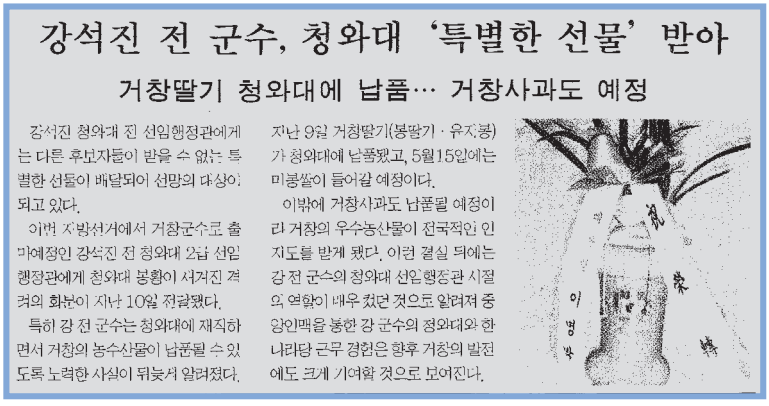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로 출마예정인 강석진 전 청와대 2급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봉황이 새겨진 격려의 화분이 지난 10일 전달됐다.

특히 강 전 군수는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거창의 농수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거창딸기(봉딸기 · 유지봉)가 청와대에 납품됐고, 5월 15일에는 미봉쌀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거창사과도 납품될 예정이라 거창의 우수농산물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결실 뒤에는 강 전 군수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인맥을 통한 강 군수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근무 경험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거창딸기 청와대에 납품… 거창사과도 예정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로 출마예정인 강석진 전 청와대 2급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봉황이 새겨진 격려의 화분이 지난 10일 전달됐다.

특히 강 전 군수는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거창의 농수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거창딸기(봉딸기 · 유지봉)가 청와대에 납품됐고, 5월15일에는 미봉쌀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거창사과도 납품될 예정이라 거창의 우수농산물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결실 뒤에는 강 전 군수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인맥을 통한 강 군수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근무 경험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9(자심)
언 론 사	한국시사정보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 3층 대표 백 강 희
심의대상기사	한국시사정보신문 2010년 3월 15일자 17면 『거창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청와대로부터 격려화분을 받는 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경력 및 업적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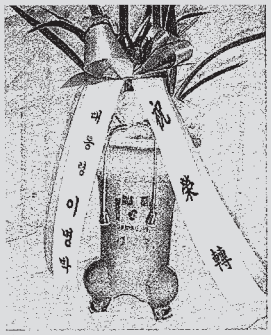
거창 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었다. 이번에 거창군수로 출마할 예정인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2급)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고 한다. 3월 10일 봉황이 새겨진 난 화분이 도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와대 식당에 거창의 농수산물이 납품되도록 격려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딸기가 3월 9일 납품되었고(봉딸기: 유지봉), 5월 15일 미부인쌀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연차적으로 사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이 된 상태이며, 점차 다른 품목들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거창의 농산물이 청와대 납품하게 됨으로써 청와대에 납품하는 우수농산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강석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강석진 선임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은 광범위한 중앙 인맥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거창 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었다. 이번에 거창군수로 출마할 예정인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2급)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고 한다. 3월 10일 봉황이 새겨진 난 화분이 도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와대 식당에 거창의 농수산물이 납품되도록 격려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딸기가 3월 9일 납품되었고(봉딸기: 유지봉), 5월 15일 미부인쌀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연차적으로 사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이 된 상태이며, 점차 다른 품목들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거창의 농산물이 청와대 납품하게 됨으로써 청와대에 납품하는 우수농산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강석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강석진 선임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은 광범위한 중앙 인맥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4월 13일자 17면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교육비리가 세상에 노출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그 근절 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서울지역 교장은 100% 공모제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50% 이상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교육계에선 가히 혁명적 차원의 개혁안을 발표해 국민들 동의를 얻는 듯, 일부 언론마저 이를 부채질함으로써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써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한다. 각급학교 교장공모제는 이미 1996년 '초빙형 공모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교육경력 없이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는 특성화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정책들은 급변하는 지구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관련 정책이 이럴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를 감당해야 하고 그 후유증이 몹시 크다.

1999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정년을 만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켜 초등교사 부족대란을 초래했으며, 퇴직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및 수당 급증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증가에 의한 교육예산의 용도 역기능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말기에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을, 중학교는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한다는 급조된 학교급식 정책과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43명에서 35명 선 감축방침에 따라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일대 혼란을 초래하더니,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교실이 남아 돌아 처치곤란인데다 관리·유지비만 증가시켜 학교시설·설비와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교육정책은 점진적인 개선이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도 교육대학 입학생을 증원해 4년이 지난 후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을 했다면 무리없이 적응이 됐을 것이다. 학교급식도 초·중·고 순으로 급식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5~6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직영급식을 했더라면 저질 위탁급식이 불러온 식중독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전격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정책은 교원 정년단축이나 준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의 학교급식 확대, 학생수 증감 오판에 의한 교실 증축 정책,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3~4명이 선출되는 인구수의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되도록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사한 신중하지 못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서울의 교장 7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있다는 보도는 교육자들을 우울하게 해 부끄러움에 자정 노력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그 일이 전국의 40만 교원들을 잠정적으로 범죄인 취급하면서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조직 풍토가 다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셸 리 교육감을 기대치로 내세우며, 어느 국회의원은 '교육현장범죄가중처벌법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극약처방은 교원들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며 교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공교육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잘못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야단치려 하지만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은 100%, 다른 시 · 도는 50%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중앙집권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교장 임용제도의 선택과 점진적 확대 방안을 지시하지 말고 권장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일보 제6438호 오피니언

세상 思

허원기
인하대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교육비리가 세상에 노출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그 근절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서울지역 교장은 100% 공모제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50% 이상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교육계에선 가히 혁명적 차원의 개혁안을 발표해 국민들 동의를 얻는 듯, 일부 언론마저 이를 부채질함으로써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써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한다. 각급학교 교장공모제는 이미 1996년 '초빙형 공모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교육경력 없이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는 특성화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정책들은 급변하는 지구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관련정책이 이럴 경우 임청난 시행착오를 감당해야 하고 그 후유증이 몹시 크다.

1999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정년을 만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켜 초등교사 부족대란을 초래했으며, 퇴직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및 수당 급증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증가에 의한 교육예산의 용도 역기능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말기에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을, 중학교는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한다는 급조된 학교급식 정책과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43명에서 35명 선 감축방침에 따라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일대 혼란을 초래하더니,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교실이 남아 돌아 처치 곤란인데다 관리·유지비만 증가시켜 학교시설·설비와 교육제정의 안정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교육정책은 점진적인 개선이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도 교육대학 입학생을 증원해 4년이 지난 후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을 했다면 무리없이 적응이 됐을 것이다. 학교급식도 초·중·고 순으로 급식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5~6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직영급식을 했더라면 저질 위탁급식이 불러온 식중독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전격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정책은 교원 정년단축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급식 확대, 학생수 증감 오판에 의한 교실 증축 정책,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3~4명이 선출되는 인구수의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되도록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사한 신중하지 못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서울의 교장 7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있다는 보도는 교육자들을 우울하게 해 부끄러움에 자정 노력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그 일이 전국의 40만 교원들을 잠정적 범죄인 취급하면서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조직 풍토가 다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셸 리 교육감을 기대치로 내세우며, 어느 국회의원은 '교육현장범죄가중처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극약처방은 교원들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며 교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공교육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잘못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야단치려 하지만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은 100%, 다른 시·도는 50%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중앙집권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교장 임용제도의 선택과 점진적 확대 방안을 지시하지 말고 권장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1(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정일보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24 대표이사 주 동 담
심의대상기사	주간 시정신문 2010년 3월 25일자 15면『은혜로운 언어행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은혜로운 언어행실

오래 전에 나이스네트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의 정보를 일순간에 접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통해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컴퓨터나 위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혹자는 이 같은 점을 더욱 강조해 인류는 지금 일초의 생활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이다. 매순간마다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의 필요성과 절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말이 필요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 속어와 비어, 은어 더 나아가 세대가 다르면 이해할 수 조차 없는 유행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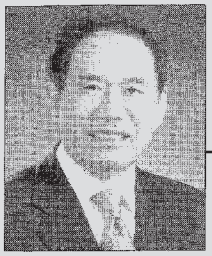
아무런 숙고함이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 입증 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 살벌한 언어는 개인의 삶의 자세를 소극적이 되게 하고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듯이 파괴적인 언어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범람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때에 치유언어를 통해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간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게 하는 노력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언어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기 때문이다.

언어 공해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제된 생명 같은 언어에 갈급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독자제언

오 금 남
전 구의원

오래 전에 나이스네트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의 정보를 일순간에 접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통해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컴퓨터나 위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혹자는 이 같은 점을 더욱 강조해 인류는 지금 일초의 생활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이다. 매 순간마다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의 필요성과 절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말이 필요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 속어와 비어, 은어 더 나아가 세대가 다르면 이해할 수 조차 없는 유행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아무런 숙고함이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 입증 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 살벌한 언어는 개인의 삶의 자세를 소극적이 되게 하고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듯이 파괴적인 언어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범람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때에 치유언어를 통해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간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게 하는 노력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고 더욱 절실하게 언어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시점이기 때문이다.

언어 공해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제된 생명 같은 언어에 갈급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위 기사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2(자심)
언 론 사	(주)CS뉴스프레스(주간조선)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김 창 기
심의대상기사	주간조선 2010년 4월 12일자 54~55면『輿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 · 이태복 신경전』, 2010년 4월 12일자 55~56면『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輿 현명관 · 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경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 제주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 · 이태복 신경전

이완구, 4개월째 지지율 고공행진

(전략)충남지사 선거의 열쇠는 이완구(李完九) 전 지사(한나라당)의 손 안에 있다.

12월, 당시 이완구 지사는 정부가 세종시원안 포기를 선언하자 도지사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사퇴 선언 이후 이완구 전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급상승했다. 그동안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완구 전 지사는 이인제 · 박상돈 · 류근찬 · 이태복 · 안희정씨 등 야권 인사를 20~4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완구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인제 · 류근찬 · 안희정씨 등에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은 이완구 전 지사를 공천하지 않으면 충남지사를 야당에 빼앗긴다는 결론이다.

이태복 예비후보 측이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與 현명관 · 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결정

'성희롱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6일 실시한 한 중앙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우 전 지사가 33.6%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한나라당 강상주 예비후보와 가상대결에서의 격차는 불과 0.7%포인트에 불과했다.

현명관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뒤치락'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 한 인터넷 신문이 지난 3월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현명관 예비후보가 34.3%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근민 무소속 후보가 27.6%, 민주당 고희범 후보가 13.0%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 중앙 주간지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우근민 무소속 후보가 29.8%로 1위에 올랐고,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가

25.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 전 지사의 지지율 회복은 선거기간 내내 집요하게 따라다닐 '성희롱 논란'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 6·2지방선거 – 충남지사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의 결 번 호	2010지선124(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4월 13일자 6면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전략)11일 한 언론사에서 19세 이상의 대전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원웅 후보는 24.4%를 기록, 염홍철 후보 34.8%,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27.9%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2.4%였다.

하지만 야4당 단일후보로 김원웅 후보를 묻자 28.2%의 지지율을 기록, 박성효 28.6%를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 양 후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한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두 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와 천안함, 그리고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 등이 이번선거를 가름짓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박성효-염홍철-김원웅-김윤기…국중련은 '미정'

세종시·천안함·박근혜 행보 등 지지율 최대변수

지난 주말을 고비로 극도의 대혼사태로 치달았던 대전시장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됐다.

문제의 발단은 한나라당에서 비롯됐다. 당초 선진당 염홍철 예비후보에게 두 자리수 이상 지지율이 뒤져 고전이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충남대 육동일 교수를 영입하면서 경선구도로 방향을 굳혀가는 듯 했다.

하지만 11일 육 교수가 전격 사퇴를 선언한 뒤, 12일 박성효 시장을 단독 공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시장 후보군은 박성효-염홍철 김원웅 3자 구도로 굳혀졌다.

여기에 진보신당 김윤기 예비후보가 추석전에 나서 4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대선지역을 뒷받침으로 선언한 국민중심연합에서는 후보 공모를 공고했지만 12일 현재까지 뚜렷한 후보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후보자간 지지율 추이다.

염홍철 후보의 우세가 꾸준히 이어지던 대전시장 선거는 12일 야4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김원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현상을 낳고 있다.

11일 한 언론사에서 19세 이상의 대전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원웅 후보는 24.4%를 기록, 염홍철 후보 34.8%,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27.9%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2.4%였다.

하지만 야4당 단일후보로 김원웅 후보를 묻자 28.2%의 지지율을 기록, 박성효 28.6%를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 양 후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한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두 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와 천안함, 그리고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 등이 이번선거를 가름짓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취재반

의 결 번 호	2010지선125(자심)
언 론 사	(주)충남신문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라OF 20층 대표이사 박 영 예
심의대상기사	충남일보 2010년 4월 20일자 3면 『이슈인터뷰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후반기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9대의회 준비와 8대의정 마무리의 중책을 맡게 된 정순평 도의장은 충남일보와의 취임 인터뷰를 통해 "도청이전과 대백제전 등 거대프로젝트 지원 등 현안추진에 의회가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어느때보다 어려운 국내외 현실을 감안하면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도의회가 마지막까지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의정수행과 관련, "도의회의 역할은 지금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세종시 문제부터 크고작은 현안이 즐비하고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정지원이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라며 "도의회가 이같은 역할 수행을 하는데 앞장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중략)

- 3개월이 남은 기간동안 의장으로서의 각오는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경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차원에서 필요한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여당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중략)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의회로 보면 8대와 9대를 잇는 전환기에 있고 도정 전체로 보면 역시 도백이 없는 빈자리에 현 권한대행의 1인3역에 비해 적지 않은 현안도 산적한 만큼 이를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도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의정상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슈 인터뷰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충남도의회 정순평 의장

대담 = 한내국 정치부장

정순평 도의장 프로필

"도청이전·대백제전 등 거대프로젝트 지원 총력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충실히 해내는 데 초점
도민 안정과 도정 발전에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

- 3개월여 남은 기간동안 의장으로서의 각오는

- 괴도7째 도의회 수장을 맡으셨는데

-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 최근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4년의 임기동안 전국 광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견해는

- 두 집행부가 권한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있는데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나갈 생각인지

- 충남도정 최대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 평소 바람직한 도의회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 결 번 호	2010지선126(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남투데이 2010년 4월 19일자 11면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대백제전 · 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는 건설 대백제전 · 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8대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충남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의장는 '밝은 미래를 아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8대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의장으로서 각오는,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안 도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으로서 중앙당 요로에 이 같은 뜻을 이미 건의했다. 또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6 · 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따라서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중략)

–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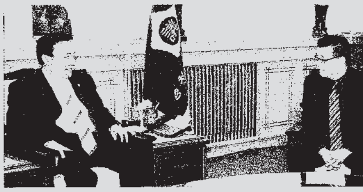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힘쓰겠다. 아울러 오는 7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좌우명 처럼 도민들의 뜻에 따라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정 순 평 충남도의회 의장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는 건설 대백제전·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8대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의장은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왼쪽)과 나인문 충청투데이 정치부장이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둔 공직사회 견제 충실
소외계층 지원조례 질적으로 우수
세종시는 지역주민 원하는 방향돼야
도청 이전 예산확보 다각적인 노력
3개월여 남은 8대의회 끝까지 최선

대담=나인문 정치부장

– 8대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의장으로서 각오는.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도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으로서 중앙당 요로에 이 같은 뜻을 이미 건의했다. 또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따라서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

– 민선4기 임기 4년동안 전국 광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조례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전문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조례의 질적인 측면을 등한시 한 채 양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충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도 위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처럼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종시 법안 심의과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 충남도가 이완구 전 지사와 정무부지사 마저 사퇴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날카롭게 견제·감시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작정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올해 가장 큰 행사인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도정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최대 당면 과제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장 도청 신청사 신축비에 대한 국비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기업과 우수학교 유치, 각 용지 분양의 조기 완료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 국비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 소요액 3277억 중 국비 2327억 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270억 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이미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에 대한 지원 사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평소 바람직한 도의회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해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부여받고 있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해 도민의 편의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힘쓰겠다. 아울러 오는 7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좌우명 처럼 도민들의 뜻에 따라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정순평 의장은

△1958년 2월 16일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해병대 중위 만기 전역
△국회 입법보좌관
△천안 해병전우회 회장
△충남도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상임위원
△충남도의회 제5·6대 의원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충남도의회 제8대 의회 운영위원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127(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4월 14일자 7면『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포천시장)의 특정 후보예정자가 모 정당의 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포천시가 서장원현시장이 한나라당 후보확정과 관련, 지역정가의 진흙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조흥, 이흥구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심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서시장이 당헌 · 당규에 따라 경선을 불복하고 당을 여러번 옮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지역정가의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경기도 당 공심위(위원장 원유철)는 지난 11일 서장원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자로 확정함으로써 한나라당 현 국회의원인 김영우의원 전략공천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다른 예비후보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천자를 발표한 것은 공정치 못하고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6차례나 당원을 옮겨다니고 경선에 불복한 철새정치인을 공천자로 확정한 것은 시민은 물론 당원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 고조흥, 이흥구 예비후보 및 서장원 시장은 지난 13일 서장원시장 공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祿祿치 않았다.

서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6차례나 당을 옮겨다니는 등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으로 지역정가에는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서시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시장후보로 확정함으로써 타 예비후보의 강력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한나라당 경기도당공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시장을 포천시장후보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으나, 民心이 天心임을 감안할 때 밀약공천이나 대의명분을 거

스르는 공천은 주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事必歸正이자 自繩自縛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마디의 말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럴때만이 제2의 서시장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40여일 동안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판이 어떻게 짜질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전면배치되는 이번 포천시장후보결정을 보면서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후보보다는 진정 포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후보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칼 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문양휘 부국장

포천시가 서장원현시장이 한나라당 후보확정과 관련, 지역정가의 진흙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조흥, 이흥구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심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서시장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불복하고 당을 여러번 옮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지역정가의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위원장 원유철)는 지난 11일 서장원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자로 확정함으로써 한나당 현 국회의원인 김영우의원 전략공천 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원판결이 나오기전에 공천자를 발표한 것은 공정치 못하고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6차례나 당원을 옮겨다니고 경선에 불복한 철새정치인을 공천자로 확정한 것은 시민은 물론 당원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관련 고조흥, 이흥구 예비후보 및 서장원시장은 지난 13일 서장원시장 공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綠綠치 않았다.

서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6차례나 당을 옮겨다니는 등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으로 지역정가에는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서시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시장후보로 확정함으로써 타 예비후보의 강력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한나라당 경기도당공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시장을 포천시장후보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으나, 民心이 天心임을 감안할 때 밀약공천이나 대의명분을 거스르는 공천은 주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事必歸正이자 自繩自縛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마디의 말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럴때만이 제2의 서시장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40여일 동안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판이 어떻게 짜질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전면배치되는 이번 포천시장후보결정을 보면서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후보보다는 진정 포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후보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8(자심)
언 론 사	(주)강남내일신문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413호 대표이사 최 광 호
심의대상기사	주간 강남내일신문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은 여성 후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은 여성 후보야"

주민들,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여성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

한나라당이 서울 강남구 구청장 후보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감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 5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이중 2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신연희(62) 전 서울시 행정국장이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연희 전 국장은 한나라당이 전략공천 후보로 지목해 영입한 후보로 송파구청장으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에 강남구에 공천 심사를 냈다.

신 국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강남구청장을 60살이 넘는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사동에 한 모 씨는 "아무리 강남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이들은 여성이 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걱정된다"며 "강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구청장이 오면 11월에 국가적인 큰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 모 씨는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강남에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성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젊은 여성도 아니고 나이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강남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남이라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60살이 넘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무리 강남주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아무나 공천하는 것은 강남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쾌

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강남구지역 한나라당 당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천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 당원 "아직 누가 구청장을 될지 모르지만 강남을 전혀 모르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인 60살 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강남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남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전략공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로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60살이 넘는 여성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남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강남구청장에 과연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1차 심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은 여성 후보야"

주민들,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여성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

한나라당이 서울 강남구 구청장 후보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감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에 5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이중 2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신연희(62) 전 서울시 행정국장이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연희 전 국장은 한나라당이 전략공천 후보로 지목해 영입한 후보로 송파구청장으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에 강남구에 공천 심사를 냈다.

신 국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강남구청장을 60살이 넘는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사동에 한 모 씨는 "아무리 강남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이 들은 여성이 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기정된다"며 "강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구청장이 오면 11월에 국가적인 큰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 모 씨는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강남에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성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젊은 여성도 아니고 나이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강남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남이라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60살이 넘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무리 강남주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아무나 공천하는 것은 강남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강남구지역 한나라당 당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천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 당원은 "아직 누가 구청장을 될지 모르지만 강남을 전혀 모르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인 60살 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강남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남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전략공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로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60살이 넘는 여성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남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강남구청장에 과연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1차 심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수희 기자

의결번호	2010지선130(자심)
언론사	경북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0년 4월 21일자 22면『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주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지금 경주경제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기업인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로 가족들과 지역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듬직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가장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실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와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일방통행식의 직장폐쇄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양측이 하루 빨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노사 양측이 대화로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 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장 폐쇄가 공지되어도 공장안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20년이 넘게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해오던 업무를, 사무직원과 벼룩시장을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하루빨리 원래의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복귀하여서 양질의 좋은 제품이 생산되길 고대합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우수한 기업이 많으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가까운 울산이 그 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단지가 울산경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주도 발레오만도라는 기업이 있어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의 발레오만도의 사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보다 이윤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관계당국과 지역사회 단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노조가 회사

의 이윤창출의 중심입니다. 노사가 서로의 방향만 추구하기보다는 상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해결은 피해야할 것입니다.

발레오만도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양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 발레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장기간의 직장폐쇄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노사 불화로 문을 닫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상생의 길을 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기 고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강익수(경주시의원)

직장폐쇄로 가족·상인들 고통

노사양측 '상생의 길' 모색 중요

우수기업 문 닫을까 노심초사

당국·시민단체 중재 나서야

지금 경주경제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기업인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로 가족들과 지역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 보도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묵직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가장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와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일방통행식의 직장폐쇄는 보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양측이 하루 빨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노사 양측이 대화로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 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장 폐쇄가 공지되어도 공장안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20년이 넘게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해오던 업무를, 사무직원과 벼룩시장을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하루빨리 원래의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복귀하여서 양질의 좋은 제품이 생산되길 고대합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우수한 기업이 많으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가까운 울산이 그 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단지가 울산경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주도 발레오만도라는 기업이 있어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의 발레오만도의 사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보다 이윤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관계당국과 지역사회 단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노조가 회사의 이윤창출의 중심입니다. 노사가 서로의 방향만 추구하기보다는 상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해결은 피해야할 것입니다.

발레오만도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양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 발레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장기간의 직장폐쇄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노사 불화로 문을 닫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상생의 길을 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1(자심)
언 론 사	중구신문 서울 중구 저동1가 이화빌딩 5층 대표 변 봉 주
심의대상기사	중구신문 2010년 4월 13일자 3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 ·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 검진 수검률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 특별기고 / 김 기 태 중구의회 의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 검진 수검률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32(자심)
언 론 사	중구자치신문 서울 중구 신당4동 340-54 수창빌딩 312호 대표 이 형 연
심의대상기사	중구자치신문 2010년 4월 14일자 2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여러 사회활동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 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 아침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검진이 진행되었고 의사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 ·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되도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진기관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경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번검진 수검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왜 이렇게 좋은 건강검진을 안받으세요. 공단에서 검진비용도 다 내준다는데…. 건강관리! 내가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특별기고 | 중구의회 김기태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여러 사회활동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 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 아침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검진이 진행되었고 의사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되도록 꾸준히 제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진기관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검진, 성인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검진 수검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왜 이렇게 좋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세요. 공단에서 검진비용도 다 내준다는데…. 건강관리! 내가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의 결 번 호	2010지선136(자심)
언 론 사	(주)중도매일 대전 중구 오류동 175-3 중도일보빌딩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4월 29일자 9면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제8대 충남도의회가 막바지 의정활동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사퇴 이후 새롭게 원구성을 마쳤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지만, 8대 충남도의원들은 도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의정 활동이 마무리 돼가는 과정에서 지난 232회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 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은 기간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과도기에 도의회 수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은?

▲ 우선 나를 후반기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의회 수장 공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내가 새로운 의장을 맡게 됐다.

마지막까지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내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

- 남은 기간 동안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겠다. 또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미 여당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는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중략)

- 평소 가져온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견해는?

▲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다시 한번 새로운 의회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나아가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제9대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 개인적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현안 적극지원… 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정순평 충남도의회의장

제8대 충남도의회가 막바지 의정활동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사퇴 이후 새롭게 원구성을 마쳤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지만, 8대 충남도의원들은 도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의정 활동이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서 지난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은 기간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도청신도시건설 모든 역량결집… 여당에 국비지원 강력건의
교육청 전담 교육위신설 등 9대의회 준비위한 조례개정 순조
차질없는 도정·의정수행 위해 권한대행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과도기에 도의회 수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은?

▲우선 나를 후반기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의회 수장 공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내가 새로운 의장을 맡게 됐다.

마지막까지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내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도민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

-남은 기간 동안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겠다. 또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미 여당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는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최근 열렸던 제233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제9대 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들 수 있다.

교육의원 5명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교육청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신설,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던 교육사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개명하는 등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었던 도립 청양대학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 업무를 이관했다.

-최근 전국 광역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례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전문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다.

또한, 조례의 질적인 측면을 등한시 한 채 양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도 위기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단체장이 내놓은 조례안의 원안 가결률이 높아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면, 우선적으로 세종시 문제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처럼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한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종시 법안 심의과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도 집행부가 권한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해나갈 것이고,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의원들이 도정에 대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행사인 '2010 세계 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도정수행과 의정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충남도정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또 그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라 생각한다. 당장 도청신청사 신축비에 대한 국비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기업과 우수학교 유치, 각 용지 분양의 조기 완료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 국비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 소요액 3277억 중 2327억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270억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한 업무유출도 큰 난제다. 여권 지도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전라남도의 지원 사례 등을 피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소 가져온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견해는?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중앙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의회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나아가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 개인적으로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순평 의장은 누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회입법보좌관과 5·6대 충남도의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천안해병전우회장과 충남도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8대 충남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담=최재헌 정치팀장
/정리=여종섭·사진=손인중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37(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4월 29일자 23면『배신의 계절』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원군수, 충주시장, 보은군수, 단양군수)에서 전임 부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재임 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배신이라고 비방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배신의 계절

언제부터인가 '의리'하면 건달 세계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멋진 말이다. 남자에게 더 없는 찬사이다.

사실상 의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리(義理)인 셈이다.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의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나 중국의 무협물 또는 역사물 등을 보면 도원결의가 자주 등장한다. 피도 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의리로 형제를 맺는다. 요즘 충청권 공무원 출신 일부 단체장 후보가 보여준 드라마의 핵심은 '의리와 배신'이다. 공직사회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군수 입장에서 부 단체장을 선정할 때는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다. 부 단체장 선임때 재임시 정치적 행보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정치를 금할 것, 충성을 다해 단체장을 모실 것 등 요구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중에 후한이 두렵기 때문이다.

부단체장 '충성맹세' 말뿐

충북의 경우 세종시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군수 후보로 부단체장이 야당 행을 선호했다. 이들은 부단체장을 나갈 때는 '충성맹세'를 했으나 주변 상황이 달라져 변심한 사람들이다.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실무주역을 맡은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는 정우택 지사의 총애(?)를 받았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원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2년 전 김시장은 고향 후배이자, 충주고 2년 후배인 우 부시장을 충주부시장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부시장 퇴임 후 지난해 3월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는데 동의했다. 이향래 보은군수와 김수백 보은 전 부군수도 비슷한 경우다. 보은군수를 놓고 이 군수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김 전 부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 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불발이 됐다. 이 군수는 고향 1년 후배인 김 부군수를 받아들일 때, 이용희 의원 입회 아래 '충성맹세(?)'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박 시장은 한나라당, 염 전시장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다. 둘 사이는 한때 시장과 국장관계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김동성 단양군수와 류한우 전 부군수도 비슷하다. 단양 군수를 놓고 김 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후보로 '맞짱'을 뜰 뻔했다. 둘 사이는 2년을 군수와 부군수로 호흡을 같이했다. 하지만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건표 전 단양군수에 밀려 정치포기 선언을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 적으로 변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앞으로 단체장은 자신의 고향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 물론 부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은혜를 배신으로 대하고 도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 배신은 본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스스로 찾아낸 명분 앞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불신에서 비롯되는 배신은 또 거대하고 음험한 딜, 음모를 염두에 둔 행동과 무관치 않다. 물론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게 현실이다.

金泰淳 칼럼

배신의 계절

본보 편집국장

언제부터인가 '의리'하면 건달 세계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멋진 말이다. 남자에게 늘 없는 천사이다. 사실상 의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인에 틀림없다. 의리(義理)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리인 셈이다.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의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드라마나 중국의 무협물 또는 역사물 등을 보면 도원결의가 자주 등장한다. 피도 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의리로 형제를 맺는다. 요즘 충청권 공무원 출신 일부 단체장 후보가 보여준 드라마의 핵심은 '의리와 배신'이다. 공직사회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뜻이 있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군수 입장에서 부 단체장을 선정할 때는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다. 부 단체장 선임때 자칫 정치적 행보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정치를 금할 것, 충성을 다해 단체장을 모실 것 등 요구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중에 후환이 두려기 때문이다.

부단체장 '충성맹세' 말뿐

충북의 경우 세종시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군수 후보로 부단체장이 아닌 행을 선호했다. 이들은 부단체장을 나갈 때는 '충성맹세'를 했으나 주변 상황이 달라져 변심한 사람들이다.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실무주역을 맡은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는 정우택 지사의 총애(?)를 받았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원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이 부군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놓고 저울질하다 막판에 야당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충주시장을 놓고 김호복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2년 전 김 시장은 고향 후배이자, 충주고 2년 후배인 우 부시장을 충주부시장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부시장 퇴임 후 지난해 3월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보은군수와 김수백 보은 전 부군수도 비슷한 경우다. 보은군수를 놓고 이 군수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김 전 부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 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낭패가 됐다. 이 군수는 고향 1년 후배인 김 부군수를 받아들일 때 이용희 의원 입회 아래 '충성맹세(?)'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박 시장은 한나라당, 염 전시장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다. 둘 사이는 한때 시장과 국장 관계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김동성 단양군수와 류한우 전 부군수도 비슷하다. 단양 군수를 놓고 김 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후보로 '맞짱'을 뜰 뻔했다. 둘 사이는 2년을 군수와 부군수로 호흡을 같이했다. 하지만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건표 전 단양군수에 밀려 정치포기 선언을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 적으로 변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앞으로 단체장은 자신의 고향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 물론 부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은혜를 배신으로 대하고 도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 배신은 본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스스로 찾아낸 명분 앞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불신에서 비롯되는 배신은 또 거대하고 음험한 딜, 음모를 염두에 둔 행동과 무관치 않다. 물론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게 현실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41(자심)
언 론 사	(주)매일신문사 대구 중구 서성로 26 대표이사 이 창 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0년 4월 29일자 4면 『"각종 인프라 · 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및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구미국가산단의 힘 어디서 나오나'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미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단체장의 투자유치 실적 등 재임 중 성과를 부각하고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각종 인프라 · 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구미국가산단이 힘 어디서 나오나 〈상〉 기업들이 구미를 찾는 까닭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수도권 규제 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 만만찮은 대내외적 투자 여건 속에서도 삼성, LG 등 국내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들은 꾸준히 구미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구미에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해주기에 굴지의 기업들이 구미로 몰려드는 것일까. 수도권의 산업단지를 제쳐두고 구미국가공단으로 입주를 결정한 기업체들의 내막과 구미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쏟아붓는 노력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일들을 상 · 하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구미는 지난해 각종 공단 유치로 국가공단 3천3000만㎡(1천만평) 시대를 활짝 연데 이어 국가산업 5단지(하이테크벨리)와 경제자유구역(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등 1천6000만㎡ 규모의 공단 조성을 앞둬 기업 투자유치가 또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액손모빌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이후 국내 처음으로 이끌어낸 미국 투자라는 점에서 정 · 재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액손모빌 유치에 숨겨진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액손모빌 짐 해리스 부회장의 딸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는데, 남유진 시장이 이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짐 해리스 부회장이 자신의 딸과 대학 동문인 남 시장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타깃기업 책임자의 가족관계까지 꿰뚫는 지략이 돋보인 대목이다.

남 시장이 학연으로 덕을 본 건 액손모빌뿐만이 아니다. 남용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권영수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희국 LG실트론 대표이사 등과는 서울대 동문으로 최근 LG계열사들의 구미투자 때 적잖은 덕을 봤다. 지난해 11월 4단지에 입주한 STX솔리(주) 유치 때엔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구미 출신인 점을 감안, 수차례 고향 투자를 부탁했고 귀찮을 정도로 찾았다.

LS전선 안양사업장의 구미 인동사업장 이전 유치도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

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첫 사례인데다 800여명의 임직원 옮겨오는 큰 건이어서 한 치도 소홀할 수 없었다. 특히 LS전선은 구미에 기숙사, 연수원 등 대규모 시설 신축을 원했다. 시청 직원들은 부지 마련에 동분서주했고 1년 여에 걸쳐 지주를 설득한 끝에 산동명에 9만9천여㎡의 부지를 마련, 최근 행정절차 중이며 연말쯤 준공될 전망이다.

이홍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은 "투자유치는 관청이 키를 쥔 게 아니라 기업이 전적으로 쥐고 있어 간, 쓸개를 떼놓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가능하다"고 했다.(후략)

남유진 구미시장 "지연 · 학연 · 혈연 동원 끈기있게 매달리면 감동"

"투자유치 타깃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끈기와 감동을 주는 지극한 정성이 절대 필요하죠. 혈연 · 학연 · 지연 등 각종 연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일즈맨을 자처, 지구촌을 종횡무진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사진)은 지난 4년간 5조원대의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 출장 60여회, 미국 · 일본 등 해외 출장 20여회 등 지구 5바퀴 정도에 달하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공격적 투자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680만㎡ 규모의 구미4단지라는 큰 그릇을 거의 채웠다.

기업 유치 외에도 5단지(991만㎡)와 경제자유구역(624만㎡), 4단지 확장(245만㎡) 등 5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들을 잇달아 유치,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밑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남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얻어 낸 5단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지정된 국가공단인데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구미에 큰 봉을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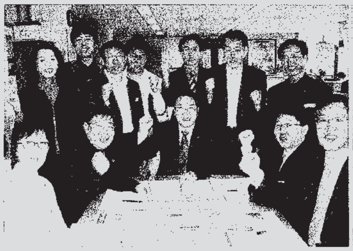
혔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애착 또한 큰 국가공단이다.

남시장은 '구미는 곧 기업'이란 소신을 갖고 있다. 기업사랑본부와 1천명 공무원의 1천개 기업 도우미 운영, 고용안정 조건으로 기업에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하는 'We Together' 운동 등 톡톡 튀는 기업사랑 시책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또 구미공단의 과학연구단지 지정,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등 R&D와 산업 인프라를 차근히 구축, 기업의 투자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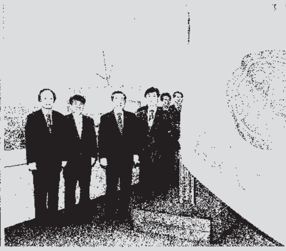
"2012, 13년 쯤 분양될 구미5단지는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솔라셀 · 2차전지 · LED 등 최첨단 신성장신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이미 상당수 기업과 투자 협의가 진척됐다"고 했다. 남 시장은 또 "5단지는 20만~30만평씩 그룹별로 분양하는 원형지 개발방식으로 입주기업에 세종시 못잖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후략)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하〉 市·水公의 기업유치 노력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황종철 단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기업사랑을 외치고 있다.



구미시청 국기게양대에 4월의 기업으로 선정된 LG전자의 사기(社旗)가 나부끼고 있다.

◈ 수공

"일단 부지가 넉넉해야"
40년간 모래벌 일궈
현장서 업체불편 체크

◈ 구미시

中企제품 판로 열어주자
'口味 당김운동' 앞장
회사 창립일엔 축하카드

◆기업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절사 밤이 안 되는 기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많이 도도록 만드는 게 기업사랑본부의 임무입니다."

남유진 구미시장 취임과 함께 2006년 7월 문을 연 기업사랑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황종철 투자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팀, 기업유성팀, 기업애로대책팀 등 3팀 13명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기업사랑위원회와 기업사랑 지원반을 두고 있다.

팀원들은 '기업사랑 한 만큼 실적이 올라간다'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4여년 동안 1천19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 1천140건(95.8%)을 해결했다. 처리 애로는 교통, 도로 등 기업환경분야 561건, 공장설립 관련 125건 등이다. 시는 기업애로의 빠른 해결을 위해 1천개 기업과 공무원 1천명 간에 기업사랑 도우미 결연을 맺었고, 경찰·소방서 등 10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열과 성을 다하는 지원으로 기업사랑본부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최우수상 등 매년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지난해말 기업애로대책팀의 윤영술 담당(현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업애로처리 우공 섬김이 대상을 받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 장웅재 기업애로대책담당은 "크고 작은 기업애로가 하루 2, 3건씩 접수돼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하다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국가공단 역사와 궤를 함께 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구미 1단지(1천42만㎡)를 시작으로 2단지(227만㎡), 3단지(508만㎡), 4단지(678만㎡)를 잇따라 조성, 보태봉유 확장별로 입주는 등 구미공단 역사와 궤를 함께했다. 4단지 확장단지(245만㎡)를 비롯해 5단지인 구미하이테크밸리(1천만㎡),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624만㎡)도 조성한다. 우선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야 기업유치가 잘되는 건 당연한 일. 수자원공사는 2012~2013년 분양 예정인 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근로별 기업환경에 맞고 차별화된 최첨단 고품격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과정에서도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의 박노범 단지사업소장은 "입주 기업들이 상하수도,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평·산동면 일대에 조성될 5단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동면 일대에 조성될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내년쯤 편입토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

▷We Together 운동과 노사평화도시-구미시는 지난해 초 노·사·민·정 대표들과 사측은 고용안정을 최우선 보장하고 근로자는 고통분담에 노력한다는 'We together 운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동참 기업에 기업운전자금 외 업체당 5억원 이내의 특별운전자금을 4% 지원했다. 396개 기업체가 동참해 1천86억원을 지원 받았고, 그 결과 396개 기업체의 고용인원은 당초 1만60?명에서 1만1천?90명으로 1천30명이 늘었다. 이 운동은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선정돼 남 시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단체장 회의 때 사례 발표를 했다. 또 1기업 1인 더 고용하기 운동 등 시의 노력으로 구미공단은 4년째 고질적인 분규가 사라지고 산업평화와 생산·고용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구미당김운동-시는 구미시와 기관단체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제품의 영업마케팅에 앞장서는 구미(口味) 당김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소자와 전자태그(RFID) 생산업체인 (주)루셈으로부터 물품관리용으로 RFID 5만9천개(3천만원 상당)를 구매한 데 이어 올해도 구매를 확대하는 등 160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기획전과 거래마케팅을 8회 열 계획. 이관용 기업지원담당과 강진선 담당은 "구미당김운동 관심도가 날로 높아져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린다-기업의 날,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문화행사, 올해 최고 기업인·근로자 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있다. 회사 창립일엔 남 시장이 축하카드를 직접 발송한다. 지난해 1월 시작한 '이달의 기업' 제도는 기업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 시청 국기게양대에 한달 동안 해당 회사의 깃발을 국기와 함께 게양한다. 4월의 기업은 솔라셀 분야에 2천200억원을 투자한 지역 선도기업 LG전자가 선정됐다.

▷친환경도시 만들기-시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 중이다. 남 시장은 2월 미국 에너지 5대 효율화 도시인 칼더저트시와 에코 도시 선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친환경 창구도시인 충비시와는 환경분야 MOU를 각각 체결해 녹색성장도시로 발전할 큰 동반자를 얻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재편되는 구미국가공단

세계 최대 석유기업 미국 엑손모빌의 일본 계열사인 토넨케미칼코퍼레이션과 도레이가 공동 설립한 국내 법인 EM TTK사(社) 유치 후 관련 회사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구미국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3억2천500만달러를 투자하는 EM TTK는 구미 4단지에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생산공장 1·2 생산라인을 완공, 시범생산 중이며 3·4라인 증설을 준비 중이다.

차세대 탄소소재 생산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한 CS칼텍스와 신일본석유의 합작법인 공장 PCT사는 지난달 구미 4단지 내 7만4천580㎡ 부지에 공장을 준공, 시범생산에 나섰고,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EDLC)용 탄소소재를 세계 최대 규모로 양산할 계획. EDLC는 하이브리드 신기자동차 및 친환경 전기, 비상용 전원 등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의 하나다. STX솔라는 지난해 11월 구미 4단지에서 태양전지를 양산 중에 있고, LG전자가 2천200억원을 투자, 구미사업장에 건립한 솔라셀 공장도 양산에 들어갔다. 태양전지 스퍼터 공장을 건립한 아바코의 자매회사인 아바텍과 미경ENG는 433억원과 180억원을 각각 투자, 태양전지 패널 및 태양전지 장비공장 건립에 나섰다.

구미·이창호기자 lch888@msnet.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42(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랫슬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5월 4일자 14면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안상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주요 이력과 인생담을 소개하며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 안상수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전문경영인, 국회의원, 인천시장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46년 충남 태안에서 가난한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인천서림초등학교,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다. 대학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신문배달, 월부 책 판매 등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사모를 썼다.

미국 트로이주립대학교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로이주립대 대학원 시절 그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금융선물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세산업과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맡았으며 동양증권(주) 이사, 감사, 부사장을 지냈다. 또 동양선물(주) 미국 시카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주)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하는 등 40대의 나이로 전문 경영인의 기반을 다졌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기업을 떠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지난 1996년. 그해 2월 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CEO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했다. 같은 해 4 · 11 제 15대 총선(인천 계양 · 강화 갑)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어 1998년 6 · 4 인천시장(민선 2대)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듬해인 1999년 6 · 3 보궐선거(인천 계양 · 강화 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0년 4 · 13 제 16대 총선(계양)에서 또다시 낙선의 아픔을 맛봤다.

권토중래 끝에 2002년 6 · 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 민선 3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인천시장(민선 4대)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유치 등 인천과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9년 12월 29일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을 수상했다. 앞서 재외동포신문 '2008 올해의 인물상'(2009

년 2월 20일), 우드로윌슨의 '2009 올해의 우드로윌슨상' (2009년 4월 10일)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정경임(58)씨는 결혼 1년6개여 월 만인 지난 1984년 뇌졸중의 일종인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완쾌된 뒤 대학 강단에 섰지만, 1999년 여름 과로가 겹치면서 또다시 발병,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5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며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병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희귀병 아내의 손발이 돼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두 번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안 시장의 애틋한 사랑 얘기'는 정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 안상수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전문경영인, 국회의원, 인천시장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46년 충남 태안에서 가난한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인천서림초등학교,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다. 대학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신문배달, 월부 책 판매 등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사모를 썼다.

미국 트로이주립대학교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로이주립대 대학원 시절 그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금융 선물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세산업과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맡았으며 동양증권㈜ 이사, 감사, 부사장을 지냈다. 또 동양선물㈜ 미국 시카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하는 등 40대의 나이로 전문 경영인의 기반을 다졌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기업을 떠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지난 1996년. 그해 2월 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CEO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했다. 같은 해 4 · 11 제15대 총선(인천 계양 · 강화갑)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어 1998년 6 · 4 인천시장(민선 2대)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듬해인 1999년 6 · 3 보궐선거(인천 계양 · 강화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0년 4 · 13 제 16대 총선(계양)에서 또다시 낙선의 아픔을 맛봤다.

권토중래 끝에 2002년 6 · 13 지방선거에서 당 내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 민선 3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인천시장(민선 4대)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 유치 등 인천과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9년 12월 29일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을 수상했다. 앞서 재외동포신문의 '2008 올해의 인물상'(2009년 2월 20일), 우드로윌슨의 '2009 올해의 우드로윌슨상'(2009년 4월 10일)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정경임(58)씨는 결혼 1년6개여 월 만인 지난 1984년 뇌졸중의 일종인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완쾌된 뒤 대학 강단에 섰지만, 1999년 여름 과로가 겹치면서 또다시 발병,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5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며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병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희귀병 아내의 손발이 돼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두 번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안 시장의 애틋한 사랑 얘기'는 정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인천/박영재 기자
jie@hanmail.net

인터넷 우리일보
wooriilbo@wooriilbo.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143(자심)
언 론 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문화센터빌딩 7층 대표이사 김 광 수
심의대상기사	월간중앙 2010년 5월호 288~289면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에서 재임 중 성과를 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썰물농촌' 43년 만에…부농 · 장학금 · 스포츠 · 청자 · 기업 등 살려낸 결과

살기 좋은 마을에는 사람이 늘어나는 법이다. 전남 강진군은 2002년 이전까지는 한 해 4000여 명이 줄어드는 8%대 인구감소율을 나타냈다. 2006년 4만 1938명, 2007년 4만1352명, 2008년 4만1153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4만1164명으로 11명이 늘어나는 경사를 맞았다. 실로 43년 만의 경사였다. 먹고살기 좋아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진 덕분이다. 돌아오는 농촌이 된 것이다.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군정 구호를 아예 '인구감소 해결'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10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1년 앞당겼습니다." 황주홍(58) 군수는 무엇보다 이 목표를 달성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요즘 강진군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변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황 군수는 재임 중 공무원 조직을 성과와 실적 위주의 '팀'제로 개편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 조직인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문을 내렸다. 의사결정단계를 줄이고 공무원 간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기존 13개 실 · 과와 56담당을 1실 25개 팀으로 개편, 기존 6급 담당(계장)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했다. 결재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열려진 '강진드림팀'제다.

그는 팀별로 성과지표를 수치 · 계량화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 우수 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했다. 인센티브제도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기는 시스템이었다. 효과는 빨랐다. 공무원 사회에 성과 경쟁의 불이 붙었다. 공무원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무수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서로가 잠자던 잠재력을 깨우고 토론하고 평가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농 · 림 · 축 · 수산업의 부농화, 장학금 대폭 확충,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청자산업의 세계화,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 변화와 성과 등이 줄을 이었다. 결과적으로 '떠나는 농촌'이었던 강진군이 무려 43년 만에 '돌아오는 농촌'이 된 것이다.(후략)

이 사람 | 황주홍 군수가 만세를 불렀다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썰물농촌' 43년 만에… 부농 · 장학금 · 스포츠 · 청자 · 기업 등 살려낸 결과

글 김재훈

귀농지로 인기 높아

의 결 번 호	2010지선145(자심)
언 론 사	여수여수사람들 전남 여수시 학동 31-4 발행인 김 명 천
심의대상기사	여수여수사람들 2010년 5월호(통권 제10호) 10~13면 『여수! 박람회준비 이대로 좋은가?』 및 99~100면 『솜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수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수! 박람회준비 이대로 좋은가?

1. 여수엑스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여수박람회지원특별법과 국회에 박람회특위가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4명 선출은 하늘이 주신 전무후무할 선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예산국회가 개회됐을 때 국회의원들마다 자기들 지역구사업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결과 정부 원안보다 1조원을 더 많이 통과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작 여수박람회의 필수요건인 진입도로 건설비 1,931억원, 여수-남해간의 한려대교 실시설계비 10억원과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의 여수연장, 고흥-여수 간의 연륙연도교와 여수공항 확장과 항만사업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3기 때는, 일자리 창출과 대단위 숙박업소 확충,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우수한 시청직원들로 투자유치사업소를 만들어, 투명하게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내주자, 국내·외 기업들이 여수에 몰려들었으나, 민선4기 들어 투자유치사업소를 해체하고 축소시킨 반면 막대한 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도 초라한 실적이다.

시내 간선도로망 재편과 간판정비사업 등의 조기완공과 전 국민적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 제89회 전국체전을 유치했지만 동네잔치로 끝내버렸고, 여수에는 경기장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낸 일이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도 인천·부산과 두 차례 싸워 유치 확정되었으나, 부산으로 뺏겨버렸고,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 중이던 시립종합박물관도 포기해버려, 엑스포 개최도시에 박물관이 하나 없는 참담한 현실로 전락시켰다. 여수에서 발견된 2,000여점의 소중한 역사적 매장문화재를 찾아올 길은 막혔고, 3년전 안도에서 발견된 유물과 최근 GS공사현장에서 발굴된 '43.5㎝의 세계적인 보물 마제석검'의 소유와 전시에는 관심도 없는 무지한 시정을 펴고 있다.

2004년 12월 14일, 박람회장을 60만평의 부지에 1,500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여수박람회를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었다. 그 이후 4년 전에 40여만평에 800만명으로 축소되어 분통이 터져도 방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잘돼 간다!'고 큰소리치며, 허송세월

하고 나서 2010년 1월13일 "지나치게 과장된 것을 몰랐다"고 축소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엄중히 따지되, 전문가들로 재편해서 늦었지만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대통령과 독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상책이다.

박람회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기왕 추진해 오던 SOC사업들을 조기에 준공해 달라"는 건의나 촉구는 안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연도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축소되거나 착공도 안하고 박람회가 끝난 수년 후로 미뤄졌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역 건물을 보면 그동안 여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일 해왔는지, 박람회가 어떤 규모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여수의 미래가 걸려 있어 10여년을 매달려 온 박람회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만큼 시민들도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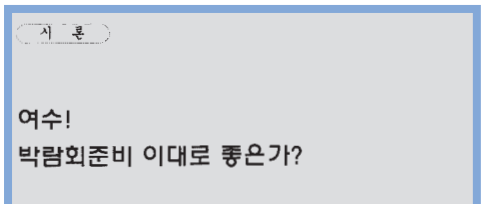
4. 여수 · 순천 · 광양시의 통합은 3려 통합을 완결시킨 뒤에! 2014년 법이 제정되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4번째 추진됐던 3려 통합은 국가 행안부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여수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어 통합을 가져온 고려시대 이후 1,000년의 지방행정조직의 분할, 통폐합을 정부(조정)가 아닌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 도출로 이뤄진 최초, 최상의 행정구역 통합폐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산업이나 경제생활권이 같았지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예산낭비와 대결구도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3려통합으로 통합여수시가 출범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4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통합되었다. 구 여수에서 한 약속을 안 지켜 그 후유증은 3려통합 12주년이 넘었는데 아직껏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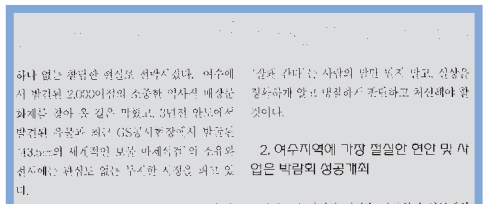
지난해 추진됐던 행안부의 일방적 순천 · 광양과의 통합은 상호공통점이 없어 3려통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 론

여수!
박람회준비 이대로 좋은가?

1. 여수역스포가 영공야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하나 없는 황폐한 현실로 전락시켰다. 여수에서 발전된 2,000여건의 소중한 인사의 매장을 화제를 찾아 온 길은 막혔고, 3년전 안도여로 발전된 유물과 최대 GS공사를 장수시 발전된 "433m의 세계적인 보물 마제석탑"의 소유와 전수에는 관심도 없는 무지한 시정을 펴고 있다.

2001년 12월14일, 박람회장은 820만평의 부지에 1,300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여수박람회를 국가개최으로 확정시켰었다. 그 이후 1년 전에 400만평에 800만명으로 축소되어 보물이 되지도 빛을 못한 전시회 주었지만, 정치적 무지하고 기회만을 때마다 "관리 감독"로 관조하지만, 허송세월하고 드디어 2010년 1월13일 "지나치게 과장된 것을 몰랐다"고 축소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엄중히 따지되, 전문가들로 재편해서 늦었지만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대통령과 "독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상책이다.

"박람회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기왕 추진해 오던 SOC사업들을 조기에 준공해 달라"는 건의나 촉구는 안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연도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축소되거나 착공도 안하고 박람회가 끝난 수년 후로 미뤄졌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역 건물을 보면 그동안 여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일 해왔는지, 박람회가 어떤 규모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여수의 미래가 걸려있어 10여년을 매달려 온 박람회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만큼 시민들도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2. 여수지역에 가장 절실한 현안 및 사업은 박람회 성공개최

무엇보다 절실한 현안은 박람회의 성공개최이다.

여수는 현대도 남북 경제협력에 의지하여 남해안의 중심은 도시와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와 일본을 경기여객선과 화물선이 오고가고, 수산물이 발달하여 부산은 다음으로 큰 어시장에는 번성을 구가하고, 광어 소리 드높았으며, 관광 산업과 관광하여 "여수여 가서 돈 걱정하지 말라" 번화도시였이 있었다. 국가산단과 공항이 생기면서 왕년 번화도시 모두가 부러워하던 도시였으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때, 수산업은 급격한 쇠락으로 소득감소와 수입은 일자리가 사라져 왕년 관광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0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3려통합을 했고, 14 박람회유치 실패 후에도 2012년 박람회 개최지를 위해 10여년을 밤새 매달리왔다. 그 중에 준공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연도교를 국제대회 유치하고, 지역내 대한민국 박람회지역과 기업 및 지역의 관광관광지역 유치에 온인하여 "거리 걸기로 먹고 살 수 있게 관광을 활발 시키게 하고, 시민들도 일자리 창출의 농림 축산업의 육성화를 도모, 등 등이로, 여수의 12만톤 조선업은 제조에 몰두고, 조선업 중심로 우수학생이 회지로 나가는 현실을 바로

정부는 2014년에 현재의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행정체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도, 2009년 행안부가 추진한 통합은 법도 원칙도 없이 밀어 붙였다.

여수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순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신청을 했던 것이다.

통합해 봐야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여수시청과 세무서, 교육청, 상공회의소와 YMCA와 모든 기관과 문화원, 체육회, 부인회 등 각종사회단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 여수는 박람회가 급한데 "통합이 급하다, 광양에 시청을 줘야 한다"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하자고 운운하여 반대에 나섰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여수가 살았다.

만약 일부 정치세력들의 뜻대로 순천으로 흡수통합되었더라면, 오흔인 여수현감 한 사람이 이미 멸망한 고려왕조에 충성한다고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적의 땅(反逆鄕)으로 순천에 예속되어 이중 과세와 부역 등을 해왔다.

순천에 예속된 500년 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장 선인들의 한(恨)을 외면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시민으로 두고두고 조롱받았을 것이다. 지금 6·2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기만이 여수를 사랑하는 애향인(愛鄕人)'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수의 운명을 가르는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예정대로 순천에 통합되었더라면, 지금은 순천시장 선거로 뜨거울 것이고 오는 6월 30일로 여수시의 시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여수(麗水)! 라는 지명과 500년만에 되찾은 여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못난 후손들에 의해 10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재와 지혜를 모아 박람회를 성공개최하고 여수가 4통8달하는 교통 산업 문화 관광 레포츠 해양 수산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 뒤 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흥군민이 원하고 생활권도 같았던 고흥과의 통합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시 론

삽아 보육종 등에도 힘써야 했다.

3. 예산규모가 전국 기초단체 10위권인데, 이에 걸맞는 행정은!

무엇보다 3려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통합시청사를 [illegible] 했다. 행정이 [illegible] 되는 일은 누가와도 되고 안 되는 일은 어떠한 권력이나 뇌물로도 안 돼야 하며,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고, 할 일도 '급한' 할 일 [illegible] 일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illegible]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20개월만에 세 차례나 조직개편을 해서 [illegible] 제대로 안 되고, 전문성도 없애 [illegible] 여수시민의 몫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제89회 전국체전처럼 경기장 하나 못 만들고 동네잔치로 치룬 [illegible] 또 다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다.

4. 여수·순천·광양시의 통합은 3려통합을 완결시킨 뒤에! 2014년 법이 제정되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4번째 추진됐던 3려통합은 국가 행안부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여수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통합을 가져온 고려시대 이후 1,000년의 지방행정 조직의 분할, 통폐합은 정부(주정)가 아닌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조정으로 이뤄진 최초, 최상의 행정구역 통폐합의 모범을 보였었다. [illegible] 받았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산업이나 경제생활권이 같았지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illegible]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3려통합으로 통합여수시가 출범되기까지 [illegible] 끝에 간신히 통합되었다. [illegible] 그 후유증은 3려통합 12주년이 넘었는데 아직껏 남아있다.

지난해 추진했던 행안부의 일방적 순천·광양과의 통합은 상호공동점이 없어 3려통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2014년에 현재의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행정체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도, 2009년 행안부가 추진한 통합은 법도 원칙도 없이 밀어 붙였다.

여수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순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신청을 했던 것이다.

통합해 봐야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여수시청과 세무서, 교육청, 상공회의소와 YMCA와 모든 기관과 문화원, 체육회, 부인회 등 각종사회단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 여수는 박람회가 급한데 "통합이 급하다, 광양에 시청을 줘야한다"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하자고 운운하여 반대에 나섰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여수가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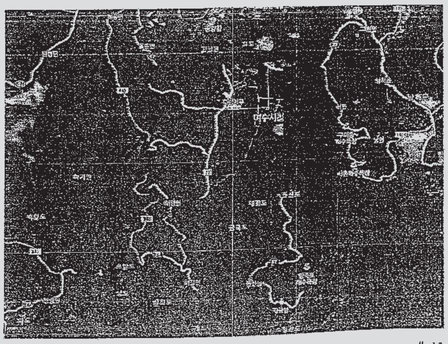
만약 일부 정치세력들의 뜻대로 순천으로 흡수통합되었더라면, 오흔인 여수현감 한 사람이 이미 멸망한 고려왕조에 충성한다고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적의 땅(反逆鄕)으로 순천에 예속되어 이중 과세와

부역 등을 해왔다.

순천에 예속된 500년 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장 선인들의 한(恨)을 외면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시민으로 두고두고 조롱받았을 것이다. 지금 6·2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기만이 여수를 사랑하는 애향인(愛鄕人)'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수의 운명을 가르는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예정대로 순천에 통합되었더라면, 지금은 순천시장 선거로 뜨거울 것이고 오는 6월30일로 여수시의 시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여수(麗水)! 라는 지명과 500년만에 되찾은 여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못난 후손들에 의해 10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재와 지혜를 모아 박람회를 성공개최하고 여수가 4통8달하는 교통 산업 문화 관광 레포츠 해양 수산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 뒤에 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흥군민이 원하고 생활권도 같았던 고흥과의 통합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여수여수사람들 ‖ 13

■ 수상(隨想)

솜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고, 며칠 전에는 법정스님이 전에 들어 보지 못한 또 다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입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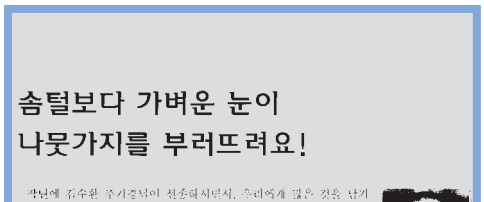
생전에 두 분은 종교를 초월하여 교분이 두터우셨고, 언제나 어디서나 큰 가르침과 함께 여러모로 베푸시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어, 천주교 신자나 불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검소하시고 청렴하시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셨고,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도, 두 분이 있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정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나간 학생들이나 동포들과 주한 외국인들이나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가시면서도 김 추기경님은 각막을 기증하셔서 평생 보지 못하여, 한이 된 사람에게 광명을 주셨고, 이 땅에 장기 기증운동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시며 사셨는데, 가실 때도 관도 상여도 만장도 없이 훌훌 떠나셨지만, 경향각지에서 참배객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다비식을 치르는 송광사에만 3만 여명이 인산인해로 뒤 따르고,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낙양의 지가를 올려 온 스님의 저서들은 "말빚을 졌다고 결판하라"는 유언 때문에 또 다른 감동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을 아는 사람이나 책을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인연과 생각이 많겠지만, 다비식 후에 송광사에서 되돌아오면서 20여 년 전, 스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새삼 가슴에 와 닿고 스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해 여름 태풍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배나, 항해하던 배들을 삼키고, 못 섬들의 방파제와 선창을 무너뜨리고, 산과 들과 하천을 할퀴고,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히고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간 뒤끝이라, 수산업



솜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금산 김충석

을 하는 내가 걱정이 되셨던지 만나자마자 이번 태풍에 피해는 없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선창 일부와 바닷가에 있는 시설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배나 사람 모두 무사했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는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태풍이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태풍은 올 때 와줘야 합니다. 했더니 스님께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논갈이를 할 때나, 밭을 갈 때 쟁기로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땅이 숨을 쉬고 곡식이 잘됨과 같이, 바다 밑에는 뻘이나 모래가 쌓여 있는데, 각종 영양염류와 프랑크톤이 생겨 모든 수산동식물의 모태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바다 밑에 있는 뻘도 오래되면 영양분이 줄어들어 황폐해지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 밑을 뒤집어 갈아엎어 놓기 때문에, 어부들은 태풍이 무서우면서도 태풍이 지나가면 풍어로 이어져 만선을 구가하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면 은근히 태풍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였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무척 흥미를 느끼셨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산속의 나무들도 부러지고 뽑히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태풍이 아니면 사람이 어찌 깊은 산중의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솜털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이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굵은 나뭇가지들이 툭툭 부러지는 소리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산속의 이치만 알았는데 바다에도 오묘한 자연의 섭리가 있네요! 비올 때 비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눈 올 때 눈이 오고, 뜨거울 때 뜨겁고, 추울 때 추워야 사람살기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올해는 여느 해 보다 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지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풍년도 들 것 같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정신이 오래오래 전해져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밝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2010. 3. 13 밤에

의결번호	2010지선146(자심)
언론사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5,6층 대표이사 곽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0년 5월 10일자 A4면『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부천은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4개 지역구 중에서 3개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여당 선호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김상곤이 당선돼 이번 선거에서 부천지역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 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략)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도 선거판세 예측을 힘들게 한다.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홍 시장이 33.3%의 지지를 얻어 20.9%의 지지를 받은 김 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섰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이 40.3%인 것으로 나타나 예측 불허지역으로 분류된다. 부동층의 표가 어느 후보로 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후략)

6·2 지방선거 격전지 가다 '2강 구도' 부천시장

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

현역 프리미엄 선두 유지

부동층 40% 판세 안갯속

홍건표 시장 김만수 후보

부천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홍건표 현 시장과 민주당 소속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만수 후보간 박배치로 이뤄질 전망이다.

9일 현재 선거 판세는 2004년 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라 승리한 홍 시장이 우세를 높이는 가운데 홍 김 후보가 피해 바짝 쫓는 구도이다.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부동층이 홍 후보의 지지율을 압도해 어느 후보가 부동층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부천은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4개 지역구 중에서 3개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여당 선호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김상곤이 당선돼 이번 선거에서 부천지역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속단할 수 없다.

특히 당시 김 교육감은 40%의 지지율을 얻으며 당시 교육감이던 김지춘 후보를 눌러 6·2 지방선거에서 부천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도 선거판세 예측을 힘들게 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홍 시장이 33.3%의 지지를 얻어 20.9%의 지지를 받은 김 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섰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이 40.3%인 것으로 나타나 예측 불허지역으로 분류된다. 부동층의 표가 어느 후보로 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격적인 선거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 측은 MB정권과 홍 시장의 6년간 시정 잘못을 꼬집으며 적극적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표본적으로는 홍 시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정부와 홍 시장의 독선에 대한 반대 층이 60~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40%에 가까운 부동층을 부표소로 끌어들여 우리 표로 만드는 데 선거 전략을 집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이 부천 시정부를 몇 년 주리면서 원혜영 전 시장 때 만들어놨던 문화도시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퇴색해버렸다"며 "이를 되돌려 문화도시, 명품도시 부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 측은 재선을 하는 동안 원천 시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선돼야야 함을 강조해 표를 모은다는 입장이다.

또 현역 시장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을 선거 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 측은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한다면 부동층의 유권자 역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의 부동층 흡수 전략 성공과 함께 총연당의 지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기점으로 '노풍'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부천시장 판세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두 후보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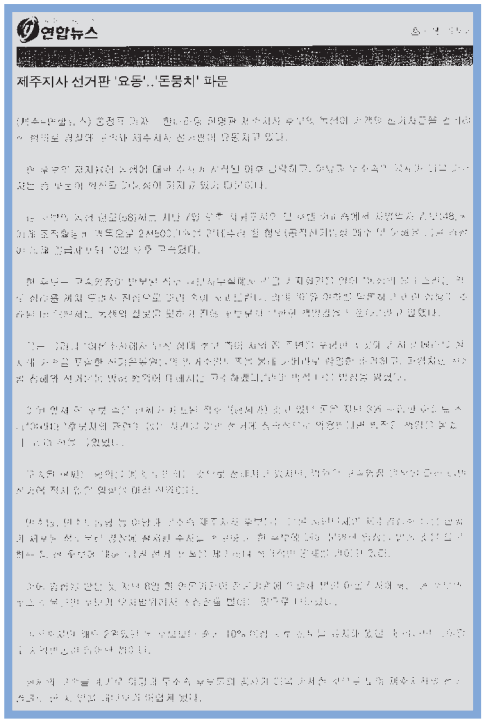
박재홍 기자 mason@

의 결 번 호	2010지선147(자심)
언 론 사	(주)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박 정 찬
심의대상기사	연합뉴스 2010년 5월 10일자 6 · 2지방선거면 『제주지사 선거판 '요동'… '돈 뭉치' 파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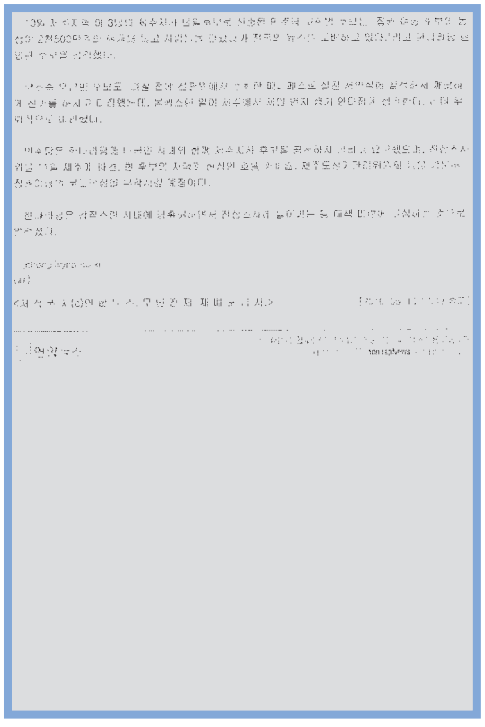
보도내용

(전략)이에 영향을 받은 듯 지난 8일 한 언론기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현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만 해도 2위였던 우 후보보다 줄곧 10% 이상 차로 선두를 유지해 왔던 데 비하면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후략)


연합뉴스

제주지사 선거판 '요동'..'돈뭉치' 파문



의 결 번 호	2010지선15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송백(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대표이사 신 용 호
심의대상기사	전남매일 2010년 4월 19일자 10면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및 광산구청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출마의 변, 공약,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 발전의 핵' 고품격 복구 만들터

◇출마의 변

현대의 지방행정은 자치역량이 강조되면서 각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무한한 책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으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특히 북구는 광주의 기초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소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낼 능력이 있는 후보, 북구발전을 책임질 미래비전을 갖춘 확실한 후보가 필요하다.

북구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4번째로 주민수가 많은 거대구이면서 첨단과학산업 1단지와 올해 완공예정인 2단지가 위치해 있고 국립 5·18민주묘지와 무등산 가시문화권, 광주비엔날레전시관등 첨단문화도시를 상징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광주발전의 핵이다.

특히 48만 주민들의 지역사랑과 자부심은 북구발전을 견인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자치구를 만들어내는 최대의 자원이다.

그러나 북구는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전국에서 최고인 65%나 되고 있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구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의 힘과 행정력을 잘 접목하면 도약과 비상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잘사는 북구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CEO로서의 경영능력 그리고 목민관으로서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정책 등 북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일구어 낼 준비가 돼 있다.

또 깨끗하고 투명한 주민중심의 행정과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품격의 문화 복구를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다.(후략)

환경 · 인력 재구조화 '새밥' 짓겠다

◇출마의 변

이번 6 · 2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 더 이상 국정을 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12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쌓아야 한다. 민형배는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로서 이런 전선의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또 민선 4기까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인권도시 광주에 걸맞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 전국적인 모범을 창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광주에서부터 자치단체를 모범적으로 꾸려나가는 일이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

낡고 구태의연한 인물과 접근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저는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기에 저를 던져 헌신할 각오로 출마에 나서게 됐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와 행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자치단체장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도 바로 그것이다.

저는 광산구청장으로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구민들의 '밥'을 짓는 구청장이 되고자 한다. 그런 지방자치의 전범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광산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문화적 토양이 잘 갖춰진 광산, 첨단산업의 기틀도 마련된 광산을 조화롭게 접목해 광산의 내일을 가꾸려 한다.(후략)

'광주 발전의 핵' 고품격 북구 만들터

송 광 운 광주 북구청장 후보

'문화복지 공동체, 잘사는 북구' 구현

민선4기 바탕…주민중심 행정 실천

환경 · 인력 재구조화 '새밥' 짓겠다

민 형 배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사람 사는 세상 행복한 광산' 비전

창조 · 통합 · 참신리더십…열린 행정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55(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5월 2일자 34면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송파구청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이색 후보라고 소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라는 점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한나라당 텃밭 '빅3' 新정치1번지에 도전

서울내 '영남권'으로 불리는 '빅3' 지역이 있다. 바로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말이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는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가 나서지 않을려는 지역이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공천이 곧 본선으로 여길정도로 치열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남 장흥 출신의 박병권 변호사(46)가 송파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친동생인 고 김대의 선생님의 딸과 결혼한 DJ처조카라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이고 내가 DJ 조카사위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송파는 강남, 서초처럼 바닥부터 위까지 한나라당 성향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송파병의 경우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이 민선구청장 2번, 국회의원 2번을 통해 고정지지층 40%를 확보하고 있다"며 "부동층 10%만 가져올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또한 과거 10년동안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일당독재로 해왔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교체 의식이 높다는 점도 호재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공천 잡음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송파구청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여성후보를 내세웠다가 후보자가 자꾸 교체되면서 후보자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현직 구청장인 김영순 여성구청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역시 그 배경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여성 후보가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송파를 서민과 중산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선거 이색후보 DJ 조카사위 민주당 박병권 송파구청장 후보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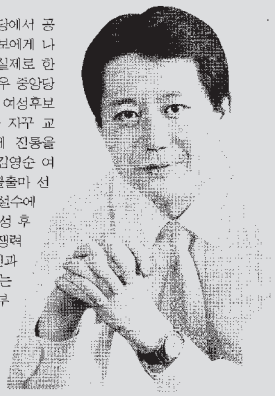
한나라당 텃밭 '빅3' 新정치1번지에 도전

서울내 '영남권'으로 불리는 '빅3' 지역이 있다. 바로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말이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는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가 나서지 않을려는 지역이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공천이 곧 본선으로 여길정도로 치열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남 장흥 출신의 박병권 변호사(46)가 송파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친동생인 고 김대의 선생님의 딸과 결혼한 DJ처조카라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이고 내가 DJ 조카사위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송파는 강남, 서초처럼 바다부터 위까지 한나라당 성향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송파병의 경우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이 민선구청장 2번, 국회의원 2번을 통해 고정지지층 40%를 확보하고 있다"며 "부동층 10%만 가져올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고정표40%+부동층 10%로 당선 자신"

또한 과거 10년동안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입당복재로 해왔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교체 의식이 높다는 점도 호재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공천 잡을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송파구청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여성후보를 내세웠다가 후보자가 자꾸 교체되면서 후보자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현직 구청장인 김영순 여성 구청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역시 그 배경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여성 후보가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송파를 서민과 중산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57(자심)
언 론 사	(주)전광일보사 전남 순천시 장천동 84-7 삼익빌딩 3층 대표이사 박 양 주
심의대상기사	전광일보 2010년 5월 10일자 14면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희망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 신안군수)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치적 견해, 각오,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육 3주체(교사 · 학생 · 학부모)가 주인 되는 교육 실현

6.2지방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제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도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열고자 본지는 오영석 도교육의원 예비후보자(제1선거구-목포 · 신안 · 해남 · 완도 · 진도)를 직접 만나 전라남도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 교육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현 정권은 교육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와 소통 거부로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 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감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후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의 감소(2조 2천3백여억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수 기준의 교원총정원제(전남의 경우 학생 16.9명에 교원1명 배정)로 교사들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를 줄이는 등,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현정권의 사기적 이중 행각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침묵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중략)

▲ 도교육의원 후보자로써 각오는?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3주체와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3백여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학생들을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도 줄어들고 있어서 현 정권이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후략)

“ ‘희망 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6월 2일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열고자 본지는 강성종 신안군수 예비후보(민주당)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과 군정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신안군에서 군청 공무원으로 일용돼 읍·면과 본청의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37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면서 천직으로 알고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신 군민에게 보답하고 내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지난 2006년 명예퇴임을 한 후 전라남도 도의원에 출마했고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됐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오로지 신안군민의 응원과 격려가 전부였음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제 지난날의 공직생활과 의정경험을 통해 쌓아 온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이번 선거가 군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필코 승리하여 군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후략)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 되는 교육 실현

교육 투명성·공교육 강화·학생복지 실현되는 교육청 만들 터

부패 척결·무상 의무교육 실현·무지개학교 도입 등 핵심공약

민/더/뷰 강성종 신안군수 예비후보(민주당)

“ ‘희망 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공직 37년·도의원 4년 등 41년간 실무적 감각 살려 군민 뜻 받들어

전천후 교통망 구축·지역 특산물 명품 브랜드화·관광 활성화 등 핵심 공약

생의력 상실·소통의 부재 신안군정 '쇄검'·출신수험·핵노대리드로 재투당

의 결 번 호	2010지선158(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5월 10일자 9면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 및 교육철학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도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오영식

▶ 교육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현 정권은 교육3주체(교사 · 학생 · 학부모)와 소통 거부로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 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금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후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의 감소(2조 2천3백여억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수 기준의 교원총정원제(전남의 경우 학생 16.9명에 교원1명 배정)로 교사들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를 줄이는 등,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현정권의 사기적 이중 행각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침묵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꿈을 심어줘야 할 교사들이 그 열정과 사기를 잃어가는 교육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벼랑 끝에 선 전남교육을 교육 3주체(교사 · 학생 · 학부모)와 함께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중략)

▶ 후보자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원 13년과 중등(고교)교원 19년 등 32년동안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목포시 교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교조 목포지회 초대 지회장, 전교조 전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교육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교조 탄압이 한창인 지난 1987년 초대 지회장을 맡아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여러 교사들과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것이 지금 교육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의원으로 자질을 갖추면서 교육의 3주체가 진정한 교육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도교육의원 후보자로서 각오는?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3주체와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천3백여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학생들을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부자교육, 경쟁 중심 교육에 몰입하는 현 정권의 사기적인 이중 행각에 분노하면서 갈수록 피폐해지는 전남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뜻있는 분들의 추대를 받아서 도민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 열정과 시기를 잃어가는 교육 현장을 한국 교육의 위기상태로 진단하면서 전남의 교육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라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드리는데 전념, 전략하겠습니다.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 도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오 영 식

▶ 교육의원에 출마하게된 동기는?

현 정권은 교육3주체(교사·학생·학부모)와 소통 거부로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 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감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후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2조 2천3백여억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수 기준의 교원총정원제(전남의 경우 학생 16.9명에 교원1명 배정)로 교사들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를 줄이는 등, 잘못된 정책 운운하는 현정권의 사기적 이중 행각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침묵할 수 없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꿈을 심어줘야 할 교사들이 그 열정과 사기를 잃어가는 교육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벼랑 끝에 선 전남교육을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 침체되어 있는 전남도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되어도 각종 금전 비리가 내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각종 사업비 예산은 줄이지 않고, 교원 감축과 무상교육비 등의 삭감으로 그 피해를 모조리 교육 수요자들에게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교원이 감축되면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상치교과 담당교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간제 교사 대체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어 타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형편의 전라남도 교사·학생·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 6월2일 도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로 구성되는 도교육의원회는 우리지역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청을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견제하며, 도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견권을 행사하여 과도한 사업비, 숨겨진 업무추진비, 기타 불필요한 예산 등의 삭감·조정을 통해 그 예산을 학생교육과 복지, 교원정원 유지를 위해 돌려야 합니다.

▶ 학생들이 계속줄고 있고, 선생님들이 타시도로 전출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교과부에서는 작년에 교원정원을 학급수로 하지 않고 전체 학생수 비례로 배정하는 교육법 시행령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해 전라남도 교원수가 738명이나 줄었고 내년에도 800여명의 교사가 감원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선학교에 최소한의 전공교과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교과 교사들이 땜질식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식 후보 목포시의원 시절

또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면 농어촌교육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과 문화 센터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와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자녀를 둔 학부모 그 누구인들 이처럼 갈수록 척박해지는 농어촌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농어촌·중소도시를 살리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부분을 이 오영식이가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철학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야 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이에 MB교육정책에 맞서 전남교육 지켜내며,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해 사교육 완화시킴과 동시에 의무교육 무상화로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교육의원으로서 교육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일까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의 교육비리를 보면서 이것은 비단 서울시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 전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매관매직, 리베이트, 구분, 구전 등의 교육비리가 생기는 이유는 첫째는 교육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육행정이 권위주의나 파벌주의, 성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도민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도교육의원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청을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견제해서 교육행정이 권위주의, 파벌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견권을 행사하여 숨겨진 업무추진비, 기타 불필요한 예산 등의 삭감, 조정을 통하 그 예산을 학생교육과 복지, 교원정원 유지를 위해 돌려야 합니다.

선생님들 타시도 전출 많아…학생들 피해

교사 · 학생 · 학부모 다각적 지원책 마련

▶ 낙도를 포함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농어촌 경제문제 해결 못지않게 교육문제의 해결이 농어촌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성과 소규모의 장점을 살린 농어촌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을 통해 극복 가능하며 기존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참여정부 교육복지종합계획, 교육복지종합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계획 등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농어촌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3不정책, 지역균형선발, 농어촌특별전형, 실업계 특별전형 등을 강화해 적극 권장하여 소외지역 계층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전라남도 또는 도교육청에 농어촌교육지원기관장회의를 설치하고 전남 교육발전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전라남도는 농어촌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 후보자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원 13년과 중등(고교)교원 19년 등 32년동안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목포시 교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교조 목포지회 초대 지회장, 전교조 전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교육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교조 탄압이 한창인 지난 1987년 초대 지회장을 맡아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여러 교사들과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것이 지금 교육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의원으로 자질을 갖추면서 교육의 3주체가 진정한 교육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도교육의원 후보자로서 각오는?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3주체와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정책(일제고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천3백여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학생들을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부자교육, 경쟁 중심 교육에 몰입하는 현 정권의 사기적인 이중 행각에 분노하면서 갈수록 피폐해지는 전남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뜻있는 분들의 추대를 받아서 도민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 열정과 사기를 잃어가는 교육 현장을 한국 교육의 위기상태로 진단하면서 전남의 교육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라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 드리는데 전념, 전력하겠습니다.

이우 천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59(자심)
언 론 사	(주)참언론(시사IN)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6층 대표이사 표 완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IN 2010년 5월 8일자 28~30면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만을 게재하면서 출마계기와 비전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인터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을 읽었다. 연극에 몰입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던 청소년기의 발랄함이 눈에 띄었다. 아리아를 즐겨 부르던 아버지가 결혼식 때 축가를 직접 불렀다는 대목도 이채로웠다.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서거 1주기' 추모 콘서트 때 '명사 밴드'의 보컬로 나설 거라던

시사 인터뷰

한명숙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민이 '개발'보다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복지'라면 누구보다 한명숙이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보도가 일면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때 만난 한 전 총리는 “그 무대에는 못 오를 것 같다”라며 말을 흐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서울시장 출마,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다. 이번 인터뷰는 4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한명숙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선거 치르느라 힘들겠다.

쉬지 못해 피곤기가 쌓여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쉬면 좋겠는데(참모들 바라보며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감당키로 한 이유는?

총리라는, 더 큰 틀에서의 국정 운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행정까지 욕심낼 생각은 없었다(웃음). 대신 유능한 후배들이 성장하는 울타리 구실을 하고 싶었는데 당이나 시민사회가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보내니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앞만보고 나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시사 IN〉도 한몫한 거 아닌가? 여론조사해서 표지까지 내고(웃음).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발행된 〈시사IN〉 제91호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중략)

어떤 강점인가?

그동안 다른 데 돈을 쏟아 붓던 오 시장이 이번에 공약을 내면서는 보육 · 교육 · 일자리 등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건 그만큼 시민의 요구와 관심사가 복지에 있다는 거다. 선거의 큰 프레임이 ‘개발’에서 ‘복지’로 옮아갔다. 그런데 보육 · 교육 · 노인 · 여성 · 환경…. 이런 어젠다를 한명숙만큼 잘 아는 사람도 흔치 않다. 평생이런 문제를 공부했고, 국회의원과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웃음) 텔레비전 토론 등을 하다보면 결국 여기서는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 저기서는 50만 개 이런 식으로 수치 경쟁이 벌어질 텐데, 설사 공약이 비슷하다 해도 그걸 누가 가장 진정성 있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확실히 내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중략)

정치를 접으려다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인데, 정치인으로서 장기 비전은 뭔가?

정치를 접으려고 했다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선출직에 나간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정치인이다.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이자 선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번에 승리하면 한명숙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올 때다. 여성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따뜻함이 있으며 어떤 희망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있는 힘껏 싸워보려 한다.

시사 IN 인터뷰

[redacted]

4월25일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한 전 총리(왼쪽)는 서울시를 '사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그게 훨씬 추진력 있고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런 리더십을 서울시민과 나누고 싶다.

무죄가 났지만,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되기에는 적잖은 흠결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다.

상대가 공격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거라는 걸 많은 국민이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고백건대 나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정치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지역 행사에 초청받아 갔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문제 삼는다면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에 내 진정성이 남겨 있다.

서울시민하고는 상대적으로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도 경기도에서 했고.

나는 서울에서 50년 넘게 산 사람이다. 국회의원하러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짝 떨어져보니 서울이 더 잘 보이더라(웃음). 다만 당의 서울시 대의원이나 당원들과는 접촉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다.

당 지지율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을 듯한데.

좀 안타깝다. 당 지지율이 높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면 훨씬 수월할 텐데(웃음).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다. 뭉쳐야 승리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선거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돈 문제는 항상 고민이고, 특히나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더 심정이다. 한 시절 나와 인연 맺었던 분들이 대부분 돈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내가 엄청난 돈을 받고 있다(웃음).

참모들 표정이 급 어두워지고 있다(웃음).

(임종석 대변인) 가난한 선거는 처음 준비가 되어 있다(웃음). (한명숙 후보) 무슨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지 돕겠다는 분이 속속 모이는다. 그래서 나는 일단 돈 측면에서는 자유롭다. 공식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당이 감당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재판을 받으면서 노 대통령 생각을 많이 했다. 그 시련이 너무나 버거웠고 힘들었을 때 함께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숨. 내가 당하면서 너무너무 절실히 느꼈다.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성찰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결집했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지만, 커다란 벽에 도전하는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대통령 노무현보다 노무현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의 정신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1주기에 표출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 때 노무현 바람이 불 거라고 보나?

벌써부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치적이다. 서거 당시의 노무현 추모 열풍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번에 1주기 추모도 100%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 있는 각각자 자기 방식으로 표출될 거다.

민주당에서는 친노·비노가 여전히 반목 중이다.

정당은 권력 잡기가 본심이고 이해관계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래서 다툼 똑똑 뭉쳐서 한목소리를 냈으면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상적이다. 서로 긍정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정치를 접으려다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인데, 정치인으로서 장기 비전은 뭔가?

정치를 접으려고 했다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선출직에 나간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정치인이다.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이자 선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번에 승리하면 한명숙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올 때다. 여성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따뜻함이 있으며 어떤 희망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있는 힘껏 싸워보려 한다. ●

의 결 번 호	2010지선160(자심)
언 론 사	(주)뉴스포스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2-4 2층 대표이사 정 명 자
심의대상기사	뉴스포스트 2010년 4월 25일자 6~7면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 교체 이끌겠다』, 2010년 5월 9일자 4~5면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예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만을 게재하면서 출마계기와 정치적 견해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바람' 일으켜 정권교체 이끌겠다

지난 12일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등포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60년 전 인천을 탈환함으로써 수도를 되찾았던 것처럼 인천에서 일으킨 바람으로 서울 · 경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의 인천시장

인터뷰 / 인천시장 출마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교체

아권 단일후보 나설 경우 안상수 시장에 1.5% 앞서
"한국의 심장, 국제 관문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포부

지난

이끌겠다

최고위원

송영길이 말하는 주당 혁신의 길

보수-진보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 이끄는 사람 자부
전국 최초 민주대연합 단일후보로 승리 견인 자신감

출마선언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후보 구도를 사실상 확정 짓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42.8%의 지지를 얻으면서 41.3%의 한나라당 안상수 현 시장을 1.5%p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내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송 최고위원 '수혈론'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인천에서 필승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18대 총선에서 '386 의원'들이 낙선하는 상황에서 3선 의원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386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개혁 정치, 서민 정치' 실천을 다짐하며 올해로 정치 생활 10년째를 맞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송영길 최고위원에게,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변을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중략)

"교육 · 복지 · 재정 3대위기 탈피"

-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 검찰, 정보기관, 지방권력 등 모든 권력을 장악, 일방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의 과제다. 특히 수도권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데 서울과 경기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강력한 출마 요구가 있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나를 키워주시고 3선의 중앙정치인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어주신 인천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후략)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지난 4월 20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30여년 행정의 달인, 정책의 달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그가 경기도시사로서의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김진표 예비후보의 변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중략)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쇼맨십은 이제 그만…

일당독재로 운영되는 '끼리끼리 지방권력' 부정부패 심각
경기도를 국가 · 교육경쟁력 1위 핀란드처럼 바꿀 것

'경제 도지사' 필승불패"

단일화 불씨 여전히 살아 있어… 신뢰회복 우선
경기도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률 심각한 것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경기도 출신, 경기도의 아들로서 30여 년의 공직생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경륜을 경기도를 위해 바치겠다. 경기도를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 1위인 핀란드처럼 바꾸겠다.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에서 면적, 인구, 경제력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가 곧 대한민국이다. 특히, 산업과 벤처기업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러한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경험, 경제와 교육부 총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경험과 리더십, 열정을 모두 바치겠다. 대한민국이 G7으로 나아가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중략)

-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2012년 정권교체의 출발점으로 다지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 '빅3' 중 한 곳인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중요하다. 타 후보들과 다른 김진표 예비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 김문수 지사의 일자리 무능, 교육 무능, 복지 무능 도정에 대한 심한 비판이다.

'경제 문외한', '교육 철학 빈곤', '복지 소홀 도정'에 대한 심판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30여년 행정의 달인, 정책의 달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저만이 이번 지방선거의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후보나 심상정, 안동섭 후보도 야권단일후보로 소색이 없지만 득표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 김진표로 단일화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의 경쟁력과 유시민 후보 지지자들의 열성과 성원, 진보정당의 개혁성을 합하면 김문수 도지사에게 필승 불패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61(자심)
언 론 사	강남포스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3 경인빌딩 602호 발행인 조 호 승
심의대상기사	강남포스트 2010년 5월 6일자 3면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믿음 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주성의 원리를 밑바탕으로 하며, 또한 생활자치이므로 중앙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분권화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요즈음 각 정당별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천제도의 의미는 퇴색, 변색된 채로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역일꾼을 뽑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공천'을 실시하여 태생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

선량한 일반 주민들은 각정당별 공천에 있어, '공천기준은 무엇'이었고, '공천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기여도', '공천권자와의 친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공천헌금, 정치자금제공'과도 연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치불신', '정치혐오'라는 주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결과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려고는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렇게 공천을 받은 대상자들은 앞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의정활동 보다는 정당이나 공천권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에 앞장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렇게 만든 중앙정치인이나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공천이라는 실질적으론 낙하산 인사-그럴싸한 포장으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얼굴 하나도 모르고, 지역의 실정은 더더욱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지역의 대표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민을 우습게 보는 한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행태의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공천

은 정치부패의 원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몰염치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꼴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러한 공천제도의 폐해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소리없는 저항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주민의견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정자들이시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밀실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에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시어,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행태를 고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시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寄稿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재 민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지방자치는 지역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주성의 원리를 밑바탕으로 하며, 또한 생활자치이므로 중앙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분권화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요즈음 각 정당별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천제도의 의미는 퇴색, 변색된 채로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역일꾼을 뽑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공천'을 실시하여 태생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유권자의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

선량한 일반 주민들은 각 정당별 공천에 있어, '공천기준은 무엇'이었고, '공천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기여도', '공천권자와의 친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공천헌금, 정치자금 제공'과도 연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치불신', '정치혐오'라는 주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결과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뜻은 무엇인지,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는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렇게 공천을 받은 대상자들은 앞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정당이나 공천권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에 앞장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렇게 만든 중앙정치인이나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공천이라는 실질적으론 낙하산 인사-그럴싸한 포장으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언굴 하나도 모르고, 지역의 실정은 더더욱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지역의 대표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민을 우습게 보는 한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행태의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공천은 정치부패의 원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몰염치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꼴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러한 공천제도의 폐해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소리없는 저항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주민의견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정자들이시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밀실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에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시어,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행태를 고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시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2(자심)
언 론 사	(주)대구일보사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177-1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0년 5월 10일자 2면『부고』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상주시장)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해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 고

정 송 상주시장예비후보(무소속) 전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어머니이신 김 정 자여사(향년84세)께서 2010년 5월 8일 오후 10시30분경 노환으로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발인일시 : 2010년 5월 11일 오전 7시
빈 소 : 상주 적십자 병원 장례식장 1호실
장 지 : 상주시 외서면 우산 납골당
연 락 처 : (054)530-3017, 010-5714-2531

상 주 : 정 송 (상주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전 경상북도 기획관리 실장
정 옥 (산수원 대표이사)
자 부 : 최 선 희
김 현 진
딸 : 정 경 숙 / 사위 서봉렬(사업)
정 미 란 / 사위 김시호(대건고등학교교사)
손 자 : 정 춘 목(상주솔라대표이사)
정 기 목(사업)
정 선 목(군인)

의 결 번 호	2010지선16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변 용 식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14일자 A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세훈, 한명숙에 12~13%P 앞서

서울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민주노동당 이상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등이 '2강 3약'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최초 재선시장'을 노리는 오 후보가 '최초 여성시장'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후보에게 12~13%포인트 앞서 있다.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한 후보는 선거를 열흘 남기고 치러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23일)가 지지율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친노의 전면 등장에 대해 "무능한 부패세력이 판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각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은 7~8%에 불과해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많은 편이다. 남은 변수는 '투표율'인데,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지 여부가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與 허남식 독주에 野 김정길 도전장

부산

한나라당 하남식, 민주당 김정길 후보 간 양자대결이다. 3선 고지에 도전 중인 허 후보는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5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과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 추격에 나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29.7%의 지지율에 그쳤으나, 김 후보측은 "야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허 후보는 "격차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홍철, 박성효 現시장에 10%P 앞서

대전

4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과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의 리턴매치가 관심이다. 여론조사에서 염 후보에 10%포인트 뒤지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 4곳은 혼전

오세훈, 한명숙에 12~13%P 앞서

김문수 선두… 단일후보 유시민 추격

與 허남식 독주에 野 김정길 도전장

김범일 現시장 강세 두드러져

與 안상수, 민주 송영길에 다소 앞서

민주 강운태, 텃밭서 선두 질주

염홍철, 박성효 現시장에 10%P 앞서

與 박맹우 독주… 지지율 50% 넘어

與 정우택 우세… 약판 접전 예상

박상돈·안희정 접전… 박해춘 추격

민주 김완주 후보 일방적 우세

민주 박준영 現지사 3선이 보인다

김관용 現지사, 당선 안정권에

이달곤·김두관 오차범위 내 접전

이계진, 이광재에 16%P 앞서

현명관 공천 박탈에 혼전 양상

후보등록 마친 서울시장 후보들

고 있는 박 시장은 격차가 줄고 있다며 수성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염 후보를 '철새정치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년간 와신상담하며 탈환을 준비해온 염 후보는 국책사업 유치 실패 등 박 후보의 정치력 부재를 꼬집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원웅 후보, 진보신당에서는 김윤기 후보가 나섰다.(중략)

김문수 선두…단일후보 유시민 추격

경기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40%대 이상의 지지율로 앞서가는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13일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서 양자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 안팎이었으나, 유 후보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친노(親盧) 세력의 핵심인 유 후보는 단일화 바람을 선거 열흘 전에 맞는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23일)와 결합시켜 '노풍(盧風)'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측은 현역 지사로서의 업적을 집중홍보하면서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물 출마에 대한 역(逆)견제론을 제기하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도 변수다. 민주노동당은 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심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중략)

與 박맹우 독주…지지율 50% 넘어

울산

초반 판세는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들도 박 후보가 지지율 50~55%로 상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나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는 각각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나서더라도 지지율 15~2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고전이 예상된다. 양측은 몇차례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 오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무소속 이규정 후보 역시 초반 지지율이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박상돈 · 안희정 접전…박해춘 추격

충남

각종 여론조사 결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와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20%대 지지율로 접전 중이며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박 후보측은 이완구 전 지사가 지원에 나서면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측은 보수성향 유권자 표가 한나라당과 선진당으로 갈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전후해 '노풍(盧風)'이 불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선진당 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이나 밑바닥 충청민심은 선진당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다.(중략)

與 안상수, 민주 송영길에 다소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64)후보와 민주당 ·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통합 후보인 민주당 송영길(47)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 속에 진보신당 김상하(46) 후보와 미래연합 허규(61) 후보, 평화민주당 백석두(54) 후보가 추격 중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3선에 도전하는 안 후보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송 후보를 다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송 후보는 상대적으로 20 · 30대 유권자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64(자심)
언 론 사	한겨레신문(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보후보 약진…
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띈다. 애초 지난 2월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도민 후보로 추대한 장만채 전순천대 총장은 낮은 인지도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장 후보는 총장직을 버리고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결단으로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 교육관료 출신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하는 김장환 전 교육감과 새 세대의 기수로 나선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은 2위권을 유지하며 추격하는 양상이다. 경기도에서 비롯된 '김상곤 효과' 덕분에 보수적인 교육관료 출신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예상 밖의 구도가 짜여졌다. 중반 판세는 일단 1강 2중 4약으로 보인다.(후략)

전남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도민후보 지지율 1위…'김상곤' 효과에 관료 출신 고전
무상급식 찬성·농어촌학교 통폐합 반대 '의견 일치'

이름(나이)	곽영표(54)	김경택(67)	김장환(73)	서기남(65)	신태학(63)	윤기선(64)	장만채(52)
출마 직전 직업	전 여수정보고 교장	동아인재대 총장	전 교육감	교육위원	전 여수교육장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전 순천대 총장
출신 지역	여수	목포	나주	강진	해남	나주	영암
출신고-대학	여수고, 한양대	인창고, 고려대	광주고, 광주사범	광주고, 광주사대	광주고, 광주교대	광주일고, 광주사대	광주일고, 서울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반대	평가 필요, 공개 반대	실시 찬성, 공개 반대	실시 찬성, 공개는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수능성적 공개	반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찬성	반대	신중 검토	전남 동부권에 설치	찬성	반대	반대
고교 평준화 유지	반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농어촌학교 통폐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초등 반대, 중등은 찬성	반대	반대 또는 신중
학생수 기준 교원 배치	찬성	적극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의 결 번 호	2010지선165(자심)
언 론 사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5,6층 대표이사 곽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0년 5월 11일자 A4면『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2010년 5월 12일자 A4면『경전철이냐 9호선 연장이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인천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전략)

◆선거 승패 가를 수도권

최대 격전지 서울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선두에 나선 상태다. 지난 주말 시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에 비해 지지율이 13~21%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향후 야권의 표결집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민심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를 약 10%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비하면 17%포인트 정도 앞선다. 이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의 '유시민-김진표' 단일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은 "경기도는 야권이 단일화하면(승리)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내 최대 격전지다.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시장은 송 최고위원에 5.2~7.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세종시 논란의 충청권

세종시 수정 논란이 뜨거운 충청권도 혼전 양상이다. 전 · 현 시장간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대전에서는 한나라당 박성효 시장과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염 전 시장은 박 시장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앞서 있다.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의 경우 10% 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어 막판 뒤집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세종시 수정 논란의 진원지 충남지사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간 3파전이 진행중이다. 박 후보와 안 최고위원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중이고 박 후보는 1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가 6%포인트 정도 민주당 이시종 후보에 앞서 있다. 그러나 3%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따라

판세는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 텃밭, 호남×영남권

호남권은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0~6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싹쓸이가 점쳐진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후보가 5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도 현역프리미엄을 앞세워 60% 중반대 지지율을 얻고 있어 낙승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아성인 영남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는 노풍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전·현직 행정장관의 대결이자 'MB(이명박)맨'과 '리틀 노무현'간 대결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은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6%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는 오차의 범위내 선두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풍이 거세진다면 선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 한나라당 강세 강원, 혼전의 제주

강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10~15%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원주 출신이란 점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의 민심이 선거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간의 양자대결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후보는 우 전 지사에 비해 7~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기록한 우 전 지사의 지지율 회복이 최대 관건이다.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지방선거 판세 분석

'텃밭' 한나라 영남·민주 호남 독주
경기 야권 단일화 여부 최대변수로

6·2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텃밭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권 등 선거구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현역프리미엄을 보유한 민주당이 1위라는 분석이다. 또 세종시 수정 문제가 걸린 충청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팽팽한 3파전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 승패 가를 수도권

최대 격전지 서울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선두에 나선 상태다. 지난 주말 실시된 각종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에 비해 지지율이 13~21%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향후 야권의 표결집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민심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를 약 10%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비하면 17%포인트 정도 앞선다. 이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의 '유시민-김진표' 단일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은 "경기도는 야권이 단일화하면 (승리가) 힘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내 최대 격전지다.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시장은 송 최고위원에 5.2~7.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모두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세종시 논란의 충청권

세종시 수정 논란이 뜨거운 충청권도 혼전 양상이다. 전·현 시장간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대전에서는 한나라당 박성효 시장과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염 전 시장은 박 시장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앞서 있다.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의 경우 10%내 지지율에 머물고 있어 막판 뒤집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세종시 수정 논란의 진원지 충남지사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간 3파전이 진행중이다. 박 후보와 안 최고위원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중이고 박 후보는 1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가 6%포인트 정도 민주당 이시종 후보에 앞서 있다. 그러나 3%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따라 판세는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 텃밭, 호남 영남권

호남권은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0~6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싹쓸이가 점쳐진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후보가 5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도 현역프리미엄을 앞세워 60% 중반대 지지율을 얻고 있어 낙승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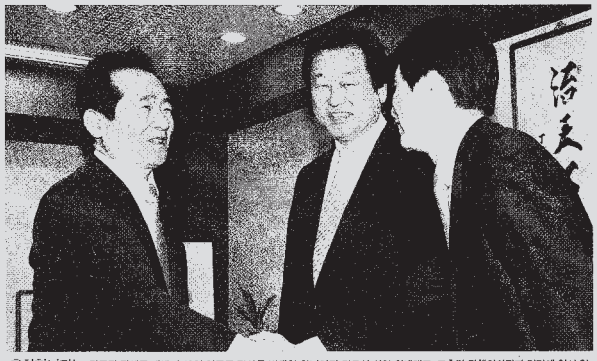
한나라당 아성인 영남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는 노풍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전·현직 행정장관의 대결이자 'MB(이명박)맨'과 '리틀 노무현'간 대결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은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6%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는 오차의 범위내 선두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풍이 거세진다면 선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강세 강원, 혼전의 제주

강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10~15%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원주 출신이란 점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의 민심이 선거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간 양자대결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후보는 우 전 지사에 비해 7~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기록한 우 전 지사의 지지율 회복이 최대 관건이다.

송정훈 기자songhdn@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0일 영등포 당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전철이냐 9호선 연장이냐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전형적 도·농복합도시다. 그러나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등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개발 바람이 불고 이와 함께 유입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22만5000여 명인 김포시의 인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 인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 김포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여느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 강 후보는 29.6%로 24.6%의 민주당 유 후보를 불과 5.0%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후략)

6·2 지방선거 격전지 가다 한나라·민주 구도 김포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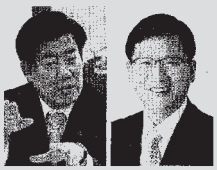
경전철이냐 9호선 연장이냐

강경구·유영록 후보 공약 제시
초박빙 접전… 판세변화 관심

김포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다. 최근 공천이 확정된 한나라당 강경구 현 김포시장과 도의원 출신인 민주당 유영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전철과 9호선 연장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논쟁이 가열되면서 선거 판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전형적 도·농복합도시다. 그러나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등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개발 바람이 불고 이와 함께 유입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22만5000여 명인 김포시의 인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 인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 김포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여느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 강 후보는 29.6%로 24.6%의 민주당 유 후보를 불과 5.0%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후보들도 자신만의 공약을 내걸고 더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강경구 시장 유영록 후보

강 후보는 현역 시장 프리미엄과 지난 4년간의 공적을 앞세워 유권자 설득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4년 간 시티폴리스와 산업단지 유치, 한강철책제거, 도시철도 확정 등 많은 발전을 이끌었다"며 "이 같은 발전을 바탕으로 김포를 최첨단, 초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펼쳐 놓은 정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지역곳곳에 산재한 공장을 집적화하는 방식으로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김포시의 경전철 건설 확정을 철회하고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의 중전철 건설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유 후보는 "당선되면 지하철을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눈과 귀를 막고 일방통행하는 현 시정을 잘못을 고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경전철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 갈리며 불거졌던 문제인 만큼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유 후보의 중전철 건설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걸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경전철 전구간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이 걱정했던 집값하락 등의 걱정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 비용의 조달 방안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유 후보는 "경전철을 지하화 할 바에는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강 후보 측이 내놓은 경전철 지하화는 환경영향평가 등도 첨부되지 않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후보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경전철을 둘러싼 양 진영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maeno@

의 결 번 호	2010지선166(자심)
언 론 사	(주)이십일세기뉴스(민주신문) 서울 중구 중림동 500 디오센터빌딩 408호 대표이사 강 상 숙
심의대상기사	민주신문 2010년 5월 16일자 12~13면 『당의 운명 걸고 선거전 스타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후보의 차기 대권행보와 관련한 예리한 질문에 대해 오 후보는 '임기완주'를 공언했고, 한 후보도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치 양보 없는 두 사람의 신경전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세훈 대 한명숙'의 경쟁은 여야의 기본축에 보수 대 진보, 현 정권 대 전 정권 등의 대결점이 포개지면서 '심판론'의 구도가 확연해진 만큼 여야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에게 20%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탓이다.(중략)

민주당의 표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권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세 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각각 강운태, 김완주, 박준영 후보가 지지율 50%를 훌쩍 넘기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광주시장 지지율 2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5.9%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사 역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지지율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8.3%에 그쳤다.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영남권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대구·부산·울산시장과 경북·경남지사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영남권 지지율 획득에서 2위자리마저 민노당에게 내줬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 이어 경선을 앞둔 김정길, 김민석 후보만이 간신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허 후보와 지지율이 30% 가까이 차이가나면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민노당 역시 영남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 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가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그 뒤를 쫓고 있는 민노당 윤병태 후보의 지지율은 4%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와 이에 맞선 민노당 이병수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무려 47%가량 차이가 난다. 그나마 울산시장에서 김창현 후보가 15%대를 기록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으나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을 내다보고 있다.(후략)

당의 운명 걸

6·2 지방선거 대진표

선거 막판 갈수록 판세 요동

여권의 현직단체

전·현정권 자존

고 선거전 스타트

장 vs 야권 거물급 의원의 불꽃 레이스

심 대결로 비화, 선거 초반 기 싸움 팽팽

지역 정당 지지율 여전

이광재 선전이 강원 관심

정치 말말말

의 결 번 호	2010지선168(자심)
언 론 사	(주)지아이씨미디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5 역삼빌딩 3층 대표이사 정 영 라
심의대상기사	evening 2010년 5월 24일자 17면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등을 주요 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슈지역-동대문2선거구
고정균 서울시의원 후보

'도시계획 전문가' 고정균(42 · 무소속 · 동대문구 제2선거구) 전 서울시의원이 이번 6 · 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서울시의원 재선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기호8번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모든 후광을 거둬내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다짐이다. 선거를 앞둔 고정균 후보를 만났다.

서울시의원 재선출마 계기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8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과일, 떡 행상을 하시며 고생스럽게 우리 5남매를 키우셨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도배, 지방의 모내기 등 막노동을 해야했다.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과 설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하루 170원으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올해로 정치에 입문한지 22년이 됐다. 우리사회의 힘없는 서민과 소외된 계층의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하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중략)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1987년 한겨레 민주당 중앙당 창당 멤버로 정치를 시작해 22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달리는 차 안은 사무실이 되고, 발로 누비는 곳이 현장이 됐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주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살아온 '열정'과 '도전'의 42년,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실무감각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고 동대문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싶다.

정당 후보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이슈지역-동대문 2선거구 고정균 서울시의원 후보

'도시계획 전문가' 고정균(42·무소속·동대문구 제2선거구) 전 서울시의원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서울시의원 재선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기호8번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모든 후광을 거둬내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다짐이다. 선거를 앞둔 고정균 후보를 만났다.

고정균 서울특별시의회 후보자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없는 이슈지역인 동대문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며 재선을 다짐하고 있다.

고정균 프로필

▶1969년 강원도 정선 출생

▶의회 활동

-2009년:전 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08년: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2008년 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치·정당 활동

-2008년:한나라당 서울시당 산악회장

-2007년~2008년: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2007년: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사회 활동

-2009년:현 서울특별시탁구협회 회장

-2009년:현 선플 지도위원

-2009년:현 노인전문요양시설 (재)유지원 운영위원

막노동·도배일 등 어려운 청년기 경험 '자산'
서민 희망 찾아주려고 정치 입문한지 22년
동대문구 명품교육·의료관광 도시 만들 것

서울시의원 재선출마 계기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8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과일, 떡 행상을 하시며 고생스럽게 우리 5남매를 키우셨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도배, 지방의 모내기 등 막노동을 해야했다.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과 설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하루 170원으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올해로 정치에 입문한지 22년이 됐다. 우리 사회의 힘없는 서민과 소외된 계층의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의원 재직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서울시민의 종복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노력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속에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민생활 안정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민간부문 일자리 개발 및 지원, 청·장년, 여성·장애인·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또 신규사업 발굴 차원을 넘어 의료관광, 신기술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단기·중기·장기의 단계적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복지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걸로 알고 있다

현장실사와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위기가정과 틈새계층을 찾아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우들을 위해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등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또 노숙인 보호와 자립의욕이 부족한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는 지원하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도심에 해당하는 동대문구는 교통상황이 열악한 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동대문구 최대 현안사업은 1호선 청량리역~석계역 구간 지하철 지하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와 수차례의 대책회의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오는 10월1일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상전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도로 건설, 도로 인근 지역공원녹지 확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하철 역사 주변의 새로운 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세곡~상계간 5.8km 구간)를 폐지하고 관내 노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년간 동대문구 47개학교에 총 830여억원을 지원해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2009년 경희고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지정하고 휘경여고를 과학중점고로 지정하는 등 2010년 시행되는 고교 학교선택제에 대비해 왔다. 향후 학생과학정보전시관을 개설해 휘경동을 과학교육 단지로 조성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등을 통해 동대문구를 일등명품교육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굶주림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급식뿐만 아니라 수업료 걱정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동대문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서울시와 함께 최첨단 '멀티플렉스 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농동지역을 정비하고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멀티플렉스 시티를 구축, 청량리를 예술과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한약진흥재단을 서울약령시에 유치해 600년 전통의 한약재 물류와 소비 집산지 기능을 승계 발전시켜 동대문구를 양·한방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메카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1987년 한겨레 민주당 중앙당 창당 멤버로 정치를 시작해 22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달리는 차 안은 사무실이 됐고, 발로 누비는 곳이 현장이 됐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주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살아온 '열정'과 '도전'의 42년,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실무감각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고 동대문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싶다.

장인섭 기자 iscrang@ieve.kr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질의하는 고정균 후보.

경희사단 '밝은 사회 한국 본부'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의 결 번 호	2010지선170(자심)
언 론 사	(주)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0년 5월 24일자 8면『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및 9면『부평 · 중구 초접전…與 수성 쉽지 않을 듯』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의 '정치 1번지' 인 수원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고된다.

한나라당 심재인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30%대 초반의 지지도로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보수와 진보 등 확실한 색깔을 갖춰 흥미를 끈다.(중략)

부천, 민주당 김만수 후보 다소 앞서

부천은 3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에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세와 민주당세가 박빙인 지역이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중략)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과천시는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여인국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도를 유지하며 민주당 홍순권 후보와 무소속 임기원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이기수 전 군수의 돈봉투 사건으로 이변이 예상됐던 여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한나라당 김춘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이희웅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후략)

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경기지역 31곳 가운데 27곳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뒀으나 이번에는 상당수 지역에서 고전하는 판세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당 견제심리가 발동한데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와 공천과정에서의 갈등이 악재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여당이 '반타작'만 해도 성공이란 비관론이 적지 않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것도 선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의 '정치 1번지'인 수원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고된다.

한나라당 심재인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30%대 초반의 지지도로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보수와 진보 등 확실한 색깔을 갖춰 흥미를 끈다.

'통합 후유증' 성남 최대 격전지로

남부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성남시다. '성, 광, 하' 시·군 통합 가능성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나 통합은 무산된 상태다. 공천을 둘러싸고 여권 후보군에서 잡음이 계속되는데다 야당 후보들의 전격 연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인재 영입 형식으로 입당한 황순기 전 여성부 차관이 경선 없이 후보로 무혈입성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대부분 황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대엽 현 시장이 후보등록을 마쳐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야권은 일찌감치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서 황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공천부터 후보자 등록까지 각종 걸림돌로 삐걱거린 용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오세동, 민주당 김학규, 무소속 서정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오 후보와 김 후보는 당내 불공정 공천 논란 속에 후보로 확정됐고 현 용인시장인 서 후보 역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공천과정과 후보등록까지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평택은 전·현직 단체장간의 빅 매치가 펼쳐진다.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6년간 평택을 이끌어온 현 송명호시장(한나라당)과 3선에 성공했다 중도에 퇴진했던 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불꽃튀는 샅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 당세가 강한 곳이지만 이번만큼은 만판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안양에서는 현 시장인 이필운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재대결을 펼친다. 2007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이번에 최 후보가 약간 앞서는 분위기다.

안산은 박주원 현 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출마'를 강행,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한나라당 허숭, 민주당 김철민 후보와의 3자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허 후보측은 한나라당 고정표 이탈을 걱정하는 반면 김 후보측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 민주당 김만수 후보 다소 앞서

부천은 3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에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세와 민주당세가 박빙인 지역이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화성은 민주당 채인석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한나라당 이대섭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현 시장을, 채 후보는 전 부시장을 제치고 올라오는 이변을 연출했다.

광명시는 한나라당 안병식 후보와 민주당 양기대 후보가 일찌감치 나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복당이 불발된 이효선 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 시장이 법정 구속된 군포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윤주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임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창렬 한나라당 후보가 오차 범위내에서 추격 중이며 무소속 정금채 후보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오산은 한나라당 이춘성 후보와 민주당 곽상욱 후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박신원 후보 등 오산중 선후배 간 3파전이 벌어져 흥미를 끈다.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과천시는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여인국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도를 유지하며 민주당 홍순권 후보와 무소속 임기원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을 배신할 수 없다며 현 김황식 시장(한나라)이 불출마 선언을 한 하남시는 민주당 이교범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김 시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윤완채 후보가 맹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왕시는 수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강철원 후보와 민주당 김성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상섭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안성 7명 출마… 도내 최고 경쟁률

현 시장이 조기 퇴진한 안성에서는 7명이 출마, 도내에서 가장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은성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 이수형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여야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어 판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와 민주당 유영록 후보의 양강 구도속에 무소속 김동식 후보가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경전철과 9호선 연장을 둘러싼 후보 간의 논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흥은 현 시장인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국민 참여당 조성찬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뤄 한나라당 최흥건 후보와 2파전을 치르게됐다.

광주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한나라당 조억동 현시장이 충북 경찰청장 출신인 민주당 최석민 후보와 미래연합 손동호 후보 등에 앞서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기수 전 군수의 돈봉투 사건으로 이변이 예상됐던 여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한나라당 김춘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이희웅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 5당의 정책연대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이룬 국민참여당 엄태준 후보가 한나라당 조병돈 후보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부평 · 중구 초접전… 與 수성 쉽지않을 듯

(전략)연수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구청장인 한나라당 남무교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인천의 '강남'으로 통하는 연수구는 한나라당 텃밭이라 할 만큼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이다.

남구, 전 · 현직 구청장 대결구도

남구는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와 민주당 박우서 후보가 재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선 이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엔 이 후보보다 먼저 전에 구청장을 지낸 박 후보가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계양구 역시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곳에서는 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구에서는 한나라당 이흥수 후보가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남동구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10% 포인트 차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이긴 서구의 경우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가 민주당 전년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평화민주당의 유일한 인천지역 후보인 박영기 후보가 분전하고 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후략)

부평·중구 초접전… 與 수성 쉽지않을 듯

인천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쪽으로 세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각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이 10개 기초단체장 중 9곳을 휩쓸었으나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면서 한나라당의 수성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야권 단일화가 실패한 것과는 달리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인천 8개 구·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여야간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지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연수구, 부평구, 중구 등.

연수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구청장인 한나라당 남무교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인천의 '강남'으로 통하는 연수구는 한나라당 텃밭이라할 만큼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이다. 지금까지 4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야당 당시 집권당(국민회의)에 한번 패했을뿐 나머지는 모두 낙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평구는 전 국회의원인 민주당 홍미영 후보가 구청장인 한나라당 박윤배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뒤쫓고 있다. 홍 후보는 민주당에서 유일한 수도권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다. 박 후보는 무난한 구정운영을 인정받고 있지만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 족쇄로 작용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홍 후보의 의전 의지와 박 후보의 수성 의지 중 어느 쪽이 막판 결정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중구는 한나라당 박승숙, 민주당 김홍석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에는 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 같은 변화현상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노경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후보와 노 후보의 지지기반이 거의 비슷하기에 박 후보의 구청장 수성은 이탈표를 얼마나 막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구, 전·현직 구청장 대결구도

남구는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와 민주당 박우섭 후보가 재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선 이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엔 이 후보보다 먼저 전에 구청장을 지낸 박 후보가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계양구 역시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곳에서는 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구에서는 한나라당 이흥수 후보가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남동구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10%포인트 차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이긴 서구의 경우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가 민주당 전년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평화민주당의 유일한 인천지역 후보인 박영기 후보가 분전하고 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강화, 무소속 안덕수 후보 분투

강화군은 무소속 안덕수 후보와 한나라당 유천호 후보가 양보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 지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안 후보에게 동정 여론이 쏠리고 있지만, 강화에서 뼈가 굵은 유 후보의 조직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옹진군은 조윤길(한나라당) 군수 외에는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72(자심)
언 론 사	(주)세계일보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0-15 대표이사 유 종 관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0년 5월 20일자 6면『野 단일화 효과 기대 속 '北風' 변수』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19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한나라당 조윤길 옹진군수를 제외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9곳 가운데 동구 · 남동구 · 서구는 한나라당, 남구 · 연수구 · 계양구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중구 · 부평구 · 강화군은 접전 구도가 팽팽한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여야 어느 쪽도 '완승'을 장담하긴 어려운 초박빙 구도다.(중략)

동구에서 현 구청장을 물리치고 3수 끝에 공천을 따낸 한나라당 이홍수 후보는 야3당 통합 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지지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구 현직 구청장 대신 출전 기회를 얻은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야권 통합 후보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5~10% 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박승숙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는 범야권 후보로 나서는 민주당 김홍복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확실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인천시당 사무처장 출신의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구의 경우 4년 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현 구청장)에게 패한 민주당 박우섭 후보가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로 앞서는 분위기다. 연수구 역시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남무교 후보(현 구청장)를 5~10%포인트 앞서나가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후략)

野 단일화 효과 기대 속 '北風' 변수

與野 수도권 기초단체장 판세 ㊦ 인천 10곳

한나라 무투표 당선 옹진 포함 5곳 장담
민주, 계양·연수·부평 등서 대반격 노려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이 기초자치단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곳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등 야권은 '단일화 바람'에 기대를 걸고 대반격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북풍'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인천 표심은 적잖게 출렁거리고 있었음이 감지된다.

이런 대형 변수의 혼재 탓인지 인천시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간 판세는 대혼전 양상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이 10개 기초단체장 지역 중 9곳을 휩쓸었으나, 이번에는 '여당 견제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한나라당의 '수성'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19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한나라당 조윤길 옹진군수를 제외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9곳 가운데 동구·남동구·서구는 한나라당, 남구·연수구·계양구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중구·부평구·강화군은 접전 구도가 팽팽한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여야 어느 쪽도 '완승'을 장담하긴 어려운 초박빙 구도다.

◆한나라당, '물갈이' 지역에서 선전=한나라당은 선거 없이 '무혈입성'에 성공한 조윤길 군수를 포함해 5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10곳 중 5곳에 현 구청장(군수)을 내세운 한나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오히려 현직 기초단체장을 물갈이한 동구와 남동구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동구에서 현 구청장을 물리치고 3수 끝에 공천을 따낸 한나라당 이홍수 후보는 야3당 통합 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지지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구 현직 구청장 내신 출전 기회를 얻은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야권 통합 후보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5~10%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06년 선거에서 유일하게 건진 서구의 경우 2008년 서구청장 재보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던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가 민주당 전년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승숙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는 범야권 후보로 나서는 민주당 김홍복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야권 연합' 무기로 대반격=민주당은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6~7곳 승리를 목표로 했으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보수층 결집이 악재로 작용하며 목표 지역을 5곳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확실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인천시당 사무처장 출신의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구의 경우 4년 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현 구청장)에게 패한 민주당 박우섭 후보가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로 앞서는 분위기다. 연수구 역시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남부교 후보(현 구청장)를 5~10%포인트 앞서나가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히 주목하는 지역은 기초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자랑하는 홍미영 후보를 전략배치한 부평구다. 5월 초까지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박윤배 후보(현 구청장)가 근소한 차로 앞섰지만, 최근 홍 후보가 주월에 성공한 이후 확실한 우위를 굳혔다는 게 민주당 측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판세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인천시장 후보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 간 판세도 기초단체장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구·신정훈 기자
julyend@segye.com

인천시 기초단체장 판세

	한나라당 추장	민주당 추장
중 구	백중세	백중세
동 구	우세	무공천(여당 우세)
남 구	백중세	백중 우세
연 수 구	백중세	우세
남 동 구	우세	무공천(여당 우세)
부 평 구	백중 우세	백중 우세
계 양 구	열세	우세
서 구	우세	백중 열세
강 화 군	백중세	백중 열세
옹 진 군	무투표 당선	무공천

의 결 번 호	2010지선173(자심)
언 론 사	(주)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0년 5월 25일자 22면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 순천시장 등)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호남지역은 무소속 약진=전북에서는 김제·정읍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김제시의 경우 무소속 이건식 후보가 민주당 이길동 후보를 지지율에서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전북일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건식 후보는 54.1%로, 민주당 이길동 후보는 20.9%로 나타났다.(중략)

순천시와 강진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현 시장과 황주홍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와 큰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다.(중략)

경남 통영에서도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중현(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후략)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기초단체 곳곳 무소속 약진

6·2 지방선거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이라는 지역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좀 더 냉정만 보고 투표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물·정책을 따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천천히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무소속 약진=전북에서는 김제·정읍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김제시의 경우 무소속 이건식 후보가 민주당 이길동 후보를 지지율에서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전북일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건식 후보는 54.1%로, 민주당 이길동 후보는 20.9%로 나타났다.

이건식 후보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4년간 시장으로 일해 왔다. 민주당은 두소속 단체장의 재선 가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시장 후보를 내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건식 후보는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시정을 충실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선 이후에도 무소속 시장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는 명목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광주 5개 구·군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여 곳에서 무소속 후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아 당선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시와 강진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현 시장과 황주홍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와 큰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다. 광주 남구·서구와 전남 장성·해남에서도 각각 오차 범위 안에서 예측 불허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유권자들이 인물 본주로 투표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데다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무원칙에 실망을 느낀 변화 민주당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선전도 눈에 띈다. 한나라당원들은 지방선거를 대자보 자발적으로 14개 시·군에 처음으로 안락소를 차렸다. 과거에 구하기 힘들던 자원봉사자들도 2000여 명이나 몰렸다. 정운천 전북도지사 후보는 "과거 7~8%에 머물던 득표율을 2~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영남서 고전하는 한나라당=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4년 전 한나라당이 5개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했던 울산에서는 중구·북구 등 2곳에서 무소속 후보들 후보들이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 경우 무소속의 조광수(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박성민 후보와 막상막하의 전선을 펼치고 있다. 경남 통영에서도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중현(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경북 봉경·영주·경산·칠곡·봉화 등에서도 무소속·한나라 후보가 2강 전을 형성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박시종 유진하는 김뇌(47·대구시 산격동)씨는 "한나라당 안팎의 지역정서에 분개가 있다"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한나라당 성향이라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전국종합 dsjang@joongang.co.kr

"꼭 투표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단 경비행기가 24일 소백산철쭉제가 열리고 있는 충북 단양읍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단양에이스클럽은 철쭉제 기간인 30일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루 4~5회 비행 경력인을 벌일 예정이다. [단양=뉴시스]

호남

광주·전남 10여 곳은 혼전

전북에선 한나라당 선전

영남

통영시장 무소속 1위 달려

문경·영주·경산서는 접전

의 결 번 호	2010지선174(자심)
언 론 사	밀양일보(주)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2-3 대표이사 조 용 화
심의대상기사	밀양사람들 2010년 5월 20일자 1면『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 연출 관심 높았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밀양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한편 한나라당 경선에서 엄용수 후보가 이병희 후보를 이기고 한나라당 공천자로 확정되자 최호진, 김용문 후보는 무소속 단일화를 위해 합의하고 무소속 여론조사 경선을 해 김용문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최호진 후보를 앞서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최호진, 김용문 후보단일화 추진대책위는 서울 한백리서치에 엄용수 후보와 무소속 단일후보간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엄용수 후보 51.3%, 무소속단일후보 48.7%로 나타났다.(후략)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 연출 관심 높았다

김용문 밀양시장후보 무소속 단일화 필승 결의대회 가져

5월 5일 여론조사 결과 엄용수 51.3%, 무소속단일후보 48.7%로 나타나

▲ 김용문후보와 공천선대위, 최호진, 정경식 후보 등이 함께 필승을 다짐다.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78(자심)
언 론 사	(주)종로문화사 서울 종로구 사직동 238-1 영창빌딩 2층 대표이사 이 병 기
심의대상기사	종로저널 2010년 5월 24일자 5면 『선거 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로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종로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판세를 분석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거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

(전략)

〈종로구청장 선거는 한나라당 유리〉

이와 관련,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정창희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선거에서는 구청장 후보로 총5명이 출마했다. 한나라당 정창희 후보, 민주당 김영종 후보,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 무소속에 김성은, 유미영 후보가 그들이다. 이들 후보자들 중 아주 특별한 경력을 가진 독보적 후보자는 없는 셈이다. 다만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가 당 대표총재로서 다소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정당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정당이며 이 후보자 역시 종로구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생경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직과 기반이 미미한 상태로서 큰 위력은 없는 셈이다.

또한 무소속의 김성은 후보는 현재 종로구 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남다른 인정을 받았지만 종로구청장 당선권에는 주민들 모두 회의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무소속 유미영 후보는 정홍진 전 종로구청장의 부인으로서 정 전 구청장이 민주당 종로구청장 공천경쟁에 실패하면서 경선과정의 불공정과 불법성을 항변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항변(?)처럼 구청장 당선 그 자체보다는 출마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따라서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자 경선 불협화음에 따른 후유증으로서 민주당 세력 분열의 작용이 되어 가뜩이나 불리한 민주당 후보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원 선거〉

종로구 서울시 의원 선거는 종로 구청장 선거보다 더 관세가 뚜렷하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청운·효자동과 삼청, 가회, 사직, 무악, 교남, 평창, 부암동 등 총 8개동에서 치러지는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남재경 후보와 민주당의 강지원 후보 간의 싸움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건국당의 정재복 후보, 국민참여당의 김양희 후보가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밭으로 불려지는 제1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한나라당 후보보다 불리한 판세가 된다.

아울러 한나라당 남재경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 2만1천표라는 기록적 득표를 하며 당선

된 바 있으며 지난 4년간 서울시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1등 시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구민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무난한 당선이 예측된다. 물론 지난번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 후보자로 나온 강지원 후보가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재차 도전장을 내고는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한나라당 표밭에서 그가 얼마만큼 선전할지가 관심거리로 보인다.

종로1 · 4가동과 5 · 6가동, 혜화, 명륜, 이화, 창 · 숭지역 등 총 10개동에서 치러지는 서울시 의원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권 후보와 민주당 오필근 후보, 무소속의 이석재, 최위환 후보가 나서 4파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곳 역시 지역적 특성상 민주당 후보자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창 · 숭지역과 명륜3가동 및 이화동의 전통적 민주당 표밭은 어느정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민주당세로 평가되면서 이에 편승된 오필근 민주당 후보가 유력시 된다. 오 후보자는 종로구 의원 2선과 부의장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지지기반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 서울시 의원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한 탓에 그 여세를 몰아 순탄한 선거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김권 후보는 종로구 상공회 회장을 8년간 맡으면서 종로구 상인 또는 자영업자 사이에 다소 알려지기는 했지만 워낙 지지기반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상 고전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로구 서울시 의원 선거는 제1선거구에서 남재경 한나라당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오필근 민주당 후보가 각각 우세로 점쳐지는 분위기다.(중략)

〈 '가' 선거구〉

종로구 청운 · 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등 4개동에 실시되는 종로구 의원 '가' 선거구는 한나라당에서 기호 가번 최경애, 기호 나번 김동열 후보가 나왔으며 민주당에서는 기호 가번 오금남, 기호 나번 여봉무 후보, 진보신당의 고미숙 후보가 나왔다.

이들 5명의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2명이 구의원으로 선출되는 이곳 선거구 상황은 지난번 선거처럼 '가'번 후보자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동네 별로 보면 우선 청운 · 효자동의 여봉무, 사직동의 김동열, 오금남, 교남동의 최경애, 무악동의 고미숙 후보자가 나온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표가 백중지세인 것을 감안하면 여 · 야 각1명씩의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오금남 후보가 여봉무 후보 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기호 나번인 김동열 후보가 기호 가번인 최경애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 '나' 선거구〉

종로구 평창, 부암, 삼청, 가회동 등 4개동에서 치러지는 '나'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에서 현택정 후보(기호 가), 윤종복 후보(기호 나)가 나왔으며 민주당에서는 안재홍 후보(기호 가)가 단일후보로 출마했고, 무소속으로는 노상우 후보가 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특히 평창, 부암동은 몰표에 가까운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구의원 2석 모두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 중에 있으며 반면 민주당 측은 지리적 약세를 내세워 100%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평창동 토박이인 현택정 후보가 가장 우위로 점쳐지면서 당선권에 들고 있으며 나머지 1석은 민주당 안재홍 후보와 한나라당 윤종복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형세다. 따라서 앞으로 안재홍 후보가 평창동에서 얼마의 득표를 하고 또 삼청 · 가회동에서 민주당 지지표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79(자심)
언 론 사	(주)펜그리고자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사건의내막 2010년 5월 30일자 4면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및 5면 『'한나라' 박성효 vs '선진당' 염홍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대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전략)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장 가상대결을 실시한 결과, 안상수 시장이 44.9%, 송영길 최고위원이 41.8%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송후보가 앞섰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안상수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정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중략)

한편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2차례에 걸쳐 투옥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진보 진영인사 중 한명인 김상하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3%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후략)

'한나라' 박성효 vs '선진당' 염홍철

(전략)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염후보가 약 35%로 앞서나가고 있고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 박 후보가 약 28%로 그 뒤를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의 대결은 세종시나 4대강, 무상급식 등의 정치적 이슈보단 인물론이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밭별혈투'는 선대위 규모 대결이나 상대 후보 비방 등 과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중략)

한편 김윤기 진보신당 후보는 2%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름 알리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이대로 승리를 굳히겠다는 염홍철 후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4년전과 같은 대역전극을 이끌어내겠다는 박성효 후보. 이들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야권 표로 이끌어내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김원웅 후보.

6월 2일 지방선거가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대전시장 선거는 점점 예측하기 힘든 혼전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미리 본 광역단체장 선거 ② 인천시장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오차범위 내의 치열한 접전…송영길 후보와 안상수 후보 1대1의 무승부 끝 결승전…20% 부동층 잡는게 관건

미리 본 광역단체장 선거 ③ 대전시장

'한나라' 박성효 VS '선진당' 염홍철

전·현직 시장 치열한 맞대결 속 민주당 추격전

세종시·4대강·무상급식 등 정책대결보다 인물론 부각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네거티브…민주당 어부지리 할까?

의 결 번 호	2010지선182(자심)
언 론 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월간중앙)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이사 김 광 수
심의대상기사	월간중앙 2010년 6월호(통권 414호) 64~68면 『54% 지지율 '훈風' 부는데…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지율을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제3조(객관성),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 차로 나경원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현재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50%를 넘나들어 야당인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이전의 서울시장들이 그러했듯 그도 차기대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인가? 오 후보의 그간 정치 행보를 쫓아봤다.(중략)

오 후보가 2006년 서울시장에 극적으로 당선된 이후 4년이 흘렀다. '디자인 도시', '창의시정' 등 지금까지의 도시행정과는 전혀 다른 슬로건을 걸고 나섰던 그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비스듬히 엇갈린다. 진취적이다. 새롭다, 신선하다, 창의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시행정'이라는 꼬리표 역시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 서민을 외면하고 외양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같은 결과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평가가 동시에 등장한다. 이런 점은 그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드럽고 친근한 웃음 뒤에 엘리트 특유의 차가운 고집이 느껴진다는 것.

현재 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들 중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다.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오 시장은 54.6%의 지지를 얻어 34.3%의 지지율을 보이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여유 있게 앞질렀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다. 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 야권 표 결집을 통한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4년의 임기를 다한 오후보에게 50%라는 지지율은 의미가 크다. 시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신호다.

재선 도전에도 끊이지 않는 대권설

또 한 가지, 최근 상기할 만한 장면 하나, 5월 7일 열린 토론회에 한 후보와 함께 참석한 오 후보는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패널에게 "4년 동안 재선시장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완수해 놓고, 국민과 시민, 당이나 주변의 평가를 받은 후 고려해보겠다"고 전에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후에 임기 논란이 불거지자 "8년 임기를 다 채

우겠다",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주신 것은 영광이지만 지금은 생각이 온통 서울을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모두가 그의 대권 야망을 점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언급만은 부득불 피하던 오 후보가 전에 없이 대권에 대해 조건부로 슬쩍 야심을 내비친 것이다. 그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서울시장 오세훈'을 넘어서 '정치인 오세훈'의 행보를 점쳐보기 위해서는 그의 이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 후보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약점이나 단점을 물어보면 "너무 수줍어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특유의 뻔뻔함, 비굴함 혹은 능글 맞은 성품을 흉내도 못 낸다는 것이다. 겉과 속이 한결같은 점은 인간으로서는 장점이자 정치인으로서는 단점이라고. 그가 불출마를 선언한 데에는 이런 성품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의 측근은 대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서울을 책임질 각오를 한 사람이 국가를 책임질 각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두 번이나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역량과 포부를 의심해볼 일이다."

오 후보 자신도 잘 알고 주변인들도 그렇게 말하듯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 타입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판을 끝없이 바꾸려 노력하는 개혁가였고 그 시도가 어려워졌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못 보이고, 한 번 집념을 가지면 결기가 비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이 오 후보의 특징이다. 자신의 책 제목처럼 지금은 서울을 경영하는 일에 '미쳐' 있다면, 다음번에는 무엇에 도전하게 될까? 그 꿈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의 텃밭이 충분히 비옥해졌는지 궁금하다.(후략)

인물포커스 | 첫 재선 서울시장 향해 뛰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도전은 지지율 지두 내림세 흔들 찍고 정신에서 승리했다. 현재 그의 이른바 "서울 좋은 50%를 넘나드는 하강선"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이 정도 서울시장들이 그러했듯 그도 지지율의 유혹한 정물으로 금무 쓰이게 될 것인가? 오 후보의 그간 성치 행보를 쫓아봤다.

54% 지지율 '훈風'이 부는데…

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서울 디자인' 4년 더 하고 '대권 디자인' 까지?

박미소 [illegible]

재선 도전에도 끊이지 않는 대권설

'스타 변호사', 국회에 입성하다

청렴하고 젊은 이미지에 강금실 대항마로 급부상

당내 의원 사이에서 지지 기반 확립해

의 결 번 호	2010지선183(자심)
언 론 사	마포타임즈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1-44 2층 발행인 김 춘 식
심의대상기사	마포타임즈 2010년 5월 19일자 4면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 인물사진 및 주요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찌,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교사와 학교의 경쟁으로 학부모의 교사와 학교에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교원들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여서 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로 학생안전도를 높이겠다."

▶ 현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의 현안은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 교육비리 척결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일,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학생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략)

▶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합니다.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생각입니까?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학습을 위한 준비들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뿐만이 아닌 준비물, 교복, 수업료, 수학여행경비 등으로 지원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공급업체와 소속구청과의 연계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기회의 확대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기존 수업의 반복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과목 선정과 일관성 있게 잘 짜여진 교육일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의 잡무축소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컨설팅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참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에 유능하고 열정 있는 교원을 배치하여 도심 속의 상록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부모의 원대로 학생들의 희망대로 서울교육을 확 바꿔야 합니다. 저는 평교사 30년, 교육현장 전문가입니다. 20만 교원을 이끈 리더쉽과 교원평가를 이끌어낸 추진력으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후략)

■ 인터뷰 / 이 원 희 서울시교육감 후보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찌,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청렴마일리지제도 도입, 교원들 원칙 지키도록 할 것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이 나라 미래의 주인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청렴성이 중시되며, 바른 인성이 살아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그 도가 지나치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교육정책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어 애꿎은 학생과 부모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원희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만나 그의 교육정책등에 대해서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사와 학교의 경쟁으로 학부모의 교사와 학교에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교원들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여서 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로 학생안전도를 높이겠다."

▶ 현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의 현안은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 교육비리 척결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일,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학생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사교육 없는 서울교육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 학생들은 교사를 불신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공무원도, 언론도,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교육에 불만입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믿어야 합니다. 교사를 믿어야 합니다. 해답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은 정확히 평가하고, 지원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교원평가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교원평가를 통해 잘 하는 교사, 교장, 장학사는 인사 및 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부족한 교사는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시킬 것입니다.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면 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에 지금 보다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교육 없는 서울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비리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요?

-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교육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서울교육청의 비리가 언론을 장식합니다.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속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절대 다수의 깨끗한 교원들도 비리 교원들 때문에 매도를 당하는 것을 보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서울교육청의 비리는 특정 학연, 지연이 얽힌 인사시스템이 곪아 터진 것입니다.

저는 평교사 출신입니다. 20만 교원의 지지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빚이 없는 제가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리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감이 깨끗하고 교육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청렴도 꼴찌 서울교육청을 1년 이내에 1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비리에 관련된 인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바로 퇴출시킬 것입니다.

현재 서울교육청에는 비리 교원을 심사하여 복귀시킬 수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무늬만 있고 단 한 차례도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금품수수, 성폭력, 성적조작, 파도한 체벌 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퇴출을 시켜 학생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리감시시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항상 교육 비리에 대해 시민이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참여 교육의회 설치로 교육 비리에 대해 투명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교육공무원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책정, 금품수수등과 같은 학교시설 공사 입찰 비리는 시설구매납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예산의 사용내역 및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참여, 개방, 공개 원칙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 확대를 통해 공정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합니다.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생각입니까?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학습을 위한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뿐만이 아닌 준비물, 교복, 수업료, 수학여행경비 등으로 지원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공급업체와 소속구청과의 연계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기회의 확대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기존 수업의 반복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과목 선정과 전문성 있게 잘 짜여진 교육일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의 잡무 축소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전담팀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참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에 유능하고 열정 있는 교원을 배치하여 도심 속의 상록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학교주변 성추행 사건, 왕따 폭력, 교통사고, 불량 먹거리, 유괴 등 학부모님은 걱정속 자녀들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을 최소한 4가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 사고, 유해물, 불량 먹거리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찰청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청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어머니회, 퇴직교원 등과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청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안전과를 신설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대폭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담당 경찰관을 지정·운영하여 학생들의 신변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등하굣길 걱정 해소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시행에 학부모님들의 수고와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의 원대로 학생들의 희망대로 서울교육을 확 바꿔야 합니다. 저는 평교사 30년, 교육현장 전문가입니다. 20만 교원을 이끈 리더쉽과 교원평가를 이끌어낸 추진력으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원희 후보 주요 경력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 상서중, 서울사대부설중, 강일중, 경복고, 양재고, 상일고 교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장, 교육현장지원단장
- EBS 언어·논술·입시가이드 강사, EBS 라디오 MC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현)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본 기사는 이원희 후보가 은평타임즈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이원희 후보의 요청에 의해 편집한 내용입니다.>

3. 주의

의 결 번 호	2010지선2(자심)
언 론 사	(주)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대표이사 유 제 철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0년 2월 8일자 5면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암군수)와 관련하여 제목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만 소개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 영암군수 입지자

김일태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텃밭인데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군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 군수 외에 김재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강우석(영암 2) 전남도의원, 강우원(영암 1) 전남도의원 등은 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일태 군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재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영암 월출산 로프웨이 사업과 대불 산단에 이은 친환경 녹색산단(60~70만평) 개발사업 등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데다, '월출산 氣찬랜드' 조성 및 쌀·무화과·한우·고구마 브랜드화 등을 통해 관광·농업 분야 수익 창출 계기를 다진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군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높은 지지도 탄탄한 조직력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27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김재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참신성과 박준영 지사를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쌓은 지방자치 경험을 무기로 착실하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주력한 뒤 명절이 지난 뒤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지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대불대 건설공학부 교수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이론과 행정 경험 등을 토대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산

업으로 지역 개발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며 "서부권 명품 신도시 개발 및 월출산을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영암발전연구소를 세운 뒤 삼호읍과 신북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착실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군수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6일(서울), 다음달 2일(영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20여년 활동하면서 쌓아온 중앙 정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길재철 대불대 석좌교수도 유력한 군수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중"이며 "명절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도 '4선 도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을 기반삼아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4선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보고있는데다, 본인 스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 지구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며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영암군수 입지자

김일태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텃밭인데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군정을 쇄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 군수 외에 김재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강우석(영암 2) 전남도의원, 강우원(영암 1) 전남도의원 등은 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일태 군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재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영암 월출산 모프웨이 시업과 대불 산단에 이은 친환경 녹색산단(60만~70만평) 개발사업 등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데다, '월출산 월출랜드'조성 및 쌀·무화과·한우·고구마 브랜드화 등을 통해 관광·농업 분야 수익 창출 계기를 다진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군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높은 지지도· 탄탄한 조직력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27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영암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원배(55)	김일태(66)	김재원(53)	김재철(64)	전동평(49)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영암군수	박준영 전남지사 정책보좌관	대불대 석좌교수	전 전남도의원

"지지도·조직력 탄탄" 김일태 군수 재선 의지에

김재원씨 풍부한 행정경험 앞세워 강력 대항마로

김재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참신성과 박준영 지사를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쌓은 지방자치 경험을 무기로 착실하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주력한 뒤 명절이 지난 뒤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지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대불대 건설공학부 교수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이론과 행정 경험 등을 토대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지역 개발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며 "서부권 명품 신도시 개발 및 월출산을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영암발전연구소를 세운 뒤 삼호읍과 신북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착실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군수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6일(서울), 다음달 2일(영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20여년 활동하면서 쌓아온 중앙 정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길재철 대불대 석좌교수도 유력한 군수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중"이며 "명절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도 '4선 도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을 기반삼아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4선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보고있는데다, 본인 스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 지구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며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김지돌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의 결 번 호	2010지선9(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 23일자 22면 『"노인인력 방치 사회 · 경제적 낭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마포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활동성과 및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fn 이사람 '노인 일자리 창출' 앞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노인인력 방치 사회 · 경제적 낭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은 인생 · 직업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묵히는 것은 사회 · 경제적 낭비라고 단언했다.

신 구청장은 "65세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 75세 이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제도를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포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IT희망나눔뱅크'에서 지원받은 컴퓨터를 이용,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다. 구가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이 그것으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인 수료생 가운데 컴퓨터 강사를 선발, 26명을 관내 70개 경로당에 정보화교실 강사로 배치했다.

정보 소외계층인 동년배 노인에게 1대 1 맞춤식 교육을 통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신 구청장은 "사실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는가만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손자손녀들이 보낸 문자나 확인하는 수준이라도 그게 어디냐"고 말했다.

그는 노인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일선 전문강사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인 간 유대 강화는 물론이고 동년배 강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게 된다는 것.

당초 신 구청장이 노인 컴퓨터 교육에 눈을 돌린 것은 경로당 노인들의 놀이문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경로당에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잡담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노인강사를 50명까지 늘리고 대상 경로당 역시 9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노인강사는 2개월 동안 직무교육 뒤 현장에 배치,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내 유명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신 구청장은 민간부문이 이런 일들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심각해지는 실업난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데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업난 완화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구청장은 "앞으로 어르신은 물론이고 여성·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 이사람 '노인 일자리 창출' 앞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노인인력 방치 사회·경제적 낭비"

의 결 번 호	2010지선12(자심)
언 론 사	(주)데일리스포츠월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년 2월 3일자 14면 『'살고싶은 도시'…3년 연속 '환경대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인터뷰와 인물사진을 게재하고, 재임 중 시정활동 성과를 조감도 및 3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고싶은 도시'…3년 연속 '환경대상'

경기도 구리시가 정부와 각종단체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시가 개최한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최고의 지역축제로 평가 받고, 경기도 주관 종합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구리시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기도 전체 2위를 차지한 구리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 · 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 등을 평가한 결과 지역 경쟁력에서 종합 15위에 올랐다. 이 평가에서 또한 생활서비스 부문은 전국 4위, 주민생활력 부문은 전국 9위에 랭크돼 구리시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후략)

INTERVIEW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

미래성장동력산업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총력

"구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이자 구리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드디자인센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은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구리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시정을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리시는 토평동 한강변 338만㎡에 민자와 외자 등 6조5천억원을 유치해 국내외 디자인 관련 업체 2천여개가 입주하는 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이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디자인엑스포 그룹인 HD(Hospitality Design), 국제건축디자인자재협회(ISHP)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계획을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현재 추진중인 월드디자인센터 건설과 세계 디자인 엑스포 유치로 14만명의 고용 창출과 매년 2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족시설이 없는 전형적인 수도권 배드타운인 구리시에 오랜기간 먹고 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내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고용문제인데, 월드디자인센터로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고구려 테마공원은 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계획과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며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의 경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고싶은 도시'… 3년 연속 '환경대상'

경기도 구리시가 정부와 각종 단체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시가 개최한 제8회 전국생생학습축제가 최고의 지역축제로 평가 받고, 경기도 주관 종합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구리시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기도 전체 2위를 차지한 구리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 등을 평가한 결과 지역 경쟁력에서 종합 15위에 올랐다. 이 평가에서 또한 생활서비스 부문은 전국 4위, 주민생활력 부문은 전국 9위에 랭크돼 구리시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청렴도 평가·지역 경쟁력 도내 최상위권
고구려 문화유적지 확충해 관광자원화
사계절 꽃향기 가득 아름다운 녹색공간

분당선에 ABC쿠리마트

박 영 순 경기도 구리시장

미래성장동력산업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총력

민자·외자 총 6조5천억원 유치목표
경제효과 27조~14만명 고용 창출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3(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2월 4일자 5면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 양대웅 구로구청장 인터뷰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했다.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작년에 750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금년에 규모를 더 늘리려고 안간힘을 쓸고 있다. 이 센터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

구로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 12월까지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이 확정됐다.

구로구의 올해 목표는 청년인턴의 100% 정사원화이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기획, I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구로엔 실업Zero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청년인턴의 취업알선을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다.

그리고 구로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임으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 재취업 95%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의 재취업을 위해 구청도 노력을 보탠다. 당초부터 재취업을 전재로 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며, 인턴으로 관리 중에도 근무성적을 관리하며 우수한 직원은 재고용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인턴을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기획, 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인턴근무자 소양교육과 업무능력향상 전문교육훈련도 실시한다.(중략)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지역경제 주름살을 폈다.

구는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자금지원에서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중략)

이런 점들이 인정을 받아,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다. 이 상은 유공단체부문의 최고의 상으로 자치단체로는 구로구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얻은 것이다.

이번 구로구의 수상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과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로구는 전국 유일 소상공인 지원 '훈련 제정' 전국 최초 '소상공인'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 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무료구인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온 점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올해 200명 목표 기초자치단체 최대… 경영 기획 HR분야 역점 두기로

양대웅 구로구청장 인터뷰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했다.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작년에 750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금년에 규모를 더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센터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

청년실업자 희망의 빛… 실업 Zero센터 운영 맞춤형 인턴선발

올해 예산 20억으로 확충,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의 결 번 호	2010지선14(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2월 18일자 8,16면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양평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인터뷰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변화의 바람 솔솔 자연 인간 살아숨쉬는 웰빙도시로 거듭나

김선교 양평군수에 듣는 오늘과 내일

(전략)

○ 지난 2007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고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양평이 확 변하고 있다'고 있다고 군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평이 곧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2009년 한 해도 양평의 변화에 가속페달을 밟으며 힘차게 달려온 결과 이제는 성과가 되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격 승인'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33개(기 승인사업 51건)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4만 4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등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2014년 개원 예정인 전액 국비 1,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교통병원 유치'로 군민에게 근거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혜택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 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난 해 9월 양서면 양수리 일부지역에 첫 공급을 시작했으며, 군부대 도심외곽이전 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친환경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중략)

○ 중앙선 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역세권개발의 청사진을 알려 주시죠?

△ 앞서 말씀드린 전철개통 및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개발 전략으로, 단순히 사람만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닌 자연 · 생태 ·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하에 전철과 연계한 발전사업으로,

①폐철도를 활용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레저 ·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폐선부지 13개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 및 오디와인 저장소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고, ② 또한 덕평, 오빈 일원 도시화 촉진을 위해 오빈역 신설을 확정하여 전철개통 후 양평역～오빈역～아신역에 이르는 준도시 벨트 내 전원주택 및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중략)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변화의 바람 솔솔

자연 인간 살아숨쉬는 웰빙도시로 거듭나

사람냄새 돈 냄새 가득한 재래시장, 국립교통병원 유치 보람

6억투입 MTB코스 개발, 소통열차·운행, 테마파크 조성 순항

○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곧 선거도 다가왔고요. 올해 군정 사업의 마무리 어떤 점에 주안을 두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네,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 즉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확실하게 온 몸을 던져서,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서 양평이 가치있고 친환경적인 도시, 대한민국에서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평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16면에서 계속>

○ 지역 개발하면 또 지난해 통과된 환경오염총량관리계획, 이른바 오총제라고 부르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요. 양평 지역개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 오총제는 우리가 그 하수처리용량을 받아서 그만큼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군 전역을 5개 유역으로 나눠 오염원의 총량을 관리하게 되며 목표 수질은 1.1PPM입니다.

△ 그리해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인구는 약 46030여명이 늘어나게 되며, 하수처리용량은 29,4000여 톤을 증설하게 됩니다. 즉 1세대 당 0.8톤이 되겠습니다.

△ 현재 양평군 인구가 90,3300명이고 거기에 42,6000 더하면 13만 8000명...시승격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2013년이 되면 시승격에 대한 기본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시승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렇듯 오총제 승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교통전문병원, 대학교, 산업단지, 아파트, 리조트, 시가화 개발 등 33개의 대단위 현안 사업들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양평하면 청정산업에 대한 비전이 큰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친환경농업이라는 하나의 산업분야에 있어서 유통체계를 정착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 1998년부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해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군에서 책임지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08년 양평지방 공사 설립으로 20개 급식사업단 지사를 운영하며 학교급식소 425개소, 각종 매장 210개소 등 635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지난해 160여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양평의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관매 네트워크를 구축', '소비자 단체 및 급식관계자 체험관광 및 산지투어 확대',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런연 이른바 마결과제라고 불리는 사안을 짚어보죠. 다름아닌 종합운동장 건설 얘긴데… 남은 임기 내에 부지선정 가능한 것입니까?

△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5만평 정도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42%(7만417m²)를 매입 완료 했고 약 8만m² 남아있습니다.

△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가 확보돼야 국 · 도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7월경도 추경시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양평하면 앞서 짚어본 대로 수도권에서 친환경 산업 1등 도시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는게 요즘 대세인데…

△ 용문산 진입 자전거도로 설치(9km), 계획도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40대장 구간 포함 19.4km) 및 관광벨트의 세미원 및 소나기마을 연결(11.37km) 등 총 76.6km를 2020년까지 사업비 438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된 우리군 자전거 도로는 54km입니다.

△ 또한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임도(330km)를 이용해 MTB 마니아들이 즐겨 찾도록 사업비 6억원을 투입, MTB코스 개발 및 정비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 290km 제2회 MTB 양평랠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주민 건강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 네 그렇습니다. 제일 삼가 좋은 여건중에 하나가 교육과 의료시설입니다. 그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국립교통병원을 수도권에 유치하겠다 해서 노력한 결과 양평이 유치확정을 이끌어 내게 됐습니다.

△ 400병상에 예산규모가 1700억원 정도입니다. 2014년에 개원할 예정이며 현재 56%의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환경부 시범사업인 인텐토리 구축사업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구요?

△ 우라군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 수도를 잘약한 만큼에 대해 '10g/CO2=1포인트=2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적립한 포인트내에서 농산물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곧 선거도 다가왔고요. 올해 군정 사업의 마무리 어떤 점에 주안을 두시고 계신지 말씀 해주시죠.

△ 네,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 즉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확실하게 온 몸을 던져서,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서 양평이 가치있고 친환경적인 도시, 대한민국에서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평/황호덕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2010년 2월 12일자 12면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발전 디딤돌로』, 2010년 2월 12일자 13면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읍시장, 장수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과 군수의 재임 중 활동성과 및 주요 사업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관련 행사사진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 발전 디딤돌로

시민화합 돕는 체육관 시설 준공 박차

옛 상동 정수장 부지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청소년문화 체육관을 3월까지 준공한다.

지난 해 6월 착공된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총사업비 48억여원이 소요되며, 5천㎡의 부지에 2681㎡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문화시설, 2층과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방과후 교실 등이 들어서는데,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가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여가활동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중략)

"시민에게 꿈과 에너지 주죠" 강광 정읍시장에게 듣는다.

강광 시장은 지난 2002년 민선 4기 정읍시장 취임 후, 생활체육 진흥과 이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여가 문화 창출에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

이처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로 강시장은 지난해 10월 2009년도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년 체육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강 시장의 이번 수상은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수상인데다가 민선 4기 정읍시정이 그만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후략)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 발전 디딤돌로

지난해10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32억원 경제 효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31개 종목서 5만명 여가 활동

민선4기 출범이후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주력해 오고 있는 장흥시는 올해 이를 더욱 가속화한다.

벽지기요 장흥시와 강요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등의 천년한 역사·문화와 전해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시켜 생활관광 장도시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장흥을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이자 체육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이를 위해 리즘 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꿈과 에너지 주죠"

• 장흥 정읍시장에게 듣는다

장흥시장은 지난 2002년 민선4기 정읍시장 취임 후 생활체육 진흥과 이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관광여가 문화 창출에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포츠는 지방체육 발전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김시장의 마인드는 장흥시 민들의 생활에 도전화의 바탕을 일조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비롯 종합체육 등 기존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도농교류의 장작으로 꼬마 비트엔젤 등 다양한 체육행동을 펼치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일례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시민동동을 촉매하고 지역적인 단합 및 다양한 체육시설의 장점 확충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처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은 가능이 온 결실로 감사장은 지난해 10월 '2008년도 대한민국체육상 대상(행정)' 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년 체육의 날(10월 5일) 을 기념하여 체육인 의 사기를 높이고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장 시장은 이 영수상은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수상인데다가 민선 4기 정읍시장이 그간 펼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 깊다.

지난 30년 동안 주기적인 폭우, 홍수, 가뭄은 농민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농지도 전통 생활의 원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도 농업정책상을 받고 있는 '명실 체육인' 으로 자리 잡았다.

생활체육 관련 일은 성과 중이지도 부족, 열악한 지원 등 이러한 어려움들고 정읍시장이지만 많은 동민들은 전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중 서해 최고의 핸드볼 스타급 배출한 '핸드볼 메카' 로서의 정평이 있기 때문이다. 또 스포츠는 이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 청소년 사회구성원 형성 및 고용을 역임하였기 때문에도 등 중요한 관건 및 생활체육 정성에 기대한 바 크다.

또 도전도 전도 이 지역사회 대회 등 지역경제의 정치에 공헌 및 전국대회 등 유치했고, 전국사격대회 등 전국보도대회 24회, 비트엔젤 등 관광시장기 및 연맹회장기대회 33회를 개최해 참가자 여러사 제기, 시민 농동자의 즐겁보 및 관광 및 보급 및 전국대회 등 보급 시작 및 전국보도 체육명 등을 보급 지역 이 정성에도 기여했다. 이 외 전북 국민체육센터, 쓰로 이 일에 관광 등 수 있는 부분 체육관 신축과 리모델링 등 인프라 이다시는 체육방송 등 접수 있는 체육기본시설 구축에 주력했다.

장 시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발전 강화하여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시 정읍' 의 명성에 걸맞는 체육인 및 시민건강 증진을 더욱 더 높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장흥=정대일기자

시민화합 돕는 체육관시설 준공 박차

제27회 체육의 날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운동 전개

장흥=정대일기자 nanso@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장수군이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농업을 성장동력 삼아 튼실한 군정을 키워가고 있다.

'장수군' 하면 '돈버는 농촌' 이 떠오를 만큼 이제 장수군은 대한민국 대표 농업강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

실제로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소득분석에 따르면 장수군 농가 평균 농가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농가소득 3052만3000원 보다 6.4%, 전북농가소득 2895만9000원 보다 1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들어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5 · 3프로젝트가 농가희망프로젝트로 성공리에 정착되면서 돈버는 농촌, 잘사는 장수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맞춤형 농업정책 구체화

장수군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농업 · 건강 중심도시 장수' 를 군정지표로 삼고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농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 살리기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장수, 장사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농업정책을 강화해왔다.

특히 돈버는 농촌, 잘사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5 · 3프로젝트는 오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단계별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3000농가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가경영회생사업, 소득만들기사업, 지역순환농업,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농기계사업, 핵심인력 양성사업 등을 결집시킨

종합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동안 장수군에서는 5 · 3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농가별 소득조사 및 분석을 실시, 농가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향상 농가를 우선으로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본과 재배면적이 열악한 장수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고부가가치의 핵심작목을 집중 육성한 맞춤형 농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후략)

“농촌다움 잘 묻어나는 건강중심도시 만들터”

“지역사회 모두가 건강한 최고의 건강도시 장수 건설에 총력”

장재영 장수군수는 “경인년 새해에는 탄탄한 농업기반을 바탕으로 잘사는 농촌, 지역주민 모두가 고른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장수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중략)

장 군수는 “2010년에는 5 · 3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인간다움, 농촌다움이 묻어나는 장수! 세계 최고의 농업 · 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농가 평균소득 3250만원 전국 대비 6.4% 높아

한우 등 경쟁력 있는 10대 소득 작목 선정 육성

맞춤형 농업정책 구체화

지역순환농업으로 차별화

장수사과 등 경쟁품목 육성

건강중심도시 발돋움 총력

“농촌다움 잘 묻어나는 건강중심도시 만들터”

● 장재영 군수에게 듣는다

문화·복지 등 삶의질 향상 주력

노후 편안하게 실버산업 강화

의 결 번 호	2010지선17(자심)
언 론 사	경인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4 대표이사 홍 남 용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2월 9일자 20면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포천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여러 컷의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종합지원센터' 준공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통한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농특산물 홍보 · 대축제 시행 등 농업경쟁력 확보 주력
도 종합계획 등 연계 2030 중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전략)▲따뜻한 복지행정

포천시는 아름답고 인간적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2010년 한 해도 전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의료급여,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보장하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이 안정을 추진한다.

자원봉사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복지관 준공, 경로당 보수 및 신축,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르신만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여성의 인적자원 및 각종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개발하며, 저소득층 보육지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에 대비해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월 50,000원씩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다.

2010년에는 선단보건지소와 소흘 보건지소가 신축 준공되어 보건인프라가 확충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재활사업, 구강보건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한다.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포천시는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포천비전 2030 중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부분별 역량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계획내용에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생활권 형성 및 공간구조, 구축방향, 지역문화 창출 및 기반 강화, 교육 보직기반 형성,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기반 구축, 환경가치 증대 및 자원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더 신속한 허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허가담당 공무원의 대민 형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투명한 행정

을 구현하고 시민만족 감사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14개소 130여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된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0년에는 각종 규제 혁파 및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운산계통의 광역상수도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고 운산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행복한 도시 포천을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900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 '새포천' 시대를 열어가는 포천시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종합지원센터' 준공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통한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농특산물 홍보 · 대축제 시행 등 농업경쟁력 확보 주력

도 종합계획 등 연계 2030 중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서민생활 정책에 중점 두고 불철주야 시민 위해 노력

▲지역경제활성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및 교통망 확충

▲매력적인 관광 문화 도시 조성

▲도농이 상생하여 잘사는 농촌

▲마켓한 복지행정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이동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개발

서장원 포천시장

2010년에 5개의 중수원의 시설공사를 준공하 이정이며, 2기 시설의 마수공기 정비공사가 완료된다. 특히, 포천시 정부지원 직원시위로 하여 개수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동원동생으로 정비해 나간다.

기자회견에 대응하기 위해 운산가스 중이기를 시공하고 대한민국 개선사업과 오염공동 처리사업과 지속적인 지도 제거를 하고 초기에 관한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영향권이기 위한 지역경제의 동원화로 조성기 행복 보전성을 추구로 설치하는 등 통폐한 일간을 조성한다.

특히, 2007년에 준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이용해 우리 모습을 선택해 지원소 누적성장을 실현하는 제기를 내려 하고자 한다.

포천시 문제변화의 이 지역가 앞이로 보여있는 모자 현 환경에 초점사업, 관광 진흥기구의 신설공사, 사업성과 총 방지, 신축해야 오염소사업을 유진하여 경제적 성립자원으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안사업 지역주민들을 조성하고 일산 고용의 및 보수를 통해 정책 선택자원을 개발자원화로 이용한다.

자원봉사센터, 사회통합서로 보건을 통해 포상한 복지시설 수립 지원의 계획이다. 또한 고용의 사업의 등이 대한민국 노인복지관 준공, 경제성 보수 및 신축, 대축제 시작 등을 통해 일본 동해 이 포천시의 관광의 성공을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개발을 통해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이상의 인적자원 및 지역 다양한 모든 기회를 통해 관광인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보장자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해 수공 봉사자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생활이 중요한 지역 복지를 위해 5000원의 지역을 통해 관광인 기회 및 이용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 있다.

2010년에는 한탄노선지소와 소중 보건지소가 신축 준공되어 보건업무의 기회를 보면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방문인 경제사업, 맞춤형 자원사업, 사업보건사업, 대상환경의 원리 등 시민의 관광행사를 위해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한다.

▲이동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개발

포천시는 이미 한탄강댐 인근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2010년 한 해는 전환한다. 2010년 상반기에 개발, 공공주택지역 상수도 보호, 관광의 공급사업, 노후 공배수관 교체 및 보수 등으로 인적한 변화를 공급할 것이 이번이다. 아울러 및 소수도 수도사업 전면을 통해 주민의 시원의 단원을 개발한다.

포천 제2회 지방선거 공정선거 문화의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행복한 도시 포천을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900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8(자심)
언 론 사	경인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4 대표이사 홍 남 용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2월 10일자 20면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여러 컷의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라는 구정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은 경인년 새 해 업무를 시작하며 활기찬 경영행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를 구현하고 고품격의 도시건설을 실현하고자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시재생추진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인 인천 남구의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경제회생 기반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 · 4동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용현 · 학익 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중략)

▲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추진

끝으로 이청장은 "올해에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청장을 필두로 9백여 공직자들이 경인년 한 해도 초심의 마음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남구가 한 단계 발전되고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0 인천시 남구 새해설계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라는 구정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은 경인년 새 해 업무를 시작하며 활기찬 경영행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를 구현하고 고품격의 도시건설을 실현하고자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시재생추진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인 인천 남구의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미래지향적 고품격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자립경영 창조도시 건설
참살이(웰빙)를 추구하는 복지도시 구현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매고객 확대를 위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금융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창업설진대회 개최 등 청년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남구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산업 벤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230여억원을 투입하여 이 지역에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연구개발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노령화 현상 대비책 모색

▲평생학습도시 비전 · 정책과제 설정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추진

▲쾌적하고 쾌적한 생활 기반 조성

▲청년실업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

의 결 번 호	2010지선20(자심)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0년 2월 8일자 16면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옹진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지역발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인천시 옹진군 조윤길 군수는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옹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 옹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로맨틱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는 그린 옹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옹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옹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평생 함께 해 온 지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결국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옹진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옹진군만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옹진군만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옹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중략)

#군정 목표, 복지향상·소득증대·관광 옹진

(전략)조 군수는 옹진군이 이미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고 말하면 옹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폭 넓은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옹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계획, 즉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여러 주변여건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 인터뷰 조윤길 옹진군수

인천시 옹진군 조윤길 군수는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옹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하피 옹진, 아름답고 남쪽이 있는 로맨틱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는 그린 옹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 위생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난 2006년 7월, 옹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서해 제일 해양관광단지 조성

복지시책 발굴, 교육환경 개선

빈틈없는 기본 인프라 구축

도서 개발… 균형발전 도모

조윤길 옹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이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진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전혀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옹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공생 만큼 더 큰 지역이 더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결국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을 내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본인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번 기사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중점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동·이엌 생명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옹진군의 특성이 갖는 신문물이나 육성화으로써 옹진군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다. 옹진군민이 살 살 수 있는 복지를 기반하고 추억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옹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옹진군, 천혜의 자연환경 강점

여기에 조화로운 환경보전과 연약한 교통체계를 가진 옹진군의 특성에 적합한 도서 개발계획을 시행한다고 도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을 모델을 제시·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옹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옹진군을 경쟁력 있는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옹진군은 옹진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시책 발굴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 차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조윤길 옹진군수가 밝히는 옹진군민 복지를 위한 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났다. 옹진군은 재소득층을 위한 난방시설 교체사업, 중산 장애수당 지급, 출생아 단계보험 가입, 보육료 지원 등 사회문 시책 발굴과 영·유아 교재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있었다. 경로당 신축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통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그것이다.

또한 해양 관광변화와 이장 활력화로 인해 급감한 어획량을 보려면 어업기반 확충방안도 있다. 수산물교방류사업 확대, 수산양식시설과 바지락 폐사 재감자료 등 어장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다시마 양식사업 지원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인증하기 위한 의약적 효능 분석을 비롯해 다시마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 어떤 소득향상이 향상 쏟았다.

#군정 목표, 복지향상·소득증대·관광 옹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옹진군을 향후 관광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불거진 주공을 위해 수려한 경관과 아무리진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한 그룹 고기잡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이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개념과 폭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또 옹진군은 "우수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관광 진흥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및 세부 시책을 발굴·수립한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이 관광·유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옹진군의 중심도에는 약 171만8000㎡ 면적에 각종 운동시설을 비롯한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주)KM 레저산업에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시험사 측에서 관광권역 개발방향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을 용역시행 중이고, 양측 등·식물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옹진군 관광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으로써 낙후된 옥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개발을 모색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리그뷰랑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서포리 관광지가 선정돼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 및 최근 급변하고 있는 관광 트랜드에 적합하도록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완료됐고, 약 48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옹진군은 풍부한 자원성에 기반, 고유한 매력의 관광 마리트 축을과 섬 내 관광 환경여건 및 접근체계를 개선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군 내 7개 권의 관광지 중심으로 문화 공간 조성 등 개발 섬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섬 관광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도군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섬으로 특화·발전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섬'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리 문화 공공센터 조성사업과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이야기 마을과 등의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조 군수는 옹진군이 이미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고 말하며 옹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폭 넓은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옹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계획, 즉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여러 주변여건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남용우기자 nyw@kyu.kyu.com

▲조윤길 옹진군수 중앙 프로필 : 인천시 옹진군 기획행사소장(1996~2000), 인천시 군교군 및 지사행정사장(2004~2006)에 이어 2006년 7월에 민선 제4대 옹진군수로 취임했다. 1988년부터 국무총리 유상사법고우원, 1998년부터 인천군 교육국장사 사업원 기여, 2006년에는 조조군청은 상장 수상

의 결 번 호	2010지선22(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5일자 20면 『"새출범 통합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릴레이 기획 새해설계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출범 통합 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이대엽 경기도 성남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의결과 관련, "성남시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 시장은 "뿌리가 같은 3개시가 합쳐지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를 얻음은 물론 더 커진 위상으로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신도시와 로또 판교로 널리 알려진 경기 동부권에 위치한 성남시. 141.82㎢의 면적에 94만2,447명이 살고 있으며 올 예산만 1조7,577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최고 규모다.

지난해 20년간 시민 숙원사업이던 시청사의 여수동 이전으로 구시가지와 분당신도시간의 균형을 찾았다. 여수동 신청사는 신·구시가지의 중앙부로 시민 화합을 소화해낼 수 있는데다 행정 집중화를 이끌어 행정 능률 제고와 민원 편의에도 일조하고 있다. 임기 잔여기간동안 공약 완수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대엽 시장을 만나 민선4기 주요 시점과 추진 중인 공약을 살펴본다.

●공약추진

민선4기 공약 38개 중 19개 사업이 완료됐고 19개가 추진중이다. 장년층 취업을 돕는 사나이직업훈련센터 설치·운영을 비롯, 영어체험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확충,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실업계고교 특성화 전환,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탄천변 도로개통, 재래시장 특화, 고도제한 추가 완화 등은 손꼽히는 공약으로 100%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된 상태로 민선4기 우수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시청 신천사 건립 입주, 시민 개방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신청사는 전체면적의 약 33%를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가운

데 시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개청 이후 최근까지 대강당은 13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와 포럼, 연주회 등의 용도로 6,280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또 5개 회의실은 118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와 1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스케이트장과 종합홍보관 또한 6만여명의 시민이 찾았으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희망2010무한감동모금행사,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 전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6차례 열려 3만여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등 100만 시민이 상시 애용하는 갤러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 정책, 산업, 생활상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열린도서관은 각종 행사 자투리 시간 등에 새로운 정보와 지매를 얻어가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돼 연일 시민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시청사는 각종 시민공간,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기존 시가지와 분당 · 판교신도시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소로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구겐하임미술관, 런던시청, 파리시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명품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후략)

20 전국매일 2010년 2월5일(금) 제3198호

Feel

"새출범 통합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탐방 및 시가지(분당)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

수정·중원구 도시개발사업 착착…의료 등 생활 밀접한곳 IT기술 접목

초등생 무상급식 확대…IPTV확산센터 통해 방과후 학교 서비스 제공

벤처·게임 등 육성 첨단산업중심도시 도약 발판 마련 새 성장동력으로

○이대엽 시장

Bio City 성남 프로젝트 구축

●시장 신청사 전람 업무, 시민 개방

○수정·중원구 도시개발사업

○공원 추진

○무상급식 도입 및 확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역동하는 성남 벤처 및 게임산업 육성

송광진기자 (kysong@ecnmae.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23(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11일자 20면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의 남다른 '일자리창출 비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의 남다른 '일자리창출 비결'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 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 확정됐다.

구로구의 올해 목표는 청년인턴의 100% 정사원화이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 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사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구로엔 실업Zero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청년인턴의 취업 알선을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다. 그리곤 구로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이므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원원하는 장점이 있다.(중략)

● 기초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 지난해 100명에 이어 올해 200명 채용

구로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의 의지도 담겨 있다.

따라서 당초 이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7개월간 실시키로 했던 사업기간도 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늘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우수행정에 대한 격려차 구로구를 방문하기도 했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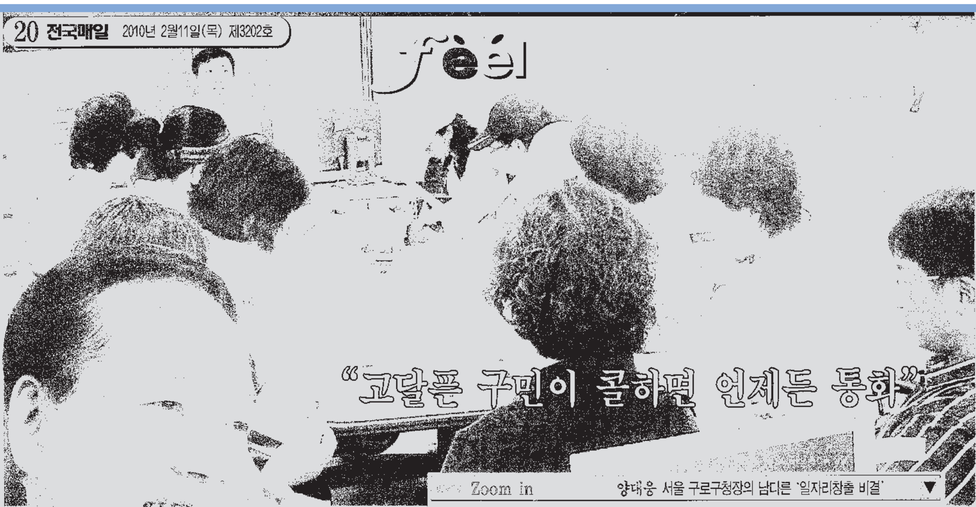
● 정부가 상으로 10억원 특별교부세를 준 이유

양대웅 구청장은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 했고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해에 750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올해엔 규모를 더 늘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센터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 전국매일 2010년 2월11일(목) 제3202호

feel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Zoom in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의 남다른 '일자리창출 비결'

청년인턴·소상공인지원사업 호평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올해는 청년인턴 200명으로 확대 '100% 정사원화' 목표
실업 Zero센터 재취업 큰성과…소상공인 든든한 지원군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 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 확정됐다.

구로구의 올해 목표는 청년인턴의 100% 정사원화이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 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구로엔 실업Zero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청년인턴의 취업 알선을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다. 그리곤 구로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이므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지난해 재취업 95%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의 재취업을 위해 구청도 노력을 경주한다. 당초부터 재취업을 전제로 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며 인턴으로 근무 중에도 근무성적을 관리해 우수한 직원은 재고용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인턴을 정사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 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인턴근무자 소양교육과 업무능력 향상 전문교육훈련도 실시한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 지난해 100명에 이어 올해 200명 채용

◉정부가 상으로 10억원 특별교부세를 준 이유

◉특별한 청년인턴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

백종민 기자 (baekjh@jeonmae.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24(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19일자 20면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남구란 구정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촉진,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경영행정으로 고품격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수 인천시 남구청장은 경인년 새해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 구현을 하고 고품격의 도시 건설을 위해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인천시 남구의 도시재생추진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등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 미래지향적 고품격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제회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4동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용현학익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해 대학과 상업지역이 조화되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고품격 도시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억원을 투입해 수봉공원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인식돼 있어 시민편익시설로 6개 노선 총연장 34㎞를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인주로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자립경영 창조도시' 건설

신기남부종합시장과 용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32억여원의 예산으로 토지금고시장에 대한 공동배송센터와 아케이드 설치공사,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남구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산업벤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 230여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에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연구 개발 등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후략)

20 전국매일 2010년 2월19일(금) 제3206호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elon 남구'를 구현 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아 더욱 굳건한 경쟁력으로 고품격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수 인천시 남구청장은 경인년 사해 다양한 문화 혜택과 균등한 복지 구현을 하고 고품격의 도시 건설을 위해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인천시 남구의 도시재생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관광도시만 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도시 육성과 등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이영수 인천시 남구청장

용현학익 지구 오피스+상업+주거+문화 총망라 입체적·혁적 도시로

올 상반기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 2013년까지 유관기관 유치

일자리 1585개 창출 목표…누구든지 학습가능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신재정적 고품격 도시재생사업 추진

●컬쳐이(쉴방)들 주주하는 복지도시 구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정경영 창조도시' 건설

●인재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

●관광지와 미래가 공존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구현

●지역경 인간이 힘차 이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의 결 번 호	2010지선25(자심)
언 론 사	(주)중도매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3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2월 5일자 9면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점…올해 기반조성에 심혈" 2010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재임 중 역점 추진사업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약력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점… 올해 기반조성에 심혈"

훤칠한 키에 강단진 외모의 소유자다. 대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강렬한 눈빛으로 의지를 전달한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활발한 제스쳐와 미소도 보낸다. 육군, 소장 출신의 최승우 예산군수다. 최 군수를 만나 2010년 예산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 올해 펼칠 사업은 어떤 것인지.

▲ 우선, 20여 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에 매진하겠다.

둘째, 신암농공단지내 동물의약품 9개 기업 및 국내 19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의약품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구와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1개 지구를 2012년까지 추진, 친환경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

넷째,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유치로 우리 군에 전자정보분야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국내 글로벌 자원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다섯째,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텃새 황새 복원으로 황새 마을을 조성, 친환경 이미지는 제고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가장 역점을 두어 펼치는 사업이 있다면.

▲ 올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흥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대외 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4대 강 정비로 인한 여야의 정쟁 격화와 북핵문제, 고유가 문제, 특히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국내 · 외 여러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예산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들이 나타나는 만큼,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

을 위해 올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4곳의 대단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의약품 기반 구축,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중략)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 출마할 것이다. 예비후보로도 등록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중략)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 예산의 미래모습인 산업형 전원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예산군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군민도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온 시책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되고 있다. 민선 4기 동안 예산발전의 선봉에 서서 마련한 성과를 초석으로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예산군수로 출마하고자 한다.

예산군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착공, 산업단지 조성의 순조로운 진행, 중부권 최초 슬로시티 인증, 황새마을 유치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민선 4기 넘은 기간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점… 올해 기반조성에 심혈"

2010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2010 대충청방문·내년 예산방문의 해- 관광인프라 정비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등 산업형 전원도시 자리매김

의결번호	2010지선26(자심)
언론사	(주)중도매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3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2월 11일자 9면 『"인구 100만 시대 대비…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천안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역점 추진사업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약력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구 100만 시대 대비…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흔들림이 없다고들 한다. 굵직하면서도 풍부한 성량(聲量)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라 그런지, 성무용(66 · 사진) 천안시장은 빈틈이 없으면서도 여유로움까지 겸비한 듯한 느낌이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만큼, 젊고 스마트한 외모와 패션 감각이 전해지는 성무용 시장을 만나 2010년에 대해 얘기해봤다. 〈편집자 주〉

- 올해 펼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우선 첨단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이다. 2011년 완공 목표인 제3산업단지 확장과 제5산업단지. 풍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직산 남산지구, 동부 BIO, 북부 BIT, 입장밸리, 수산일반 산업단지 등을 추진이다. 교육 · 문화 · 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신방도서관,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천안시민 대학, 천안학 운영 등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및 평생교육 도시로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천안흥타령축제를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다양한 맞춤식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시책도 강화하겠다.

정주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문화동 옛 시청사터에 계획 중인 복합테마파크조성 사업. 동서관통도로개설,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천안 경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연결, 풍세 및 제5산업단지 진입로 등 중요 기간 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스포츠 · 관광 명품도시 측면에서는 동남부생활체육공원, 북부스포츠센터, 천안야구장, 웰빙마라톤코스,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권역별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총 10개 분야 99개 약속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99건 중 60건은 임기 중 마무리 가능하고, 나머지 39건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중략)

–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시기를 좀 더 봐야 한다. 등록하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에 소홀할 수 있고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이 되면, 그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올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면서, 월드베스트 천안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특히 범띠 해를 맞아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 하늘로 비상해 용맹하게 더 큰 일을 이룬다는 의미의 '여호첨익(如虎添翼)' 처럼, 천안도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 세계 속의 천안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인구 100만 시대 대비…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웃음)이 없다고들 한다. 근엄하면서도 풍부한 성량(聲量)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라 그런지. 성무용(66·사진) 천안시장은 빈틈이 없으면서도 여유로움까지 겸비한 듯한 느낌이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만큼, 젊고 스마트한 외모와 패션 감각이 전해지는 성무용 시장을 만나 2010년에 대해 얘기해봤다. (편집자 주)

-올해 역점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첨단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이다. 2011년 완공 목표인 제3산업단지 확장과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직산 남산지구, 동부 BIO, 북부 BIT, 입장밸리, 수신일반 산업단지 등을 추진이다.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신방도서관,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천안시민대학, 천안학 운영 등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및 평생교육도시로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천안흥타령축제를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다양한 맞춤식 서민경제 활성화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시책도 강화하겠다.

정주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문화동 옛 시청사 터에 계획 중인 복합테마파크조성 사업, 동서관통도로개설,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천안 경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연결, 풍세 및 제5산업단지 진입로 등 중요 기반 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스포츠·관광 명품도시 측면에서는 동남부생활체육공원, 북부스포츠센터, 천안야구장, 웰빙마라톤코스,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권역별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총 10개 분야 99개 약속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99건 중 60건은 임기 중 마무리 가능하고, 나머지 39건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새로운 성장과 가치를 창출해 줄 사업,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 개혁이 중요하다.

우선 컨벤션센터, 무역지원센터, 비즈니스호텔, 연구단지, 국제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서게 될 국제비즈니스 파크(2017년 준공) 사업이 있다.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과 천안 경전철 건설(2015년 준공)도 추진돼야 될 사업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구심점인 복합테마파크타운(2014년 준공) 조성과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사업(2011~2015년 착수), 북부 BIT, 동부BIO 단지와 입장밸리, 6산업단지 및 북부광역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다.

-천안시의 특성은 무엇인가.

▲천안은 인구 56만에 예산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대도시 반열에 올라섰다. 그동안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이 있었지만, 천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꾸준하게 요구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를 비롯해 세종시 및 도청 신도시, 오송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지역 자원의 외부유출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시는 2025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세종시 건설,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지식기반의 경제도시 천안을 추구해야 한다.

-4년간 펼친 사업 중 가장 애착이 가고 의미 있었던 사업 또는 일은 있는가.

▲민선 4기의 비전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 완성과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2년 인구 43만 명에서 13만 명이 늘어 56만 명이 됐고, 예산규모는 5500억 원에서 1조 1300억 원으로 커지는 등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04년 인구 50만으로 진입하고 2008년 7월 1일 천안시 개청 45년 만에 일반구(동남구·서북구) 개청을 통해 대도시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제4 산업단지 분양 완료(102만㎡ 64개 업체)와 제5산업단지 착공(151만㎡ 2,847억 원),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2002~2009년 1154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도입, 시행했으며, 2006년 경실련으로부터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수도권 전철 쌍용·봉명역 신설과 353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한 5㎞ 구간의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통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 시스템(BIS), 브랜드택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도 개선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립 천안박물관(유물 7345점)을 개관하고,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아우내·도솔·두정도서관 신축과 12곳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산중앙시장에 전국 최대 규모인(427m)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과 상품권 발행, 아동카트 및 배달서비스 도입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했다.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 및 국제건강도시에 가입했고, 천안천·원성천 8.65㎞의 친환경자원을 연계한 도심 녹색 친수 공간 및 생태하천 벨트를 조성했다.

제3산단 확장, 5산단·풍세산단 조성
첨단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총력

'흥타령축제' 전국최고 축제로 육성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지속추진
8년간 1154개 기업 유치 등 자부심

-중·단기 발전계획도 소개해달라.

▲천안은 도시를 4개 도시중심권(신부, 두정, 쌍용, 청룡), 북부생활권(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동부생활권(목천, 병천), 남부생활권(풍세, 광덕)으로 생활권을 나누고 있다.

도시중심권은 국제비즈니스거점, 물류·유통·금융·서비스 중심, 북부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산업육성,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동부생활권은 역사, 관광, 휴양의 중심, 친환경농업, 바이오산업 중심, 남부생활권은 영상문화, 자동차R&D, 환경생태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시내권과 읍·면 지역 간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천안시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제, 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일류를 지향하면서 삶의 질도 으뜸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임기간 아쉬운 점은.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과 성과도 많았지만, 결코,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집중호우,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걱정을 함께해야 했으며, 구청 설치는 비롯한 지역현안 관련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계획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신종플루가 확산하면서 흥타령 축제를 취소해야 했으며, 추모공원 조성사업도 시행사의 부도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기도 했다. 특히, 경기악화로 인해 금융권 등의 자금경색과 투자위축 등으로, 비즈니스파크,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원도심권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쉬움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시기를 좀 더 봐야 한다. 등록하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에 소홀할 수 있고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이 되면, 그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다.

-공천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곧 같은 입장이었다. 실제 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은 큰 의미가 없다. 선거는 바람이나 정치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가 수면 아래에 있는데.

▲충남지사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완구 전 지사 사퇴 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중앙당이나 정부부처에서 내려오는 낙하산은 안 된다고 본다. 당내 계파 갈등 같은 것도 있지만, 정당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니, 갈등은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올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면서, 월드베스트 천안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특히 범띠 해를 맞아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 하늘로 비상해 용맹하게 더 큰 일을 이룬다는 의미의 '여호첨익(如虎添翼)' 처럼, 천안도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 세계 속의 천안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대담=김형중 부국장
/정리=윤희진 기자

성무용 시장은 누구?

▲출생 : 1943년 천안
▲학력 : 용산고, 연세대(학사), 단국대(석사)
▲경력 : 14대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보건사회위원, 천안상공회의소 회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이사장, 한나라당 천안갑지구당 위원장, 민선 3대 천안시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27(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2월 4일자 17면 『용인시의회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발 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인시의회 의원) 후보 예정자인 현 시의회 위원장의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발 더…'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시의회는 9차례의 임시회와 2차례의 정례회 등 총 81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비롯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성과보고, 2010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 살림의 구석구석을 진단하고 살폈다. 이중 단연 으뜸은 행정사무감사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박3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시의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제5대 시의원으로서 기억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예산인 심사를 실무교육, 각 상임위별 행감 자료분석 시간 등을 가졌다.

당시 심노진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85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며 "마지막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들을 거침없이 쏟아내 '견제'란 시의회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중략)

인터뷰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

"민생 법안 등 194건 처리… 5대 의회 '유종의 미' 거둘 것"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어른'이다. 4선 의원이란 다선이유도 있겠으나 제5대 시의회 호를 잘 순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후배, 동료 의원들을 끌어안는 특유의 후덕함을 지닌 어른 심노진 의장을 만나봤다.

심노진 의장은 지난 한 해 최고의 성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층 다가선 의회"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2월 제 1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81일간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원했고 처리된 안건만도 예산안 15건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99건, 건의 및 결의안 9건 등 무려 194건이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심 의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대 후반기 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시의원들이 직접 의원 발의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생각

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장이 이끈 시의회는 대기업 대형판매시설인 일명 SSM의 입지 규제를 막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해 서민경제 보호에도 힘썼다.

이런 시의회지만 아픔도 있었다.

지난 여름 심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는 폭우피해로 행방불명된 뒤 결국 숨진채로 발견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다. 심 의장은 "실종 당시 살아있기만을 바랐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에게 돌아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남은 제5대 의회의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심 의장의 발언에 유종의 미가 기대된다.

용인시의회

흔한 말로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다. 국회의원, 도의원 등 여타 선출직 의원들도 대변자를 자처하겠으나 시의원이야말로 가장 일선에서 가까이 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니 으뜸 대변자라 칭하고 싶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의원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다. 생업으로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 의회에 가서 잘못된 시정은 혼내주거나 잘 된 시정은 칭찬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민의 대변자들로 모인 제5대 용인시의회가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 지난해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펴본다.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발 더…'

지난해 임시회등 총 81일간의 회기 운영
행감서 市 대규모 사업 송곳질의 쏟아내

비회기엔 소외계층 위해 지역찾아 봉사
5대의회 성공적 마무리가 가장 큰 과제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시의회는 9차례의 임시회와 2차례의 정례회 등 총 81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비롯,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성과보고, 2010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 살림의 구석구석을 진단하고 살폈다. 이중 단연 으뜸은 행정사무감사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박3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시의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제5대 시의원으로서 기억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 실무교육, 각 상임위별 행감 자료분석 시간 등을 가졌다.

당시 심노진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85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며 "마지막 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들을 거침없이 쏟아내 '견제'란 시의회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회기에도 바쁘다= 시의원들은 정해진 회기 기간보다 비회기 기간이 더 바쁘다. 흔히 등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분주하다.

지난 3월 시의원들은 강원도 태백의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2리터 짜리 생수 7천병을 들고 태백을 찾았다. 250만원 상당의 지원품이지만 의미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 같은 해 11월 겨울이 더 혹독한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처인구 김량장동을 찾은 시의원들은 이날 손수 연탄 1천여 장을 홀몸노인, 저소득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 전달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한 시의원은 연탄을 양쪽에 들고 거침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의 연탄을 통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더 많은 불량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나눠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지만 뜨거운 내 마음이라도 보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해 여름 '제1회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열고 미래의 정치 꿈나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했다. 용인중, 동백중 등 220여명의 학생, 지도교사들은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발의, 심의, 의결해 보며 꿈을 키웠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할 경우 의원들의 활동은 더욱 분주하다. 지난해 무척 비가 많이 내린 여름, 한 아이의 실종소식에 시의원들은 백암면에 차려진 상황실과 수색현장을 한 걸음에 방문했다. 밤새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은 상황실 직원들과 강도높은 수색을 벌이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곁에 돌아온 아이의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6·2지방선거를 앞둔 의회= 시의회는 남은 4개월간의 기간에도 의정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기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심노진 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5대 시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로 인해 의원님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가 있을 텐데 선거는 선거고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이다"고 말했다.

김두현기자 김민욱기자

인터뷰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

"민생 법안 등 194건 처리… 5대 의회 '유종의 미' 거둘 것"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어른'이다. 4선 의원이란 다선이유도 있겠으나 제5대 시의회 호를 잘 순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후배, 동료 의원들을 끌어안는 특유의 후덕함을 지닌 이런 심노진 의장을 만나봤다.

심노진 의장은 지난 한 해 최고의 성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층 다가선 의회"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2월 제1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81일간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원했고 처리된 안건만도 예산안 15건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99건, 건의 및 결의안 9건 등 무려 194건이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심 의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대 후반기 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시의원들이 직접 의원 발의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장이 이끈 시의회는 대기업 대형판매시설인 일명 SSM의 입지 규제를 막기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해 서민경제 보호에도 힘썼다.

이런 시의회지만 아픔도 있었다.

지난 여름 심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는 폭우피해로 행방불명된 뒤 결국 숨진채로 발견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다. 심 의장은 "실종 당시 살아있기만을 바랐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에게 돌아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남은 제5대 의회의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심 의장의 발언에 유종의 미가 기대된다.

김두현기자 김민욱기자

편집=김미화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28(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2월 9일자 12면 『안덕수 강화군수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 프로젝트' 시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화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덕수 강화군수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도에 신성장 동력을 심어 세계속의 강화를 만들겠다는 새해 장기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즉 개발과 보존을 엄격히 구분해 자연환경도 지킨다는 것이다.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강화도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도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안 군수의 복안이다.

2010년 새해에는 2025년 상주인구 20만명과 미래를 여는 녹색 · 문화 · 휴양도시건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안덕수 군수로부터 2010년도 설계와 미래비전을 돌아보았다.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프로젝트' 시동

- 2025 미래비전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의 계획은

▶ 우선, 강화방면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구 검단~온수간 국지도 84호선 조기 건설에 힘쓰는 한편, 영종~강화간 교량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다.

교동연륙교, 삼산연륙교, 북단 해안순환도로,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력발전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정상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세우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적인 문화 · 체육 · 관광 인프라 확충은

▶ 역사박물관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고 강화군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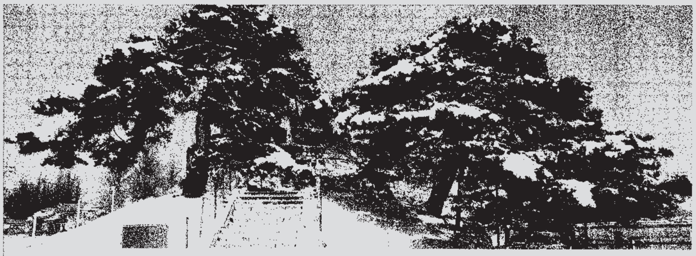
이에 고려문화유적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4차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은 강화읍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고 또한,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다양한 레저 휴양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즐기며 쉬어가는 체류형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또 산과 길, 마을마다 계절별로 특화된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강화군으로 다듬고 도보여행길인 나들길은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로 조성하고 활성화해 강화군을 여유있는 느린 여행지로 만들 각오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사계절 오감이 즐거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축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강화발전의 전기로 삼아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태권도, BMX, 우슈 등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강화경기장 건설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중략)

민선4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행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민원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지만 아직도 군민들을 감동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안 군수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과 친절 · 신속 · 정확을 목표로 군정을 주식회사와 같이 운영, 독점적이 아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어 바르고 꾸준한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 강화군이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가장 높은 자치단체, 업무처리를 가장 잘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프로젝트' 시동

안덕수 강화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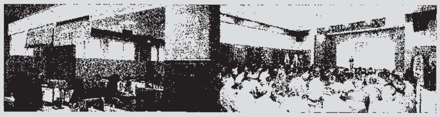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도에 신성장 동력을 심어 세계속의 강화를 만들겠다는 새해 장기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즉 개발과 보존을 엄격히 구분해 자연환경도 지킨다는 것이다.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강화도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도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안 군수의 복안이다.
2010년 새해에는 2025년 상주인구 20만명과 '미래를 여는 녹색·문화·휴양도시건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안덕수 군수로부터 2010년도 설계와 미래비전을 들어보았다.

―2025 미래비전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의 계획은

▶우선, 강화방면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구 검단~온수간 국지도 84호선 조기 신설에 힘쓰는 한편, 영종~강화간 교량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교동연륙교, 삼산연륙교, 북단 해안순환도로,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력발전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정상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입지 않도록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세우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교동·삼산연륙교, 영종~강화교량 건설 등 인프라 확충 박차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체류형 여행지'로

―국제적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은

▶역사박물관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고 강화군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고려문화유적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4차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은 강화읍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고 또한,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다양한 레저 휴양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즐기며 쉬어가는 체류형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또, 산과 강, 마을마다 계절별로 특화된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강화군으로 다듬고 도보여행길인 나들길은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로 조성하고 활성화해 강화군을 여유있는 느린 여행지로 만들 각오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사계절 오감이 즐거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축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계획이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강화발전의 전기로 삼아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태권도, BMX, 우슈 등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강화경기장 건설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 종합운동장 건설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강화종합생활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도 차질히 추진해 군민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각오다.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한 농어촌건설 방침은

▶쌀, 고구마, 순무, 약쑥, 포도, 배, 새우젓, 갯벌장어 등 강화농수산물 신뢰를 고품질 고가격의 고급브랜드 상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강화마니'는 재배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수확 후 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금년도 재배 농산물 부터 적용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수특산물 마케팅 능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며 농어촌 테마마을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정감어린 마음의 고향을 심어주는 도·농 교류 확대와 체험공간과 쉼터를 제공하는 등 휴양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농어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지건강사회만들기 방안은

▶강화군은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3%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 증진을 군정의 우선 시책으로 두고 지원시책 확대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한 지역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아울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회관 확충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 모두가 훈훈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세계인의 관심인 신종플루와 말라리아 등 토착화된 전염병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건강한 군을 만들어 가겠다.

민선4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행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민원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지만 아직도 군민들을 감동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안 군수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과 친절·신속·정확을 목표로 군정을 주식회사와 같이 운영, 독점적이 아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어 바르고 꾸준한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 강화군이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가장 높은 자치단체, 업무처리를 가장 잘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의동기자/hun6000@joongboo.com

편집-김수진기자 ts@joongboo.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36(자심)
언 론 사	(주)시민일보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601호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0년 3월 2일자 20면『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맸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맸다'

◇ 95%가 재취업했다는 구로의 특별한 청년인턴제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 사진)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이 확정됐다.

이러한 여세를 이어 구는 올해 청년인턴 참여자들 모두가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청년인턴의 취업알선은 구로구에 있는 실업 Zero센터가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 후 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는 청년인턴의 재취업을 위해 당초부터 재취업을 전재로 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며, 인턴으로 관리 중에도 근무성적을 관리할 뿐 아니라 우수한 직원은 재고용할 것을 권유한다.

아울러 인턴을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 기획 · 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인턴 근무자 소양교육과 업무능력향상 전문교육훈련도 실시한다.

◇ 지난해 100명에 이어 올해 200명 채용

구로구는 지난해 각종 행사경비를 줄이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은 10억원으로 청년인턴 100명을 운영해 대다수 재취업이란 성과를 올린데 이어 올해 100명을 전격 추가해 총 200명의 청년인턴 사업을 시행한다.(중략)

구는 이러한 점들을 인정 받아 지난해 전국소기업소상공인 대회에서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

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구로구의 수상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과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전국 유일 소상공인 지원 훈련 제정 ▲전국최초 '소상공인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 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무료구인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양대웅 구청장은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처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 했다.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맸다'

각종 행사비 줄여 20억 재원확보
관내 기업서 올해 총 200명 채용
업무능력 향상 전문교육도 실시

의 결 번 호	2010지선37(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10, 11층 대표이사 권 대 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경제 2010년 2월 24일자 8면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현 도지사의 인터뷰 기사에서 활동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신중히 생각 중이다. 곧 뜻을 밝히겠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둔 때라 출마여부를 묻자 '나갈 것' 임을 애둘러 내비쳤다. 그리고 말머리를 경제충북, 잘 먹고 잘 사는 충북 만들기 쪽으로 틀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충북지역 산업지도를 확 바꾸겠다. 40~50년 뒤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끌어들여 부자 충북이 되도록 하겠다"

정지사는 임기가 끝나가지만 개의치 않고 경제특별도 충북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고 했다. 투자유치 확대, 경제 인프라 확충,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녹색성장 청정충북(G&C: Green growth & Clean) 만들기도 적극적이다.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 개발 산업을 선점, 충북만의 특색 있는 신성장엔진으로 빨리 정착시켜 먹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다. 정 지사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도지사 출마계획은.

▲ 2012년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6·2지방선거'는 중요하다. 특히 충청권 선거결과는 더욱 그렇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문제, 민심의 향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머잖아 알게 될 것이다.(중략)

오송·오창지역 인프라 탄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유리

정우택 도지사는 최근 충북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송·오창지역은 준비가 돼있고 인프라도 갖춰졌으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힘을 얻었다.

정 지사는 FEZ지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들어온 기업이 많고 올 기업도 줄을 서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추진계획 마련, 투자유치 협약으로 국내 어느 특구보다 앞설 것이다. 정부가 성과도 없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남발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아시아초대석 정 우 택 충북도지사

세종시 수정안 처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
도지사 재선 신중히 결정…공 임장표명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조 투입
세계적 명문대학·병원·연구시설 유치

오송·오창지역 인프라 탄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유리

그는 미국 PHS(파트너스 헬스케어 서비스)와 종합의료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앞장서 뛰고 있다. 마그넷 스쿨, 마이애미대학병원 유치,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다. 태양광부품소재 관련기업 연구소 집적화, 기술지원센터 긴립태양광특구 지정 바탕도 만들었다. 보스턴과 하포드지역의 세계적 명문학교와 전문병원, 연구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정 지사는 "최근 발표한 오송 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조성이 순조롭다"면서 "이는 메디컬 그린시티 밑그림에 들어있는 미국학교와 병원, 주거타운,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바탕을 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외국병원, R&D(연구개발)기관 유치가 쉽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에도 가속이 붙는다"고 강조했다. 땅 등의 임대료 감면, 시설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물론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약국도 열 수 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8(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랫슬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2월 19일자 20면『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동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조감도 및 인물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 교육명문 성동프로젝트 가동
- 금호 옥수지역에 인문고 유치에도 온힘
- 200억 규모 학교지원사업도 활기

성동구는 서울의 중심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확충, 일반고 유치, 교육환경개선, 학교 공원화사업, 일자리 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성동구청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편집자주-

성동구가 전개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듣자면?

21세기 동북생활권의 신흥 부도심을 완성하게 될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건설 사업이 올해도 차질없이 진행 될 예정이다.

성동구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금호동 금호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마들길 행당동-용답동 끊어진 구간을 잇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응봉교 확장공사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마장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금년에 착공해 2년후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용비-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설,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신금호역-금호2가 간 도로확장, 금호사거리-교통안전회관 간 도로확장 공사 등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규제시설물 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TPEG 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및 CCTV 추가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 그린파킹 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왕십리역, 옥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무학현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와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 장안배수구(용답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증설,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공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올해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성동구의 화두는 교육이다. 교육성동을 이루는 것이 제일 큰 숙제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관내 38개 학교를 약 3번씩 방문하면서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지 선생님 및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성동구는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학생들이 뛰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력신장,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난 3년간 총 200억원 규모의 교육정비를 지원해서 인조잔디운동장 8개 설치, 25개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후략)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 교육명문 성동프로젝트 가동
※ 금호 옥수지역에 인문고 유치에도 온힘
※ 200억 규모 학교지원사업도 활기

성동구는 서울의 중심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확충, 일반고 유치, 교육환경개선, 학교 공원화사업, 일자리 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성동구청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편집자주-

성동구가 전개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듣자면?

21세기 동북생활권의 신흥 부도심을 완성하게 될 [illegible] 도로망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illegible] 예정이다.

성동구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금호동 금호교 차로 구조개선사업과 [illegible] 행당동-용답동 [illegible] 구간을 잇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응봉교 확장공사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illegible] 주민의 숙원 사업인 [illegible]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금년에 착공해 2년후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illegible]-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설, [illegible] 교차로 구조개선, [illegible]·금호2가 간 도로확장, [illegible]-교통안전회관 간 도로확장 공사 등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illegible] 추진하고 [illegible] 개선하고 교통[illegible] 개선, 교통시설물 [illegible] 및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TPEG 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장 [illegible] 및 CCTV 추가설치, 공영주차장 보수, [illegible] 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illegible], 옥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무지개[illegible] 아파트 [illegible] 진입로 설치공사와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 장안배수구(용답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증설, [illegible] 유수지 공원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올해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성동구의 화두는 교육이다. 교육성동을 이루는 것이 제일 큰 숙제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관내 38개 학교를 약 3번씩 방문하면서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지 선생님 및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성동구는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학생들이 뛰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력신장,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난 3년간 총 2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인조잔디운동장 8개 설치, 25개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

일반고 유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추진배경과 계획은?

성동구는 그동안 취약했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인문계 고교를 확충했는데 지난해 3월에는 성수고등학교가 개교했고, '09년 7월에는 한대부속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돼 201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2012년에는 왕십리 뉴타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금호·옥수 지역에도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 고교선택제 등 입시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명문 성동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illegible] 우수 교교 인센티브 지원과 입학사정관제 전담 지도교사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문대와 4년제 대학 진학성적이 좋은 학교에는 학교교육경비를 인센티브로 1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학교와 협의해 입학사정관제 전담진로지도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각 학교별로 1명씩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학원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반해 성동구는 공교육 강화의 자기주도학습 등에 중점을 줬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 자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비법 강연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한 부모코칭 성동부모학교는 3회를 실시하는 동안 300명의 학부모가 이수해 성동구의 높은 교육열을 과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정보와 학습비법을 알려주는 학력신장 교육특강과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동구 사이버 스쿨 구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였다. 그리고 경수중, 금단초 등 4개 학교의 담장을 개방하고 공원화해 생활녹지를 풍부하게 하였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한대부고는 물론 관내 5개 일반계고등학교가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성동구 거주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012년 명문대진학률 수도권 12위를 달성목표로 '비전1212'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노인인구 증가 현황과 일자리 사업내역은?

성동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27,253명, '07년도에 29,476명, '08년도에 29,282명, '09년도에 30,13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최근 재개발로 인한 노인인구 감소가 됐음에도 '09년말 기준 성동구 전체인구의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9.78%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 욕구가 강해 성동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도에도 1,004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15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총 4개 수행기관에서 12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추진계획과 비전은?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차그룹에서 지난해 10월 사전협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심의기 [illegible] 토론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서는 [illegible] 조속한 이전과 [illegible] 사업의 조기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 그룹의 사옥으로 활용될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낙후된 서울 동북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사업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성수동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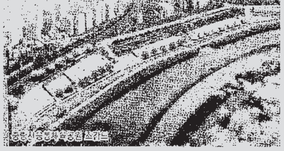
문화행사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해맞이 명소로 알려진 응봉산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응봉산 해맞이축제가 있으며, 12회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이제는 전 국민의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도레시티 성동 서울숲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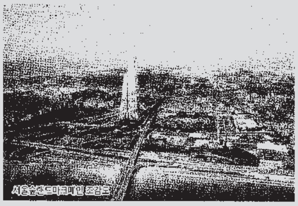
구립도서관이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살리고 도서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드림시티 도서페스티벌, 각소월시인을 기리는 소월시 백일장대회, 봄이면 개나리꽃으로 유명한 응봉산개나리축제, 스윙어브 [illegible]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 있다.

올해는 관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지속 하겠다.

또한 조선시대 인재 육성의 산실이었던 옥수동 독서당의 유래를 살린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추진해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 브랜드로 육성하겠다.

서울/엄정애 기자
um9156@wooriilbo.com


중랑 서울문체육공원 조감도


서울숲랜드마크[illegible] 조감도

의 결 번 호	2010지선39(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랫슬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2월 26일자 20면 『'꿈과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구체적인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조감도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꿈과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올해를 2010년은 성북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아 '2010 성북비전'을 완성하고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올해 서민생활안정을 구정목표로 삼고 경제위기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치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바람막이가 돼줄 복지 안전망을 더 넓고 든든하게 구축키로 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구상하는 올해의 성북구정과 성북구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중략)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고 또 대규모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제가 서울시에 처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선을 연장하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됐다. 이 밖에 우이-정릉-신설간 지하경전철사업도 지난 '08년 10월에 착공이 됐다.

지역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임기 중에 잇달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洞) 통폐합도 기억에 남는다.

30개였던 동을 20개로 대폭 줄였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동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동 통폐합의 마지막 과제까지 완수를 하는 것. 또 임기중에 '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이라는 성북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 새해 구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구간 공사를 마무

리 짓겠다.

이곳에는 건강걷기 코스도 조성돼 건강하천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해 인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문화 조성의 계기로 삼겠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길음뉴타운에 건립중인 태양광 주택에 이어 성북구민회관 등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성북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온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의 금연, 절주, 건강마을가꾸기 등의 사업과 함께 건강걷기코스개발과 몸짱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향상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후략)

'꿈과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올해를 2010년은 성북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아 '2010 성북비전'을 완성하고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올해 서민생활안정을 구정목표로 삼고경제위기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치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바람막이가 되줄 복지 안전망을 더 넓고 든든하게 구축키로 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구상하는 올해의 성북구정과 성북구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성북구 동 통폐합의 결실, 어느 정도 가시화 됐나?

종암1동과 종암2동의 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됐던 옛 종암2동 주민센터 부지(종암동 16-8)에서 1월 21일에 종암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종암동 복합청사는 대지면적 724㎡에 지하 1층, 지상 5층, 총면적 2,033㎡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되는데, 종암동 주민센터(1층),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열릴 강의실과 주민대화방(2층), 문화교실 등을 위한 대강당(3층), 도서관(4~5층), 주차장(지하1층)이 들어선다.

특히 4층 전체(324㎡)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을 위한 열람실과 정보검색실, 유아실 등으로 꾸며진다.

또 중학생부터 성인까지는 5층 도서관(257㎡)을 이용할 수 있다.

종암동 복합청사 건립에는 건축공사비 43억 원과 토지매입비 29억 원 등 모두 72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시비와 구비가 50%씩 투입된다.

완공은 2010년 8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미 6곳은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옛 월곡4동 주민센터), 해오름 어린이도서관 및 피트니스센터(옛 동소문동 주민센터), 석관 신바복지센터(옛 석관2동 주민센터), 성북지역자활센터 · 구민정보화교육장 · 청소년공부방 · 노인건강관리실(옛 삼선1동 주민센터),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및 성북구립미술관(옛 성북2동 주민센터), 성북청소년문화의 집 및 보건분소(옛 동선2동 주민센터) 등으로 바뀌어 주민들을 맞고 있다.

▲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고 또 대규모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제가 서울시에 처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선을 연장하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됐다. 이 밖에 우이-정릉-신설간 지하경전철사업도 지난 '08년 10월에 착공이 됐다.

지역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임기 중에 잇달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洞) 통폐합도 기억에 남는다.

30개였던 동을 20개로 대폭 줄였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동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동 통폐합의 마지막 과제까지 완수를 하는 것, 또 임기 중에 '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이라는 성북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41년만의 북악하늘길 개방

▲ 새해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곳에는 건강걷기 코스도 조성돼 건강하천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해 인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문화 조성의 계기로 삼겠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길음뉴타운에 건립중인 태양광 주택에 이어 성북구민회관 등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성북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온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의 금연, 절주, 건강마을가꾸기 등의 사업과 함께 건강걷기코스개발과 몸짱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향상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다면.

공직사회에도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닌 고객의 필요에 의해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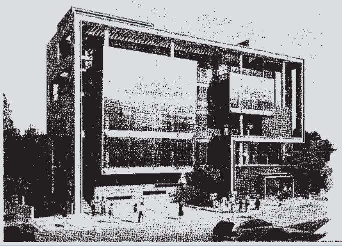
이에 성북구는 주민중심, 복지중심, 일 중심의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에 꾸준히 매진해 왔으며, 2010년 새해에도 50만 성북구민을 위해 말 그대로 퍼블릭 서번트로서의 직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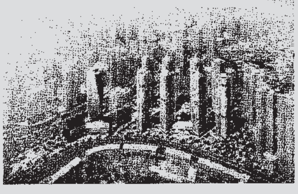
2010년은 새로 맞이하는 성북 60년의 첫 해이자 이제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주거와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우리 성북구에 대해 많은 꿈과 기대를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주민 여러분께서 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다면, 여러 계획들이 더욱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송준길 기자 jksong@wooriilbo.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4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2월 25일자 12면『집에서 의료 · 교육 · 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조감도와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집에서 의료 · 교육 · 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전략)

IMTERVIEW 이대엽 시장 "2030년 기업매출 87조 달하는 도시 만들것"

한 시대를 풍미한 액션스타 영화배우, 3선 국회의원과 2선 시장으로 당선된 성공한 정치인, 성남을 판자촌에서 벤처기업인들의 보금자리로 바꿔놓은 뚝심의 행정가 등 이대엽 성남시장(73)에게 따라 붙은 수식어는 너무 많다.

체력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다고 자부하는 이 시장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래서일까? 하는 일마다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행정구역통합문제만 해도 그렇다. 서로 눈치만 보던 지난해 8월초 이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 광주, 하남시를 통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파장은 컸고 성남시를 따르는 자치단체가 이어졌다. 이시장의 돌발행동에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개의치 않았다.

이시장은 "지난 1천년 동안 성남, 광주, 하남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울타리 속에서 생활해 온데다 3개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 이상 통합시, 추진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가 되면 면적은 665.8㎢로 서울(605.3㎢)보다 넓고 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9천875명에 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가 될뿐더러 성남시 현안 문제중 가장 중요한 고도제한 문제와 도심재생사업, 분당리모델링 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여수동 신청사 호화논란도 마찬가지. 이 시장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이뤄낸 산물이라고 비판의 뭇매를 맞았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신청사 건립은 아직도 요원했을 것이란 평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대 시장들에 의해 추진된 청사 이전작업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채 표류되고 있지만 시민편익 증진과 성남시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현청사를 완공시켰다.

이 시장은 "성남시 옛청사는 지난 1983년도에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져 턱없이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15개과 320명의 공무원이 청사 밖 5개소에 분산돼 대민업무를 봐왔다"며, "담장없는 성남시청을 지어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일념하나로 시작해 완공된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뗀 뒤 할 말은 있지만 평가는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마산이 고향인 그는 성남 이주 1세대로 이곳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민선시장도 2번이나 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다. 이대엽 시장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30년 후 성남시를 최고의 IT 도시로 만드는 장기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남시는 2030년이면 전체 기업 매출이 87조원에 달하는 기업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IT-SoC와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의료, 바이오 등 환경친화 첨단 산업을 3개 선정하고 집중지원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성남시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생각이다.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란 이미지를 넘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U-시티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집에서 의료·교육·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민원통합센터·U-교육 등 16개 사업 연내 완료

국내 최초 지역 정보화 기반 모델 탄생 기대감

IPTV 확산센터 연계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도

사업박차

VIEW

이대엽 시장

"2030년 기업매출 87조 달하는 도시 만들것"

의 결 번 호	2010지선4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2월 19일자 16면『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완주군의 향후 군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완주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갯짓'

농촌발전 · 주민복지 증진 중점… 핵심사업 실현 주력

완주군은 2010년에는 신청사, 테크노밸리 조성, 만경강 에코밸리 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등 민선4기 역점사업의 성과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통합 브랜드 개발, 재정력 확충 등 미래 100년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CB) 등을 통해 농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민선4기 동안 추진돼온 대단위 핵심사업과 군민소득사업 실현, 주민 곁에서 함께 하는 현장행정, 예산 5,000억원 시대 실현 등을 통해 완주군 미래 100년의 확고한 성장동력과 희망도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2010년 계획을 점검해본다.(중략)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고장 육성

민선4기 출범 이후 완주군은 13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완주군은 올해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완주 테크노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등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산림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추진, 명품 거점마을 육성(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파워빌리지 사업, 신택리지 사업), 대승한지 마을 조성, 한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독특하고 경쟁력을 겸비한 향토자원(봉동생강, 이서 물고기, 소양 철쭉 및 한지)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을 위해 당조고추 양산 및 대한민국 술 테마파크 건립, 로컬푸드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복을 안겨주는 선진 복지기반 확충

완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복지행정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선진복지행

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주군은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우선 노력하는 한편 여성복지와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주여성과 결손 아동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효도수당,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떡 가공공장 등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 추진,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 · 관광 인프라 구축

2010년을 맞아 완주군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다목적 캠핑장, 수변생태공원, 생태문화 탐방로, 자전거 도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신청사 내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코아루 아파트 작은 도서관 등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국산악자전거(MTB) 대회 개최, X-게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체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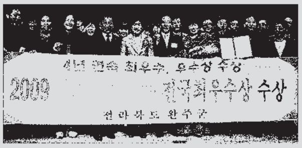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갯짓'

농촌발전 · 주민복지 증진 중점… 핵심사업 실현 주력

임정엽 군수

더 큰 도전과 꿈 재도약 전기 마련 집중

임정엽 군수는 "올해는 민선4기 4년차 후반기가 본격 시작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안의 마무리는 물론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합심해 더 큰 도전과 꿈, 그리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미래 희망도시 완주' 건설의 목표가 눈 앞으로 다가오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완주군은 2010년에는 신청사, 테크노밸리 조성, 만경강 에코밸리 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등 민선4기 역점사업의 성과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통합 브랜드 개발, 재정력 확충 등 미래 100년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CB) 등을 통해 농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민선4기 동안 추진돼온 대단위 핵심사업과 군민소득사업 실현, 주민 곁에서 함께 하는 현장행정, 예산 5,000억원 시대 실현 등을 통해 완주군 미래 100년의 확고한 성장동력과 희망도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2010년 계획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 주민만족을 위한 자치능력 향상

완주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군청사와 행정타운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선4기 공약사업(40개)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했던 예산 5,000억원을 기반삼아 100년의 성장을 준비할 튼실한 재정력을 확충하고, 녹색신성장동력인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 주민자치센터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민원 8272팀 운영, 공무원 1마을 담당제 확대 시행 등 생활 밀착형 군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완주군은 도시계획 정비,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공원 조성 등으로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 비봉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산에 문화, 스포츠, 휴양, 주거가 하나 된 복합형 건강문화파크(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와 구이 원기 전원마을 등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전원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군도(6개) 및 농어촌도로(9개) 확 · 포장공사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서 상수도 개발사업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하는 것도 올해 주목해야 할 분야다.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고장 육성

민선4기 출범 이후 완주군은 13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완주군은 올해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완주 테크노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등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산림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추진, 명품 거점마을 육성(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파워빌리지 사업, 신택리지 사업), 대승한지마을 조성, 한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독특하고 경쟁력을 겸비한 향토자원(봉동 생강, 이서 물고기, 소양 철쭉 및 한지)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을 위해 당조고추 양산 및 대한민국 술 테마파크 건립, 로컬푸드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 행복을 안겨주는 선진 복지기반 확충

완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복지행정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선진복지행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주군은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우선 노력하는 한편 여성복지와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주여성과 결손 아동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효도수당,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떡 가공공장 등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추진,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문화 · 관광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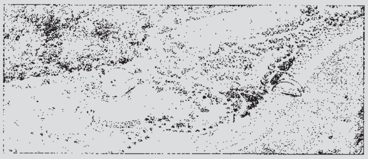
2010년을 맞아 완주군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다목적 캠핑장, 수변생태공원, 생태문화 탐방로, 자전거 도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신청사 내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코아루 아파트 작은 도서관 등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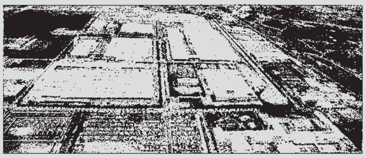
이밖에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국산악자전거(MTB) 대회 개최, X-게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체육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주=이은생 기자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추진, 명품 거점마을 육성(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파워빌리지 사업, 신택리지 사업), 대승한지마을 조성, 한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궁화 식물원 조감도



완주 산업단지

의 결 번 호	2010지선4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2월 24일자 16면『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부안군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안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인물사진 및 조감도와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잘사는 부안 건설 최선

김호수 부안군수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을 직접 만나 면밀히 검토 지시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실과소 · 읍면장과 각 담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회를 갖는 등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백호랑이의 해를 맞아 부안군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을 위한 5개 분야에 중점전략을 수립하고 야심 찬 발걸음을 디뎌나가고 있다.

더욱이 군은 새만금 시대 관광 중심도시로 부자 부안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위대한 부안건설, ▲고부가가치 선진 농어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어촌 구현, ▲새만금 개통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행정.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자연친화형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온 정성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군은 2010년 역시 군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군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47회 부안군민의 날 및 새 청사준공기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하나 된 군민의 마음과 부안 군정이 동반자가 되어 새만금전시관 확대 신축,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 국도 30호선 도로 확포장, 새만금 국립 간척사 박물관 건립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위대한 부안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중략)

#새만금 개통 친환경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군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 새만금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레저관광, 워킹투어, 테마별 관광기반 구축하려고 격포항 요트계류장 조성, 새만금 전시관 주변 관광홍보 전시관 주변을 비롯하여 전북농협 새만금 수련원, 모항 관광지 내 가족호텔 건립 등 천만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에도 전력을 새만금시대 돈버는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산 · 들 · 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보존, 쾌적한 환경을 도시숲 조성사업과 미래 산림 가꾸기 사업, 철새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방지사업 등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 위탁비 지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할 방침이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행정

군은 타시군보다 더욱 앞서 지난달 11일 주산면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변산면까지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 민선시대에 찾아 볼 수 없는 "민생경제와, 지방재정 조기집행"등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청취, 일선 현장행정에서 다양한 264여 건의 군민 의견을 수렴, 군민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건설도시 132건, 사회복지 80건, 농수축 13건, 지역경제 15건 환경녹지 11건, 일반행정 8건, 문화관광 5건 순이었다.(후략)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군민 의견수렴 생활안정대책 추진… 선진농업으로 부자 농어촌 구현

김호수 부안군수

잘사는 부안 건설 최선

김호수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현장을 찾아서 많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면면이 경청 개선하고 현장에 주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이 강의 선거일 일자로 선거인들과 간 담회를 이 한자리에, 군의 경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로 보고하고 찾는 분 참석한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에 참여할 기틀이고 있다.

부안군은 타시군보다 앞서 지난달 11일 주산면을 시작으로 변산면까지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 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청취해 264건의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안군 신청사 전경

의 결 번 호	2010지선44(자심)
언 론 사	현대일보(주)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74-5 대표이사 권 오 륜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0년 3월 5일자 4면 『어느 간부공무원의 퇴임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포시의회 의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예퇴임 소식을 전하며 그의 업적 및 성품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4일 신광철 김포시 상수도사업소 소장의 명예퇴임식이 있었다.

그는 후배 공직자 양성을 위하고 조직의 활력을 위하고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36년의 긴 세월 속에 청춘을 불사른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을 떠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아니었을 터인데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마무리 함으로서 뜻 깊은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 했으리라…

이렇게 되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온 내조의 공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든다.

믿음성 있는 행정의 추진력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물론 특히 양촌면장시절 양촌소방파출소 유치와 경제환경국장 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콜레라 방역사업, 일주일간의 단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던 일들은 그를 일찌감치 최연소, 최장수의 영광스런 국장(서기관) 자리에 앉게했다.

혁신을 주도 하면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었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행정은 황새걸음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개인의 득 보다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천상 공직자였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오늘 퇴임을 한다니 마음 한구석에 함께 퇴장하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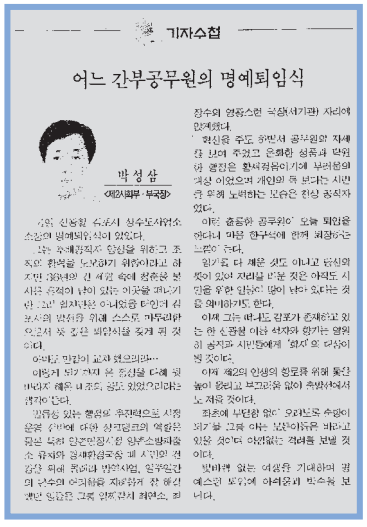
임기를 다 채운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이 있어 자리를 비운 것은 아직도 시민을 위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그는 떠나도 김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신광철 이름 석자와 향기는 영원히 공직과 시민들에게 '회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제2의 인생의 항로를 위해 돛을 높이 올리고 부끄러움 없이 출발선에서 노 저을 것이다.

좌초에 부딛침 없이 오래도록 순항이 되기를 그는 아는 모든이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낼 것이다.

빛 바램 없는 여 생 을 기대하며 명예스런 퇴 임 에 아쉬움과 박 수 를 보낸다.


기자수첩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박성삼
<예2사회부·부국장>

4일 신광철 김포시 상수도사업소 소장의 명예퇴임식이 있었다.

그는 후배공직자 양성을 위하고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36년의 긴 세월 속에 청춘을 불사른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을 떠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아니었을 터인데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마무리함으로서 뜻 깊은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 했으리라…

이렇게 되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온 내조의 공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든다.

믿음성 있는 행정의 추진력으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물론 특히 양촌면장시절 양촌소방파출소 유치와 경제환경국장 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콜레라 방역사업, 일주일간의 단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던 일들은 그를 일찌감치 최연소, 최장수의 영광스런 국장(서기관) 자리에 앉게했다.

혁신을 주도 하면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었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행정은 황새걸음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개인의 득 보다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천상 공직자였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오늘 퇴임을 한다니 마음 한구석에 함께 퇴장하는 느낌이 든다.

임기를 다 채운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이 있어 자리를 비운 것은 아직도 시민을 위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그는 떠나도 김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신광철 이름 석자와 향기는 영원히 공직과 시민들에게 '회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제2의 인생의 항로를 위해 돛을 높이 올리고 부끄러움 없이 출발선에서 노 저을 것이다.

좌초에 부딛침 없이 오래도록 순항이 되기를 그를 아는 모든이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낼 것이다.

빛바램 없는 여생을 기대하며 명예스런 퇴임에 아쉬움과 박수를 보낸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5(자심)
언 론 사	(주)고려일보(시사뉴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9층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시사뉴스 2010년 3월 15일자 46~47면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옹진군수) 출마 예정인 현 군수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서해 제일의 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밝혀

인천시 옹진군 조윤길 군수는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옹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 옹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로맨틱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는 그린 옹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옹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 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옹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평생 함께 해 온 지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결국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옹진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옹진군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옹진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옹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군정 목표, 복지향상 · 소득증대 · 관광 옹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옹진군을 향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한 그물 고기잡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이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또 "옹진군은 우수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관광 진흥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및 세부 시책을 발굴 · 수립한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조윤길 옹진군수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서해 제일의 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밝혀

인천시 옹진군 조윤길 군수는 올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옹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 옹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로맨틱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이있는 그린 옹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옹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프로필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획감사실장(1998~2004),
인천광역시 공보관 및 자치행정국장(2004~2006)에 이어 2006년 7월 민선 제4대 옹진군수로 취임했다.
1988년에는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1999년에는 대통령 표창(국가사회발전 기여),
2006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조윤길 옹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옹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궁극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농 ·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옹진군의 특성에 맞는 전략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옹진군민이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은 의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옹진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옹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옹진군, 천혜의 자연환경 갖춰

여기에 조화로운 환경보전과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 옹진군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 개발계획을 실행하고 도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의 모델을 제시 ·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옹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옹진군을 경쟁력 있는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옹진군은 옹진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시책 발굴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관광사업 육성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조윤길 옹진군수가 밝히는 옹진군민 복지를 위한 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났다. 옹진군은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시설 교체사업, 출산 장려수당 지급, 출생아 단체보험 가입, 보육료 지원 등 새로운 시책 발굴과 영 · 유아 교재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있었다. 경로당 신축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통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그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변화와 어장 황폐화로 인해 급감한 어획량을 고려한 어업기반 확충방안도 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 수산양식시설과 바지락 폐사 저감대책 등 어장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다시마 양식사업 지원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효능 분석을 비롯해 다시마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 어민 소득향상에 힘을 쏟았다.

군정 목표, 복지향상 · 소득증대 · 관광 옹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옹진군을 향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한 그물 고기잡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이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또 "옹진군은 우수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관광 진흥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및 세부 시책을 발굴 · 수립한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이 관광 · 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옹진군의 굴업도에는 약 171만6000㎡ 면적에 각종 운동시설을 비롯한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주)C&I 레저산업에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시행사 측에서 관광권역 계획변경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을 용역 시행 중이고, 향후 동 · 식물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내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옹진군 관광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낙후된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개발을 모색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서포리 관광지가 선정돼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 및 최근 급변하고 있는 관광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완료됐고, 약 48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옹진군은 풍부한 자원성에 기반, 고유한 매력의 관광 매력도 확충과 섬 내 관광 활동여건 및 접근체계를 개선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군 내 7개 면의 항구를 중심으로 문화 공간 조성 등 개별 섬 고유의 특색을 활용한 섬 관광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도면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섬으로 특화 · 발전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섬'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리 문화 관광센터 조성사업과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이야기 박물관 등의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조 군수는 옹진군이 이미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고 말하며 옹진군의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중 · 장기적인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폭 넓은 정책 사업을 발굴 · 추진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옹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계획, 즉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여러 주변여건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 / 남홍우 기자 sisa@sisa-news.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50(자심)
언 론 사	(주)주간함양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4-8 대표이사 김 윤 세
심의대상기사	주간함양 2010년 2월 15일자 6면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양군수)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듯한 보도를 게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 대선 출정식 방불

"나는마 누가 뭐래도 춘수가 최곤기라, 생긴거 함봐라, 올마나 잘 생겼노, 인물이 보름달처럼 훤하다마"

2월6일 토요일 오후3시 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서춘수 한나라당 군수 출마예상자(이하 경칭생략)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대선 방불케 하는 인파가 운집,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펴낸 자서전 제목은 '숲을 지키는 나무는 아름답다'. 이 책 속에는 서춘수 가족사, 말단 공무원을 거쳐 경남도 고위공무원까지 오르면서 느꼈던 감회, 인생론 등이 담겨져 있다.

신성범 의원 의미심장한 축사 '눈길'

이날,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 함양 산청)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보시다시피 이 책은 선거용 단행본입니다. 으레, 이런 책들은 당사자가 집필하지 않고 대필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쓰나 못 쓰나 본인이 직접 적어 호감이 갑니다.

〈중략〉

그랬다. 이 자서전은 여느 정치인들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기술, 인간 서춘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는 상림공원 벤치로 가, 차분히 서춘수 자서전을 읽어내려갔다. 신성범 의원이 이 책을 통해 서춘수 월급봉투 사진 이면(裏面)을 읽어 냈다면 나는 진주 중학시절 서춘수 학생의 다사다난한 삶에 그만 필이 꽂혀버렸다.

서춘수 가계는 한국동란 때문에 풍비박산이 된다. 함양 동구 이장이었던 부친은 전쟁 소용돌이에서 희생당한다. 이로써 청상과부 어머니가 집안을 책임진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식구를 이끌고 대처 진주로 나간다.

영민한 서춘수는 명문 진주중학을 다닌다. 하교길에 우연히 진주중앙시장에서 날품팔이하는 모친을 보고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물건 파는 게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 먹는다.

"우리 형제 나중 큰 인물이 되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지정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이 대목을 읽노라니 소설가 이문열의 대하소설 〈변경(邊境)〉, 조정래의 〈한강〉이 생각난다. 좌우익 대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가? 기회가 되면 서춘수 류(類) 좌우익 희생자. 그들의 삶의 행로, 인간승리를 기록해보고 싶다.(후략)

지방선거 풍속도 1 군수예비후보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나는마 누가 뭐래도 춘수가 최곤기라. 생긴거 함봐라, 올마나 실 생겼노. 인물이 보름달처럼 원하다마"

2월6일 토요일 오후3시 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서춘수 한나라당 군수 출마예상자(이하 경칭생략)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대선 방불케 하는 인파가 운집,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펴낸 자서전 제목은 '숲을 지키는 나무는 아름답다'. 이 책 속에는 서춘수 가족사, 말단공무원을 거쳐 경남도 고위공무원까지 오르면서 느꼈던 감회, 인생론 등이 담겨져 있다.

신성범 의원 의미심장한 축사 '눈길'

어날,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 함양 산청)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보시다시피 이 책은 선거용 단행본입니다. 으레, 이런 책들은 당사자가 집필하지 않고 대필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쓰나 못 쓰나 본인이 직접 적어 효감이 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인간 서춘수의 삶과 사상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단행본 곳곳에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참 많더군요. 특히 저는, 이 책 119페이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펼쳐 보실래요? 서춘수 전국장 신혼초 월급봉투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그분의 월급은 총 7만7천8백원이더군요. 저는 이 봉투를 보고 당시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박봉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공무원)을 수행했던 서 국장 모습을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에 의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번영했습니다. 서 국장의 앞날에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그랬다. 이 자서전은 여느 정치인들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기술, 인간 서춘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는 상림공원 벤치로 가, 차분히 서춘수 자서전을 읽어내려 갔다. 신성범 의원이 이 책을 통해 서춘수 월급봉투 사진 이면(裏面)을 읽어 냈다면, 나는 진주중학시절 서춘수 학생의 다사다난한 삶에 그만 넋이 꽂혀버렸다.

서춘수 가계는 한국동란 때문에 풍비박산이 된다. 함양 동구 이장이었던 부친은 전쟁 소용돌이에서 희생당한다. 이로써 장상과부 어머니가 집안을 책임진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식구를 이끌고 대처 진주로 나간다.

영민한 서춘수는 명문 진주중학을 다닌다. 하교길에 우연히 진주중앙시장에서 날품팔이하는 모친을 보고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물건 파는 게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 먹는다.

"우리 형제 나중 큰 인물이 되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진정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이 대목을 읽노라니 소설가 이문열의 대하소설 〈변경(邊境)〉, 조정래의 〈한강〉이 생각난다. 좌우익 대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가? 기회가 되면 서춘수 류(類) 좌우익 희생자, 그들의 삶의 행로, 인간승리를 기록해보고 싶다.

한편, 서춘수는 이 책을 통해 함양발전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로 당선되어 함양을 크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지한테는 경남도 농수산국장으로 일해 오면서 마련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로 함양의 농촌경제발전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함양에서 생산하기에 적합한 농산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대량생산은 물론 선진화된 유통방식을 도입해 생산된 농산물이 적절한 때에 좋은 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목이 있는 여러 단체나 조직을 함양발전으로 하나 되게 화합시킬 것입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군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 함양군민이 모두 잘 사는 길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할 때다. 내가 앞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보다 피부로 와 닿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남도 미래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밀양부시장, 농수산국장 등 내가 거쳐온 많은 자리에서 쌓아온 모든 공무에 대한 감각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함양을 되살리는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외에도 이 책 속에는 "군수가 되면 함양을 그린오션으로 탈바꿈하겠다", "친환경 녹색성장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함양발전과 관련된 서춘수의 야망(?)이 수록되어 있다.

구본갑|본지칼럼니스트
busan707@naver.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51(자심)
언 론 사	(주)경제풍월 서울 중구 필동1가 43-1 동화빌딩 508호 대표이사 배 병 휴
심의대상기사	경제풍월 2010년 3월호 64~69면 『강남구, 사교육과 정면승부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서울시 강남구의 공교육 활성화 사업 및 구정활동 성과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남구, 사교육과 정면승부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지탄돼 온 서울 강남구가 뜻밖에도 '공교육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의 맹정주 구청장이 사교육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강남구의 공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천국으로 꼽히는 부자구니 강남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을까. 지난 2천6년 맹정주 청장은 과감하게도 사교육 1번지를 공교육 1번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모두가 "무슨 수로 사교육 극성을 이겨 내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엔 초, 중, 고교가 75개인 반면 학원은 무려 3,500여개로 '사교육 1번지'가 틀림없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험생들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공교육을 살려내자면 무슨 특별한 수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강남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이 들어 난지 오래다. 이 판국에 강남구가 부자구라고는 하나 지자체장 힘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성감천(至誠感天)이다.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면 사교육의 수렁으로부터 학부모나 수험생을 건져 낼 수 없다. 고학력 출신의 맹 청장은 공교육 관련 숱한 민원을 듣고 학부모, 교장, 교사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이 결과 '명문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을 통해 사교육의 기세를 꺾어 내기에 성공했다.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은 등록 회원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전국 127개 시 · 군 · 구와 협약으로 교육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특목고 능가하는 명문고 나온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강남 교육청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지원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매칭 펀드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에 따라 초, 중, 고 75개교에 원어민 교사 101명이 배치될 수 있었다.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을 갖춘

영어체험센터도 지난 2천6년 1개교로 시작하여 지금은 12개교에 설치됐다. 또한 23개 중학교엔 수학 전담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했다.

정책기류

강남구, 사교육과 정면승부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맹정주 청장 '공교육 1번지화' 지극열성
명문고 프로젝트, 인터넷 수능 명품화 성공

'사교육 1번지'에 '공교육 1번지' 도전

사교육 대결 공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기류

특목고 능가하는 명문고 나온다

성공프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정책기류

혹자운영으로 공교육 활성화 모델

저출산 대책의 '겨울방학 학교'

의 결 번 호	2010지선59(자심)
언 론 사	(주)경북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0년 2월 17일자 4면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천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

언론사 인터넷 여론조사…
1~4위간 지지율 격차 2.4% '치열한 각축'

김수남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예천군수 선거 판도가 최근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박빙의 혼전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전이 더욱 가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예천군수 예비후보 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각 후보자 별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지도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오창근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과 4위를 차지한 김학동 전 푸른학원 이사장의 지지율 격차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4위까지의 후보자별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내 '접전'

언론사 인터넷 여론조사…1~4위간 지지율 격차 2.4% '치열한 각축'

김수남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예천군수 선거 판도가 최근 지역 인터넷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박빙의 혼전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전이 더욱 가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예천군수 예비후보 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각 후보자 별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지도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오창근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과 4위를 차지한 김학동 전 푸른학원 이사장의 지지율 격차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4위까지의 후보자별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최명환 전 예천교육장과 장연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특별보좌역의 지지율이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선두권 후보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차기 예천군수 선거는 막판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찌감치 차기 군수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한나라당으로서도 공천자 결정은 물론 공천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껴안는 일에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김수남 군수가 최근 예비후보 중 한명을 선택해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자칫 선거전이 다자구도로 갈 경우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될 후보로서도 김 군수의 지지를 받게 될 후보와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공천자 결정이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정가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중 2~3명은 여당 공천이 어려울 경우 비례대표연대의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작업 중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어 예천군수 선거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다자구도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장병철기자 jang@kyongbuk.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60(자심)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0년 3월 16일자 14면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청소년교류 새장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자매결연 체결 및 사업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지난 1월12일, 미국캐롤턴시 시청회의실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날 구리시와 미국 텍사스 주(州) 캐롤턴시는 Ronald F. Branson캐롤턴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두 도시 대표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달 23일 두 도시 간 청소년 교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캐롤턴시는 미국에서 19번째로 살기 좋은 소도시이며, 달라스 · 포트국제공항에 인접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주요 국내 · 국제회사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미술관, 박물관이 많고, 녹색환경, 교육, 체육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도시의 청소년 교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중략)

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생활속 어학교육 바람직"

- 바람직한 청소년 어학연수는

▲ 청소년들의 어학 연수에 있어서 홈스테이를 강조하고 싶다. 우리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그냥 버스를 타고 이곳 저곳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외국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일대일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어학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캐롤턴시와 구리시의 청소년 교류사업에 있어서 홈스테이를 강조했다.

- 자매 도시를 통한 어학연수의 장점은.

▲ 적은 비용으로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구리시와 캐롤턴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어학 연수의 경우 100만원 이내이고, 1년짜리 교환학생의 경우 1천만원 정도면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

- 어학 연수 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한다는데.

▲ 항공료와 경비 등 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전액 시가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 캐롤턴시 외에 필리핀 깔람바(Calamba)시와도 영어 교류가 가능한가.

▲ 미국의 캐롤턴시도 그렇지만 필리핀의 깔람바시 역시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깔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으로 활발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깔람바시는 필리핀 국립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영문학과 학생 300여명이 재학 중에 있어 방학을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청소년교류 새 장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 두 도시간 청소년교류 급물살

▲구리시 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1개월 정도로 진행될 청소년 단기어학연수

3년동안 교류 결실 자매결연·설명회 성사

국제 비즈니스 도시 정평 문화인프라 풍부

매년 국제 홈스테이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우수 중고생 어학연수·원어민교사 초청도

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생활속 어학교육 바람직"

의 결 번 호	2010지선61(자심)
언 론 사	전일신문 주식회사(일간 전북타임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2 덕송빌딩 7층 대표이사 홍 성 장
심의대상기사	일간 전북타임스 2010년 3월 2일자 12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활동성과 및 여러 컷의 사진을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진안 홍삼 · 특산품 해외시장 진출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홍삼한방산업은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한 홍삼의 명품화와 홍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홍삼판매장 개설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홍삼 · 한방농공단지를 짓는 등 홍삼 · 한방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은 중국 환인현과 자매결연을 통해 해외도시와 교두보를 확보하고 심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해외시장의 첫 시동 중국시장 공략

진안군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중국해외지사 오픈과 함께 농산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제휴, 중국 삼양시와 교류 활성화 등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중국 심양시를 방문해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사업단)의 중국사무소 및 진안삼 홍보부스 개소와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시장에 진안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심양총영사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함께 심양시 물류중심 담당, 총영사관 경제담당, 한인회 경제담당 등이 진안삼의 중국진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 진안삼에 대한 중국현지에 관심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에 진안사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심양총영사, 조선족기업가협회 및 한인회 등 주요 인사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사업단의 중국사무소는 조선족기업가협회 건물에, 홍보부스는 요녕성 공업전시관 근처에 위치하며 심양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중국 진출의 청신호

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형근 중국 선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선양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애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빙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후략)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환인현과 자매결연 · 심양대학교와 협약 …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중국세계한상대회서 진안홍삼 특별전시관 운영 … 세계시장 공략

◆ 진안 홍삼 · 특산품 해외시장 진출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홍삼한방산업은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한 홍삼의 맞춤형 홍삼상품의 다양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홍삼 관계망 기본구 육성전략과 유도지원사업, 홍삼 · 한방농업지원 및 홍삼 · 한방산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연차수확 공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진정 가능한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진안군은 중국 환인현과 자매결연을 통해 해외시장과 교두보를 확보하고 심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득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이뤄내고 있다.

◆ 해외시장확보 첫 시동 중국시장 공략

진안군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중국해외지사 오픈과 함께 농산물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제시, 중국 심양시와 교류 활성화 등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중국 심양시를 방문해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사업단)의 중국사무소 및 진안홍 홍보부스 개소와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시장에 진안삼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과 한안 세미나에는 심양총영사의 수세경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연제 심양시 중앙홍삼 남한, 측정사업 경시방법, 한안의 경제현황 등이 진안삼의 중국진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 전략삼에 대한 중시현주에 관심은 이끌었다.

이날에는 중국시장에 진안삼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지양홍삼사, 소상공기업의 및 관안의 등 주요 인사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시양대학의 중국시보소는 조선족기업가협회 전들에, 홍보부스는 오동삼 공업협회장 관세에 위치해 상업시 경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 중국 진출의 청신호

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형근 중국 선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선양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애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빙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선양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애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빙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송영선 군수는 "진안 홍삼과 김치 등 지역 특산품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선양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형근 총영사는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우선 중국 동북성상지역 도시들과 진안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은 2010년 6월 28일부터 30일 열리는 제1회 중국 세계 한상대회에 진안홍삼 특별 전시관을 만들고, 대회 메인 행사인 음식과 한스타일을 주제로 한 인도네시아쇼에 진안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6월 열리는 제1회 중국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를 위한 경제자산으로 전파하기 위한 한민족 경제인 대회로 중국 전역에 분포한 여러상공인 2500명과 중국현지 상공인 2000여명이 참가해 각종 전시, 공연, 라쇼, 문화예술 관람을 위주로 열린다.

왕도재단 배우소가 메인행사로 열리며, 관공 무전음악 콘서트, 한중 대화음악 콘서트, 전라북도 파광 · 비즈니스 홍보관, 진안홍삼 특별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세계대회를 앞으로 심양시 농촌공제 위원회 협의 산요도시 농업관련 협력, 영사관을 통해 요청한 정치와 의학 등 사경제도 최소에 노력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진안 홍삼 · 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조현상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65(자심)
언 론 사	(주)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로 100 대표이사 변 근 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0년 3월 11일자 4면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시정활동에 관한 우호적인 평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대설주의보에 직원 비상 근무
밤새 눈치워 출근길 불편없애

전국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렸다.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청주에도 밤사이 10.7㎝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출근길 지각사태나 교통사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눈 잘 치우는 남상우(사진) 청주시장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 시장을 비롯해 시청직원들은 청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9일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시청 · 양구청 재난관리부서)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밤11시까지 발 빠르게 제설차량 15대를 동원,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6시 30분 다시 집결해 650㎞에 달하는 구간에서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날 아침 시민들의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남 시장이 '눈잘 치우는 시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95~1998년 서울 용산구 부구청장시절 관내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통중심지인 남산이 있어 눈만 오면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았고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눈치우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 용산구청은 25개 구청 가운데 행정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남 시장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앞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해 3월5일은 일일 28㎝라는 엄청난 량의 눈이 내렸었어요. 말 그대로 눈 폭탄이었습니다. 자신의 선거 차량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차량

이 운행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폭설로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설작업은 발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당선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사안을 제1과제로 꼽아 해결하겠다고."

남 시장은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샘 눈치우기 작업 때문인지 남시장의 양볼은 10일 늦은 시간까지 상기돼 있었다.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대설주의보에 직원 비상 근무

밤새 눈치워 출근길 불편없애

전날저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렸다. 아침 출근길은 "아만큼 '교통지옥'이 없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충주에도 밤사이 13.7㎝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됐던 출근길 지가사태나 교통사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눈 잘 치우는 남상우(사진) 충주시장의 확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 시장을 비롯해 시청직원들은 충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9일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시청·읍면동 제1관리부서)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눈 빠르게 제설차량 15대를 동원,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에 착수했다. 이튿날 10일 오전 9시30분 다시 집결해 65㎞에 달하는 구간에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날 아침 시민들이 출근길은 아무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남 시장이 '눈치 치우는 시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

"2005년 10월에 시장을 맡은 지 [illegible]

구청장시절 관내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통중심지인 남산에 있어 늘 관내 주민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웠죠. 교통사고도 많았고요. 교통무인단속이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눈치우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 무안군청은 읍내 주행시설에 원동설치평가제에 3년 연속 최종 지정하기도 했다.

남 시장은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에도 일정편 의주의에 빠져 있는 공두얀는의 도움에 신탄진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해 3월 2일은 밤일 78㎝는 넘쳤나 양의 눈이 내렸었어요. 밤 2시에는 폭설이었습니다. 제신의 선거차량은 길 모두 시민들의 사랑이 은혜를 아직 못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폭설도 시민들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설작업은 발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당선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사안을 제1과제로 꼽아 해결하겠다고."

남 시장은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샘 눈치우기작업 때문인지 남 시장의 양 볼은 10일 늦은 시간까지 상기돼 있었다.

/최대우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72(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86-1 대표이사 김 진 영
심의대상기사	광남일보 2010년 3월 9일자 3면 『'수성 vs 탈환' … 광주 · 전남 광역 · 기초단체 9곳』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도지사, 광주시 동구청장, 완도군수, 광진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수성 vs 탈환' … 광주 · 전남 광역 · 기초단체 9곳

(전략)전남도지사 선거는 박준영 도지사와 주승용(여수시 을)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경선을 치를 예정이지만 박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와 격차를 2배차로 앞서고 있어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건이다.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3선을 '정조준' 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도 무려 7곳이다.

유태명 동구청장과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서남석 무안군수 등도 '3선' 을 '정조준' 하고 있다. 이들 7명의 단체장은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고른지지를 받으며 앞서가고 있지만 조영복 등 구의회 의장이 바짝 뒤쫓고 있고 임홍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의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실릴지도 공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황일봉 남구청장의 3선행은 가장 치열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무려 10여명에 달할 정도로 입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까지 이호준 전 남구부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 김화진 전 남구의원 등이 대항마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따로' '따로' 인 남구청장 공천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여론조사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황청장의 무소속 출마 등 선택(?)이 관심사다.(중략)

김종식 완도군수는 현재 차용우 완도군의장과 김신 군의원 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3선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황주홍 강진군수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군수 3선에 도전하겠다고 나서 지역정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황

군수가 무소속으로 '안방'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 후보와 '본선' 대결을 통해 군수직을 수성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황군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전개되면 확산되는 민주당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후략)

6·2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3> 3선고지 가능할까

'수성 vs 탈환' …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시장·도지사 등 '현직 프리미엄' … 후보군 즐비 접전 예고

남구·동구·목포·광양·완도·무안 '공천' 변수…강진 무소속

'3선의 길' 험로… '장기집권' 지역민·정치권 시선도 따가워

"재선이면 충분하지", "선수가 무엇이 중요해.지역을 위해 일만 잘하면 또 할 수도 있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 단체장의 '3선 도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그 만큼 3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담도 여전하지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역대 4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단체장이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점에서 누가 3선 고지에 오를지가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llegible]

조현수 기자 chs2020@

의 결 번 호	2010지선73(자심)
언 론 사	(주)전남일보 광주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박 경 엽
심의대상기사	전남일보 2010년 3월 17일자 5면『유창종, 선두 최형식 맹추격』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담양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창종, 선두 최형식 맹추격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압축되고 있다. 2개월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군은 민선 3기 군수를 지낸 최형식(54) 전 군수를 비롯해 유창종(57) 전 담양부군수, 강종문(51)·송범근(58) 전남도의원, 최화삼(56)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경선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경선 예정일인 4월 13일을 한달 앞두고 후보 2명이 중도하차했다. 최 이사장이 지난 3일 경선 참여를 포기한데 이어 최근 송 의원도 뜻을 접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새마을금고 전국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돼 이에 전력한다는 것이, 송 의원은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경선불참의 직접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은 최 전 군수, 유 전 부군수, 강 도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현재까지 판세는 후보군중 최 전 군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유 전 부군수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최근 담양지역 3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 최 전 군수가 '민주당 공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46.6%를 차지, 25.7%, 6.9%를 기록한 유 전 부군수와 강 도의원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군수는 도의원 3선과 군수를 지내며 쌓아온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 전 군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렴성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에 대한 지역민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전 군수는 경쟁자인 유 전 부군수의 고향인 담양읍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60%를 넘은 것에 대해 고무돼 있다.

담양읍 유권자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 선거때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4년을 지내고 보니 최 군수가 계속했더라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압도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군수의 캠프진영은 여유로움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년전 선거에서 자만심 때문에 쓴잔을 마신 뼈아픈 경험을 한 터라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다.(후략)

6·2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현장

유창종, 선두 최형식 맹추격

강종문 도의원 "조직탄탄 해볼만하다"

전당원 50%·군민 50% 전화여론조사

▮ 담양군수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는 선거열이 극기심에 따라 압축되고 있다. 2개월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군은 민선 3기 군수를 지낸 최형식(54) 전 군수를 비롯해 유창종(57) 전 담양부군수, 강종문(51)·송병근(58) 전남도의원, 최화삼(56) 담양 제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경선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경선 예정일인 1월 13일 출한 담양군과 후보 2명이 중도하차했다. 최 이사장이 지난 3일 경선 참여금 보류한데 이어 송 근 송 의원도 뜻을 접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제마을금고 전국연합회 부회장에 선출해 이에 전념하는 것이, 송 의원은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경선불참의 직접적인 이유다.

이어 과라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은 최 전 군수, 유 전 부군수, 강 도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현재까지 판세는 후보군중 최 전 군수가 가장 앞서 달아나고 있고 유 전 부군수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최근 담양지역 3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결과, 최 전 군수가 민주당 공천 후보로 뽑는 질문에서 43.6%를 차지, 유 전 부군수 23.7%, 6.3%를 기록한 유 전 부군수로 강 도의원 등 전개 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군수는 도의원 3선의 군수를 지내면 쌓아온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 전 군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심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에 대한 지역민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전 군수는 경쟁자인 유 전 부군수의 고향인 담양읍에서 조사된 조사율에 60%를 넘은 것에 대해 고무해 있다.

담양읍 유권자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 선거때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4년을 지내고 보니 최 전 군수가 계속했더라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압도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군수의 앞서 진행은 이유보운속 여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년전 선거에서 자만심때문에 쓴맛을 마신 뼈아픈 경험을 한다라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담양군수 후보에 적용될 당 경선방식에 대한 여의 제기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담양군수선거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원 50%와 군민 50%가 참여하는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최 전 군수측은 군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군민 참여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담양군을 비롯해 전남지역은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도 모호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민심을 제대로 경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군민참여비율을 60~7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종 전 담양부군수는 현재 시지율 2위를 달리지만 오는 21일 예비후보등록을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현재 인지도면에서 최 전 군수에게 뒤지고 있으나 예비후보가 되면 유권자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 지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핵심부서 실국장을 역임한데다 담양부군수 순천부시장, 행정안전부 광주광부동첨전산센터장을 지내는 등 다른 후보가 갖지 않는 행정전문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유 전 부군수의 생각이다.

경선전까지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최 전 군수와 양강 구도를 만들어 승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유 전 부군수는 경선방식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선에 당원 50%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세 당원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 군수가 당적을 변경한 행보를 보인만큼 이번 경선에서 당원들이 외중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민선 3기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80표차로 탈락한 최형식 후보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었고, 2006년 민선4기 선거에서 지역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을 즈음 한민우리당 간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등 민주당원으로서는 유감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민주당 지킴이"이라고 함주어 말하는 강종문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한자리수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지 경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강 의원은 유 전 부군수와 같이 당의 경선룰에 대해 공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선이 당원 50%가 참여하는 만큼 자신처럼 민주당 한 길을 걸어온 것을 평가해줄 것이다 확신하고 있다.

특히 "시시대 새정치연합정년회(연정) 전남도지부장을 맡고 있어 젊은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고 새선 도의원으로 12개 읍면에 조직이 탄탄해 해볼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 ee@kbc.co.kr

이나라 주소			
이름(나이)	강종문(51)	유창종(57)	최형식(54)
현직	전남도의원	전 담양부군수	전 담양군수
당 기여도	민주당 지킴이	시민으로 당에 활력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지지 기반	젊은층·당원	담양읍·화합세력	주직력·높은인지도

의 결 번 호	2010지선75(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3월 7일자 10면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전략)한나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대구에서 여전히 통한다. 하지만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으로 친이-친박 간 치열한 집안 싸움이 불거지면서 이번 대구 시장 선거의 공천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텃밭이기도 한 대구에서 세종시 문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며 사활을 걸고 있어 그 접전은 한치도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대구를 직접 찾아 오는 6·2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세를 알아봤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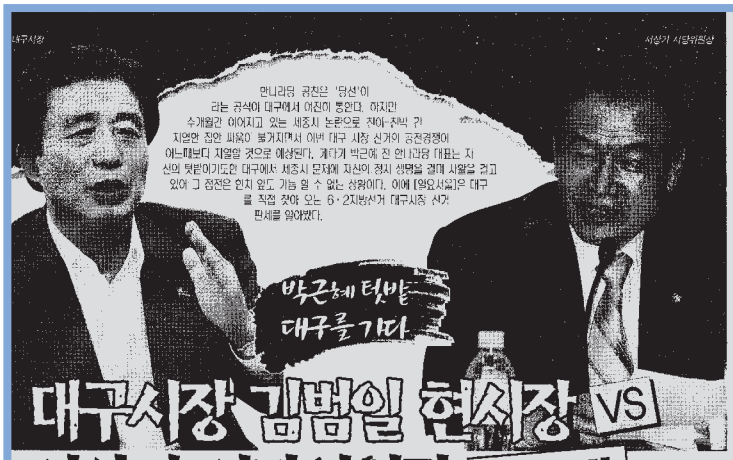
우선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과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권에서는 친이계에 가까운 김범일 현 대구시장과 친박계 서상시 대구시당위원장 출마가 유력하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윤덕홍 전 부총리와 이승천 대구시당 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충환 전 대통령 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이 야권후보단일화 추진을 논의 중이다.

대구 정가에서는 '김 시장-서위원장'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시장은 재공천을 노리고 있고 서 위원장 역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김 사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남권 한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이 31.4%로 선두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또다른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김 시장이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시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후략)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뽑까.

우선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과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권에서는 친이계에 가까운 김범일 현 대구시장과 친박계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 출마가 유력하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윤덕홍 전 부총리와 이승천 대구시당 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환 전 계몽령 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이 야권후보단일화 추진을 논의 중이다.

대구 정가에서는 '김 시장-서 위원장'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시장은 재공천을 노리고 있고 서 위원장 역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김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남권 한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이 31.4%로 선두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또 다른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김 시장이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시장의 출마는 가정사실화 된지 오래.

하지만 친이 친박 간 갈등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박 전 대표의 승리로 매듭지어 지면 그 만큼 김 시장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을 압박할 카드로 평가받는 친박계의 서상기 위원장이다. 서 위원장은 당초 설 연휴 이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서 위원장의 행보는 세종시 문제로 청와대를 비롯한 당내 친이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정가의 분석이다.

서 위원장 출마 선언 왜 늦어지나 '유승민 카드 – 제 3 후보 영입론' 솔솔

박 전 대표는 이번 세종시 문제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올인'한 상태다. 대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원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통한다.

만일 세종시 문제가 수정안 쪽으로 가닥이 잡혀 동안을 고수한 박 전 대표의 참패로 이어진다면 서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제 3의 인물 등장할 수도

이 밖에도 당 지역의원 사이에서 거론되는 '유승민 카드', '제3 후보 영입론' 등이 서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배영식 의원 주도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대구지역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화두는 대구시장 후보군 물색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 유승민 의원과 박종근 의원이 불참했다. 박 전 대표와 주 의원의 불참은 예상됐지만 유 의원과 박 의원 불참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날 모임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내부 추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대 인물이 서 위원장이 될지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될지는 논의를 거쳐 정한다는데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대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현 김 시장과 경선을 치르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 역시 이들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24일 [일요서울]과의 문화에서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지역 의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는 "당이 지금 시끄러운데 기다리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고 하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풀어보면 서 위원장은 출마 의지가 분명하지만 세종시 문제 처리 결과에 따른 박 전 대표의 차후 행보, 당 내 지역의원들의 내부추대 문제 등으로 인해 출마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내달 초에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원들이 제3후보 영입 시한을 3월 초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한까지 마땅한 제3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 않는다면 서 위원장의 내부 추대가 유력하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내부추대만으로 서 위원장의 출마가 공식화 된다면 차후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김 시장과 서 위원장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정성무 기자) bukeshead@mite.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76(자심)
언 론 사	(주)경향신문사(위클리경향)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위클리경향 2010년 3월 23일자 20면『친이 · 친박 '지방선거의 결투'』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친이 · 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한나라당내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계파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조직적인 세 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 전 대표의 중립 의지와 무관하게 계파별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측에서도 수도권이 현재의 선거 구도로 간다면 TK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의 홍형식 소장은 "친이계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서울 · 경기 등 수도권에서 승리가 예상되므로 신경 쓸 일이 없다"면서 "T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 격돌한 후보들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됨에 따라 흥미진진하다. 친박계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친이 성향의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주인공들이다.

지난 경선 300여표 차로 승패를 갈려

김 지사와 정 전 원장은 각각 박 전 대표 및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이 있는 구미시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구미 등 경북서부 지역, 정 전 원장은 포항 · 영덕 등 경북 동부지역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 박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함께 해 왔다. 김 지사 측은 이미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 전 원장의 출마선언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 언론의 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지사 출마 예상자 지지도에서 김 지사가 41.6%로 정 전 원장의 12.7%를 크게 앞섰다. 선산 출신인 김 지사는 구미세무서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구미시장(3선)을 지냈다.(후략)

김 지사는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 박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함께해 왔다. 김 지사 측은 이미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 전 원장의 출마 선언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 언론의 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지사 출마 예상자 지지도에서 김 지사가 41.6%로 정 전 원장의 12.7%를 크게 앞섰다. 선산 출신인 김 지사는 구미세무서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구미시장(3선)을 지냈다.

반면에 정 전 원장은 인재감치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정 전 원장은 이미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한나라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원장은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16개 시·도에 대한 각종 설의 전 평가와 조사자료에서 경북이 항상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실패한 리더십이 경북을 왜소화시켰고, 선시행정 리더십이 경북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포항이 고향인 그는 상주시장, 청와대 비서관, 포항시장(민선 2, 3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발탁됐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 경북지사후보 경선 때는 김 지사가 불과 300여 표 차로 정 전 원장에게 승리했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위한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친이·친박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두 계파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지역에서 더 많이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경북지사 후보 티켓 놓고 양계파 인사 재격돌

권순철 기자 kwon@yjdgyang.com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한나라당 내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계파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조직적인 세 대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 전 대표의 중립 의지와 무관하게 계파별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측에서도 수도권이 현재의 선거 구도로 간다면 TK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의 홍형식 소장은 "친이계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승리가 예상되므로 신경쓸 일이 없다"면서 "T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격돌한 후보들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됨에 따라 흥미진진하다. 친박계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친이 성향의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주인공들이다.

지난 경선 300여 표 차로 승패 갈려

김 지사와 정 전 원장은 각각 박 전 대표 및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이 있는 구미시장 출신이며, 정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구미 등 경북 서부지역, 정 전 원장은 포항·영덕 등 경북 동부지역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1(자심)
언 론 사	(주)대전일보사 대전 서구 계룡로 831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3월 27일자 5면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정치 철학 등을 인물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52)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글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국회 5급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2일 신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3개월여의 짧은 임기를 지내야 하지만, 역대 그 어떤 의장보다도 도민들의 기억에 남는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함께 되새겼다고 한다. 정 의장의 이런 생각에 정치인 정순평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읽게 된다.

정 의장은 "임기가 짧고 회기도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충남도의회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제8대 도의회에서 제9대 도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충남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공백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현안 등이 대기중이어서 조금도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장은 "특히 8대 도의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9대 도의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의정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어조에 힘을 주었다.

정의장의 이런 구상은 평소 스타일을 들여다 보게 된다. 정 의장은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언행이 같고 막힘이 없는데다 늘 곧은 길을 가려고 한다. 겉보기에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다 뱃속에는 특유의 뚝심까지 지니고 있다. 지역구인 천안에서도 주민들에게 정순평 의장을 물어보면 대개가 비슷한 말들을 꺼낸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그에 대해 성원을 보낸다.

그의 시원시원한 성격과 패기 넘치는 언행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교로 꼬박 3년 4개월을 보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도 대위나 소령이 맡는 본부 중대장을 2년간이나 했다. 대전일보 캐나다 통신원인 이용우씨가 그 당시 함께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다. 이용우씨와는 고려대 동창이기도 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정의장은 대학 시절에 정경대학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다.(중략)

정 의장은 인맥이 매우 넓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는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는

'트고 지내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구천서 전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선후배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과 천안갑지역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후략)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62)은 '전인시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글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국회 5급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2일 신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3개월여의 짧은 임기를 지내야 하지만, 여대 고 어떤 의장보다도 도민들의 기억에 남는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함께 되새겼다고 한다. 정 의장의 이런 생각에서 정치인 정순평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엿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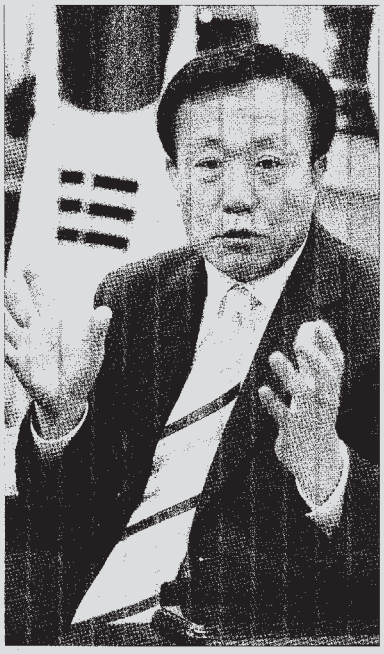
정 의장은 "임기가 짧고 회기도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충남도의회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제8대 도의회에서 제9대 도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충남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공백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현안 등이 대기 중이어서 조금도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8대 도의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9대 도의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의정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여운에 힘을 주었다.

정 의장의 이런 구상은 평소 스타일을 들여다 보게 된다. 정 의장은 섬이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안팎이 같고 막힘이 없는데다 늘 곧은 길을 가려고 한다. 겉보기에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다 뱃속에는 묵유의 뚝심까지 지니고 있다. 지역구인 천안에서도 주민들에게 정순평 의장을 물어보면 대개가 비슷한 반응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그에 대해 성원을 보낸다.

그의 시원시원한 성격과 쾌기 넘치는 언행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교로 꼬박 3년4개월을 보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도 대위나 소령이 많는 본부 중대장을 2년간이나 했다. 대전 일보 캐나다 통신원인 이윤우씨가 그 당시 함께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다. 이윤우씨와는 고려대 동창이기도 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정 의장은 대학 시절에 정경대학생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다.

"20대 후반에 국회의원 5급 보좌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었지요. 10년 정도를 보좌관으로 지내며 여러분의 국회의원을 도왔는데 입법 활동에 특히 주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국회의원을 하실 때 2년 정도 보좌관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도청신도시 조성 등 의정 빈틈없이 추진

세종시 문제 원만한 해결점 찾아야

보좌관제 도입 등 의원 전문성 강화 필요

정 의장은 이후 36세에 충남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내리 2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정 경험을 쌓았다. 그는 평소 스타일이 그렇듯이 '대통'이 없다. 도의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섭게 일을 했고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10년의 보좌관 생활은 큰 힘이 됐다. 그도 정치적 휴식기가 있었다. 제7대 도의회 선거 때는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도의원직을 사퇴했지만 공천이 안되면서 4년의 시간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다.

"비록 시장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의원직을 사퇴한 탓에 도의원도 한 수 없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정순평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 실정에 대해서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 또 다른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도 하지만 정 의장은 4선 도의원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다. 도로 개선과 수해 시설 복구 등 지역구에 크고 작은 현안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의원으로서 더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의원 이외의 또 다른 정치적 포부는 없을까? 지난 2008년에는 총선 출마를 고민한 적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천안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도 생각한 적이 있지만 당분간은 도의원의 역할에 충실한 생각입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도 그는 다양한 구상을 품고 있다. "빛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충남도의 주장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장은 세종시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는 큰 문제"라고 한숨을 쉰 뒤 "이제는 옳은 또는 수정안으로 결정되면 서로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들간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하루 빨리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선 세종시에 대한 충청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 왔다"며 "세종시 본체는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충남도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청신도시 조성사업과 2010세계대백제전과 2010대충청 방문의 해 개최, 국방대 이전 등 산적한 현안이 있고 도 집행부에서는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이 '1인3역'을 하고 있다"며 "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 권한대행을 적극 돕고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인맥이 매우 넓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는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는 '트고 지내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구천서 전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선후배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과 천안갑지역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요즘 새로운 의회상의 구현에 천착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발휘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도는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도의원을 위한 도의회가 아닌 도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 의장은 이어 제9대 도의회 위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철학을 밝혔다. "제9대 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되는 것인 만큼 교육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진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기자 yong6213@ulsanilbo.com

정 의장은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은 1958년 천안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병대 중위로 만기 전역했으며 청남 국회의원 보좌관,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충남도의회 제5·6·8대 3선 의원으로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제8대 의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17일자 16면『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와 관련하여 김제시의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개최 소식 등을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평가와 분석 통해 '시민과의 약속' 점검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 · 추진 중 13개 · 장기검토 1개 등 98.06% 이행

김제시는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송해안 교수)과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정세훈 조합장),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와 점검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결과 전체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 정상추진 중인 사업 13개, 장기검토사업 1개 등 지금까지 98.06%를 이행했다며 민선4기 4년 동안 일궈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사항은 지난 2월 말 민선4기 4년 즈음에 '시민과의 약속'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 점검해 평가한 것으로 임기내 완료공약과 계속 추진중인 공약으로 구분해 완료, 정상추진, 부진, 불이행 등으로 평가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김제시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 5대 분야 15개 사업 40개 세부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히 다져 왔다.

보고회에 참석한 공약이행평가 위원들은 40개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 온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도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제자유무역지역,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향후 10년 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김제시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을 위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의 시정을 운영하는 점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농업분야에서는 지평선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농업의 구조를 바꾼 녹색·백색혁명 추진,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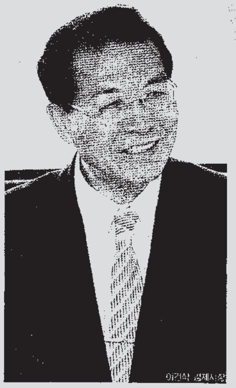
이건식 시장은 "이번 보고회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고 "앞으로 공약은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과 지역 사회·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후략)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평가와 분석 통해 '시민과의 약속' 점검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추진 중 13개·장기검토 1개 등 98.06% 이행


이건식 김제시장

김제시는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송혜안 교수)과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정세훈 조합장),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와 점검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결과 전체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 정상추진 중인 사업 13개, 장기검토사업 1개 등 지금까지 98.06%를 이행했다며 민선4기 4년 동안 일궈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사항은 지난 2월 말 민선4기 4년에 즈음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 점검해 평가한 것으로 임기내 완료공약과 계속 추진 중인 공약으로 구분해 완료, 정상추진, 부진, 미이행 등으로 평가됐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김제시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 5대 분야 15개 사업 40개 세부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히 다져 왔다.

보고회에 참석한 공약이행평가 위원들은 40개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실천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 온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제자유무역지역,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향후 10년 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김제시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을 위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의 시정을 운영하는 점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농업분야에서는 지평선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농업의 구조를 바꾼 녹색·백색혁명 추진,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서는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운영과 기금 조성, 지평선학당 운영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김제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확신했으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은 타 지자체에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우수 이행사례로 뽑기도 했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보고회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고 "앞으로 공약은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과 지역 사회·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일반행정·교육

김제시는 공직자 역량강화, 각계각층 시정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 적극적으로 부닺치고 찾아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90년대 이후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져 밖으로 향한 인구, 경제, 문화의 화살표를 김제로 돌려놔야 한다는 분위기 고조, 믿고 자녀를 김제지역내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키 위해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운영, 지평선학당 운영 등 과감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중학교 상위권 10%이내 학생들의 지역내 고교 진학 학생수가 2008년 21명에서 금년은 25명으로, 지평선학당 3학년 입시생 40명 전원(수도권 명문대 10명, 지방대 3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산)업·경제

시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평선'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통합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연합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논에서 벼농사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 전 지역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고 경관조성과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백색혁명 추진, 총체보리한우산업 육성 등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FTA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중심에서 첨단산업도시로의 토대를 마련, KDI용역결과 25,000개 일자리, 4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최우선 수혜지역을 위한 활동으로 새만금지구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노력 등 '새만금 김제몫'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경계 합리적 설정에 관한 용역,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구성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김제 미래 성장능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복지·도시환경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을 총 95개소 조성, 독거노인 2,500여세대에 무선외출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IT와 접목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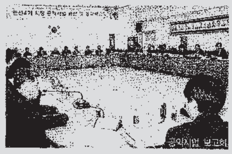
또 시는 물과 숲이 부족한 김제지역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하고자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평형교차로 내부공간에 분수시설, 조형물 설치, 야간조명 등 운전 중, 도보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부권 웰빙 농촌모델 도시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도시민 유입 등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

김제시는 벽골제 복원 및 주변정비를 통해 원시농업부터 첨단농업까지 한 망라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글로벌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를 통해 벽골제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쉼터와 시민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체육공원내 수원지 주변을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가족형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체육(레포츠)공원 확대 등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대회, 동계훈련 유치 등 시민 및 관광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규곤기자/gcreco@hanmail.net


공약사업 보고회

지평선학당 개관

의 결 번 호	2010지선10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17일자 3면 『제16대 전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제16대 전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오근량 25% 〉박규선 13.8%
김승환 7.7% 〉고영호 6.6%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박규선 예비후보가 13.8%로 뒤를 이었으며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승환 예비후보가 7.7%, 고영호 예비후보와 신국중 예비후보가 각각 6.6%와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무려 41%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향후 선거 공방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 후보는 "지속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박규선 예비후보가 13.8%로 뒤를 이었으며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승환 예비후보가 7.7%, 고영호 예비후보와 신국중

오근량 25% > 박규선 13.8%
김승환 7.7% > 고영호 6.6%

예비후보가 각각 6.6%와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무려 41%가 '잘모르겠다'고 대답해 향후 선거 공방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 후보는 "지속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례기자/cdl0069@hanmail.net

◉… 제16대 전북교육감선거공약

◇고영호 후보, 전문성 향상 위한 교원평가제 조속 시행

고영호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는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가 조속히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실력과 의욕있는 다수의 교사들은 평가제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근량 고영호 박규선 신국중

이어 고 후보는 "이미 대학에서는 교수평가제가 자리를 잡아 노력하지 않는 교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려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평가제가 초·중·고에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권교육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고 후보는 "자사고가 만들어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고통은 배가 될 것이 뻔하다"면서 "자사고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규선 후보, 화장실 개선작업 대대적 추진

박규선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학교 화장실의 대대적 개선을 선언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초등생은 물론 중·고교생들까지 학교 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가칭)'을 통해 학교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전체를 도시권과 농산어촌 지역권을 구분한 다음 각 지역을 몇 개의 광역으로 묶어 청소용역업체들에게 이를 배정하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비누, 세제, 청소용품 등 소모품의 공급도 적시에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청소용역업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후보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화장실 개선 사업에 총 15억~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기존 청소용역 사업비 일부와 신규 예산증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국중 후보, 교육감선거 이념·정치화(?) 자질론 문제제기

신국중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승환 예비후보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이념·정치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난했다.
신 후보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북교육 일꾼혁신'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성향 구호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1등, 서울, 영어로 대변된 3가지 괴질 언급이나 현실교육의 지옥 같은 경쟁체제를 거론하며 이를 뒤집어야만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식의 사고는 전북도 유·초·중등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교육수장 교육감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최두례기자/cdl0069@hanmail.net

의 결 번 호	2010지선103(자심)
언 론 사	(주)월요문화사 서울 노원구 공릉3동 312-3 정호빌딩 3층 대표이사 차 원 기
심의대상기사	월요신문 2010년 3월 21일자 7면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초반 대구, 경북 현직 우세

(전략)여권 내 셈법이 복잡한 만큼 대구, 경북지역의 지방선거 열기는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행 박 전 대표의 아성인 대구의 경우, 공교롭게도 친이명박계 성향으로 분류된 김범일 시장이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려 출마가 예고된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박 전 대표의 진지 한복판에 적장(?)이 진을 친 격이다. 친박계의 파상적인 공성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 측, 다시 말해 친박계의 공세도 예고된 상황이다. 선봉엔 대구 북구 출신의 서상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이 출마할 경우, 양측은 지난 선거에 이어 재차 격돌하게 된다.

현재로서 여론은 현직에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체 응답자 중 39.9%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서 의원은 4.7%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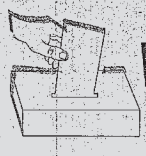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향후 경선 등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당내, 양대 계파가 자존심을 걸고 맞설 경우,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성전, 공선전 접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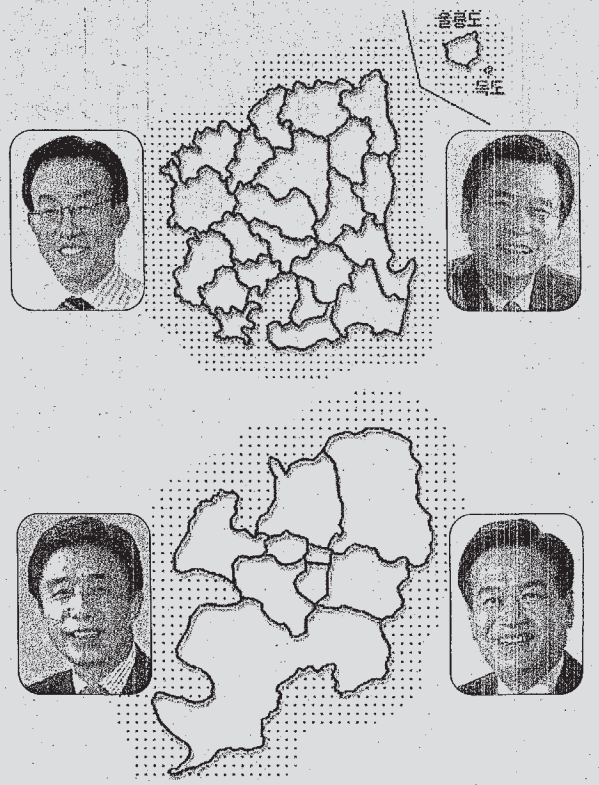
반면, 대구와 달리 경북은 박 전 대표의 아성답게 친박계로 분류된 김관용 지사가 버티고 있다. 김 지사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40.1%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 그룹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바 있다.

이에 반해 친이계로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앞세워 경북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11.7%를 기록해, 현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친이측에선 권오을 전 의원의 출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6.2 격돌 ⑥ 대구, 경북



격돌의 서막이 올랐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되는 등 타 후보에 비해 일찌감치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사를 고심해온 일부 후보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이로써 올해, 최대 정치 이슈인 6.2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6월 지방선거는 올해로 출범 3년 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과 아울러, 정치권으로서도 향후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 광역시도 단체장의 경우, 중앙 정가의 힘 겨루기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에게조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당별, 정파별 전략을 지역별로 나눠 살펴본다. 대구, 경북지역을 조명한다.

호남권이 민주당 등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이라면, 영남권은 한나라당의 안방이다. 더욱 이른바 'TK'로 불리며, 오랜 기간 정치권의 주류를 이뤄온 대구, 경북은 사실상 여권의 본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에 이견을 달리하는 이는 없다.

초반 대구, 경북 현직 우세

그러나, 6월 선거를 앞둔 여권은 이전에 비해 꽤나 긴장하는 눈치다. 대구, 경북지역이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이라고 해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나뉜 당내 사정에 비춰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당내 비주류로 내려앉아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양 지역은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다. 두터운 보수층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타지역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역시, 대구 달성군이다. 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인 셈이다. 현재로서 이 지역의 맹주는 단연, 박 전 대표다.

반면, 여권의 핵심이 친이계라는 점은 이번 선거가 경선부터 난타전으로 얼룩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이 측이 박 전 대표 측의 기세를 꺾고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승리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역 정가의 직간접적인 정황에 근거해 이번 선거의 성패는 작게는 계파대전의 대리전으로, 크게는 정국 주도권과 나아가 차기 대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셈법이 복잡한 만큼 대구, 경북지역의 지방선거 열기는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행 박 전 대표의 아성인 대구의 경우, 공교롭게도 친이명박계 성향으로 분류된 김범일 시장이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려 출마가 예고된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박 전 대표의 진지 한복판에 직장(?)이 진을 친 격이다. 친박계의 파상적인 공성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 측, 다시 말해 친박계의 공세도 예고된 상황이다. 선봉엔 대구 북구 출신의 서상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이 출마할 경우, 양측은 지난 선거에 이어 재차 격돌하게 된다.

현재로서 여론은 현직에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체 응답자 중 39.9%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서 의원은 4.7%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향후 경선 등 후보 선출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당내, 양대 계파가 자존심을 걸고 맞설 경우,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계파 대리전', 친이-친박 텃밭서 일대 결전 예고
사실상 박근혜 아성, 이심 앞세워 친이도 도전장

수성전, 공성전 접전 예고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로선 안정적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본진'이 있는 대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 열기는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구와 함께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대구와 달리 경북은 박 전 대표의 아성답게 친박계로 분류된 김관용 지사가 버티고 있다. 김 지사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40.1%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 그룹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바 있다. 이에 반해 친이계도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앞세워 경북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11.7%를 기록해, 현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친이측에선 권오을 전 의원의 출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북이 박 전 대표의 아성인 만큼, 친이 측의 도전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차기 권력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선 주류 측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최근 정국에 논란을 던지며 구설수에 오른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소위 'TK 폄하' 발언도 따지고 보면,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 환기라는 시각이다. 텃밭에 큰불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창수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2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인천신문 인천 연수구 청학동 496-1 대표이사 이 광 림
심의대상기사	인천신문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는 취지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항상 연말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한해를 마무리 짓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선택된 글자에 한해의 모든 상황을 함축하는 대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연말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간점검하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 싶어 찾아보니 '보이콧'이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보이콧은 정치적 단체나 시민, 소비주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거부하는 자발적 사회 행동이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진행되어 인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민간부문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동안 안상수시장과 시민사회 진영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일촉즉발의 긴장관계가 지구의 날 행사로 표출된 것이다. 예년의 지구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관련 행사에 인천시가 장소, 예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주요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 검단-장수 민자도로 등 환경문제로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의 표시로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의 참여를 배제시킨 대표적 환경 보이콧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번 결정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선례와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 소모적 장기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하루속히 양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치 않은 안 시장이 당일 '인천 S자 녹지축' 조성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녹지축 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 휴식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전향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 주도로 의미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자격에 관한 시민사회 진영의 거부감이다.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계양구는 계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문제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투쟁역량이 집결된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송영길 의원의 야권단일후보로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송 의원은 한번도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며,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환경단체들의 성명발표에 이어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 ·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철학을 밝히라는 질책성 공개표명이 이루어졌다.

환경철학에서 안상수시장과 다를 게 없고 도덕성에서는 뒤떨어지는 송영길 의원이 야권단일 후보만 된다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송영길 의원이 재벌기업에서 돈을 받아 벌금내고, 민주화성지 광주에서 5 · 18전야제에 참석해 접대여성을 동석해 술자리를 벌여 빈축을 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보이콧에서 민주당 보이콧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외길이다. 시민사회는 좋은 환경 후보를 원하는 것이지 유명한 민주당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환경칼럼

이장수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항상 연말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한해를 마무리 짓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선택된 글자에 한해의 모든 상황을 함축하는 데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연말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간점검하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 싶어 찾아보니 '보이콧'이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보이콧은 정치적 단체나 시민, 소비주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거부하는 자발적 사회행동이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진행되어 인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민간부문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동안 안상수시장과 시민사회 진영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일촉즉발의 긴장관계가 지구의 날 행사로 표출된 것이다. 예년의 지구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관련 행사에 인천시가 장소, 예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주요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 검단-장수 민자도로 등 환경문제로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의 표시로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의 참여를 배제시킨 대표적 환경 보이콧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번 결정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선례와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긴장한 긴장관계를 넘어 소모적 정기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하루속히 양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치 않은 안 시장이 당일 '인천 S자 녹지축' 조성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녹지축 연결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 휴식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전향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 주도로 의미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자격에 관한 시민사회 진영의 거부감이다.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계양구는 계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문제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투쟁역량이 집결된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송영길 의원의 야권단일후보로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송 의원은 한번도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며,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환경단체들의 성명발표에 이어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철학을 밝히라는 질책성 공개표명이 이루어졌다.

환경철학에서 안상수시장과 다를 게 없고 도덕성에서는 뒤떨어지는 송영길 의원이 야권단일 후보만 된다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송영길 의원이 재벌기업에서 돈을 받아 벌금내고, 민주화성지 광주에서 5·18전야제에 참석해 접대여성을 동석해 술자리를 벌여 빈축을 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보이콧에서 민주당 보이콧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외길이다. 시민사회는 좋은 환경 후보를 원하는 것이지 유명한 민주당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5(자심)
언 론 사	(주)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변 용 식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0년 4월 22일자 E3면 『"자녀와 찾으면 유익한 과학도시"-박성효 대전시장』 및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정우택 충북도지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2010 충청방문의 해'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장, 충청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현 단체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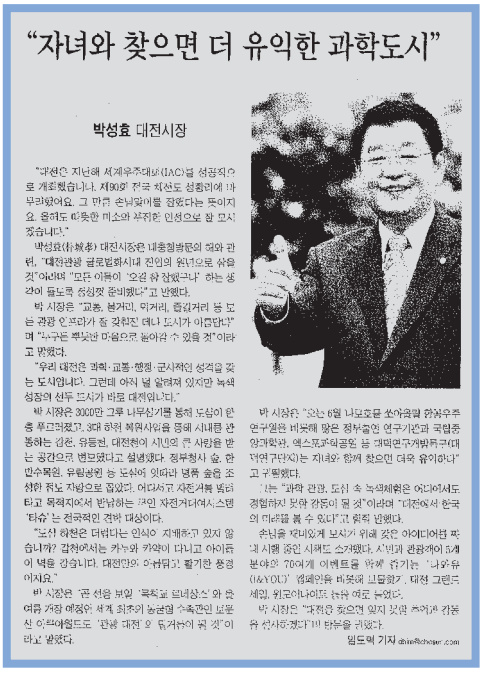
보도내용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은 지난해 세계우주대회(IA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90회 전국 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손님맞이를 잘했다는 뜻이지요. 올해도 따뜻한 미소와 푸짐한 인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박성효(朴誠孝) 대전시장은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 "대전관광 글로벌화시대 진입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오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후략)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은 지난해 세계우주대회(IA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90회 전국 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그 만큼 손님맞이를 잘했다는 뜻이지요. 올해도 따뜻한 미소와 푸짐한 인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박성효(朴誠孝) 대전시장은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 "대전관광 글로벌화시대 진입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오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통, 물류, 의료, 첨단과학 등 도시 경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나 도시가 아닙니다"며 "시구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전은 과학·교통·행정·군사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널 알려져 있지만 녹색성장의 선두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박 시장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심이 한층 푸르러졌고, 3대 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내를 관통하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시민의 큰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 숲, 한밭수목원, 무림공원 등 도심이 잇따라 녹음 숲을 조성한 점도 자랑으로 꼽았다.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공인 자전거대여시스템 '타슈'는 전국적인 견학 대상이다.

"도심 하천은 더럽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천에서는 카누와 카약이 다니고 아이들이 텃 물을 즐깁니다. 대전만의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박 시장은 "곧 선을 보일 '목척교 문화광장'과 한여름 가장 매력적인 세계 최초의 농촌형 수족관인 보문산 아쿠아리움도도 '관광 대전'을 더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는 6월 나로호를 쏘아올릴 한국우주연구원을 비롯해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과학연구개발특구(대덕연구단지)는 지내와 함께 찾으면 더욱 유익하다"고 구릴했다.

"는 "과학 관광, 도심 속 녹색체험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감동이 될 것"이라며 "대전에서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힘주 말했다.

손님을 맞이하게 보시기 위해 젊은 아이디어를 짜내 시행 중인 시책도 소개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5개 분야의 70여개 이벤트를 함께 즐기는 '나와유(I&YOU)' 캠페인을 비롯해 스물한가 대전 그린트 세일, 외국어나이트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대전을 찾으면 있지 못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겠다"며 답변을 귀했다.

범도여 기자 dhie@chosun.com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짬을 내서 찾아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정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우택(鄭宇澤) 충북지사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략)

곧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정 지사는 "올해는 손님맞이에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국력을 한층 신장시키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짬을 내서 찾아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정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우택(鄭宇澤) 충북지사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륙의 숨은 보석, 청정 충북'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100대 사업을 선정,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한의학 관련 대규모 축제행사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관광객 흡인력이 높은 축제행사도 성공리에 준비하고 있다.

정 지사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의 지원봉사단을 운영하고 관광안내도 정비, 관광종사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충북의 대표 맛집과 멋스러운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통합 홈페이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지사는 "충북은 소백산·월악산·속리산 등 3개 국립공원과 충주호·대청호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데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선비의 고장"이라며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새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면 충북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지사는 "도민들이 손님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충청도 특유의 온화함과 친절, 미소로 고달픈 일상에 지친 여러분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특별도(道)' 건설을 강조해온 정 지사는 "경제 못지않게 문화예술이나 관광산업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선진도' 건설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충북이 문화선진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기치와 비전을 담은 문화관광을 제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문화예술포럼을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곧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정 지사는 "올해는 손님맞이에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국력을 한층 신장시키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종 기자 youth@chosun.com

의결번호	2010지선138(자심)
언론사	국민일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조 민 제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2010년 4월 28일자 3면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상남도 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경남과 충남이 6 · 2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격돌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출신끼리 맞붙은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반이명박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국 첫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단일화 전만 해도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엔 여기 말로 '그라모 됐다(그러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장관 캠프는 "이 후보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해춘 전 국민공단이사장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완구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 당의 총력전도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진당 박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사수를 바란다"며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친노 직계인 안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에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와 민주당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간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된다.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경남과 충남이 6·2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격돌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출신끼리 맞붙은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반이명박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국 첫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단일화 전만 해도 '되겠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엔 여기말로 '그라모 됐다(그러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장관 캠프는 "이 후보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해춘 전 국민생단이사장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완구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 당의 총력전도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진당 박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사수를 바란다"며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친노 직계인 안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에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와 민주당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간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39(자심)
언 론 사	(주)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0년 4월 28일자 A8면 『6 · 2 지방선거 D-35…판세 가를 輿 3大 변수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충청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 여론조사 착시현상 있나?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당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때 숨어 있던 야당 표가 선거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6%포인트 정도 앞서는 데 그쳐 '빨간불'이 켜졌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막판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량 뒤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9.8%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 선거에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바람'이 없기 때문에 숨은 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까지 5%포인트 이상만 앞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북지사 선거도 관건

한나라당에 충청권은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충남에선 지지율이 높은 이완구 전 지사 대신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천해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가까스로 이 전 지사가 불출마하고 박 전 이사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보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수정 문제로 충청권 표심이 들끓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충북지사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앞서고 있으나 충북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한 데다 '개발 소외론'도 잠복해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정 지사의 도정 지지율이 높아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충북 청주흥덕을)은 "여론조사의 여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다면 이미 판세는 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후략)

6·2 지방선거 D-35… 판세 가를 與 3大 변수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1 수도권 광역長 야당에 앞서지만 투표때 숨은 야당표 나올지 촉각

2 세종시 논란에 들끓는 충청표심 與, 정우택 충북지사 선전 기대

3 광역과 달리 대부분 민주에 밀려 당내 비판론속 일부 긍정 전망도

6·2지방선거가 28일로 3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부 결속에 치중하고 있어 아직까지 판세를 뒤흔들 큰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데 따른 '착시(錯視) 현상' 논란 등이 전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여론조사 착시현상 있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야당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때 숨어 있던 야당 표가 선거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6%포인트 정도 앞서는 데 그쳐 '빨간불'이 켜졌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막판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량 뒤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9.8%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 선거에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바람'이 없기 때문에 숨은 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까지 5%포인트 이상만 앞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북지사 선거도 관건

한나라당에 충청권은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충남에선 지지율이 높은 이완구 전 지사 대신 박해춘 전 국민권익위원회 이사장을 공천해 심리를 요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가까스로 이 전 지사가 불출마하고 박 전 이사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보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수정 문제로 충청권 표심이 들끓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충북지사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앞서고 있으나 충북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한 데다 '개발 쇼와 론'도 심복해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정 지사의 도정 지지율이 높아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충북 청주흥덕을)은 "여론조사의 여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다란 이미 판세는 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 여,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참패?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는 강남(강남구 서초구) 빼고 다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경기의 여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대부분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0곳 정도만 이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상승세를 탄다면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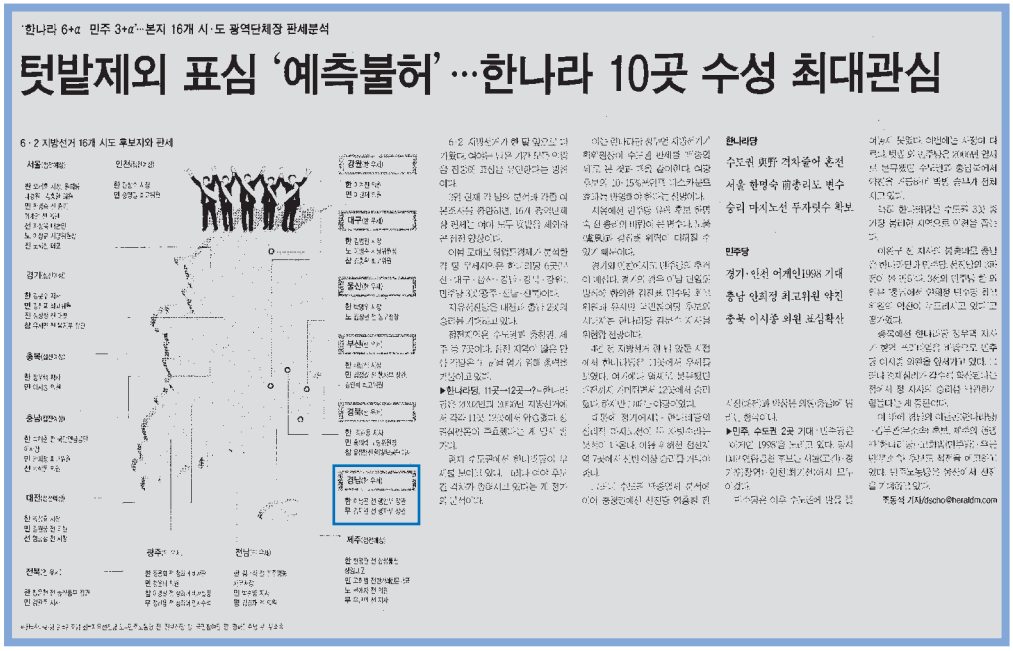
밤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144(자심)
언 론 사	(주)헤럴드미디어 서울 중구 정동 1-17 대표이사 박 행 환
심의대상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5월 3일자 5면 『텃밭 제외 표심 '예측불허'…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각 정당별 판세를 분석하였고, 일부 도표(경남도지사)는 기사내용과 달리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전략)이 밖에 경남의 이달곤(한나라당) · 김두관(무소속) 후보, 제주의 현명관(한나라당) · 고희범(민주당) · 우근민(무소속) 후보도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후략)


'한나라 6+α 민주 3+α'…본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판세분석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6·2 지방선거 16개 시도 후보자와 판세

한나라당

수도권 與野 격차줄어 혼전

서울 현명숙 前총리도 변수

승리 마지노선 투자릿수 확보

민주당

경기·인천 어게인1998 기대

충남 안희정 최고위원 약진

충북 이시종 외원 표심확산

제주 김인혜 기자/dscho@heraldm.com

의결번호	2010지선184(자심)
언론사	(사)대한청소년육성회(대한투데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6 14동 209호 발행인 우 정 자
심의대상기사	대한투데이 2010년 5월 31일자 4면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자녀가 지원유세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김경희 진천군수 후보 딸 유권자 마음 흔들어

김경회 미래연합 충청북도 진천군수 후보의 차녀 보연양(21)이 29일 오후 덕산장터에서 아버지의 지원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연양은 이날 덕산 유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호소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또 출마했나', '참 자주도 나온다'고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라며 "가족 모두가 반대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다"고 가족들의 얘기를 회상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 단체장의 부족한 군정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진천군민과 함께 울기 위해 군수가 되고 싶어 나간다고 출마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나만 잘 살고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부끄러워했다"며 "인간 김경회는 나와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진천의 아버지였고 진천의 아들이었고 진천의 자식이었으며 진천의 머슴이자 일꾼이었다"고 전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군민들의 고단한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며 "자신의 자식보다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더 진천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강한 모습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고 아버지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면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아닌 진천의 딸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보연양은 "김경회를 찍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생각해 달라"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누가 더 행복하게 해줬는지 생각해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보연양은 "김경회 개인에게 표를 주지 말고 지난 8년간 군수로 있으면서 이룩했던 업적과 능력에 표를 달라"며 "김경회를 찍는 순간 진천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연양은 진천여중과 청주여고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웨인주립대학교 대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를 지원유세하면서 "아버지의 당선을 눈물로 호소하는 딸"로 보도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장식, 청년층의 표심을 흡수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 딸 유권자 마음 흔들어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의 딸 보연양이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며 주민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

김경회 미래연합 충청북도 진천군수 후보의 차녀 보연양(32)이 29일 오후 덕산장터에서 아버지의 지원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연양은 이날 덕산 유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호소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또 출마했나', '참 지주도 나온다'고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라며 "가족 모두가 반대 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다"고 가족들의 얘기를 회상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 단체장의 부족한 공정으로 파폰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진천군민과 함께 옳기 위해 군수가 되고 싶어 나간다고 출마의 지를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나만 잘 살고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부끄러워 했다"며 "인간 김경회는 나와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진천의 아버지였고 진천의 아들이었고 진천의 자식이었으며 진천의 머슴이자 일꾼이었다"고 전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군민들의 고단한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며 "자신의 자식보다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더 진천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강한 모습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고 아버지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면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아닌 진천의 딸로써 창으로 안타깝고 동탄을 남길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보연양은 "김경회를 꺾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생각해 달라"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누가 더 현명하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보연양은 "김경회 개인에게 표를 주지 말고 지난 8년간 군수로 있으면서 이루었던 업적과 능력에 표를 달라"며 "김경회를 찍는 순간 진천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연양은 진천여중과 청주여고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웨인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를 지원유세하면서 "아버지의 당선을 눈물로 호소하는 딸"로 보도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장식, 청년층의 표심을 흡수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4. 권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1(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투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인영빌딩 대표이사 백 석 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투데이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대전시장 유력후보** 박성효, 염홍철
- **충북지사 유력후보** 정우택, 홍재형
- **충남지사 유력후보** 정종환, 안희정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세종시' 최대 이슈, 시계 제로

(전략)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점쳐지는 대전 · 충남도지사 선거는 한마디로 '시계제로' 상태다.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은 저마다 세종시 문제 해결을 최대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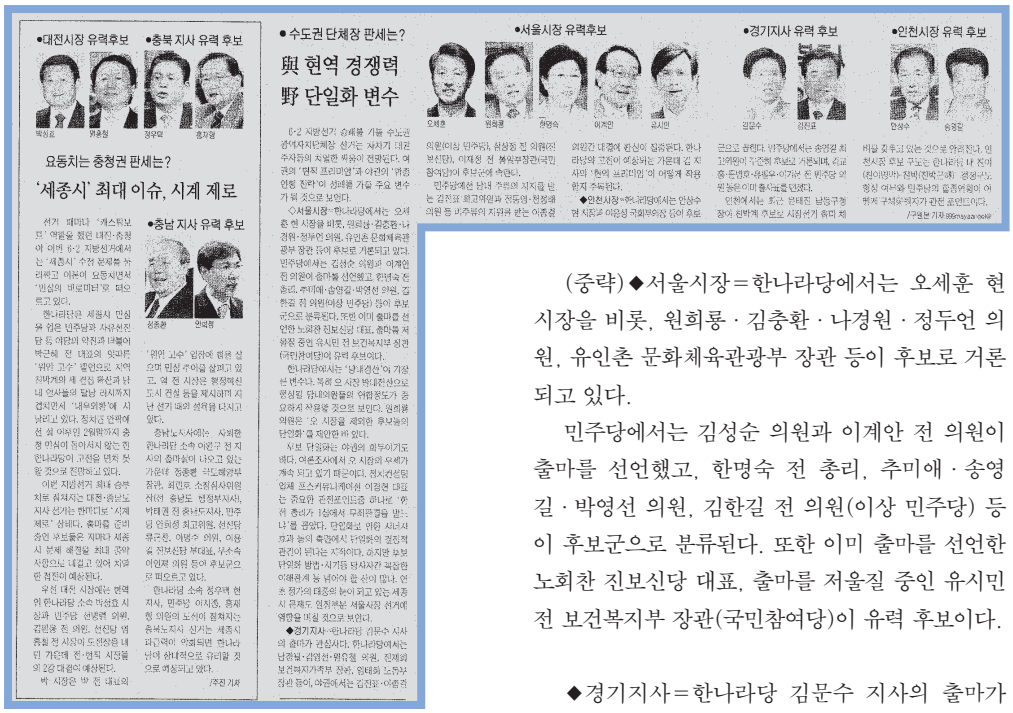
우선 대전 시장에는 현역인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시장과 민주당 선병렬 의원, 김원웅 전 의원, 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전 · 현직 시장들의 2강 대결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박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에 힘을 실으며 민심 추이를 살피고 있고, 염 전 시장은 행정혁신도시 건설 등을 제시하며 지난 선거 때의 설욕을 다지고 있다.

충남도지사에는 사퇴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민호 소청심사위원장(전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선진당 류근찬, 이명수 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현지사, 민주당 이시종, 홍재형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는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파급력이 약화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현지사, 민주당 이시종, 홍재형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는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파급력이 약화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장 유력후보 ●충북 지사 유력 후보

박상효 위훈철 정우택 홍재형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세종시' 최대 이슈, 시계 제로

●충남 지사 유력 후보

성종환 안희정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대전·충청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요동치면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민심을 얻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약진과 더불어 박근혜 전 대표의 맞바람 '뭐야 고수' 발언으로 지역 지역계의 세 결집 움직과 남내 인사들의 탈당 러시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설 이후인 2월말까지 충청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혀지는 대전·충남도지사 선거는 한마디로 '시계 제로' 상태다.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지역마다 세종시 문제 해결을 최대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우선 대전 시장에는 현역인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시장과 민주당 선병렬 의원, 김원웅 전 의원, 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전·현직 시장들의 2강 대결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박 전 대표의 '뭐야 고수' 입장에 힘을 실으며 민심 추이를 살피고 있고, 역 전 시장은 행정혁신도시 건설 등을 제시하며 지난 선거 때의 성적을 다시고 있다.

충남도지사에는 사퇴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민호 소청심사위원장(전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선진당 유근찬, 이병수 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현 지사, 민주당 이시종, 홍재형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는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파급력이 악화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진 기자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與 현역 경쟁력 野 단일화 변수

●서울시장 유력후보 ●경기지사 유력 후보 ●인천시장 유력 후보

오세훈 원희룡 한명숙 이계안 유시민 김문수 김진표 안상수 송영길

6·2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자치기 대권 주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전망된다. 여권의 '현직 프리미엄'과 야권의 '변종인형 전략'이 상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을 비롯, 원희룡·김충환·나경원·정두언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한명숙 전 총리, 추미애·송영길·박영선 의원, 김한길 전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미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이 유력 후보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당내경선'이 가장 큰 변수다. 특히 오 시장 박대한산으로 평상필 당내의원들의 영향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의원은 '오 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의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다.

후보 단일화는 야권의 희두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우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지선진당 임재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훈 대표는 중요한 관전포인트를 하나로 '현직 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느냐'를 꼽았다. 단일화로 인한 서너사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단일화의 결정적 관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방법·시기를 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초 정가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도 일정부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출마가 관심사다. 한나라당에서는 남경필·김영선·원유철 의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야권에서는 김진표·이종걸 의원(이상 민주당), 심상정 전 의원(진보신당),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국민참여당)이 후보군에 속한다.

민주당에선 당내 주류의 지지를 받는 김진표 최고위원과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비주류의 지원을 받는 이종걸 의원간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인천시장=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각종의 후보로 거론되며, 김교흥·문병호·유병우·이기준 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미 출마표를 던졌다.

인천에서는 최근 안태진 남동구청장이 친박계 후보로 시장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시장 후보 구도는 한나라당 나 진여(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경쟁구도 형성 여부와 민주당의 물종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구열본 기자 ggbmayaza.com

●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與 현역 경쟁력
野 단일화 변수

● 서울시장 유력후보 오세훈, 원희룡, 한명숙, 이계안, 유시민

● 경기지사 유력후보 김문수, 김진표

● 인천시장 유력후보 안상수, 송영길

(중략)◆서울시장=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을 비롯, 원희룡·김충환·나경원·정두언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한명숙 전 총리, 추미애·송영길·박영선 의원, 김한길 전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미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이 유력 후보이다.

◆경기지사=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출마가 관심사다. 한나라당에서는 남경필·김영선·원유철 의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야권에서는 김진표·이종걸 의원(이상 민주당), 심상정 전 의원(진보신당),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국민참여당)이 후보군에 속한다.

민주당에선 당내 주류의 지지를 받는 김진표 최고위원과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비주류의 지원을 받는 이종걸 의원 간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3(자심)
언 론 사	(주)씨비에스노컷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방송회관 18층 대표이사 이 재 포
심의대상기사	데일리노컷뉴스 2010년 2월 4일자 10면 『첨단 · 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정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첨단 · 친환경…
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것

인터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국제도시로 우뚝 선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 그가 계획한 '인천발전'의 모델은 '성장'과 '환경'이다. 최근들어 인천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 청라지구 등이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해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인천대교의 개통도 전국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2009년 여름부터 80일 동안 치러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은 현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건설을 준비 중이고 연세대학교 등 국내 유수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의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돼, 이때쯤이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진두지휘하는 이가 바로 안 시장이다. 그는 8년 전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인천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개발과 함께 인천대교 건설,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자율형사립과 자율형공립고 건설과 대학캠퍼스 유치,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도 이뤄냈다.(중략)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얼마 전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그는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8년 동안 이룩해놓은 성과물이 시민들에게 좋게 평가 받고 있어, 안 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중략)

실제로 통계수치를 보면 그동안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2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전체 건설공사량 가운데 15%가 인천에서 발주됐고,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의 특수로 인해 인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안 시장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대해 "선거라는 것이 개표

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선거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겸허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중략)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를 모아 놓은 인천이 고전을 지키면서 첨단과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며 활기찬 국제도시 '미래비전이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안 시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후략)

첨단·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것

인터뷰/ **안 상 수** 인천광역시장

국제도시로 우뚝 선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 그가 계획한 '인천발전'의 모델은 '성장'과 '환경'이다. 최근들어 인천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송도국제도시, 영종도·청라지구 등이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해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인천대교의 개통도 전국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2009년 여름부터 80일 동안 치러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은 현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건설을 준비 중이고 연세대학교 등 국내 유수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의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돼, 이때쯤이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진두지휘하는 이가 바로 안 시장이다. 그는 8년 전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인천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개발과 함께 인천대교 건설,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자율형사·공립고 건설과 대학캠퍼스 유치,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도 이뤄냈다.

송도국제도시·청라 국제물류 단지 등 '눈부신 성장'

쓰레기통·전신주 없는 녹색공존…"국제도시 거듭날 것"

안 시장은 "인천은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우리인천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고 자신 있는 어투로 인천의 미래상을 전했다. 그가 말하는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는 모든 게 갖춰진 최첨단 도시에서의 친환경적인 생활이다.

'컴팩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안 시장은 "컴팩트시티는 모든 시설이 30분거리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바로 송도지구, 청라지구가 주거, 비즈니스, 레저, 교육, 의료, 쇼핑,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30분 거리안에 다 갖춰져 있다"면서 "스마트 그리드는 친환경으로서 모든 제어시설을 갖춘 도시다. 우리 도시를 보면 쓰레기를 다시 열로 전환해 재사용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은 첨단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쓰레기통과 전신주가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도시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쓰레기, 오폐수를 버리면 이는 지하의 특정장소에 모여 열로 재처리돼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런 시스템은 인천이 세계 최초"이며 "또 전봇대를 없애고 모든 전선을 땅으로 매설해 각 시설에 접속하게 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인천을 캐나다 밴쿠버보다 더 좋은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을 피력했다.

도시계획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천의 발전모델로 자주 제시됐던 도시가 바로 밴쿠버다. 해안도시라는 특성 등 인천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도시들 가운데 살기 좋은 도시 1, 2위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밴쿠버와 관련해 안 시장은 "인천은 밴쿠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한 곳이다"며 "세계 유수 도시들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도시, 인천은 밴쿠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의 밴쿠버'가 아닌 '캐나다의 인천'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가 그리는 인천의 미래상 가운데 하나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마 전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그는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8년 동안 이룩해놓은 성과물이 시민들에게 좋게 평가 받고 있어, 안 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안 시장은 "그 동안 나는 인천시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났다"며 "성과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칫 논리의 싸움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성과물을 가지고 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비롯, 기업유치 등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내가 이런 발판을 마련했으니 마무리도 내가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면 호응해 줄 것이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통계수치를 보면 그 동안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2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전체 건설공사량 가운데 15%가 인천에서 발주됐고,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의 특수로 인해 인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안 시장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대해 "선거라는 것이 개표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선거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겸허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진 도시다.

인천 내동에 있는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이고, 송학동에 위치한 자유공원은 국내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또 국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자장면 역시 인천이 원조이며, 선린동과 북성동에 걸쳐 있는 차이나타운도 인천에 처음 들어섰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를 모아 놓은 인천이 고전을 지키면서 첨단과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며 '활기찬 국제도시' '미래비전이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안 시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인천/김정욱기자 jkim1999@cbs.co.kr

안상수 인천시장이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박철중기자 cjpark@nocutnews.co.kr

인천시민들에 새해인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인천대교의 개통이 있었고 이와 함께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도 가졌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저명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해 인천을 평가해줬고, 인천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면 이제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일자리 또 그곳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와 시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분야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얼마 전 6개의 자율형사립고교, 8개의 자율형공립고교를 5년 이내에 모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연세대학교도 (인천에)부분개교 되고 국제학교도 문을 열며 9월에는 외국의 유수대학들도 개교합니다. 이제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이 더 부각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재생사업과 재건축사업에 있어 불편한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모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서 정말 국제적인 도시,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도시 '인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 올림

의 결 번 호	2010지선8(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 5일자 15면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북도 도지사) 후보 예정자인 현 도지사의 활동성과 및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경제특별도' 충북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부문만큼은 전국 시·도 가운데 수부(首府) 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충북도의 의욕은 먼 얘기가 아니다. 투자유치 등 경제지표와 국책사업 지정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충북도가 유치한 투자실적은 총 170개 기업에 21조 7602억원. 전국 최고의 투자 유치 규모다. 3년 동안 매달 4.7개 기업, 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계산이다. 유치기업의 절반 가까운 81개 업체는 공장을 이미 준공했거나 현재 짓고 있어 '실속'도 챙겼다. 여기에 지난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확정 등으로 충북은 어느 때보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과의 원동력은 정우택 충북지사의 섬세하면서도 '강단'있는 경영마인드에서 비롯된다. 정 지사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투자유치 비결과 굵직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업인 우대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모두 519개 업체가 참여하는 '투트랙(Two-Trac)' 방식의 노사평화선인대회를 여는 등 자발적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큰 힘이 됐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등으로 기업유치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청주공항 활성화로 연구기관과 병원 등도 입주를 유도하겠다.(중략)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부의 사회적 환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민선 4기 지

사 취임 이후 이웃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남모르게 시작한 일이지만 뜻하지 않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더불어 함께'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매달 500만원씩, 지난해 말까지 총 1억 9500만원을 후원했다. 적십자회비도 지난 2007년 2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600만원을 기부했다. 복지투어는 소외계층위로격려, 체험 및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 19개 시설을 돌면서 체험봉사활동을 했다.(후략)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경제특별도' 충북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부문만큼은 전국 시·도 가운데 수부(首府) 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충북도의 의욕은 먼 얘기가 아니다. 투자유치 등 경제지표와 국책사업 지정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충북도가 유치한 투자실적은 총 170개 기업에 21조7062억원. 전국 최고의 투자 유치 규모다. 3년 동안 매달 4.7개 기업, 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계산이다. 유치기업의 절반 가까운 81개 업체는 공장을 이미 준공했거나 현재 짓고 있어 '실속'도 챙겼다. 여기에 지난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확정 등으로 충북은 어느 때보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과의 원동력은 정우택 충북지사의 섬세하면서도 '강단'있는 경영마인드에서 비롯된다. 정 지사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투자유치 비결과 굵직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이두영 사회부장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국제선 재운항

청주-청원 통합, 시·군민 자율 맡겨야

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당연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종시 수정 등으로 기업유치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시군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활로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의료·헬스·교육 특화 '亞 최고 의료관광단지'

의 결 번 호	2010지선10(자심)
언 론 사	(주)기호일보 인천 숭의동 343-1 정산빌딩 9층 대표이사 서 강 훈
심의대상기사	기호일보 2010년 2월 1일자 20면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2010년 2월 4일자 3면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원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와 특정 사업의 추진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관련 조감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출판기념회 소식을 행사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오는 2011년까지 수원천 매교~지동교 789m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수도 정비 및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등 수원천의 전 구간을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 김용서 수원시장 / 인터뷰

"수원천 복원땐 연 가치 205억 원"

〈市 전체 가구 적용〉

- 수원천 복원사업의 목표는?

▶ 수원천 복개구간의 복원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해요소를 제거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성 회복, 자연환경 녹지축의 재활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또 수원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한다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수원 '화성'과 연계된 광장 및 보행환경을 조성해 화성의 관광루트를 연장, 관광자원 요소를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와 접촉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볼거리 · 즐길거리 · 먹을거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심공간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웰빙공간으로 문화 · 관광 · 쇼핑의 연대도 실시,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동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중략)

- 수원천 복원과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안은?

▶ 화성 복원과 연계해 옛날 시장을 연상시키는 재래시장으로 특성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화성관광열차의 노선을 시장까지 연결하고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과 장보러 오는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과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축제를 개최하고 복원사업구간의 인근 주차장 이용 안내와 유도 안내원 배치 등 자가용을 이용해 수원천을 찾거나 연계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로드맨’ 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김용서 시장 출판기념회 “향후 60년 준비하기 위한 것”

김용서 수원시장은 3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에서 ‘로드맨의 꿈-수원이 품은 200년의 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임청열 전 경기지사와 남경필 · 정미경 국회의원, 홍기헌 시의회 의장 및 한규택 도의원 등 시 · 도의원,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최극열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진춘 전 도교육감, 한창원 본보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시민 등 5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수원천 복원땐 연 가치 205억 원”

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나의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시의회 시절 시축구협회장을 겸하면서 월드컵 개최도시 유치와 삼성블루윙즈가 수원을 연고로 삼자 축구에 푹 빠진 ‘사커맨’ 으로, 민선시장 시절에는 도시브랜드 해피수원을 만든 ‘해피맨’ 으로, 고질적인 수원의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니 이제는 ‘로드맨’ 으로 통용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원시도 벌써 환갑을 넘겼듯이 사람도 환갑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시설계 역시 중요하다”며 “지난해 시 승격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6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후략)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김용서 시장 출판기념회 “향후 60년 준비하기 위한 것”

의 결 번 호	2010지선1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국일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194-1 3층 대표이사 장 영 미
심의대상기사	동국일보 2010년 2월 11일자 3면『녹색의 도시 IT · 명품도시로 비상』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권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미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이 향후 첨단산업기반 구축 등을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 사진 포함 3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녹색의 도시 Yes Gumi
IT · 명품도시로 비상

구미는 우리나라 첨단 IT 산업도시이자 유서 깊은 선비 문화의 본향이다.

또한 자연보호 운동의 발상지, 새마을운동의 중흥지이며, 영남 팔경의 하나인 금오산 아래 낙동강이 도심을 관류하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하다.

구미는 40만 시민의 열정을 모아 꿈과 비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21C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구미시 글로벌 에코 선도도시 방문단을 이끌고 롱비치시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책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세계속의 IT도시, 명품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깃털을 다듬고 있는 남유진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첨단산업기반 구축

구미시는 국가5공단조성, 경제자유구역, 국가1공단 리모델링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해 글로벌 공단으로 일대 혁신을 꾀한다.

오늘 2014년까지 1조8,08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국가5공단 '구미하이테크밸리'는 생산유발 13조8천억 원, 부가가치 2조2천억 원, 고용 12만 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2조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1조2천억 원, 고용 5천명의 효과, 1조9,171억원이 투입되는 국가1공단 리모델링사업은 생산유발 2조6,478억원, 고용유발 21,800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까지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으로 공단과 산업의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0억원을 투입해

구)금오공대 국가공단종합지원시설로 본격 개발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와 함께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FTAP 등 기업지원 인프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종합 시험 · 인증시스템인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 및 표준인증센터'도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전자산업관' 개관과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지원센터' 건립, '디지털사이언스센터' 건립, 첨단 의료기기 산업육성, 다국적

의료기업 연구소 유치,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전자소재산업화기술지원과 700억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1,072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후략)

녹색의 도시 IT · 명품도시로 비상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 글로벌 공단 혁신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의 결 번 호	2010지선21(자심)
언 론 사	(주)스포츠동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21층 대표이사 송 대 근
심의대상기사	스포츠동아 2010년 2월 10일자 14면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양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스포츠도시 건설 관련 사업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인터뷰를 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풍부한 인프라…스포츠 1번지로"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시 하면 늘 언급되는 게 있다. 바로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적의 동계 전지훈련지다.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했고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허정무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2002한일월드컵의 영웅 김남일 김태영 황선홍 등이 거쳐 간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을 스포츠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스포츠동아와 만난 광양 이성웅(68) 시장은 "광양이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최고의 경제 중심지 뿐 아니라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서 발돋움 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시민 체육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중략)- 광양이 스포츠 훈련의 메카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동계훈련에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입니다. 광양(光陽)이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장으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5~6도 이상입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얼음이 얼지 않는 기후를 갖췄습니다.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 경력을 지닌 종목별 우수 팀이 많아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먹거리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시와 체육단체, 종목별 지도자가 중심이 돼 전훈 팀을 유치하고 전폭 지원한 결과입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 동계훈련을 위해 광양을 방문한 인원은 150여개 팀의 선수단, 학부모, 관계자 등 대략 5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58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동계훈련의 메카로서 광양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간접적으로 거뒀고요.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겠습니다."(후략)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이젠 스포츠 마케팅

"풍부한 인프라…스포츠 '본지로'"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시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있다. 바로 동계체육의 본산 최적의 동계훈련지로 소문나 봄부터 여름 일주일을 빼놓으면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한 국가대표급 전국대회 2500만원짜리 빌리 등을 유치할 경우 경제 분야를 중심 수혜자 선정 노력으로 도움을 수주 가치를 만드는 게 이성웅 씨다.

광양을 대표하는 지역 서방보다 공장보유중소 일등제육관, 전원·인조잔디 축구장, 국제수영 경기장 등과 비교 시설이 있다. 이외에도 전국대회 축구장 등 있어 이러 주자 대회는 물론, 전국 수영대회 새육대회 치를 수 있는 확실한 인프라를 갖췄다.

스포츠중이의 한 달 광양 이성웅 이장 시장은 "광양"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국 씩 전국 경기 중심시 뿐 아니라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체육회 시설 제도 일주일 이상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싶다"는 비전을 소개했다.

온화한 기후·체육 인프라·교통망 등 동계훈련 최적의 조건

작년 150여개 팀 5000여명 찾아… 58억원 경제 파급 효과

지역 관광·스포츠 마케팅 연계… 최고 스포츠 도시 부푼 꿈

-광양은 '동계훈련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 사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현지분석 등의 유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풍성한 인프라를 통해 활동에 경제 활동 비용과의 지역 돌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포츠 도시로서 지역을 홍보하자는 의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이 스포츠 훈련의 메카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 여건지금 좋아졌습니다. 먼저 동계훈련의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입니다. 광양지역에는 지형이 한 수 없고 저녁, 저녁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5~6도 이상입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영하의 일지 않는 기후를 자랑합니다". 한 관계자 "겨울 인프라에 설치해서 모든 시에 우승 경력을 지도 종목별 우수 팀이 많아 훈련 선수들 교육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연락 라인 연결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에서 온 유치하는데 주력 목적입니다. 시장 직접 유치, 중도별 시도 우리 유치에 최 종을 힘을 유치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입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여러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순천만 습지가 있고 60여개 기업의 100여개 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 습지는 특별 재난의 많은 관광지와 버스로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해 문제없습니다. 수 개월 전 기간 중에는 숙박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들을 위해 식사를 관련 관광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스포츠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역과 주민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육상과 볼링 등 2개 종목의 전용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운영 4억여원은 약 8억 원 정도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 내 해당 종목의 저변 확대의 심리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링 경기 열린 세계에서 최초로 볼링 경기 실시부 8개 전 종목을 석권하는 데에 성공 최초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시 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서 수준에서, 10개 종목의 시장기 대회의 일정 관리를 지원하고 개최 개최를 지원해 0만원의 동호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잘이 보운 수 있는 레저시설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유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의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최적 모델 우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도시의 특성상 짧은 공이 일주일 수 있는 주말 주말이 되면 등산을 하려 시민들은 많은 분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즐거움 이용하는 레저스포츠 종합기 - 7 의 테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휴양 분야 부수 부분은 자유가 이용하는 관광하고 있습니다. 자연 시간에서, 동광기 종합경기 활동에서 활동 이내, 관광 스키장이 있지, 특별 조가 있다면 관광 중기고, 마라톤도 있다요."

-개인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골프는 분야 중 치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신 등산과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주말이 되면 등산을 하려 시민들은 많은 분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즐거움 이용하는 레저스포츠 종합기 - 7 의 테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휴양 분야 부수 부분은 자유가 이용하는 관광하고 있습니다. 자연 시간에서, 동광기 종합경기 활동에서 활동 이내, 관광 스키장이 있지, 특별 조가 있다면 관광 중기고, 마라톤도 있다요."

이성웅 광양시장은 바쁜 주말에도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광양 이 스포츠중이의 한 달 이 시장은 "앞으로 체육회 시민 체육을 두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싶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3(자심)
언 론 사	(주)포커스신문사(더데일리포커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9-7 솔본빌딩 2~3층 대표이사 이 혜 숙
심의대상기사	더데일리포커스 2010년 2월 23일자 A12면 『"콤팩트 · 스마트 · 그리드가 인천 미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정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콤팩트 · 스마트 · 그리드가 인천 미래"

■ interview 8년째 인천 이끄는 안상수 시장

요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인천시가 첫 손가락에 들겠다.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허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도시 곳곳은 활력이 넘쳐난다.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선진화의 모습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상수 시장은 글로벌적 면모를 갖춘 거시적인 발전과 동시에 내실있는 인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22일 집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Q. 최근 "인천은 '콤팩트 · 스마트 · 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A. 우선 '콤팩트 시티'를 이야기 하자면, 모든 시설이 30~40분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다운타운(도심)과 서버브(교외)가 있는 즉, 중산층이 다운타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서버브에서 가족과 전원풍의 생활을 즐긴다는 식의 도시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스마트와 그리드는 무슨 의미를 담습니까.

A. '스마트 시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곳이며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그린 그리드 시티'는 친환경으로서 모든 제어시설을 갖춘 도시입니다.

Q. 이런 개념이 어떻게 인천에 접목되는 것인지요.

A. 송도지구, 청라지구가 주거, 비즈니스, 레저, 교육, 의료, 쇼핑,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과 기관이 30분 거리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의 여건을 갖춘 것이지요. 여기에 송도국제도시를 예로 들면, 이곳엔 쓰레기통이 없는데 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쓰레기, 오폐수를 버리면 지하의 특정장소에 모아 열로 재처리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인천이 도시 규모로는 세계 최초이며 또 전봇대를 없애고 모든 전선을 땅으로 매설해 각 시설에 접촉하게 해놨습니다.(중략)

Q.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A. IFEZ 2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추진되며 2단계 비전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해 테넌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부문으로 나눈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중략)

Q.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A. 루원시티, 숭의운동장주변, 도화구역, 동인천역주변, 주안2·4동 등 5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함께 상업, 업무, 교육, 관광, 문화, 스포츠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기능을 중점배치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무엇으로 보는지요.

A. 한마디로 'MICE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Exhibition) 등 MICE산업은 최근 고수익을 창출하는 BT(Business Travel)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비행거리 3.5시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1개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은 세계 48개국 160여개 도시를 운항하는 만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콤팩트·스마트·그리드가 인천 미래"

interview 8년째 인천 이끄는 안 상 수 시장

요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인천시가 첫 손가락에 들겠다.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허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도시 곳곳은 활력이 넘쳐난다.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선진화의 모습은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상수 시장은 글로벌식 면모를 갖춘 서사적인 발전과 도시에 내실있는 인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22일 집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Q 최근 "인천은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Q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켰는데요.

30~40분 거리에 경제·문화시설 등 갖춰 CO_2 대폭 줄인 '친환경 유비쿼터스' 도시

송도·청라지구 '콤팩트 시티' 여건 갖춰 컨벤션 등 'MICE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Q 스마트와 그리드는 무슨 의미를 담습니까.

Q 이런 개념이 어떻게 인천에 접목되는 것인지요.

Q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Q 기업과 연구소 유치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Q 교육부문과 관련해선 어떠한지요.

Q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Q 끝으로,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무엇으로 보는지요.

A 한마디로 'MICE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Exhibition) 등 MICE산업은 최근 고수익을 창출하는 BT(Business Travel)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비행거리 3.5시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1개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은 세계 48개국 160여개 도시를 운항하는 만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글 박명순 기자·사진 상세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34(자심)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0년 2월 23일자 14면 『살기 좋은 '고품격 · 친환경 도시' 이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고양시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양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기좋은 '고품격 · 친환경 도시' 이끈다.

간판정비 · 녹색 자전거 '쾌적 환경' 가꾸는 고양시

고양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도시로서의 에티켓 도시 및 문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도시 조정과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경제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육성을 2010년 시정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또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 전시와 공연, 축제가 1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무심기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저탄소 · 녹색교통의 수단인 자전거와 최첨단 정보통신을 결합해 차를 타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정류장, 전철역, 백화점, 관광지 등을 오고 갈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할 계획이다.(중략)

인터뷰 강현석 고양시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품격도시 만들기와 자족기반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3월부터 시민들이 출 · 퇴근 및 나들이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피프틴(FIFTEEN)을 운영, 저탄소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최근 일부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고양시의 교육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교육여건 개선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식사지구 국제고, 백석동 자율형 사립고가 각각 들어서고 동국대 의생명과학 · 캠퍼스가 건립된데 이어 우수대학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면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기 좋은 '고품격·친환경 도시' 이끈다

간판정비·녹색 자전거 '쾌적 환경' 가꾸는 고양시

고양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에티켓 도시 및 문화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도시 조정과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경제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육성을 2010년 시정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또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 전시와 공연, 축제가 1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무심기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저탄소·녹색교통의 수단인 자전거와 최첨단 정보통신을 결합해 차를 타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정류장, 전철역, 백화점, 관광지 등을 오고 갈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고양시가 펼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난립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 건물의 특징에 맞게 디자인된 간판을 설치해 거리 경관을 개선, 시민들의 간판 관련 의식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덕양구 로데오거리의 간판정비사업'에 이어 '중앙로'를 간판정비 시범거리로 조성사업을 펼치는 등 총 40개 건물 359개 업소 2천700여개 간판정비를 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간판 자율정비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상가 주민들과 경관협정을 체결, 주민들이 스스로 간판 디자인에서 철거 및 설치까지 간판자율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 무엇보다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시킨 결과 값진 결실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행주산성 인근의 51개 음식점 간판과 문화재 주변의 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되살리고, 행주산성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는 등 각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러한 결실로 지난해 간판정비사업 관련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단위의 광고물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 G-20 관련 국 격 사업으로 시행 중인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는 등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 1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전국 최장의 간판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6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일산 중앙로 5.9km의 구간 8개동 1천380여개 업소의 간판 3천900여개, 4월부터 10월까지 17억여 원의 예산으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주변의 건물 48개동 609여개 업소 1천670여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그동안 간판규격 축소로 인한 업소들의 매출감소로 결부시킨 부정적 시각전환 및 업종의 특성상 더큰간판을 설치한 영업주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가 입점업소의 의식전환 및 참여를 적극 유도, 각종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명품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FIFTEEN'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자전거 'FIFTEEN'이 오는 3월부터 결실을 맺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온다.

시는 지난해 7월, 일산 KINTEX에서 한화S&C㈜, 삼천리자전거㈜, ㈜이노디자인 등과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민간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사업 브랜드인 'FIFTEEN'은 시가지내 일반적인 자전거의 평균 이동 속도인 시간 당 15km로 Slow Life, 여유로운 삶을 의미하며, 아울러 젊은 이미지와 건강함을 추구하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출·퇴근 쇼핑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FIFTEEN은 시민들이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빌려 이용한 후,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통연계 수단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전국 최초 아파트상가 간판 자율정비
각종 설명회 행정신뢰 높여 참여 유도
'간판선진화 모범' 타지자체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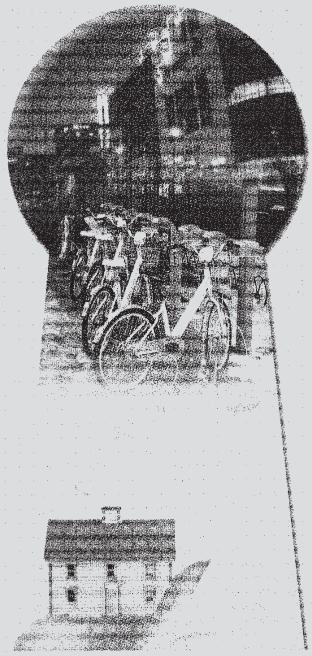
손쉽게 이용·반납 자전거 'FIFTEEN'
내달 서비스·저탄소 에너지절감 앞장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의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으로 10년간 민간 운영 후 운영시스템 및 시설물은 고양시로 이전된다.

1차로 오는 3월까지 자전거 1천600대, FIFTEEN PARK(대여소) 70개소로 생활밀착형 공공임대 자전거 운영서비스를 실시(월 5천원 가량의 회원제 방식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주거지역과 대중교통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앙로와 주요 도로 버스정류장, 정발산, 행신, 대화, 풍산역 등 경의선과 일산선 전철역, 호수공원 등을 포함, 300~400m 간격으로 FIFTEEN PARK(대여소)들을 설치 공사 중에 있다. 또한 올해 9월까지는 자전거 1천400대, FIFTEEN PARK(대여소) 5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녹색 교통수단인 FIFTEEN을 통해 저탄소·에너지 절감 모범도시로 거듭나고, 고양시민들이 편리한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고송오기자 gio@kgnews.co.kr



인터뷰 **강현석 고양시장**

"사람이 살아 가는데 쾌적한 환경이 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품격도시 만들기와 자족기반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3월부터 시민들이 출·퇴근 및 나들이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피프틴(FIFTEEN)을 운영, 저탄소·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최근 일부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고양시의 교육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교육여건 개선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식사지구 국제고, 백석동 자율형 사립고가 각각 들어서고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가 건립된데 이어 우수대학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면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6(자심)
언 론 사	(주)시사저널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신 상 철
심의대상기사	시사저널 2010년 3월 2일자 40~43면 『명암 엇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및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 할 기회 갖고 싶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각 정당 후보예정자들의 대결 양상 및 전망 등을 보도하면서, 출마 예정인 현 시장만을 인터뷰하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인천과 대전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 현역 시장이 재출마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명암은 다소 엇갈린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박성효 대전시장은 2위로 밀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변수는 있다. 인천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 카드가 살아 있다. 대전도 자유선진당과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으로 분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사저널〉이 신년 기획으로 연재한 '2010 지방선거 민심 현장을 가다'는 인천 · 대전을 마지막으로 16개 광역시 · 도의 현장 탐방을 마무리한다.(후략)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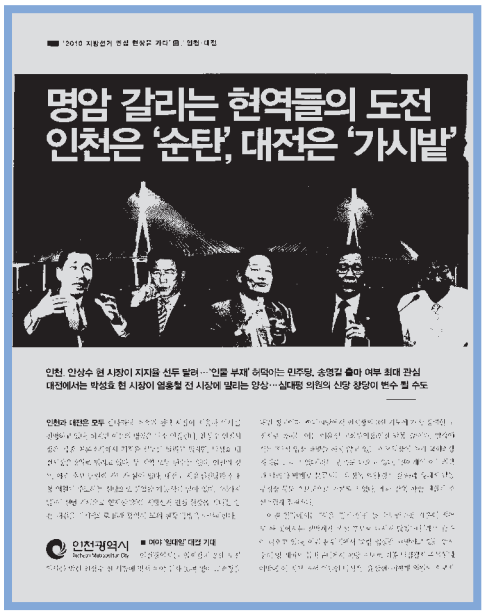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한다. 왜 '안상수'여야 한다고 보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구(舊) 도심 재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내가 직접 구상했고, 이미 진행된 상황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건설과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아시안게임은 인프라와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 도심 재생 사업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민들과 함께 구상해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구 도심 사업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은 특별한 노하우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추진해야 일정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3선에 도전하는 것이다.(후략)

송도 국제도시, 영종도 · 청라지구 등이 국제 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2020년까지 1 · 2단계로 나누어 개발되는 공항 물류 단지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동북아를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항공 화물 특송 업체, 전기 · 전자 · 자동차 업체 등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 등이 유치 업종이다. 아암 물류 단지에는 북유럽 수산물과 선박용 부품, 첨단 부품 조립 가공 산업 등 유치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과 배후 단지에 초대형 선사와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 초대형 컨테이너선 전용 터미널을 유치할 계획이다.(후략)


'2010 지방선거 현장을 가다' ⑩ : 정청 대결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인천 안상수 현 시장이 지지율 선두 달려…'인물 부재' 허덕이는 민주당, 송영길 출마 여부 최대 관심
대전에서는 박성효 현 시장이 열흘쯤 전 시장에 밀리는 양상…심대평 의원의 신당 창당이 변수 될 수도

인천시 대전은 모두 인구가 150만 명을 넘는 광역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지역이다. 이들 두 광역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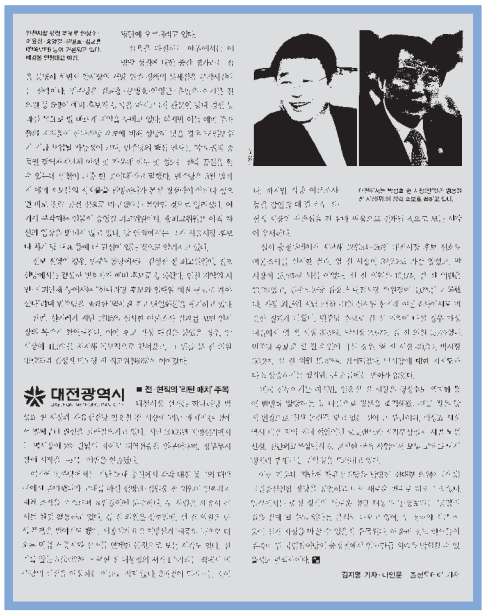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대전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현재 시장이고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이들 지역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광역시

■ 전·현직의 '외판 배지' 주목

김지영 기자·나인문 조선닷컴 기자

'2010 지방선거 인물 현장을 가다' ⑩ : 인천 대결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안상수 인천광역시 시장 인터뷰 / "대결 공사 관련 비리 의혹 많이 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인상수 인천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과거는 잠재력을 확인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7(자심)
언 론 사	미래교육신문 광주 동구 계림1동 572-13 3층 대표 차 운 기
심의대상기사	미래교육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예정자인 전 교육감의 인터뷰 기사에서 출마배경 및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상인기자가 만난사람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전략)▲ 지난 4일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배경은 뭔가.

- 출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교육계 선·후배들은 뚜렷하게 교육감을 맡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마를 권유했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뿌려놓은 '실력전남'의 토대위에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해 보고 싶었다. 우리 교육환경은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교사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나와야 한다.(중략)

▲ 초선, 재선 때 일궈 논 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

- 초선 교육감 재임 중 침체된 전남교육을 '실력전남'으로 거듭나는 기초를 다졌다. 초·중등 교육은 기초·기본학력 정착이 목표인데 8년 전만 해도 전남의 기초·기본학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원단체의 반대 속에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3% 대의 부진학생이 확인됐다. 깜짝 놀랐다. 교육감 1기를 마감하면서 부진학생을 1% 대로 낮췄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재선 때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원어민을 확보했고, 외국어 학습관 건립, 지역별 영어타운 설치,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담당교사를 양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교육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큰 성과다.(중략)

▲ 교육자 '김장환'의 강점은.

- 경험 보다 더한 실력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는 어느 누구에 앞선다고 자부한다. 중앙정부와 다져진 네트워크가 잘 갖춰졌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을 입안 할 때 장관이 우선적으로 저 김장환이한테 조언을 구한다. 지난번 전남교원이 한꺼번에 300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정해 절반인 150명

감축으로 한 것도 경륜있고 힘 있는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또 현재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전원학교 모델을 처음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요란한 무료급식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선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한 것도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역대 전남교육감이 각종 구설수로 단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8년 동안 예산 집행에서 잡음이 일지 않은 것도 클린 행정가라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전남 교육가족들에게 한 말씀.

-이 시대의 교육은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적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교육계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지혜롭게 수용해 가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지역교육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또 지역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교육, 지역 여건을 강점으로 키워가는 교육, 다 함께 이뤄가는 교육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을때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과 교육가족께서는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생각에서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김상인 기자가 만난 사람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초임교사부터 재선 교육감까지 전남교육과 생사를 함께 해 온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4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가졌다. 신안 섬마을 분교장부터 특수학교,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전남 교육현장에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8년간 전남교육 수장으로서 전남교육의 실력을 다지고, 인재육성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자신이 뿌린 전남교육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 전 도교육감은 이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교육 선진화 실현'을 목표로 제6대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최근 근황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지난 4월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배경은 뭔가.

-원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교육계 선배 중에서는 무뢰하게 교육감을 맡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공직 생활,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무엇 보다 교육현장은 그간 녹녹치 않은 일들 많았다. 교사 징계 감축, 학교 폭력 등 많은 사건들은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기 결심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 학생들의 대입 합격자 수가 매년 꾸준함 상승세다. 전남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된 비결은 뭔가.

-전남은 2010학년도 수능시험 각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다.

특별 대책이 취해진 적도 없고 수능 없지만, 올 시험에 응시했던 모든 100만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 배출 된 고등학교가 지난해 37개교에서 올해 48개교로 무려 11개교가 늘었다. 전년보다 실력향상 부세가 높아 졌다는 고무 적 현상이고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실력 향상은 기초 · 기본학력은 튼튼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나아가 입시 제도의 변화된 패턴학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지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것도 크게 작용했다.

▲ 초선, 재선 때 알려 논 성과에 대해 간략한 소개.

-초선 교육감 재임 중 일제히 전남교육은 '전략적 요지 기업'이는 기초를 다졌다. 곧 · 중등 교육은 기초 · 기본학력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 한만 대표 인물을 만들며 기초 · 기본학력은 집중적 성장을 수준이었다. 교원인재의 발굴 속에서 심사한 사학 개가에서 장도 대의 무장이었이 확인했다. 한편 동안다, 교육감은 17일 마라톤학교 부흥하였을 1회로도 뛰었다.

이런 분야에서는 특대로 제선 때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중점 이어 강조해서 학교 밖 민관 협력을 벌였다.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연합체로 원이만을 꾀도했고, 위주의 이슈를 전달, 지역별 협의회는 실시, 원이 만 수준의 외국어 일탈교사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의 자체단체 교육부 자리 이끌어 낸 것도 큰 성과다.

2002년 남서 의원에게 지자체 지원을 2003년 18명 공개한 8330억원까지 끌어 내었다.

▲재임 기간 기억에 남을 만한 사업이 있다면.

-학서교육은 "일주 백 60일 밖기", 외국어교육의 "원어민 화 활 · 재량 마는 교육(Co-curricula Language Program)" 등이다. 대표적 이야기에서 먼저 있는 영어교육은 곧 배려시절에만 교육을 영어교육은 위교육이 배우에 전 전체적 한이만교사 를 교육, 교사하기 시작했다.

전남 아동들을 방학만 맞이했다. 새 학부 원어서 영어교육은 중요성이 시작했고, 학습의 경기는 모양을 중요 교사원이 정보는 전남 보통이 좋다는 결론이 내렸다. 경기는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남의 교육에 영어교육의 새 노력도 지금 점고 있다.

전국 3번째 원어민 확보… 전국최고 지자체 교육투자 결실

중앙정부 네트워크 교류 장점… '새로운 경쟁' 교육계 필요

▲교육과는 등 열이진 질문 하나 나이에 비해 필장이 건강하신데, 특별한 건강유지 비결은 무엇인지요.

-네(웃음) 신체적으로 건강체질 이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태도로 시는 것이 가장에 입장 도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일일 일이나 구별계 신뢰하고, 신뢰주 일 있다.

원동시 일은 자세를 유지하고, 가끔은 게다는 결도해지 노력한다. 공자주의에는 중용이란 뜻시 이에는 자연주과의 만남은 동양으로 대비이라 본다해. 관심이나 가 밝는 윤식은 없고, 먹는 것에 상점은 많이 먹은 부인 대부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늘 원상 복용을 유지하고 있어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

▲ 최근 '일류전남교육을 향한 선택과 도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런 내용인가.

-지난 기간 원임한 시민과 아이들 사업, 부족한 사업, 도전과 실패와 사업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주는 교육 발전을 위한 문제 핵심을 함께 새로운 방향 제시도 이 보다. 이번 시민이 전남 교육과 이끌어 갈지는 노력했지만 이 책을 금간으로 해서 시간 날이 보고 이렇. 이번 정당은 이 밝혀 이번 보다는 식의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줬이라고 볼 수 있다. 원은 이 책이 밝힌 내용들은 적 것이라기보다는 전남 교육의, 학부모 등 결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이라고 보면 맞다.

▲ 교육자 '김장환'의 강점은.

-공인 신뢰 이런 신뢰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쌓아 온 공인과 노력부는 어는 누구에 일한다고 자부하다.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한 장점이라는 점은 분명이 있다 수 없다.

학생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략을 위한 방 법 중앙이 주선역할을 제 김장환이 한 테 조정을 구했다. 지난번 전남교육이 앞 개면에 300명을 출입 수 부에 없는 교육부이 방식을 수정해 준한이 150명 김혜으로 이 것도 지난 경험이고 한 있는 교육공이 경이나 정도준이 보여준 사례다.

또 현재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전원학교 모델을 처음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요란한 무료급식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선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한 것도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역대 전남교육감이 각종 구설수로 단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8년 동안 예산 집행에서 잡음이 일지 않은 것도 클린 행정가라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전남 교육가족들에게 한 말씀.

-이 시대의 교육은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적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교육계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지혜롭게 수용해 가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지역교육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또 지역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교육, 지역 여건을 강점으로 키워가는 교육, 다 함께 이뤄가는 교육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을때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과 교육가족께서는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생각에서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김장환 교육감은 ▲광주고등학교 졸업 ▲광주사범대학 졸업 ▲조선대학교 문리대 졸업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교육학사 ▲숭실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중등교직과장, 중등교육국장 ▲전남영광이고등학교장, 화순고등학교장 ▲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 ▲제4대(민선4대) 전라남도교육감 취임 (2001.10.26) ▲제5대(민선5대) 전라남도교육감 취임 (2005.10.26) ▲국민훈장 목련장 (1992) ▲국민훈장 동백장 (1999) ▲세종문화상 교육부문 대통령상(2009)

의 결 번 호	2010지선4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서해안신문사 충남 서산시 동문동 255-3 대표이사 김 소 영
심의대상기사	서해안신문 2010년 2월 11일자 12면 『'가난 그리도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 드라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산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회 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 인생담과 인생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가난 그리고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드라마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그림자가 길어지다 보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고 한다.

누군들 세월의 그림자 속에 내재된 숱한 땀과 눈물의 사연들이 없겠는가. 이순(耳順)에 이른 사람 치고 이런저런 험난한 굴곡을 헤치며 살아오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난 그리고 도전' 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차성남(현 충남도의원) 氏도 그런 마음에서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만난 저자는 자서전 출판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흔한 자서전과는 다른 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이 몰리는 것 같다. 책 속에서 어려웠던 저자의 어린 시절을 보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가난이 연상되고 가족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글을 읽으면서 진한 휴머니즘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8일 취재팀과 대담을 나눈 저자 차성남 氏는 희망이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중략)

저자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는= 8년여 남은 공직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우리 고향 서산 발전을 위해 맨몸으로 도의원에 도전한 것도 저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때문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인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었고, 그 결과 작년 말에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를 하고 비누를 팔아 등록금을 번 일,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일, 재경직 공무원에서 교육 행정직 공무원으로 옮긴 일들만 봐도 제 몸속에는 "도전"이라는 피가 늘 솟구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공무원생활을 마다하고 도의원에 도전한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맨몸으로 도의원에 도전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 지역 서산 발

전을 위해 더 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자의 도전은 진행 중인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는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서산 지역은 예부터 "樂土"라고 일컬어진 고장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서산은 서해안 시대의 비상과 더불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잘 모르는 선장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큰 비상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지역인 당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비해 우리 서산의 발전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답보상태인 것이 저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은 더 큰 발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서산 시민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꿈이 현실로 변하려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에 "믿음과 의지"만 더해지면 꿈은 반드시 현실로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저 차성남과 함께 서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서산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차게 매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가난 그리고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드라마

밑바닥 공직부터 진솔한 의정까지 '人生파노라마'

가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쌓아온 '형제애'

책 속에서 용기와 희망, 도전의 정신을 강조하시던데=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마음을 담았나=

자서전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책 속에서는 선생님의 은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어려웠던 어린시절 꿈은 무엇이었나=

요즘 청소년들이 장래에 대한 고민이 무거운데 저자의 경험은=

저자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는=

저자의 도전은 진행 중인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는가=

진행/정리 서해안뉴스 면옥선 기자
www.shanews.com

'가난 그리고 도전' 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차성남(전 충남도의원) 氏

의 결 번 호	2010지선49(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정일보사(주간 시정신문)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4 대표이사 주 동 담
심의대상기사	주간 시정신문 2010년 2월 18일자 20면 『11월 11일~12일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 개최 "특급 손님 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특정 행사개최 준비상황 및 향후 구정활동 계획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1월 11일~12일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 개최

"특급 손님 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G20 정상 비롯 세계적 기업 대거 참여 국내 최대 규모 국제행사 준비 만전

(전략)

- 세계적인 행사가 강남구에서 열립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는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G20개국 정상들과 수행원, 기자단, 각국을 대표하는 400여개의 기업체 등 약 2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G20 주 회의장인 코엑스 컨벤션과 숙박시설로만 31개의 호텔이 위치해 있는 등 G20정상회의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구 악취나 길거리 먼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모기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는 거리가 멀어 이를 보안하는 것을 위주로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중략)

- 끝으로 G20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시민 한분 한분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및 보도 위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과태료를 2배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들의 주도로 선진시민이 지켜야할 덕목인 친절 · 질서 · 청결의 '3대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우리동네 청결 운동' '선진교통문화 실천' 등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11일~12일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 개최

"특급 손님 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오는 11월11일부터 12일 양일간 국제적 행사인 G20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G20 주요 회의 장소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인 만큼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남구의 각오가 대단하다. 올해 예산이 1200억원 감소한 가운데도 구는 G20정상회의를 대비해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 3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국격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G20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강남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국제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만나 G20정상회의를 대비한 계획과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G20 정상 비롯 세계적 기업 대거 참여

국내 최대 규모 국제행사 준비 만전

-세계적인 행사가 강남구에서 열립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는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정상회의는 G20개국 정상들과 수행원, 기자단, 각국을 대표하는 400여개의 기업체 등 약 2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G20 주 회의장인 코엑스 컨벤션과 숙박시설로인 31개의 호텔이 위치해 있는 등 G20정상회의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구 악취나 길거리 먼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모기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는 거리가 멀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냄새·먼지·악취 없는 '3無 도시'

글로벌 스탠다드 도시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먼저 냄새·먼지·모기가 없는 '3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우수관과 오수관이 혼재되어 있어 악취가 심한 지역, 특히 코엑스, 역삼동 국기원 입구, 압구정 로데오길 일대 등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 농도 이상 시 산화제를 자동 주입하는 '산화제 자동투입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2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부족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 지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주 2~4회로 확대 실시하고, 물청소 후 진공흡입청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강남을 통과하는 경유버스 213대를 무공해 CNG 버스로 교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박멸 대책으로는 22개반 160명으로 구성된 모기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초음파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코엑스 및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코엑스와 호텔주변 등의 가로환경 개선과 공중화장실 위생 개선도 잊으면 안되겠죠."

-그렇지요. 특히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거리 환경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강남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먼저 이면도로변 전주와 통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전주 2만여본, 통신주 7만여본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해 6개 통신사의 자체 비용으로 정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로휴지통의 재활용 고물망을 제거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가로휴지통 관련 시설 개선과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새로운 디자인 부스로 교체해 거리 미관을 정돈하게 됩니다. 특히 15룩스로 설치돼 있는 12개 간선도로 가로등의 조도를 22룩스까지 높여 더 밝고 깨끗한 강남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밖에도 코엑스 주변과 청담 명품패션거리 등의 가로수를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 외국인도 길찾기 수월

'도심 속 녹색휴식처' 양재천 일대 정비

-지금까지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축돼 있는 강남구의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강남구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거리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남구 새주소' 사업입니다. 간선도로명에 방위와 숫자를 부여한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를 개발해 강남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를 해 외국인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를 지나는 양재천 일대를 정비할 것입니다. 양재천 수질개선과 보행자 교량 등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보다 편하게 양재천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방문객들이 묵을 호텔과 양재천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업종별로 제작해 주었으며, 손소독기 및 조리종사원들에게 위생복을 보급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특급호텔에 한식당을 운영하는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행 기자단 '의료관광체험' 마케팅 총력

강남투어버스 운행·패션 축제 등 볼거리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강남구를 찾아올 것입니다.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이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저는 강남구를 찾은 G20정상회의 수행기자단에게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료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 판단됩니다.

'의료관광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개 건강검진, 치아미백, 스킨케어, 미용상형, 병원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의료관광 체험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특히 외국기자단의 참여를 유도해 심성의료원 등 병원시설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강남구에는 현재 2160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중 181개소를 지정해 의료관광 협력을 맺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강남구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면에서는 자원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G20정상회의를 맞아 강남구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 있는지요.

"네. G20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수행원, 외신기자, 관광객들이 자투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남시티투어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강남시티투어는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배워볼 수 있으며, 봉은사에서 다도 및 발우공양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가로수길, 신정릉, 경복궁, 인사동, DMZ 등 관광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중 3일간 코엑스와 도산공원, 청담패션특구 일대에서 패션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패션축제는 루키패션 콘테스트, 한복과 웨딩 패션쇼, 유명디자이너 패션쇼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댄스페스티벌도 영동대로와 코엑스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강남구에서 준비한 특색 있는 행사들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보다 좋은 추억을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단체 주도로 선진시민의식 함양

'친절·질서·청결' 손님맞이 운동 전개

-끝으로 G20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시민 한분 한분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및 보도 위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과태료를 2배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들의 주도로 선진시민이 지켜야할 덕목인 친절·질서·청결의 '3대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동네 청결 운동' '선진교통문화 실천' 등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鄭應浩 기자 / jungho@sijung.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52(자심)
언 론 사	(주)영남일보 대구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손 인 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5면 『인사발령』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령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11조(외부기고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사 발령

인사철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새봄에 왈츠를 연상하듯 뇌리를 스친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가 지은 '걸어보지 못한 길' 이란 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걸어보지 못한 길' 에 '새로운 부임지' 를 대입하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인사 동정의 행간에는 희비애락이 묻어 있다. 낯선 세상과 맞닥뜨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도 한다. 한 번쯤 월급쟁이의 비애에 빠져보지 않은 은행원이 있을까.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 조아린 개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나 역시 3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집 근처 사무실이다. 가족과 지인이 기다리고, 동해와 영일만이 출렁이며, 문학을 함께 하는 글벗들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 감회가 깊다.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는 새해 벽두의 인사 발령으로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기관장으로서의 농협지부장'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을 창출하는 은행지점장' 으로의 변신은 차라리 소소한 편이다.

혼자의 삶이 가족과의 삶으로 변했고, 저녁에 하던 운동을 아침으로 바꿨으며, 틈만 나면 찾던 주산의 왕릉은 추억으로 인화됐다. 전임지인 고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유서 깊은 대가야 왕국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간만의 고향 근무로 죽마고우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맺었다. 따뜻했던 인정을 떠올린다. 농심과 어우러진 정겨운 만남이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다. 포장마차 주인과 고령군의 수장. 우연의 일치일까. 양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무실 앞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있다. 붕어빵과 꼬치를 판다. 키가 작고 상냥한 아주머니가 주인이다. 작년 추석 연휴 전날, 퇴근길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머니가 다가와서는 꾸러미를 건넨다. 손사래치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남자와 여자 양말 두 켤레였다. 아마도 하나는 아내를 주라는 뜻이리라. 강렬한 충격의 정성. 밑바닥의 따끈따끈한 나눔이다. 포항으로 전근된 후 상조회 전별금을 받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그녀의 양말 선물이 떠올랐다. 직원들에게 사연을 일러주고,

아주머님께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의 빚을 갚은 듯 홀가분하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행사에 동석할 기회가 잦아 대화가 많았다. 그분은 왕성한 독서열로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소신과 열정을 겸비한 행정가다. 유머가 풍부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지도자라고나 할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그 분을 존경한다.

사실 인사 발령을 앞두고 한동안 고민을 했다. 가족이 있는 포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향인 고령에 한 해 더 근무할 것인가. 덤으로 '이태근'이란 인생의 선배와 맺은 우정을 다질 것인가. 결국 가족을 택해 포항으로 돌아왔지만 아쉬움이 잔설처럼 남는다.

이상식
농협중앙회 포항대신지점장·시인

인사 발령

인사철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새봄에 왈츠를 연상하듯 뇌리를 스친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가 지은 '걸어보지 못한 길' 이란 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걸어보지 못한 길' 에 '새로운 부임지' 를 대입하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인사 동정의 행간에는 희비애락이 묻어 있다. 낯선 세상과 맞닥뜨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도 한다. 한 번쯤 월급쟁이의 비애에 빠져보지 않은 은행원이 있을까.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 조아린 개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나 역시 3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집 근처 사무실이다. 가족과 지인이 기다리고, 동해와 영일만이 출렁이며, 문학을 함께 하는 글벗들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 감회가 깊다.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는 새해 벽두의 인사 발령으로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기관장으로서의 농협지부장'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을 창출하는 은행지점장' 으로의 변신은 차라리 소소한 편이다.

혼자의 삶이 가족과의 삶으로 변했고, 저녁에 하던 운동을 아침으로 바꿨으며, 틈만 나면 찾던 주산의 왕릉은 추억으로 인화됐다. 전임지인 고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유서 깊은 대가야 왕국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간만의 고향 근무로 죽마고우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맺었다. 따뜻했던 인정을 떠올린다. 능심과 어우러진 정겨운 만남이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다. 포장마차 주인과 고령군의 수장. 우연의 일치일까. 양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무실 앞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있다. 붕어빵과 꼬치를 판다. 키가 작고 상냥한 아주머니가 주인이다. 작년 추석 연휴 전날, 퇴근길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머니가 다가와서는 꾸러미를 건넨다. 손사래치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남자와 여자 양말 두 켤레였다. 아마도 하나는 아내를 주라는 뜻이리라. 강렬한 충격의 정성. 밑바닥의 따끈따끈한 나눔이다. 포항으로 전근된 후 상조회 전별금을 받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그녀의 양말 선물이 떠올랐다. 직원들에게 사연을 일러주고, 아주머님께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의 빚을 갚은 듯 홀가분하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행사에 동석할 기회가 잦아 대화가 많았다. 그분은 왕성한 독서열로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소신과 열정을 겸비한 행정가다. 유머가 풍부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지도자라고나 할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그분을 존경한다.

사실 인사 발령을 앞두고 한동안 고민을 했다. 가족이 있는 포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향인 고령에 한 해 더 근무할 것인가. 덤으로 '이태근'이란 인생의 선배와 맺은 우정을 다질 것인가. 결국 가족을 택해 포항으로 돌아왔지만 아쉬움이 잔설처럼 남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8(자심)
언 론 사	(주)세계일보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0년 2월 22일자 4면 『서울시장 · 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 · 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대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시장 · 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 · 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 수도권 · 충청권 판세는

6 · 2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서울과 경기 · 인천은 향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은 전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어서다.

◆서울시장=한나라당이 우위에 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46.1%의 지지율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24.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5%) 등 야권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오 시장과의 지지율은 47.2% 대 38.1%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3선의 원희룡 의원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고,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선 정우택 현지사 리드

◆경기지사=김문수 현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 지사도 불투명한 차기 대선보다는 지사직 재선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도 지지율 50%를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국회교과위원장,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면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인천시장=역시 한나라당 우세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에 나선 안상수 현 시장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출마할 경우 승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게 지역정가 분위기다. 당내 확실한 기반이 없는 안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무난히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송 최고위원이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공들여 출마를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野후보 단일화땐 예측불허

◆충남지사=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 여파에다 한나라당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여권 열세, 야권 우세'가 점쳐진다.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과 선진당의 2파전이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힘겹게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전 지사를 설득해 재출마시킬지 주목된다.

◆충북지사=한나라당 정우택 현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앞서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대전시장=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내세워 최초의 광역 단체장 당선을 노리는 곳이다. 여론 조사로는 염 전 시장이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따돌리며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도 세종시 논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원웅 전의원과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수도권·충청권 판세는

6·2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향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은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어서다.

◆서울시장=한나라당이 우위에 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46.1%의 지지율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24.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5%) 등 야권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오 시장과의 지지율은 47.2% 대 38.1%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3선의 원희룡 의원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고,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선 정우택 현지사 리드

◆경기지사=김문수 현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 지사도 불투명한 차기 대선보다는 지사직 재선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도 지지율 50%를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국회교과위원장,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야권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면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인천시장=역시 한나라당 우세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에 나선 안상수 현 시장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출마할 경우 승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정가 분위기다. 당내 확실한 기반이 없는 안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무난히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송 최고위원이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공들여 출마를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野후보 단일화땐 예측불허

◆충남지사=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 여파에다 한나라당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여권 열세, 야권 우세'가 점쳐진다.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과 선진당의 2파전이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힘겹게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전 지사를 설득해 재출마시킬지 주목된다.

◆충북지사=한나라당 정우택 현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앞서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대전시장=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내세워 최초의 광역 단체장 당선을 노리는 곳이다. 여론 조사로는 염 전 시장이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따돌리며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도 세종시 논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원웅 전의원과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8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강원남부신문사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1 중앙빌딩 6층 대표이사 석 영 준
심의대상기사	강원리뷰 2010년 3월 6일자 12~13면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듣는다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2010년 3월 19일자 8~9면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듣는다 "국제특구도시 ·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 다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삼척시장, 동해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시정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듣는다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전략)Q: 시장님의 솔직담백한 성품, 학자적 탐구성과 추진력은 시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이번 대명그룹과의 협약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A: 리조트 사업이 삼척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명 업체 이전에도 여러 업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척지역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한 셈이지요. 이번에 대명이 협상대상이 되었을 때 삼척시가 지닌 입지적 여건을 장점, 단점 모두 전달했지요. 상대 업체에서는 단점까지 드러내면서 진솔함을 보이는, 즉 정직한 행정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탈하고 정직한 시장은 처음 봤다면서, 그 진솔함에 감탄하면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라고 판단했답니다.(중략)

Q: 올해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독자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A: 지방선거는 자칫 지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과정의 깨끗한 표결활동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나 비방은 깨끗한 선거 운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입지자는 정책을 준비하고, 선거는 정책을 검증하고 대결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검증을 통한 선거과정은 지역발전을 꾀하는데도 도움 될 뿐 아니라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분열은 지역발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일상화된 상호비방을 멈추고 정책대결을 통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서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립니다.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 도시로 비상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강원리뷰창간 11주년특집 ·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듣는다

"국제특구도시 · 녹색성장도시 만들기에 최선 다할 터"

(전략)Q: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지난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매우 바쁘게 뛰었습니다.

동해시는 '위대하고 찬란한 동해신화 창조'를 목표로 전 공무원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새마음, 새행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찾아오고 싶은 동해시, 근심 없는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시민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특구도시 ·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 다할 터"

의 결 번 호	2010지선11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4월 2일자 15면 『따뜻한 카리스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따뜻한 카리스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써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뒤 늦게 후회한다" 어느 랍비가 했던 말로 기억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캔 블랜차드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단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세상을 제법 잘 살아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상에서는 수직적 구조이었다면 현대는 수평적 구조로 변해서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이 중심이 된 사회구조다.

비즈니스 현장은 일하는 능력 못지않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중 단연 으뜸인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이루어지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인가에 따라서 성공이 뒤따라온다.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의 성공하는 독특한 이미지요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따뜻한 카리스마' 를 가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카리스마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신뢰' 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21세기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된다.

문제는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원활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 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열등감을 넘어서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거절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수락하듯 거절하는 묘를 발휘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품는 유머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내면에는 지번이 자리잡고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다.

또한 우연한 인연마저도 값싸게 이용하지 않고 숨은 보물처럼 다룬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뜻한 카리스마' 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서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이미지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설계와 커리어 관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미끄럽게 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따뜻한 카리스마' 라고 본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서로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사는 일이 편해지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 완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따뜻한 카리스마' 의 중요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자기 표현력이다. 상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공감능력이다. 공감은 마음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설득력이다. 설득의 세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설득하는 사람이 당당해야 하며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다섯째, 겸손이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편안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겸손의 한 방법이다.

여섯째, 거절의 기술이다. 거절할 때 자신의 원칙을 말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 자기극복이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진다.

여덟 번째, 유머이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경직을 풀어주는 포용력을 높인다. 자연스런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품위와 아량, 관대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아홉째, 인연이다. 성공하려면 인연의 끈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내가 먼저 가꾸어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열 번째, 비전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핵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보기 위해 따뜻한 카리스마의 요소를 되새기며 이미지 관리를 잘하자. 현대는 이미지시대이다.

Ⅰ광 장

따뜻한 카리스마

김 양 옥
민주당 전북도당
장애인 위원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써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뒤늦게 후회한다" 어느 랍비가 했던 말로 기억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켄 블랜차드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단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세상을 제법 잘 살아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상에서는 수직적 구조이었다면 현대는 수평적 구조로 변해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이 중심이 된 사회구조다.

비즈니스 현장은 일하는 능력 못지않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중 '인연' 으뜸인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이루어지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인가에 따라서 성공이 뒤따라온다.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의 성공하는 독특한 이미지요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카리스마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21세기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된다.

문제는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원활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열등감을 넘어서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거절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수락하듯 거절하는 묘를 발휘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품는 유머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내면에는 비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다.

또한 우연한 인연마저도 값싸게 이용하지 않고 숨은 보물처럼 다룬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뜻한 카리스마'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서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이미지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설계와 커리어 관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매끄럽게 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본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서로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사는 일이 편해지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 완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따뜻한 카리스마'의 중요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자기표현력이다. 상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공감능력이다. 공감은 마음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설득력이다. 설득의 세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설득하는 사람이 당당해야 하며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다섯째, 겸손이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편안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겸손의 한 방법이다.

여섯째, 거절의 기술이다. 거절할 때 자신의 원칙을 말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 자기극복이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진다.

여덟 번째, 유머이다. 유머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경직을 풀어주는 포용력을 높인다. 자연스런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품위와 아량, 관대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아홉째, 인연이다. 성공하려면 인연의 끈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내가 먼저 가꾸어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열 번째, 비전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핵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보기 위해 따뜻한 카리스마의 요소를 되새기며 이미지관리를 잘하자. 현대는 이미지시대이다.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 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150(시심)
시 정 요 구 인	임 세 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
피시정요구인	주간보령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대천동 210-7 대표이사 강 철 호
심의대상기사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 · 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보령〉 1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기호8 임세빈)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 · 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 · 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서 보령시장으로 출마한 5명의 후보에 대해 출마 이유,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기호 8번 임세빈 후보에 대한 질의 내용 중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을 '시의원 후보'로 잘못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시정요구인의 청구 취지도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 목 :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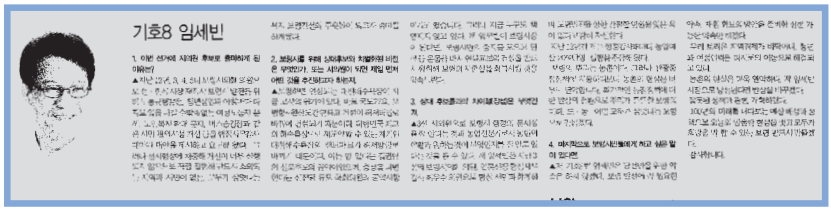
2. 보도내용

본지 5월 17일자 3면「6 · 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제하의 기사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는 '보령시장 후보'이므로 임 후보 관련 질의 내용 1, 2번 중 '시의원'을 '보령시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보도내용

6 · 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기호8 임세빈 보령시장 후보


기호8 임세빈

1. 이번 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2년, 3, 4, 5대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전 · 현직 시장 재직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나는 복지 보령건설의 주춧돌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됐다.

2. 보령시를 위해 상대후보와 차별화된 비전은 무엇인가. 또는 시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보령하면 연상되는 대천해수욕장이 지금 고사의 위기에 있다. 바로 국도77호, 보령항~원산도간 연륙교 건설이 해저터널로 바뀌어 건설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인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해저땅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힘 있다는 집권당의 신모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충청을 대변한다는 선진당 류모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저 임세빈이 보령시장이 된다면, 보령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단식 등 온몸을 바쳐 연륙교로의 건설을 반드시 쟁취해 보령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17일자 3면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서 기호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는 보령시장 후보이므로 임 후보 관련 질의 내용 1 · 2번중 '시의원'을 '보령시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7(시심)
시 정 요 구 인	임 세 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대천(주간 보령시민신문)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1-1 2층 대표이사 손 동 훈
심의대상기사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 · 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보령시민신문〉 8면우측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보령시장 후보)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 · 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 · 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에서 보령시장 후보 등록현황을 보도하면서 임세빈 후보의 출마기호를 9번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출마기호는 '8번'임에도 '9번'으로 잘못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오류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고 침

2. 보도내용

5월 17일자 8면 「6 · 2 지방선거후보 등록현황」제하의 기사에서 임세빈 후보와 양창용 후보의 기호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임세빈 후보는 기호 8번이며, 양창용 후보의 기호는 9번입니다.

〈표〉 보령시장후보 현황

기 호	소속정당	성 명	기 호	소속정당	성 명
1	한나라당	신 준 희	2	민주당	김 기 호
3	자유선진당	이 시 우	7	무소속	김 동 일
8	무소속	임세 빈	9	무소속	양 창 용

보도내용

6.2 지방선거 등록현황

기호 8 양창용

- 정당 : 무소속
- 나이 : 42
- 직업 : 농업
- 학력 : 대명중 3년 제적
- 대표경력 : 도의원 출마
- 재산 : -20억5000만 원
- 병력 : 병역미필
- 납세실적 : 29만8000원
- 전과 : 있음

기호 9 임세빈

- 정당 : 무소속
- 나이 : 45
- 직업 : 보령시의회 의원
- 학력 : 동아인재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 대표경력 : 3 · 4 · 5대 보령시의회 의원
- 재산 : 1500만 원
- 병력 : 병역미필
- 납세실적 : 5만1000원
- 전과 : 없음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지난호(643호 5월17일자) 8면에 보도된 '6.2지방선거 후보등록현황' 내용기사에서 보령시장 후보 현황에서 **기호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의 기호를 9번으로, **기호9번인 양창용 후보**를 8번으로 잘못 게재됐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의원후보현황 및 인터뷰에서 다선거구 **표일호 후보**를 한나라당으로 표기한 것을 '**미래연합**'으로, **성태용 후보**와 **최용식 후보**를 다선거구로 표기한것을 '**라선거구**'로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107(시심)
시 정 요 구 인	양 대 웅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40
피시정요구인	구로오늘신문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6-3 발행인 김 유 권
심의대상기사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구로오늘신문〉 1면에 〈별지 1〉「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대지 1,700평에 골프연습장 · 휘트니스 운영)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제하의 기사에서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M 골프클럽에 대해 구로구가 세금징수유예를 해주었고, 지난 해 구로구가 이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고속성장이 구로구 행정차량 구매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구로구가 M 골프클럽에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은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로 판단해 6개월의 징수유예를 처리한 것이고, 근저당 설정은 징수유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M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진 바 없고,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구로구 업무와는 무관하고, 시정요구인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동차 판매와는 관계없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을 주종으로 하는 회사이며, 구로구의 차량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므로 특정 업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는 시정요구인 관련 각종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겠으나,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시정요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인 관련 타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고, 시정요구인측도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정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M골프클럽 부지가 지난 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간 부제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 4월 10일자 1면,3면「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제하의 기사에서 'M골프클럽 지난해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라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M골프클럽은 지난 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동 기사에 대해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구로구가 M 골프클럽에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은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로 판단해 6개월의 징수유예를 처리한 것이고, 근저당 설정은 징수유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M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뤄진 바 없으며, 백광화학 부지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구로구와는 무관하고, 구로구 행정차량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므로 특정업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지역 여론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전략)근저당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 서류대로라면 구로구가 융자를 해준 것이다. 구로구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저리 융자 및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대출이라면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항간에서는 M골프클럽이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구로구가 받아 들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납세자가 화재, 재난을 당한 때, 배우자가 중병으로 장기적인 치료로 요양 중 일 때 등등 그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받아들이기에는 M골프클럽은 매우 성업 중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서류대로 구로구는 왜 이곳에 근저당 설정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한편, 고척동 공인중개사 A씨는 "M골프클럽 주변에 들어서는 돔구장 부지는 세화제강부지로 남아 있었으나 수년간 매매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힌 뒤 "구로구가 서울시에 이 땅에 대해 매입을 요청하면서 현재 돔구장 부지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주민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M골프클럽 주변에 돔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백광화학 이전 등 많은 개발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M골프클럽이 소재한 이곳은 구로구청의 개발계획 일정까지 잡혀 있는 지역이다.(중략)

■ M골프클럽 지난 해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M골프클럽 주변은 돔구장 건설, 백광화학 이전 등 개발 호재를 맞고 있다. 실제로 양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지난해 3월 구로구청은 서울시에 백광화학 부지를 자역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후략)

"개발 호재 고척동 골프클럽대표가 양대웅 구청장 친동생"

지역 여론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대지 1,700평에 골프연습장·휘트니스 운영
구로구청서 3억7천여만원 근저당 설정도

지난 3월17일 구로구의회 의정회 사무실에서 권중호(한나라당서울시당 부위원장)씨와 최재부(전 구로구의회의장)씨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표면적인 내용은 후보단일화가 핵심이지만 권중호씨는 이 자리에서 "고척동 특혜의혹"을 언질하며 애써 구체적인 표현은 자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특혜의혹'에 대한 여운만을 남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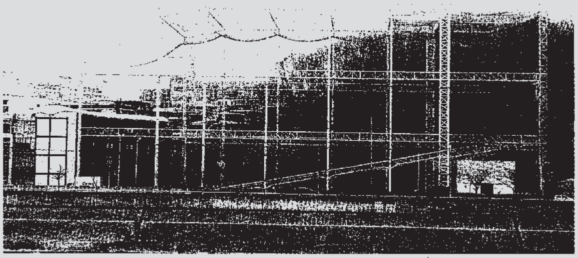
기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M골프연습장은 고척1동 62번지 일대에 있으며 동양공전 옆에 붙어 있다.

이 골프연습장은 2004년 5월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주소를 둔 김모(64세 남)씨와 유모(63세 강서구 등촌동)씨가 지분을 인수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2004년 9월20일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을 구로3동 에이스트윈타워 2차 10층 000호에 권리자를 이기 했다. 이곳 사무실 소유자는 양청장 친동생 부인으로 보이는 조모씨다. 양청장 친동생과 조모씨는 거주지가 같아서 이런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 000소재 사무실은 현재 양청장 친동생이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결국 등기부등본 대로라면 M골프 클럽은 양청장 친동생의 소유인 셈.

그래서인지 지역 정가에서는 골프클럽은 "양대웅구청장과 어떤형태로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금년 2월 26일 구로구는 M골프클럽에 채권최고액 3억7천여만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구의회는 4월20일~23일까지 임시회를 통해 자료요구를 요청하는 등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고척동 M골프클럽 전경.

근저당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다. 서류대로라면 구로구가 융자를 해준 것이다. 구로구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저리융자 및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대출이라면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항간에서는 M골프클럽이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구로구가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납세자가 화재, 저난을 당한 때, 배우자가 중병으로 장기적인 치료로 요양 중 일 때 등등 그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받아들이기에는 M골프클럽은 매우 성업 중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서류대로 구로구는 왜 이곳에 근저당 설정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로구의회 임시회의에 질의 및 답변이 벌써부터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당사자들로선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차피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양청장은 주민들 앞에 진솔하게 소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직 구청장의 친동생이 관내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관할 지자체의 행정적 영향력과 무관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다.

3면으로 계속➡

"고척동 골프클럽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1면에서 계속➡

한편, 고척동 공인중개사 A씨는 "M골프클럽 주변에 들어서는 돔구장 부지는 새화재공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수년간 매매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힌 뒤 "구로구가 서울시에 이 땅에 대해 매입을 요청하면서 현재 돔구장 부지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민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M골프클럽 주변에 돔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백광화학 이전 등 많은 개발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M골프클럽이 소재한 이곳은 구로구청의 개발계획 윤곽까지 잡혀 있는 지역이다.

M골프클럽은 2004년 12월에 허가를 받아 대지 1,700여 평에 연면적 1,000여 평의 대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골프퍼팅장, 휘트니스, 헬스클럽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150여대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2006년도 오픈 했다. 양청장 친동생은 지난 2009년 3월 30일 김모씨와 함께 M골프클럽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모씨는 양청장과 고향이 같은 남해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 M골프클럽 지난 해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M골프클럽 주변은 돔구장 건설, 백광화학 이전 등 개발 호재를 맞고 있다. 실제로 양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인 지난해 3월, 구로구청은 서울시에 백광화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이른바 '조건부 협상 대상 부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시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개발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와 자치구, 개발 주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거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시세가 몇 배나 뛰어오를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과 이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얘기다. 구청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해당 부지의 용도 전환을 신청한 일을 두고 주변에서 "오비이락(烏飛梨落)치곤 너무나 절묘한 우연"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고척동 주민 박모씨는 "양청장 친동생은 땅을 사고 형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땅값을 올려 주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 양청장 친동생 자동차판매업도 성업 중

양청장 친동생은 실제로 서초구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은 대부분 구로구 관할지역인 고척동과 구로3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주민들은 "양청장 친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무언의 압력으로 비쳐질수 있다"며 "구청직원들은 물론 관내 사람들까지도 양청장 친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청 간부급인사들은 대부분 양청장 친동생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2008년 3월 13일 양청장 친동생은 자동차(신차.중고차) 판매회사인 'OO산'(구로구 구로3동 대륭포스트타워 소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양청장의 친동생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고속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거주자 서모씨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차량 구매와 연관이 있을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OO산 매출은 2006년도 연간 15억, 2007년도 18억의 매출을 보이던 것이 2008년도 3월 13일 동생 양모씨가 인수하면서 매출이 수십 배로 뛰면서 고속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권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48(시심)
시 정 요 구 인	전 묘 순 경북 영천시 문내동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1804호
피시정요구인	(주)일간대구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12 대표이사 이 길 용
심의대상기사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대구경북〉 3면에 〈별지 1〉「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시정요구인을 확정짓고 발표하자 영천지역 대부분 단체들과 영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정요구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린 바 있고,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영천시민들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반발한 바 없으며, 4년 전 비례대표 선정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4년 전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 상담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피시정요구인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기사화했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중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 바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묘순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묘순씨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전묘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6 · 2 지방선거 비례대표를 확정해 발표하자 영천시민들이 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에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천지역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례대표 1번 선정에 대해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을 무시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는 지난 7일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전모씨를 확정짓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천발표즉시 일부 시민들이 공심위원인 정희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완산동에 사는 박모(58)씨는 모든 면을 두고 볼 때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고 시의원이 되면 우리 같은 시민을 배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야사동에 사는 박모(53, 여)씨도 "영천 여성 전체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라며 "본인도 무시를 당해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정희수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서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에 확정된 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3일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려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렸다며 대다수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가정문제 상담소를 개소한 약 2년 동안 잠깐 문을 열었을 뿐 늘 굳게 문이 잠겨 있어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소 문을 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2항의 상담소 ·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大邱慶北

2010년 05월 10일 월요일 003면 종합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6·2 지방선거 비례대표를 확정해 발표하자 영천시민들이 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에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천지역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례대표 1번 선정에 대해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을 무시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는 지난 7일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전모씨를 확정짓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천발표즉시 일부 시민들이 공심위원인 정희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완산동에 사는 박모(58)씨는 모든 면을 두고 볼 때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고 시의원이 되면 우리 같은 시민을 배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야사동에 사는 박모(53·여)씨도 "영천 여성 전체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라며 "본인도 무시를 당해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정희수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서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에 확정된 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3일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려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렸다며 대다수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가정문제 상담소를 개소한 약 2년 동안 잠깐 문을 열었을 뿐 늘 굳게 문이 잠겨 있어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소 문을 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3조 2항의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재이기자

결정 후 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중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 바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묘순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묘순씨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전묘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3. 경고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31(시심)
시 정 요 구 인	조 영 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445
피시정요구인	(주)더함안신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아람1차 203호 대표이사 최 성 상
심의대상기사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THE함안신문〉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2010년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기사의 제목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THE함안신문 2010. 2. 12.자 4면『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 26.자 3면『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 11.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후보예정자의 출마회견기사와 인터뷰 등을 수차례 게재했으며,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게 음해성 비방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해 수차례 우호적이고 그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한 반면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는 현 군수인 시정요구인에 대한 출마 관련 기사는 한 차례도 게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정요구인을 비방하거나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기사만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이 상대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2010년 2월 12일 창간호부터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향된 기사와 인터뷰를 수차례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경고결정문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월 12일자 4면『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안군수)와 관련, 본지가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우호적인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조영규 함안군수 등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8(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31(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더함안신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아람1차 203호 대표이사 최 성 상
재심청구대상 기 사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31(시심) 경고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 건 대상기사 중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대해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기사내용은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출마기사와 인터뷰 기사는 하 후보예정자가 보도자료를 보내와 보도한 것일 뿐 부각시킬려는 의도는 없었고, 하성식 후보 뿐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게재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고 조영규 함안군수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보도할 것이라며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10지선31(시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위원회가 원심결정을 함에 있어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가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후보자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조영규 함안군수에 대해서도 출마선언시 보도할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청구인의 청구취지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0억 살포 등 주민들에게 악성유언비어 발언 '파문'

(전략)실제 지난해 12월 29일 법수면 부남동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한 군수 출마 예정자를 현직 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회관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경 동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영규 군수가 모 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칭하면서 50억을 쓸 계획이다 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후략)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0억 살포 등 주민들에게 악성유언비어 발언 '파문'

다가오는 6.2 지방 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벌써부터 마타도어식 불법 선거가 우려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상대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음해성 발언이 난무 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29일 법수면 부남동 마을 회관 준공식에서 한 군수 출마 예정자를 현직 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 회관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경 동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영규 군수가 모 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칭하면서 50억을 쓸 계획이다 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이날 오후 3시경 마을 회관 준공식에 축하 하려고 뒤늦게 참석 했다가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사실을 접하고 현직 군수가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 같아 황당하고 냉담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제쳐두고 소위 현직 군수라는 신분으로 마을 회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여 이 같은 발언으로 상대후보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인격 및 자질함양은 물론 군민 대표로서 숙성이 안 되었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 하고 있다. 또 내가 만일 현직 군수라면 마을회관이 건축이 잘되었는지?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농민들의 생활 근황에 따른 불편이 없는지? 2010년 영농준비와 농가소득증대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퍼트려 안타까울 다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수의 발언을 식사 중에 들었다는 마을 주민 안양수씨는 군수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불필요한 발언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부르짖고 있는데 군수의 발언은 선거법을 떠나 아주 잘못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와 명예훼손" 등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함안군 기업체 크게 늘고 인구도 증가 백호의 기상으로 성력 성장 거듭할 것

(전략)기업 2000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함안상공회의소 하성식 회장(한국제강 대표이사 회장)을 만나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 띠의 해를 맞아 경영관을 듣는 경인년 인터뷰를 가졌다.(후략)

■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함안군 기업체 크게 늘고 인구도 증가
백호의 기상으로 성력 성장 거듭할 것

최근 함안에 많은 기업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다. 현재 함안군 입주 기업체(공장) 수는 약 1400여개 가량. 이렇게 기업(공장)의 입주가 활발한 것은 함안군이 인근 김해 창원 마산과 인접한 데다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어 물류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안상공회의소가 함안군과 더불어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2000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함안상공회의소 하성식 회장(한국제강 대표이사 회장)을 만나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 띠의 해를 맞아 경영관을 듣는 경인년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 주시죠.

– 올해도 군민모두가 호랑이의 기상과 용기를 닮아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인구가 [illegible] 1위를 달성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illegible]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illegible]. 함안은 이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15년경이면 [illegible] 승격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군내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난 개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함안군 기업체 수는 날로 증가합니다. 대략 14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군내 기업체 중에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어서는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일부 외지 부동산 업자들이 값이 싼 땅을 구입해서 [illegible]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illegible]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공감합니다. 특히 경제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llegible] 경제마인드는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곧 삶이라는 일, 즉 생존입니다. 경제마인드가 없으면 어떤 조직이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청이든 농업이든 상업이든 기업이든 경제마인드를 보유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illegible] 함안군이 중점적으로 할 일은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도로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illegible]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도로망 좀 더 넓게 확장해 주어야 한다는 [illegible]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가야 · 법수간 도로를 확충하되 가능하다면 5차선이나 8차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지?

–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와 군수, 도의원, 등이 경남도 도지사를 만나 가야 · 법수간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도로만 확장되면 [illegible] 공장들이 지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illegible] 소득도 높아지고 지역발전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함안이 타 지역에 비해 갖고 있는 이점 또는 장점이 있다면?

– 인근 도시로부터의 근접성입니다. 함안만큼 지역적인 특성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점을 살려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행정과 주민과 기업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국가발전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사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함안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학육성에 노력한 고장으로 대부분의 중 · 고등학교가 사립중고입니다.

[illegible]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와 생활수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농촌 학교가 도시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관내 학생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도록 힘껏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방안을 모색하여 [illegible]

▲함안상의는 꾸준히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 지역경제계의 모든 회두가 상공회의소로 모이는 만큼 지역 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기업과 상품이 [illegible]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아름다운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기업간 신생의 [illegible] 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마인드를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만간 함안상의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초청해서 관내 기업들을 순방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부터 경제 마인드를 키우고 향인기업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서 함안 발전 청사진 제시계획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함안군수 출마 선언을 위해 공식기자회견을 갖는다. 하회장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의 출마권유와 만류속에 긴 시간을 갖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업경영철학과 현장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중앙부서의 인맥을 풀가동시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함안군수출마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후략)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서 함안 발전 청사진 제시계획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함안군수출마 선언을 위해 공식기자회견을 갖는다. 하회장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안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의 출마권유와 만류속에 긴 시간을 갖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업경영철학과 현장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중앙부서의 인맥을 풀가동시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함안군수출마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

하회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그동안 치러진 수차례 선거로 지역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채 군민들이 희망과 자긍심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진단 한 뒤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명성을 되살리고 함안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화합과 상생을 이끌 방법을 밝힐 예정이다.

또 군 행정혁신을 위해 부 군수 이하 실과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같이 부여해 "책임행정체제"로 바꿔, 군수는 중앙부처, 국회, 도(道)를 상시 방문하여 전국의 적재적소에 포진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대한민국 10대부자 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기업경영철학 행정접목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육성

함안상공회의소 하성식 회장(59 · 한나라당)(주)한국제강회장)이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하회장은 지난 3월3일 오후2시 함안군청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을 만들고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다고 출마배경을 밝혔다.(후략)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기업경영철학 행정접목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육성

하성식회장

함안상공회의소 하성식회장(59 · 한나라당)(주)한국제강회장)이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하회장은 지난 3월3일 오후2시 함안군청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을 만들고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다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인터뷰 · 관련기사 8면

출마선언을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음마관문와 관계 속에서 오랜 동안 고민의 시간을 갖고 결심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기업인으로서 쌓아온 기업경영철학과 행정접목 육성에 접목시켜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 자신이란 각오로 낮은 자세로 봉사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함안지역은 넘쳐나 잠들은 지 오랜기간이 흘렀다 이제 다시 조선왕조 시대 민중의 민심을 조용고 배려하는 미풍으로 공동사회 화합과 단결의 함안으로 되돌아가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자함안, 생복한 함안' 으로 가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의 힘이 국가를 변화 발전시킨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해결위주교육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의 할인율산업, 자동 모의 위주 벤처를 선정, 함안의 지역자산관광 확보하여 군민 모두 잘 살고 자녀교육주장 없는 복지함안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전달했다.

하회장은 '더 크고, 더 강한함안' 을 만들고 약속 밝은 사람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며, 군정을 맡기주신다면 임기내내 공업 마다 양질의 공관을 만들어 함안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 함안특산물을 위해 부군수의 상 지원에 관한 와 행정을 함께 두어야며, 행정행정과 행정과 시설 개관과의 함안부서 · 국제 · 경남도 등을 바꿔주며, 전국에 포진해 있는 함안출신들을 지금부터 용이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제적 조치에 도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하회장은 지역의 충동선수는 지도자육성에 그리고 학우 수 있어 라 밝는다며 군민여러분의 손을 하고 한공한 선수육성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의 미와 꿈 바꾸어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은 자랑과 믿음을 갖는 일뿐을 시작하여 바꿔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7 11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하성식 군수 출마예정자 인터뷰

다가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 출마예정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고 유권자인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출마예정자별 릴레이인터뷰를 갖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략)△마당발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부처 · 국회 등 인적네트워크 활용방안은?

-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한 상공회의소 감사직을 맡아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인맥을 활용할 것입니다. 옛 말에 '우는 아이 먼저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 중앙부처 · 경남도를 다니며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후략)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오는 6 · 2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50대 함안 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주)한국제강 하성식 회장을 알아본다.

하성식! 그는 현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소재한 (주)한국제강 회장으로서 한국제강을 비롯하여 방계회사를 포함해 연간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모자라는 국내 굴지의 명실상부한 함안군민의 자존심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기업가이다.

그는 이제 한국제강 회장 하성식이 아닌 진정으로 함안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함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어찌 보면 무엇 하나 남부러운 게 없는 그가 왜 굳이 군민의 노복으로 봉사를 위한 고행의 길을 택하려 하는지, 의아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과연 하성식다운 결단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본적이 경남 의령인 그는 마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군복무 또한 ROTC 육군 장교로 전역했다. 그런 그가 한 치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근면 · 성실하되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제강을 반듯한 반석 위해 올려놓은 것은 그 특유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정체이다. 또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공정으로 연 200억 원에 달하

는 원가절감의 쾌거를 올린 것을 위시해 수많은 운영의 혁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끊임없는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 한국제강 직원들은 전 국민을 고통으로 내본 IMF경제 한파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고향은 함안이 아니다. 그러나 함안에서 반평생을 넘어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살아오면서 함안 땅은 내 고향이다 '라고 항상 말한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때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사 뒷산인 군북면 유현리에 산소를 모셨다. 진정으로 함안 땅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대대로 뼈를 묻을 곳이라는 결심을 실천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힘센 사람보다는 힘없는 사람 편에 서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인간 하성식은 사람이 최우선 이라는 철학은 실천하며 결코 수단만 강구하지 않는 마는 철학으로 살아왔다.

달콤한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원칙을 바탕에 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내포된 인간경영이 더욱 강한 힘을 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값비싼 양주보다는 삼겹살에 소주를 막걸리에 풋나물을 즐기는 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그는 함안발전의 초석은 함안인재육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년 수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함은 물론 일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문을 접할라치면 기꺼이 등록금 등을 비롯해 문제를 말없이 해결해 주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평소 함안지역 향토 사랑이 각별한 그는 함안지역의 체육 · 예술문화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릴레이 인터뷰 (1)

하성식 군수 출마예정자 인터뷰

다가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출마예정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고 유권자인군민에게 다양한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출마예정자별 릴레이인터뷰를 갖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함안지역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 할 복안은?

-첫째, 군민의 보편적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실질적 소득증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실업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농업 지원 대책 강화. 예를 들어 수매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를 수용할 가칭 "농민 고충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능동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한 수박 · 참외 · 매튼 등 하우스 농가의 실농에 대한 애타는 심정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책으로는 농가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보험제도를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농가보상금제도 등에 꼭 필요한 재해농가대책 예산 편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중앙 · 국회 인맥 통해 모두 동원
산업기반 조기 조성 · 사회적 약자 대책 등 이미 '준비'
장학금 모금 박차, 인재외부유출 방지에 혼신 다할 것

셋째, 산업 기반시설 확충, 칠원-창원간(천주산)터널공사, 내서-여항간(여항)터널공사,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등, 산업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전선 철도이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무상임대 방안과, 부지 매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공익성과 수익성을 대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보호정책(복지정책)강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장애인 고용촉진법이행강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 채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을 강구하고, 장애인 부모를 위한 '주단기 보호센터' 개설은 검토하며, 여성문제, 다문화 가정지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 시켜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으며,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향후 공약집을 통해 자세히 밝힐 것이며, 현실성 있는 공약 수립을 위해 '공약공모제'를 도입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에 따른 함안보 설치에 대한 문제와 견해는?

-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 강바닥 준설에 따른 검은 퇴적토(오니토층), 제거대책주변 지하수 오염 우려 등, 수많은 환경 문제와 위험요소가 제기 되고 있어, 함안보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환경 단체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칠서면 감태 · 이곡, 대산면 부목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모두와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함안보 설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함안교육의 발전과 비전은?

- 해남 · 조웅 장학재단을 비롯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 재단 등 지역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 재단의 민간 기탁금의 출연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관내 기업인과 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향후 더 많은 홍보와 기업인들의 인적 인프라를 동원하여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평균 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인재, 외부 유출 방지책으로 우수대학 유치사업도 적극 검토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 · 창 · 진이 통합 창원시로 출범함에 따른 함안의 나아갈 길은?

- 함안 군민 80%가 통합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대열에 함께 하지 못해 통합 준비 위원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임기 중 통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리에 연연치 않고, 군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부처 · 국회 등 인적네트워크 활용방안은?

-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한 상공회의소 감사직을 맡아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인맥을 활용할 것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먼저 젖 준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제, 국회 · 중앙부처 · 경남도를 다니며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화와 혁신' 으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 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발전을 뜻하며 '부자함안' 을 만들어 갈 기초가 될 것이며,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형적 실속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행복 할 수 있는 '복지함안' 을 의미 합니다.

또한, 함안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살기 좋은 함안' 을 넘어 '살고 싶은 함안' 을 만드는데 제게 남은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 여러분의 쓴 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학규기자〉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오는 6 · 2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 50대 함안 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주)한국제강 하성식회장을 알아본다.

하성식! 그는 현재 경남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소재한 (주)한국제강 회장으로서, 한국제강을 비롯하여 방계회사를 포함해 연간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국내 굴지의 열심상부한 함안군민의 자존심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기업가이다.

그는 이제 한국제강 회장 하성식이 아닌 진정으로 함안군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직함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어찌 보면 무엇 하나 남부러운게 없는 그가 왜 굳이 군민의 노복으로 봉사를 위한 고행의 길을 택하려 하는지 의아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과연 하성식 다운 결단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본적이 경남 의령인 그는 마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군복무 또한 ROTC 육군 장교로 전역했다. 그런 그가 한 치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근면 · 성실하되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난관을 도파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제강을 반듯한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 특유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정체이다. 또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공정으로 연 200억 원에 달하는 원가절감의 쾌거를 올린 것을 위시해 수많은 운영의 혁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끊임

연매출 1조원 주인답지 않게 '서민적'
'인간이 최우선' 철학아래 경제난 극복

없는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 한국제강 직원들은 전 국민을 고통으로 내몬 IMF경제 한파도 극복 할 수 있었다.

그의 고향은 함안이 아니다. 그러나 함안에서 반평생을 넘어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살아오면서 '함안 땅은 내 고향이다' 라고 항상 말한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때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사 뒷산인 군북면 유현리에 산소를 모셨다. 진정으로 함안 땅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대대로 뼈를 묻을 곳이라는 결심을 실천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힘센 사람보다는 힘없는 사람 편에 서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인간 하성식은 '사람이 최우선' 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며 결코 수단만 강구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살아왔다.

달콤한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원칙을 바탕에 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내포된 인간경영이 더욱 강한 힘을 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값비싼 양주보다는 삼겹살에 소주를, 막걸리에 풋나물을 즐기는 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그는 함안발전의 초석은 함안인재육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년 수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함은 물론 일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문을 접할라치면 기꺼이 등록금등을 비롯해 문제를 말없이 해결해 주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평소 함안지역 향토 사랑이 각별한 그는 함안지역의 체육 · 예술문화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라 냉대 받는 궁도 · 시조 · 창 · 국악 · 케이블 등과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 남 · 녀 농업경영인 지원 등 소외된 어려운 단체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간혹 기업 경영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국가경영 등 모든 경영도 잘 하는 법이라며 가까이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대국 일본의 경우도 70%이상이 경제인 출신이며 미국 등, 다른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역설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무턱대고 부정적인 잣대로만 돌이 던다면 어떤 분야에도 먼지는 있는 법.

단지 당사자가 깨끗하다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살려 낙후된 함안을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는 땅으로 탈바꿈 시킬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함안 땅은 유수한 역사와 전통이 배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 농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도약하는 함안 희망과 비전이 있는 함안 만들기에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는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라 남들이 꺼리는 궁도 · 시조 · 창 · 국악 · 케이블 등과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 남 · 여 농업경영인 지원 등 소외된 어려운 단체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간혹 기업 경영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국가경영 등 모든 경영도 잘 하는 법이라며 가까이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대국 일본의 경우도 70%이상이 경제인 출신이며 미국 등 다른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역설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무턱대고 부정적인 잣대로만 들이 댄다면 어떤 분야에도 먼지는 있는 법.

단지 당사자가 깨끗하다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살려 낙후된 함안을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는 땅으로 탈바꿈 시킬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함안 땅은 유수한 역사와 전통이 배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 농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도약하는 함안 희망과 비전이 있는 함안 만들기에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위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 부터 2월12일자 4면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인터뷰』 2월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회장군수출마회견』 3월11일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선택』 제하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위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안 군수)와 관련, 본지가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우호적인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조영규 함안 군수 등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9(시심)
시 정 요 구 인	현 명 관 제주시 노형동 2587-7 노형타워 205호
피시정요구인	(주)제주우먼타임스(제주프레스) 제주시 연동 268-4 영보빌딩 3층 대표이사 부 임 춘
심의대상기사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제주프레스〉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1〉「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의 부제목(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제하의 기사에서 현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정요구인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비방보도해 선거를 앞두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피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바 이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경고결정문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3월 31일자 1면『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본지가 현명관 제주도지사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객관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2(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79(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제주우먼타임스 제주시 연동 268-4번지 영보빌딩 3층 발행인 부 임 춘
재심청구대상 기 사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79(시심) 경고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 기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보도이며, 현명관 후보에 대한 소문내용에 대해서는 현 후보의 가까운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제주 사회에 퍼진 소문을 전달할 것일 뿐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 바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의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

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차명계좌 관련 거짓말에 이은 사생활 논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든지, 아니 땐 굴뚝서 나는 연기를 막든지 법적 대응을 내세운 '으름장' 보다 신뢰성 있는 해명이 우선 돼야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며 도지사직에 출마해 많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현명관 전 삼성그룹 고문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아내와의 불화설,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삼성 비자금 관련 거짓말에 이어 그 진실 여부 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중략)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현명관 고문은 도지사 예비선거 등록을 마치고 작심한 듯 도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젊은 가정주부, 아내) 사생활과 관련된 시중의 여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이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고문은 "자신에 대한 입소문은 100% 거짓이라며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으름장'을 놓고 엄정대처 방침을 시사했다.(중략)

그 소문의 내용들을 조합해 정리하면 이렇다.

현 고문은 가정을 부인 외에 삼성회사 내 자신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

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차명계좌 관련 거짓말에 이은 사생활 논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든지, 아니 땐 굴뚝서 나는 연기를 막든지
법적 대응을 내세운 '으름장' 보다 신뢰성 있는 해명이 우선 돼야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양광에서 미지막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며 도지사직에 출마한 김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현명관 전 삼성그룹 고문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도지사로 되어 있었던 이시영의 불참을 이유로 현명관 부회장과 사생활 문제가 지금 진의 없이 없이 거듭되면 도지사 후보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전혀 수사를 통해 지신의 없이 거듭되는 밝혀지게 되자, 당시 제주도민들 기자들을 찾아 자신이 가진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은 삼성기업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도민들에게 사과 했다고 이번 도지사 선거에 지출하다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현명관 고문은 도지사 예비선거 등록을 마치고 떠돌던 돗 도민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결은 기업주식, 아파트 사생활과 관련한 사생활 여론이 여론이 라고 문제점 지기를 으로서 이번 대한 여론이 분분하고 있다.

현 고문은 "자신이 대한 입소문은 100% 거짓이라며 전혀사실한 조조 작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한 법적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강경대처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현 고문은 큰 수술을 받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참담해진 얼굴 일 경직된 표정으로 내보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후략)

▶2면에 계속

→1면 '현명관 고문' 에서 계속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도민들은 이러한 현 고문의 행위는 이기 부정에 있어 도민들을 향한 진실성부족에 대해 공감하는 게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대한 기대감 안무했다는 의견 "으름장 놓는 식이라면 선거법 위반의 기대감 있다. 도민 이 기대 감정의 불 가도로 한 표로 대한 실은 기정 수행의 부족함한 관계, 이번 인사 부인과의 문제의 없은 사생활에 대해 비판 여론은 그 사생활에 대해 관대하게 인정하고 지사직무를 수행할 자격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고문의 "태도" 논란 소문은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현 현명 고문의 도지사직 예비선거 등록 과 이 당시 도지사직 선거에 나서기 위해 고문은 A 모 여성과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 올려졌다. 이 내용은 유사한 현 고문과 A 모 여성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 올려졌다. 이때 이 A 모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 다시 재게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 이 A 모 여성이 경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발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은 서울에서 현 후보 선거 기획을 돕기 위해 캠프에 합류했던 현 고문의 후보 시절 최고선거 측근인 B 모씨로 밝혀졌다. 이 B 모씨가 바로 현 고문이 이번에 도청 기자실에서 말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았다는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다.(후략)

그러나 현 고문은 또 5.31 선거운동 와중에도 당시 자신을 수행하던 모 당소속인 후보 수행비서인 A 모 여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외국행에 이 A 모 여성과 동행했고, 특히 당시 한 가정에 주부이자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인 이 A모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선거중에 이를 눈치 채고 의심하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또 이 A모 여성은 현 고문이 노형에 있는 3억짜리 고급아파트를 자신에게 사줬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도지사 선거 당시 현 후보 진영이었던 측근들로부터 흘러나와 입소문을 타던 중 2006년 9월 쯤 도내 모 인터넷신문에 댓글로 이런 내용과 유사한 현 고문과 A 모 여성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 올려졌다. 이때 이 A 모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 다시 재게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 이 A 모 여성이 경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발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은 서울에서 현 후보 선거 기획을 돕기 위해 캠프에 합류했던 현 고문의 후보 시절 최고선거 측근인 B 모씨로 밝혀졌다. 이 B 모씨가 바로 현 고문이 이번에 도청 기자실에서 말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았다는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3월31일자 1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본지가 현명관 제주도지사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객관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3(시심)
시 정 요 구 인	오 근 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피시정요구인	(주)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신 상 석
심의대상기사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뉴시스〉 2010 지방선거 섹션에 〈별지 1〉「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 논문 표절 관련 경고결정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게재한다. 단, 게재 기간은 게재된 날부터 48시간으로 하되,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시정요구취지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기사를 삭제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에 배달되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음해성 투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제보자가 확실하지 않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이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은 우편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으며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제3조(객관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제보 관련 경고결정문

2. 내용 : 뉴시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교육감)와 관련,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제보자가 "오근량 후보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다"라고 제기하는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 비록 보도내용에 오 후보의 반론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고, 오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6 · 2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 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최근 언론에 배달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음해공작으로 언론을 기만하는 제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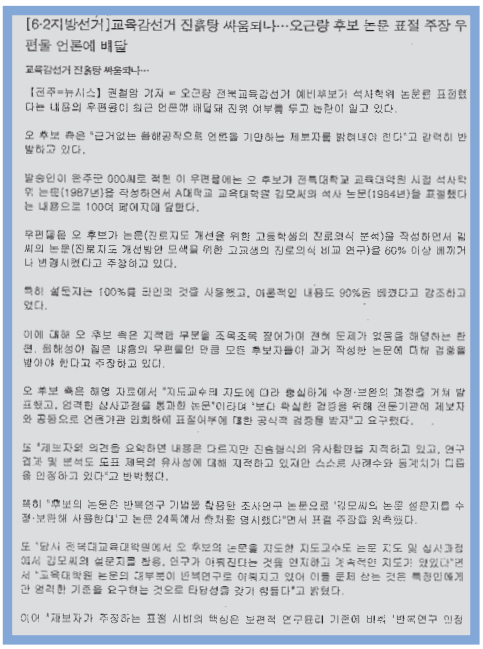
발송인이 완주군 000씨로 적힌 이 우편물에는 오 후보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1987년)을 작성하면서 A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모씨의 석사 논문(1984년)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우편물은 오 후보가 논문(진로지도 개선을 위한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분석)을 작성하면서 김씨의 논문(진로지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고교생의 진로의식 비교 연구)을 60% 이상 베끼거나 변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는 100%를 타인의 것을 사용했고, 이론적인 내용도 90%를 베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는 한편, 음해성이 짙은 내용의 우편물인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해명 자료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정 · 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이라며 "보


[6·2지방선거]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

【전주=뉴시스】 권철암 기자 =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최근 언론에 배달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음해공작으로 언론을 기만하는 제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발송인이 완주군 000씨로 적힌 이 우편물에는 오 후보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1987년)을 작성하면서 A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모씨의 석사 논문(1984년)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우편물은 오 후보가 논문(진로지도 개선을 위한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분석)을 작성하면서 김씨의 논문(진로지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고교생의 진로의식 비교 연구)을 60% 이상 베끼거나 변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는 100%를 타인의 것을 사용했고, 이론적인 내용도 90%를 베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는 한편, 음해성이 짙은 내용의 우편물인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해명 자료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이라며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제보자와 중용으로 언론기관 관계자에 표절여부에 대한 공식적 검증을 받자"고 요구했다.

또 "제보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진술형식의 유사함만을 지적하고 있고, 연구결과 및 분석도 표표 제목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스스로 사례수와 등계치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후보의 논문은 반복연구 기법을 활용한 조사연구 논문으로 '김모씨의 논문 설문지를 수정·보완해 사용한다'고 논문 24쪽에서 명시한 명시했다"면서 표절 주장을 일축했다.

또 "당시 전북대교육대학원에서 오 후보의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도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김모씨의 설문지를 활용, 연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인 지도가 있었다"면서 "교육대학원 논문의 대부분이 반복연구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잃기 쉽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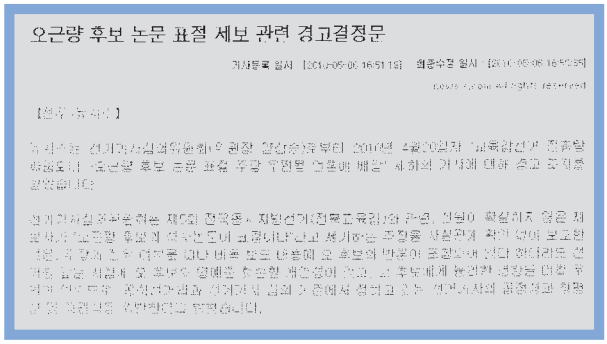
이어 "제보자가 주장하는 표절 시비의 핵심은 보편적 연구윤리 기준에 비춰 '반복연구 인정

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제보자와 공동으로 언론기관 입회하에 표절여부에 대한 공식적 검증을 받자"고 요구했다.

또 "제보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진술형식의 유사함만을 지적하고 있고, 연구결과 및 분석도 도표 제목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스스로 사례수와 통계치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후보의 논문은 반복연구 기법을 활용한 조사연구 논문으로 '김모씨의 논문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해 사용한다'고 논문 24쪽에서 출처를 명시했다"면서 표절 주장을 일축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세보 관련 경고결정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의 결 번 호	2010지선181(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경 회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05 진달래 연립 라동 303호
피시정요구인	진천군민신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구 169-1 발행인 임 영 단
심의대상기사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진천군민신문〉 1면 우측 상단에 〈별지 1〉「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1면『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 기사의 부제목('민선4기 군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크기의 고딕활자체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고,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진천군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충북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폐석면 처리업체와 진천군간의 행정심판에서 진천군이 승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미래연합 진천군수 후보로 시정요구대상 보도가 시정요구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기사화하면서 해당 후보의 치적과 업적을 우호적으로 보도해 시정요구인이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후보자간 논쟁이 된 사안이 흑색 선전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김경회 군수 후보 등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27일자 2면『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해 공정성이나 형평

성을 위반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진천군민신문'이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보도의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7일자 1면『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간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흑색 유언비어'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 없이 1면 전면에 게재한 것은 김경회 군수 후보 등 여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민선4기 군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

선거앞두고 반사이익 노린 특정후보 음해 주장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 군정추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유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생거진천은 날로 발전하는 희망을 품은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선 5기는 진천의 미래를 위해 매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요즈음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인해 진천군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4가지를 설명했다.

유 후보는 첫 번째로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 무산」에 대해서는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최근 다수 지방 언론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유치 변경승인을 받았고, 11월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를 득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년내 착공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자본유치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다소 속도감이 떨어지는 듯 하나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본인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영화건설대표와 우석대학교 기획조정처장과학, 처장등이 참석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약을 한바 있으며, 2012년 개교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두 번째로 "진천군이 빚이 많아 파산직전에 있고, 한번더 재임하면 진천군이 거덜난다"는 내용은 "예산운용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정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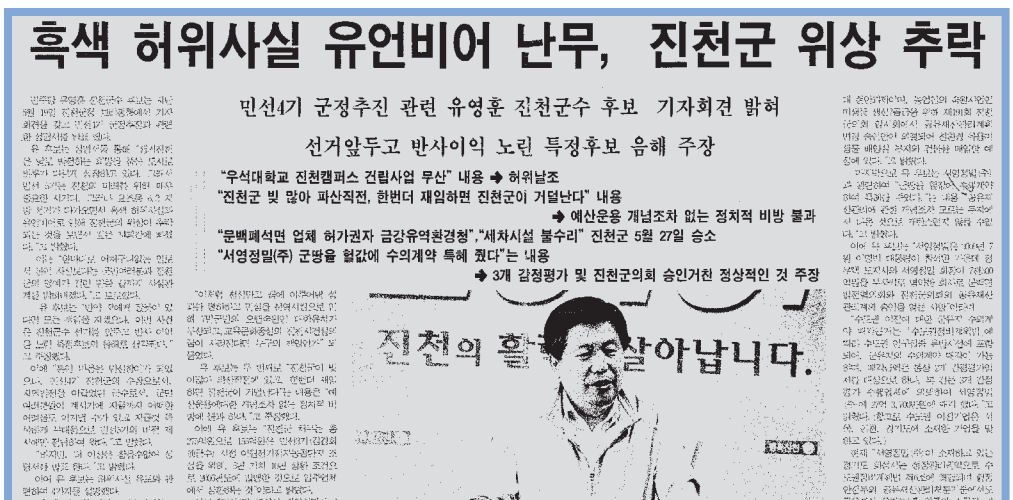
이에 유 후보는 "진천군 채무는 총275억원으로 155억원은 민선3기(김경희 前군수) 시절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2005년도에 발행한 것으로 입주업체에서 상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4기 본인이 취임하면서 2건에 12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먼저 진천2교 가설을 위해 80억을 발행했다며 진천2교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교량이 설치되어야만 개설된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고, 진천읍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필수적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는 세 번째로 "(주)이솔루션 허가관련"을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결론적으로 (주)이솔루션 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며 (주)이솔루션은 2009년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고 2008년 9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세차시설)를 진천군에서 불수리를 한바 소송을 제기 2009년 12월 24일 진천군이 승소하였으나 이솔루션에서 항소하여 2010년 5월 26일 결심공판 예정에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는 "이것은 「폐석면 중간처리업 저지 대책위원회」와 우리군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민선4기 군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

선거앞두고 반사이익 노린 특정후보 음해 주장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 무산" 내용 ➔ 허위날조

"진천군 빚 많아 파산직전, 한번더 재임하면 진천군이 거덜난다" 내용 ➔ 예산운용 개념조차 없는 정치적 비방 불과

"문백폐석면 업체 허가권자 금강유역환경청","세차시설 불수리" 진천군 5월 27일 승소

"서영정밀(주) 군명을 헐값에 수의계약 특혜 줬다"는 내용 ➔ 3개 감정평가 및 진천군의회 승인거친 정상적인 것 주장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 군정추진과 관련한 심경서를 발표 했다.

관계로 이루어낸 대 현안과제이며,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해 제1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인이 의결되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중략)

유 후보는 "이번 진천군수 선거에서 진천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제시로 여러분의 선택을 구한다"며 "다시한번 이번 유언비어 날조는 일부 특정후보의 음해로 반드시 군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중 후보자간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흑색유언비어'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없이 1면 전면에 게재한 것은 김경희 군수후보 등 여타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4. 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29(시심)
시 정 요 구 인	서 춘 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64-3
피시정요구인	(주)경남투데이(한남일보)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72-2 대표이사 김 종 규
심의대상기사	한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7면『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한남일보〉 7면 우측 상단에 〈별지 1〉「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경남도 모 전국장 재직 시 측근 지원 '의혹' 확산)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한남일보 2010. 3. 2.자 7면「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제하의 보도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남일보 2010. 3. 2.자 7면「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제하의 기사에서 "올 1월 경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는 행정절차상 관련 조항만 검토했고, 본 사업 관련 경상남도 결재는 축산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시정요구서에 기재된 진술의 취지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기사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시정요구인이 서면으로 시정요구 취지를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에서 반박보도문 게재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정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는 지난 2010년 3월 2일자 7면「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제하의 기사에서 함양군수에 출마한 경상남도 모 전국장이 현직에 재직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수에 출마한 서춘수 전 경상남도 농수산국장은 함양군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반론을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서춘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경남도 모 전국장 재직 시 측근 지원 '의혹' 확산

올 1월 경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한우협회 회원들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함양 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할 국장 측근에게로 지원 사업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함양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한 S씨가 경남도 국장 재직 전 후인 지난 2008년 3월과 8월 함양군 지곡면 모 버섯업체와 한우협회 함양군지부는 각각 버섯배지 사료화 이용계획을 신청했으나 경남도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지난해 2월 한우협회 함양군지부와 J유통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지곡면 버섯업체로 한 서류를 또 다시 제출했으나 경남도는 사업대상자와 예정부지의 소유권 관계 등을 이유로 관련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3월 31일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경남도는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장을 함양읍 죽림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J 유통영농조합 단독으로 지정,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해진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경남도는 한우협회에게는 사료이용과 수송을, 사업자로 지정된 J영농조합은 사료생산과 판매, 버섯업체는 배지 물량 공급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어이없는 행정집행에 버섯배지를 활용한 사료 생산으로 경영비 절감을 기대한 축산농가들은 실제 사업비가 축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업체에 배정돼 생산단가만 올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즉, 지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효 사료가 될 버섯배지 공급 업체와 경영비 절감이 절실한 한우농가들은 사업자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이미 설립된 영농조합이란 이유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버섯재배 부산물 사료화 이용 계획을 수립했던 한우협회 회원들 마저도 경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빚어질 지분관계 대립 등이 사업 불투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여차직하면 법을 빠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 함양군지부 한 회원은 "버섯배지를 공급할 버섯업체에 사업장 예정 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수송비 절감이 가장 주된 이유"라며 "하지만 경남도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하늘 널기더니 축산과는 하등 관계없는 유통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한 이유가 명퇴한 전 국장의 입김 작용이란 의혹이 있다. 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주윤한 기자 jjk@namnam-co.com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출발은 경남도는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장을 함양읍 죽림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J 유통영농조합 단독으로 지정,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해진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경남도는 한우협회에게는 사료이용과 수송을 사업자로 지정된 J영농조합은 사료생산과 판매 버섯업체는 배지 물량 공급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어이없는 행정집행에 버섯배지를 활용한 사료생산으로 경영비 절감을 기대한 축산 농가들은 실제 사업비가 축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업체에 배정돼 생산단가만 올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즉, 지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효 사료가 될 버섯배지 공급 업체와 경영비 절감이 절실한 한우 농가들은 사업자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이미 설립된 영농조합이란 이유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버섯재배 부산물 사료화 이용 계획을 수립했던 한우협회 회원들마저도 경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빚어질 지분관계 대립 등이 사업 불투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여차 하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0년 3월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함양군수에 출마한 경상남도 도 전국장이 현직에 재직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함양군수에 출마한 서춘수 전 경상남도 농수산국장은 함양군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사업자선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반론을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의거 서춘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5(시심)
시 정 요 구 인	우 건 도 충북 충주시 교현2동 618-5번지 3층
피시정요구인	(주)대전일보사 대전 서구시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18면에 〈별지 1〉「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했으며, 구입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해달라고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당시 시세에 의해 정당하게 빌라를 매입했고 시가보다 싸게 빌라를 구입한 적도 없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시정요구대상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어 시정요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기사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해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자명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충분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건설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매입 당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미분양률이 70%이상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충주시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우건도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6 · 2地選－정가레이더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08년 10월 초 충주시부시장 재임중 구입한 수억 원대 고급빌라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분양 당시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다른 입주자들보다 7000만원이나 싼 값에 구입한 게 최근 밝혀져 한바탕 소란, 이 빌라 관계자는 "당시 우 후보의 대리인이 현직 부시장이 구입하는 것이니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으로 요구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싼값에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입주자는 "우 후보가 구입하자마자 1000만원 보탠 가격에 매매 광고를 내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당시 시세를 전혀 몰랐다. 난방시공이 부실해 10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싼값에 매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6·2 地選 - 정가레이더

선진당 충북도당 공심위 9명 구성… 1차 심사 12일 발표

○…자유선진당 충북도당은 6·2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를 할 공천심사위원을 5일 구성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심위원회 위원장은 이용희 도당 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성일 충북도당 부위원장, 황원선 국제라이온스355 F지부 총재, 정단경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전중표 충북도당 정책실장, 최현호 충청대 교수, 김진의 청주 개신동주민자치위원, 하유정 청주예술오페라단 부단장, 노두진 변사(변학) 등이 선임됐다.

자유선진당 충북도당 공심위는 공천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차 공천심사 결과를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시종, 9일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이 오는 10일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북도지사 선거전에 나선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그동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세종시 수정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미뤄왔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정황으로 볼 때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의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충북지사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심했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전언.

이 의원은 9일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의 본격적인 선거행보 가시화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 지사는 청주 상당공원 옆 옛 청주여고 부지 내 건물을 선거 캠프로 일찌감치 얻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지사직을 던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 한다는 계획이다. 정 지사의 사퇴시기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범덕, 식목일 행사 참석

○…한범덕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청주 내덕생활체육공원에서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테마공원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 이날 행사는 어르신 독거 격진을 위한 연합대의검진센터와 내덕노인복지관 자매결연도 함께 진행됐으며 민주당 소속 김광수 충북도의원과 인기중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

한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녹지공원 조성뿐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밀착형 생활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김수백 "유언비어 법적 대응"

○…한나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인 김수백(61)씨는 5일 "보은군 골프장 수사와 연관지어 음해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백씨는 이날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후보 측에서 (당시 부군수였던)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돈을 받아 선거 도중 낙마할 것이라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문제가 된 골프장 예정지의 군유지 교환문제는 부군수로 있을 때 추진됐으나 감정가격 등에 문제가 생겨 자동 폐기됐으며 내가 토임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팔각돈 만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정주부 기초의원 도전

○…정치초년생인 가정주부가 음성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진출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에 도전장을 내 화제다. 주인공은 음성여중·고교 총동문회장 음영숙(57)씨로, 음 회장은 "민주당은 중도개혁의 성향으로 제가 살아온 길과 비슷하다"며 "이제는 남성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음성군의 살림을 감시·견제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일궈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08년 10월 초 충주시부시장 재임중 구입한 수억 원대 고급빌라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분양 당시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다른 입주자들보다 7000만원이나 싼 값에 구입한 게 최근 밝혀져 한바탕 소란. 이 빌라 관계자는 "당시 우 후보의 대리인이 '현직 부시장이 구입하는 것이니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으로 요구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싼값에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입주자는 "우 후보가 구입하자마자 1000만원 보탠 가격에 매매 광고를 내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당시 시세를 전혀 몰랐다. 난방시공이 부실해 10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싼값에 매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충북취재본부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보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건설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매입 당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미분양률이 70% 이상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충주시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의거 우건도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결번호	2010지선133(시심)
시정요구인	이 흥 수 인천시 동구 송림6동 125-21 401호
피시정요구인	(주)인천일보 인천시 중구 항동 4가 18-1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
주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3면에 〈별지 1〉「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 대상 기사의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조문을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빈소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연평해전 전적지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게재된 사진과 조문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를 선거에 홍보할 목적은 전혀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사진 배경은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빈소가 아니라 제2연평해전 전적비임에도 제목에서 '애도현장'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이 마치 빈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 의견을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정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4월 27일자 3면『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흥수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조문과 무관하며, 조문사실을 선거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이흥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한나라당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을 애도하기 위해 제2함대 평택사령부를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 사진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중 · 동구, 옹진군 후보자들 60여명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을 담아.〈사진〉

이홍수 후보 측은 "빈소에서 사진을 찍기가 뭣해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연평해전 전적비를 택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자신들의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한나라당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을 애도하기 위해 제2함대 평택사령부를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 사진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중·동구,옹진군 후보자들 60여명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을 담아.<사진>

이홍수 후보 측은 "빈소에서 사진을 찍기가 뭣해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연평해전 전적비를 택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자신들의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지 4월27일 3면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홍수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라 조문과 무관하며 조문사실을 선거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이홍수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49(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호 복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9-1
피시정요구인	(주)씨엔엠(동양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대표이사 이 철 구
심의대상기사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양일보〉 3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향응과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경찰도 김 후보가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과장 기사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의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점은 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시정요구인이 모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대해 시정요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시정요구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와 관련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5(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149(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씨엔엠(동양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대표이사 이 철 구
재심청구대상 기 사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주 문	1. 당 위원회의 2010지선149(시심) 결정에 따른 〈별지 1〉 「반론보도문」을 〈별지 2〉 「반론보도문」으로 변경한다. 2. 재심청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양일보〉 3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부제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활자 크기로, 본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149(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시정요구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경찰이 첩보단계라 수사 진행여부를 밝히기 꺼리고 있지만 시정요구인에 대한 수사를 충주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므로 원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원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게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재심청구인이 원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재심청구인이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정황상 경찰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첩보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원심 보도 결정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의 문안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는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경찰은 김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향응과 금품 제공 혐의 등 공직선거법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후보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6.2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충주시장선거가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김후보의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뿐 아니라 추가의 별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충주시장 재임 시 연두순방 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각 경로당에 비품 제공 등 선심성 공약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로부터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데 대한 관련 서류 일체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향응과 금품 제공 혐의 등 공직선거법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후보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6.2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충주시장선거가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

이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김후보의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뿐 아니라 추가의 별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충주시장 재임 시 연두순방 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각 경로당에 비품 제공 등 선심성 공약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로부터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데 대한 관련 서류 일체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지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는 "경찰에 알아 본 결과 '경찰은 김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5. 권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106(시심)
시 정 요 구 인	박 정 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푸르지오 2차 308동 504호
피시정요구인	경남매일신문(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104 성평그린빌 7층 대표이사 최 용 학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권고」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제하의 보도에 대해〈별지〉'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시정요구변경 취 지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제하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경남매일 2010. 4. 9.자 4면「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P 후보 선거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2010. 4. 20.자 4면「김해시장 후보 지지자 기소 예정」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장 모 후보의 지지자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A씨가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단순한 지지자로 시정요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론을 보도하고 A씨는 김해시장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김해시장 후보 중 이니셜이 P로 시작하는 후보는 시정요구인 뿐이라 시정요구인이 특정되었으며, 시정요구인의 선거 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피시정요구인이 경남매일 2010. 4. 20.자 4면「김해시장 후보 지지자 기소 예정」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경고문을 게재하라고 시정요구 취지를 변경했다. 살펴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보만을 근거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을 표기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일부 사실 여부가 다르게 밝혀진 내용을 정정하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을 보도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김해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집에서 '은밀한 식사대접'
입주민 등 초대 불법선거 장소 활용… 적발 어려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한 예비 후보들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아파트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선거홍보물을 돌리는 등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김해 장유 대단위 아파트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 운동원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을 불법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지난달 말 김해시 장유면의 아파트에 사는 한 주인은 가정주부 10여 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어 아구찜 등 10여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언니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한나라당 김해시장 P후보 선거캠프운동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거운동원 3명이 방문해 P후보의 명함과 함께 김해지역 주간지에 게재된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봉투에 담아 한부씩을 건넸다.

이 가운데 남자 운동원 한 명이 "P 후보의 지지도가 지역 주간지 신문의 기사내용대로 현직 시장을 바짝 추격했다"면서 "P 후보를 조금만 밀어주면 당선이 가능하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집주인 H씨는 인근 목욕탕과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들며 아파트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 했고, 수차례 이상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

H씨는 "10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연락하라", "선거사무실에서 식사비용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말로 주부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거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선거운동원들이 모임장소를 방문하는 등 은밀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김해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집에서 '은밀한 식사대접'
입주민 등 초대 불법선거 장소 활용 … 적발 어려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아파트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선거홍보물을 돌리는 등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김해 장유 지역 대단위 아파트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 운동원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을 불법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지난달 말 김해시 장유면의 아파트에 사는 한 주인은 가정주부 10여 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어 아구찜 등 10여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언니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한나라당 김해시장 P후보 선거캠프운동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거운동원 3명이 방문해 P후보의 명함과 함께 김해지역 주간지에 게재된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봉투에 담아 한부씩을 건넸다.

이 가운데 남자 운동원 한 명이 "P 후보의 지지도가 지역 주간지 신문의 기사내용대로 현직 시장을 바짝 추격했다"면서 "P 후보를 조금만 밀어주면 당선이 가능하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집주인 H씨는 인근 목욕탕과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들며 아파트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 했고, 수차례 이상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

H씨는 "10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연락하라", "선거사무실에서 식사비용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말로 주부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거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선거운동원들이 모임장소를 방문하는 등 은밀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춘국 기자〉
ckpark@kndaily.com

Kn@TV 동영상뉴스 제공

6. 기각

의 결 번 호	2010지선30(시심)
시 정 요 구 인	정 송 학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7(자양로 150)
피시정요구인	한겨레신문(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한겨레 2010. 3. 11.자 4면「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제하의 보도에 대해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겨레 2010. 3. 11.자 4면「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3월 10일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했을 뿐 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월 11일 구성되어, 아직 서울구청장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시정요구인이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데, 정당의 공천은 당 지도부가 단순히 여론조사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거전략, 해당 지역 당원들의 여론 및 상대정당의 경쟁자, 현역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정요구인이 속한 한나라당의 당규에도 전략공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이 없으며, 시정요구대상보도는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도봉 · 서초 · 광진 · 강북 등 교체로 가닥 잡아"

한나라당이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대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한겨레〉기자와 만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시 구청장에 대한 지지 여부 등 교체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교체지수와 외부영입,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 구청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 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과 마포도 전략공천 등 새 인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현재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19곳이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용산(박장규), 은평(노재동), 동작(김우중) 구청장을 포함할 경우 10곳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공천이 유력한 곳은 구로, 노원, 성동, 성북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도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에 따라 외부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곧 최용호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진익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북경무역관장 등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을 3명 이상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신연희 전 서울시 행정국장, 고경화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출마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대적인 서울 구청장 물갈이에 나선 것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속된 말로 거저먹었지만, 여당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다 야당이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비리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갈이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모두 따내며 '싹쓸이' 했지만 동대문, 서대문, 관악, 양천 구청장 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도봉·서초·광진·강북 등 교체로 가닥 잡아"

한나라당이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대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시 구청장에 대한 지지 여부 등 교체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교체지수와 외부영입,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 구청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 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과 마포도 전략공천 등 새 인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현재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19곳이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용산(박장규), 은평(노재동), 동작(김우중) 구청장을 포함할 경우 10곳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공천이 유력한 곳은 구로, 노원, 성동, 성북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도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에 따라 외부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곧 최용호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진익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북경무역관장 등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을 3명 이상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신연희 전 서울시 행정국장, 고경화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출마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대적인 서울 구청장 물갈이에 나선 것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속된 말로 거저먹었지만, 여당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다 야당이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비리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갈이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모두 따내며 '싹쓸이'했지만 동대문, 서대문, 관악, 양천 구청장 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성연철 신승근 기자 sychee@hani.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77(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성 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14번지
피시정요구인	함평천지신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0-6 발행인 서 현 숙
심의대상기사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함평천지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1〉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함평나비대축제 4월 23일~5월 9일까지 열려" 제목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인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민주당 함평군수 공천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되었고, 안병호 후보로 단독 공천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을 함평군수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신청했고, 이에 2010년 4월 26일 제222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인의 재심신청을 수용했으며 시정요구인과 안병호 후보로 경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결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별지 1〉

보도문

1. 제 목 : 김성호, 민주당 공천재심 통과

2. 보도내용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최고위는 김성호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했다. 또 최고위는 김성호, 안병호 2명의 후보로 경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이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김성호 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천배제가 결정되어 안병호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김성호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늦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함평천지신문이 전남도당 공천 결과를 보도하면서 본인의 반론의견을 보도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 위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4(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77(시심))
재 심 청 구 인	함평천지신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0-6 발행인 서 현 숙
재심청구대상 기 사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제하의 기사
주 문	1. 당 위원회의 2010지선77(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2. 2010지선77(시심)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77(시심) 보도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2010년 4월 29일 김성호 후보가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됨에 따라 원심 결정에 따른 보도문을 게재하게 될 경우 독자들이 혼선을 빚게 될 수 있으므로 원심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인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원심 결정 당일인 2010년 4월 29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고, 재심청구인이 발행하는 〈함평천지신문〉 4월 30일자 1면 '한병호 사실상 확정, 김성호 경선불참 밝혀' 제하의 기사 말미에 김성호 후보 예정자의 재심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해 2010년 5월 9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는 더 이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함평 군수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성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 위원회(이하 공심위)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져 현재로서는 민주당 안병호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함평군수 후보로 공천 서류를 제출한 김성호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조세포탈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음 주쯤 발표할 공천적격자 발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6일 MBC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김성호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회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가 규정에 따라 공천을 배제키로 한 결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금방 변경될 수 있을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재심에서 공천배제결정이 철회된다면 안병호 후보와 공천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의신청에서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당의 결정에 승복할것인지 아니면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가 지

구 박동주 예비후보와 나 지구 진일정 예비후보도 공심위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가 지구에서는 이윤행 예비후보가 현재 민주당 단독 공천이 유력시되고 나 지구에서는 노종석씨의 정문호씨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화동씨도 공천배제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 가 지구 박동주씨는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 지구 도의원 예비후보 전일정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가 지구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도 재심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도, 군의원 후보 박동주 전일정, 이화동 도 배제 결정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안병호 단독 공천 유력

가 지구 도 의원후보 이윤행 단독공천 유력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함평군수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성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 위원회(이하 공심위)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져 현재로서는 민주당 안병호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함평군수 후보로 공천 서류를 제출한 김성호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조세포탈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음 주쯤 발표할 공천직격자 발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26일 MBC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김성호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가사화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가 규정에 따라 공천을 배제키로 한 결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금방 번경될 수 있을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재심에서 공천배제결정이 철회된다면 안병호 후보와 공천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의신청에서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다음기회를 노리고 당의 결정에 승복할지 아니면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가 지구 박동주 예비후보와 나 지구 진일정 예비후보도 공심위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가 지구에서는 이윤행 예비후보가 현재 민주당 단독 공천이 유력시되고 나 지구에서는 노종석씨와 정문호씨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도 공천배제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 가 지구 박동주씨는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 지구 도의원 예비후보 전일정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가 지구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도 재심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4(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부 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157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사무실
피시정요구인	(주)매일신문사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71 대표이사 이 창 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0년 3월 23일자 3면『기초長 경쟁률 '뚝'…대구 3.7대1, 경북 3.2대1』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과 경고문을 게재하라.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매일신문 2010. 3. 23.자 3면「기초長 경쟁률 '뚝'…대구 3.7대1, 경북3.2대1」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신청자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특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이명박 대선 후보 직능특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2010년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 직능특보로 바로 잡는 정정보도를 한 바 있어 시정요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시정요구인이 고의로 시정요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한 바 더 이상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기초長 경쟁률 '뚝' 대구 3.1대1, 경북 3.2대1

▶ 달서구청장

곽대훈 54 달서구청장

김부기 53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후보

기초長 경쟁률 '뚝'…대구 3.7대1, 경북 3.2대1

한나라 광역長 후보 신청 명단 (가나다순)

▶대구시장(1명)
- 김범일 59·대구시장

▶경북지사(2명)
- 김관용 67·경북지사
- 정장식 59·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장(6명)
- 곽영훈 67·(사)사람과환경 회장
- 김영호 56·전 파이낸셜뉴스 편집부국장 직대
- 김충환 56·국회의원
- 나경원 46·국회의원
- 오세훈 49·서울시장
- 원희룡 46·국회의원

▶부산시장(3명)
- 김영삼 56·동의대 교수
- 김칠두 59·전 산업자원부 차관
- 허남식 61·부산시장

▶인천시장(2명)
- 안상수 63·인천시장
- 윤대진 6[illegible]·전 남동구청장

▶광주시장(1명)
- 정용화 45·전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대전시장(1명)
- 박성효 55·대전시장

▶울산시장(3명)
- 강길부 67·국회의원
- 박맹우 58·울산시장
- 이은우 58·전 경남경찰청장

▶경기지사(2명)
- 김문수 58·경기지사
- 박광진 46·도의원

▶강원지사(9명)
- 권혁인 54·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 심재엽 64·전 국회의원
- 이계진 63·국회의원
- 조관일 61·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 조규형 59·전 주 브라질 대사
- 최동규 61·전 중소기업청장
- 최 영 57·강원랜드 사장
- 최흥집 58·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 허 천 66·국회의원

▶충북지사(1명)
- 정우택 57·충북지사

▶전북지사(1명)
- 유종일 68·전북도당위원장

▶전남지사(3명)
- 김대식 47·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김운일 62·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 정 훈 61·국민통합운동본부 총재

▶경남지사(4명)
- 이달호 62·중앙당 부대변인
- 이달곤 56·전 행정안전부 장관
- 이방호 65·전 국회의원
- 천진수 45·전 도의원

▶제주지사(5명)
- 강상주 55·전 서귀포시장
- 강택상 59·전 제주시장
- 고계추 64·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 김경택 54·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현명관 68·삼성물산 상임고문

대구 기초단체장 (무순)

▶중구청장 (이름 / 나이·직책)
- 류규하 53·대구시의회 부의장
- 윤순영 57·중구청장
- 남해진 52·잡수신협회 수석부회장
- 손기원 58·대구시당 부위원장
- 조병기 44·민주평통 자문위원

▶남구청장
- 임병헌 56·남구청장
- 이신학 65·전 남구청장

▶동구청장
- 이재만 50·동구청장
- 이 훈 69·전 동구청장

▶서구청장
- 손창빈 43·대구대 겸임교수
- 김옥주 53·옥일섬유 대표
- 강성호 43·희망서구21 대표
- 조충현 47·외국계 투자기업 부사장
- 신점식 56·전 서구청 부구청장

▶북구청장
- 김승환 48·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 이종화 60·북구청장
- 박청우 49·검단공단 이사장
- 서용균 54·북구새마을 지회장
- 박성철 57·전 공무원노조의원장

▶수성구청장
- 김대현 38·전 대구시의원
- 김형렬 50·수성구청장
- 김훈진 64·민족중흥회 수성구지회장
- 이진훈 53·전 대구시기획관리실장
- 이철거 56·대구시당 부위원장
- 송성오 44·이·송정오한의원 원장
- 이기문 60·낙동애국회 대표

▶달서구청장
- 곽대훈 54·달서구청장
- 김부기 53·이명박 대선후보 직능특보

▶달성군수
- 이석원 64·달성군의회 의장
- 서보강 6[illegible]·대구대 겸임교수

경북 기초단체장

▶포항시장
- 박승호 52·포항시장

▶울릉군수
- 정윤열 67·울릉군수
- 최수일 58·상업
- 신봉석 61·울릉군의원
- 유병태 56·울릉도독도 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경주시장
- 정진홍 53·전 공무원
- 백상승 74·경주시장
- 최양식 57·정당인
- 김벽기 65·무직

▶김천시장
- 박보생 59·김천시장
- 오명석 52·도의원
- 김용규 54·정당인

▶안동시장
- 안민효 59·대화약국 약사
- 이동수 59·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
- 권영세 57·정당인

▶구미시장
- 남유진 57·구미시장
- 채동익 67·전 구미시경제통상국장
- 김석호 51·새마을연구소장

▶영주시장
- 김석동 62·농업인
- 송시철 56·전 영주시의원
- 정대동 56·전 영주경찰서장
- 소 훈 60·영주시 재향군인회장
- 김주영 61·영주시장
- 최영섭 47·최영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 장욱현 53·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영천시장
- 김영석 58·영천시장
- 이성희 58·(주)인전도시관광 대표이사

▶상주시장
- 이정백 59·상주시장
- 김광수 61·대경대 교수
- 송병근 54·(사)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 상주지회장

▶문경시장
- 신현국 58·문경시장
- 이상진 61·정당인
- 임병하 58·정당인
- 고재만 55·유안약국 대표약사

▶예천군수
- 정연식 58·정당인
- 오창근 62·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 이현준 55·예천시외버스 터미널대표
- 최명현 67·전 예천교육장
- 윤영식 52·도의원
- 김학동 47·입시학원운영

▶경산시장
- 윤영조 66·전 경산시장
- 최병국 56·경산시장
- 이우경 59·정당인
- 정재학 52·전 도의원

▶청도군수
- 이중근 68·청도군수
- 박순동 55·상업
- 김화갑 56·정당인
- 박영봉 60·영남대 교수

▶고령군수
- 박원환 69·경북도의원
- 곽용환 52·전 다산면장
- 정재수 60·정당인

▶성주군수
- 이창우 72·성주군수
- 이택천 64·구산성재서원 교무
- 김항곤 59·전 성주경찰서장

▶칠곡군수
- 배상도 70·칠곡군수
- 김주완 60·대구대 겸임교수
- 송필원 64·정당인
- 장세호 53·(주)세조대림수산 사외이사
- 김경포 59·정당인
- 김회원 49·경북과학대학 강사
- 박소빈 53·경북도의원

▶군위군수
- 장욱 56·경북도당 운영부위원장

▶의성군수
- 최유철 55·법무사
- 김복규 69·의성군수

▶청송군수
- 한동수 61·청송군수

▶영양군수
- 권영택 47·영양군수
- 이호지 6[illegible]·정당인
- 윤철남 48·(주)남해화학 경북북부지사 지사장

▶영덕군수
- 김병목 67·영덕군수
- 이상도 69·재경영덕군 향우회장
- 오장홍 62·(주)은성레저타운 대표이사
- 박문태 55·강구국장대표

▶봉화군수
- 박노욱 49·도의원
- 엄태항 6[illegible]·봉화군수

▶울진군수
- 김용수 69·울진군수
- 임광원 59·울진사지발전연구소 소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140(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용 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대승빌딩 3층
피시정요구인	(주)주간홍성(홍성신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66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서 김용일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자질검증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민주당 김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홍성군수 범야권 후보단일화 논의는 현재까지 상호 의견대립이 모두 해소되어 실행단계만 남았고, 민주당은 무소속 조성미 후보가 제안한 후보자질검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 요구를 수용했으며, 조 후보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적이 없고 후보단일화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서와 피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판단에 따른 의견표명으로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 – 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민주당 김용일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들 두 후보는 그간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5+4' 연합 공천을 놓고 후보단일화를 논의 중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야4당은 후보자질검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일 후보 측은 야4당이 후보자질검증토론회를 요구하자 "이미 민주당이 검증을 마친 후보를 왜 다시 검증해야 하느냐"며 반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조성미 후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론조사에 의해 '5+4' 연합공천을 결정하는데 대한 이견이 도출되며 단일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여론조사 방식 후보단일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5+4'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군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겪으며 그간 논의가 진행 중이던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국민참여당 김기현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명을 뗀 여론조사에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처음엔 여성후보로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당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며 "계속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가선거구 군의원 단일화 국민참여당 김기현 후보 반발로 결렬 위기

민주당 김용일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들 두 후보는 그간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5+4' 연합 공천을 놓고 후보단일화를 논의 중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 야4당은 후보자질검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일 후보 측은 야4당이 후보자질검증토론회를 요구하자 "이미 민주당이 검증을 마친 후보를 왜 다시 검증해야 하느냐"며 반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조성미 후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론조사에 의해 '5+4' 연합공천을 결정하는데 대한 이견이 도출되며 단일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여론조사 방식 후보단일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5+4'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김기현 가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겪으며 그간 논의가 진행 중이던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국민참여당 김기현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명을 뗀 여론조사에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처음엔 여성후보로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당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며 "계속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원근 기자/

7. 각하

의 결 번 호	2010지선113(시심)
시 정 요 구 인	송 재 영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부곡휴먼시아아파트 206동 801호
피시정요구인	(주)미디어시민(군포시민신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3 씨티프라자 302호 대표이사 장 원 철
심의대상기사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각하한다.
시정요구취지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사과문' 및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제하의 기사에서 군포시장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군과 민주당 김윤주 후보, 정금채 시민단체 지지후보 등과 가상대결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민주노동당 군포시장 후보자로 군포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정요구인 관련 조사결과는 보도하지 않았고,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금채 후보보다 시정요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음에도 이를 게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당시 여론조사 결과 내용 전부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공직선거법」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의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정요구인은 이미 시정요구일(2010년 4월 16일) 당시 공식적으로 후보직을 사퇴(2010년 4월 9일)한 상태여서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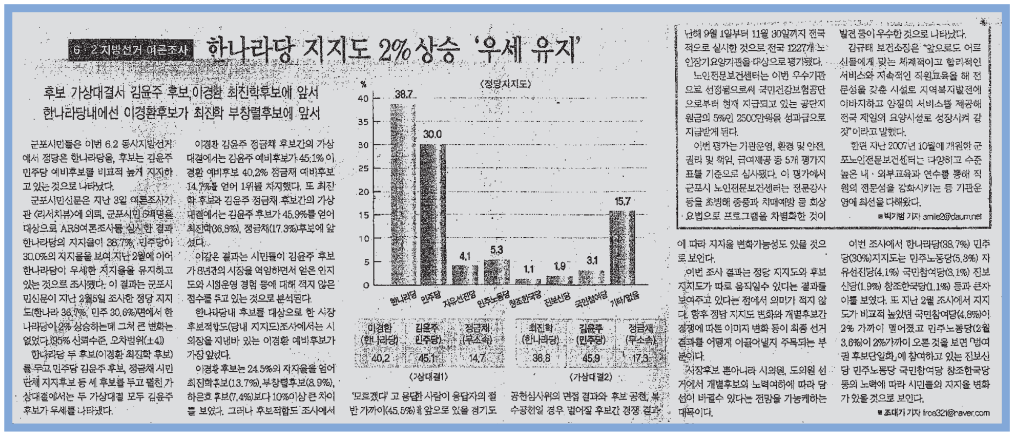
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

군포시민들은 이번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은 한나라당을 후보는 김윤주 민주당 예비후보를 비교적 높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민신문은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리서치뷰)에 의뢰, 군포시민 5백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38.7%, 민주당이 30.0%의 지지율을 보여 지난 2월에 이어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군포시민신문이 지난 2월 5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한나라당 36.7%, 민주당 30.6%)면에서 한나라당이 2% 상승하는데 그쳐 큰 변화는 없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4))

한나라당 두 후보(이경환 최진학 후보)를 두고 민주당 김윤주 후보, 정금채 시민단체 지지후보 등 세 후보를 두고 펼친 가상대결에서는 두 가상대결 모두 김윤주 후보가 우세를 나타냈다.

이경환 김윤주 정금채 후보간의 가상대결에서는 김윤주 예비후보가 45.1% 이경환 예비후보 40.2% 정금채 예비후보 14.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또 최진학 후보와 김윤주 정금채 후보간의 가상대결에서는 김윤주 후보가 45.9%를 얻어 최진학(36.8%), 정금채(17.3%)후보에 앞섰다.(후략)



6·2 지방선거 여론조사

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

후보 가상대결서 김윤주 후보, 이경환 최진학후보에 앞서
한나라당내에선 이경환후보가 최진학 부창렬후보에 앞서

군포시민들은 이번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은 한나라당을, 후보는 김윤주 민주당 예비후보를 비교적 높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민신문은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군포시민 5백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38.7%, 민주당이 30.0%의 지지율을 보여 지난 2월에 이어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군포시민신문이 지난 2월5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한나라 36.7%, 민주 30.6%)면에서 한나라당이 2% 상승하는데 그쳐 큰 변화는 없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4))

한나라당 두 후보(이경환 최진학 후보)를 두고 민주당 김윤주 후보, 정금채 시민단체 지지후보 등 세 후보를 두고 펼친 가상대결에서는 두 가상대결 모두 김윤주 후보가 우세를 나타냈다.

이경환 김윤주 정금채 후보간의 가상대결에서는 김윤주 예비후보가 45.1% 이경환 예비후보 40.2% 정금채 예비후보 14.7%를 얻어 1위를 지지했다. 또 최진학 후보와 김윤주 정금채 후보간의 가상대결에서는 김윤주 후보가 45.9%를 얻어 최진학(36.8%), 정금채(17.3%)후보에 앞섰다.

이같은 결과는 시민들이 김윤주 후보가 6년간의 시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인지도와 시정운영 경험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시장 후보적합도(당내 지지도)조사에서는 시의정을 지냈바 있는 이경환 예비후보가 가장 앞섰다.

이경환 후보는 24.5%의 지지율을 얻어 최진학후보(13.7%), 부창렬후보(8.9%), 하은호 후보(7.4%)보다 10%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모르겠다' 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5.5%)를 앞으로 있을 경기도 공천심사위의 면접 결과와 후보 공천, 복수공천일 경우 펼쳐질 후보간 경쟁 결과, 발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체계적이고 탈리적인 서비스와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 해 전문성을 갖춘 사업로 지역복지발전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제일의 요양시설로 성장시켜 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에 개원한 군포노인전문보건센터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내·외부교육과 연수를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가족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 박기범 기자 smile8@daum.net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1227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단지원금의 5%인 2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학대, 급여제공 등 5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이 평가에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중풍과 치매예방 등 회상요법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한 것이 이 때라 지지율 변화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따로 움직일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향후 정당 지지도 변화와 개별후보간 경쟁에 따른 이미지 변화 등이 최종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자후보 본라나라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 개별후보의 노력여하에 따라 당선이 바뀔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김규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체계적이고 탈리적인 서비스와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 해 전문성을 갖춘 사업로 지역복지발전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제일의 요양시설로 성장시켜 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에 개원한 군포노인전문보건센터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내·외부교육과 연수를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가족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 박기범 기자 smile8@daum.net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38.7%) 민주당(30%)지지도는 민주노동당(5.9%) 자유선진당(4.1%) 국민참여당(3.1%) 진보신당(1.9%) 창조한국당(1.1%) 등과 큰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 2월 조사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국민참여당(4.6%)이 2% 가까이 떨어졌고 민주노동당(2월 3.6%)이 2%가까이 오른 것을 보면 "당대권 후보단일화, 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의 노력에 따라 시민들의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대기 기자 tros321@naver.com

부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 ·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 ·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 ·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지표 · 기준 ·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 · 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 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 형평성 · 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때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 ·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 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결정을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 ·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table>
<tr><td rowspan="2">성명</td><td>한글</td><td></td><td rowspan="2">주민등록번호</td><td rowspan="2"></td><td rowspan="2">직업</td><td rowspan="2"></td></tr>
<tr><td>한자</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r>
<tr><td>학력</td><td colspan="6"></td></tr>
<tr><td>경력</td><td colspan="6"></td></tr>
</table>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부록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2">시정요구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 소
(e-mail 주소)</td><td></td><td>④ 전 화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
대상</td><td>⑤ 언론사명
(매체명)</td><td></td><td>⑥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⑦ 보 도 일 자
및 지 면</td><td></td><td>⑧ 소 재 지</td><td></td></tr>
<tr><td>⑨ 보 도 내 용</td><td></td><td>⑩ 전 화 번 호</td><td></td></tr>
<tr><td>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시정요구 처리 결과 통지서

시정	성 명		접 수 일	년 월 일
요구인	주 소 (e-mail 주소)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시정요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 ○ ○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부록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재 심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원 심 결 정</td><td>의 결 번 호</td><td></td><td></td><td></td></tr>
<tr><td>결 정 일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td><td></td></tr>
<tr><td>주 소</td><td></td><td></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d></td><td></td></tr>
<tr><td>E-mail</td><td></td><td></td><td></td></tr>
<tr><td>청구의 취지
및 사유</td><td colspan="4">별 첨</td></tr>
<tr><td colspan="5">「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의결번호				
청구인	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접 수 일	년 월 일
	주 소			
청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재심청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부록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3">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② 주 소
(e-mail.주소)</td><td></td></tr>
<tr><td>③ 대표자 성명</td><td></td><td>④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⑤ 소 재 지</td><td></td><td>⑥ 전 화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피 청 구 인</td><td>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⑧ 주 소</td><td></td></tr>
<tr><td>⑨ 대표자 성명</td><td></td><td>⑩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⑪ 소 재 지</td><td></td><td>⑫ 전 화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td><td colspan="3"></td></tr>
<tr><td>⑭ 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3"></td></tr>
<tr><td>⑮ 보 도 내 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 형평성 ·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 · 정보간행물 · 전자간행물 · 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 크기 ·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 · 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 크기 ·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 편집 ·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 · 논평 · 사진 · 방송 ·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 형평성 · 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

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 · 내용 · 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 ·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 · 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 · 내용 · 크기 ·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 · 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 · 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 · 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 전자간행물 ·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 ·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 신문 ·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 · 신문 ·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6조(허위논평 · 보도의 금지)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는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지표 · 기준 ·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자유와 기능"일간신문 등" 등 "등"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의 정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 "등"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 ·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 · 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5항 · 제94조(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제95조(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항 · 제96조(허위논평 · 보도의 금지) ·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

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 ·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4호, 제137조 제1항 및 제16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 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31종, 주간지 277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 총 446종

1) 일간지 : 131종

구 분		매 체 명
중앙 일간지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데일리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시티, 스포츠한국
지역 일간지 (100)	서울(12)	내외일보, 대한매일신문, 대한투데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일간투데이, 재경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일보, 동국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일간대구경북
	인천(4)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광주전남(16)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남도매일, 일간호남, 호남도민일보, 희망일보
	대전충남(9)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충청타임즈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기(17)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일보, 수도권일보, 수원일보, 시대일보, 오늘신문, 우리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4)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전북(11)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일간 전북타임스,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경북(3)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남(6)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한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2) 주간지 : 277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 주간지 (34)		뉴시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시사뉴스, 시사IN,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저널, 매경ECONOMY, 미래한국, 위클리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주간지뉴스인뉴스,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시사신문, 위클리 오마이뉴스, 월드경제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파이낸셜투데이
교육 주간지 (13)		교육신보, 교육연합신문, 대전교육신문, 대한교육문화신문, 대한교육신문, 미래교육신문, 삼남교육신문, 전라교육신문, 주간교육신문, 참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호남교육신문
지역 주간지 (230)	서울(37)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신문, 노원신문, 뉴스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울강북 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온서울,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천(3)	남동신문, 부평신문, 연수송도신문
	광주(1)	시민의소리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41)	가평타임즈, 강북신문, 경기헤럴드,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데이, 뉴스리더,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사타임, 시흥신문, 아이디분당,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오산시민신문, 용인신문, 위클리 와이,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 경춘신문, 주간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나로신문, 하남신문, 화성오산신문
	강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철원신문,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북(9)	목요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증평괴산저널,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충남(13)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뫼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전북(23)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김제신문, 주간 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임실뉴스, 해피데이고창
	전남(29)	강진고을, 고흥타임즈,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항도신문

구 분		매 체 명
지역 주간지 (230)	경북(25)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남(32)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경서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남해시대, 남해신문,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한국시사,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통합창원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양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36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지(8)	경제풍월, 뉴스저널,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피플매거진,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지(16)	굿뉴스피플, 월간광양저널, 월간경민, 월간 김포뉴스, 월간 대한, 월간 이천, 여수여수사람들, 열린전북, 수원리뷰, 시사전북, 자치광장, 자치평론, 전국지방시대, 전라도닷컴, 전북마당, 한국여성저널
교육월간지(6)	교육평론, 새교육, 초등우리교육, 중등우리교육, 교육사랑, 푸른전북교육

4) 뉴스통신 : 2종

연합뉴스, 뉴시스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70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호남매일	75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호남신문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호남신문	81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강진고을	84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충청일보	89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내외일보	92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우리일보	95
	경 고	2010지선4	뉴스저널	98
	경 고	2010지선5	시사매거진	100
	경 고	2010지선6	데일리스포츠월드	102
	경 고	2010지선7	중앙매일	104
	경 고	2010지선15	전라일보	107
	경 고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109
	경 고	2010지선32	내외일보	111
	경 고	2010지선35	수도일보	113
	경 고	2010지선43	전주일보	115
	경 고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118
	경 고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120
	경 고	2010지선55	시민일보	122
	경 고	2010지선56	인천일보	124
	경 고	2010지선57	인천일보	126
	경 고	2010지선62	중앙매일	12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63	중앙매일	130
	경 고	2010지선64	중앙매일	132
	경 고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134
	경 고	2010지선67	강원일보	136
	경 고	2010지선68	동국일보	138
	경 고	2010지선69	대전일보	141
	경 고	2010지선70	인천일보	143
	경 고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145
	경 고	2010지선74	충청일보	147
	경 고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148
	경 고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150
	경 고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152
	경 고	2010지선85	전주일보	155
	경 고	2010지선86	일요서울	157
	경 고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159
	경 고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161
	경 고	2010지선90	거창신보	163
	경 고	2010지선91	한국시사	165
	경 고	2010지선92	서울신문	168
	경 고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169
	경 고	2010지선94	광주일보	171
	경 고	2010지선95	인천신문	173
	경 고	2010지선96	충북일보	175
	경 고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177
	경 고	2010지선98	시사신문	179
	경 고	2010지선99	시사신문	181
	경 고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183
	경 고	2010지선101	성북신문	184
	경 고	2010지선109	중부일보	186
	경 고	2010지선110	중부일보	188
	경 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190
	경 고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192
	경 고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194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196
	경 고	2010지선118	서경신문	198
	경 고	2010지선119	한국시사	199
	경 고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0
	경 고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2
	경 고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4
	경 고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6
	경 고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7
	경 고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9
	경 고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11
	경 고	2010지선128	주간 강남내일신문	213
	경 고	2010지선130	경북일보	215
	경 고	2010지선131	중구신문	217
	경 고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18
	경 고	2010지선136	중도일보	220
	경 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22
	경 고	2010지선141	매일신문	224
	경 고	2010지선142	우리일보	227
	경 고	2010지선143	월간중앙	229
	경 고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231
	경 고	2010지선146	아주경제	236
	경 고	2010지선147	연합뉴스	237
	경 고	2010지선151	전남매일	238
	경 고	2010지선155	일요서울	240
	경 고	2010지선157	전광일보	242
	경 고	2010지선158	호남신문	244
	경 고	2010지선159	시사IN	246
	경 고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48
	경 고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51
	경 고	2010지선162	대구일보	253
	경 고	2010지선163	조선일보	254
	경 고	2010지선164	한겨레	257
	경 고	2010지선165	아주경제	25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경 고	2010지선166	민주신문	261
	경 고	2010지선168	evening	263
	경 고	2010지선170	서울신문	265
	경 고	2010지선172	세계일보	268
	경 고	2010지선173	중앙일보	270
	경 고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71
	경 고	2010지선178	종로저널	272
	경 고	2010지선179	사건의내막	275
	경 고	2010지선182	월간중앙	277
	경 고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80
	주 의	2010지선2	광주일보	282
	주 의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84
	주 의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86
	주 의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88
	주 의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90
자체심의	주 의	2010지선16	전북일보	292
	주 의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95
	주 의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97
	주 의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99
	주 의	2010지선22	전국매일	301
	주 의	2010지선23	전국매일	303
	주 의	2010지선24	전국매일	305
	주 의	2010지선25	중도일보	307
	주 의	2010지선26	중도일보	309
	주 의	2010지선27	중부일보	311
	주 의	2010지선28	중부일보	313
	주 의	2010지선36	시민일보	315
	주 의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317
	주 의	2010지선38	우리일보	319
	주 의	2010지선39	우리일보	321
	주 의	2010지선40	인천일보	323
	주 의	2010지선41	전주일보	325
	주 의	2010지선42	전주일보	327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주 의	2010지선44	현대일보	329
	주 의	2010지선45	시사뉴스	330
	주 의	2010지선50	주간함양	332
	주 의	2010지선51	경제풍월	334
	주 의	2010지선59	경북일보	336
	주 의	2010지선60	경기신문	337
	주 의	2010지선61	일간 전북타임스	339
	주 의	2010지선65	충북일보	341
	주 의	2010지선72	광남일보	343
	주 의	2010지선73	전남일보	345
	주 의	2010지선75	일요서울	347
	주 의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349
	주 의	2010지선81	대전일보	351
	주 의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353
	주 의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355
	주 의	2010지선103	월요신문	356
	주 의	2010지선129	인천신문	358
	주 의	2010지선135	조선일보	360
	주 의	2010지선138	국민일보	362
	주 의	2010지선139	동아일보	364
	주 의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366
	주 의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367
	권 고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369
	권 고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371
	권 고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373
	권 고	2010지선10	기호일보	375
	권 고	2010지선11	동국일보	377
	권 고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379
	권 고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381
	권 고	2010지선34	경기신문	383
	권 고	2010지선46	시사저널	385
	권 고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387
	권 고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38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권 고	2010지선49	주간 시정신문	391
	권 고	2010지선52	영남일보	393
	권 고	2010지선58	세계일보	395
	권 고	2010지선87	강원리뷰	397
	권 고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39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언론사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임세빈 / 주간보령	401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임세빈 / 보령시민신문	403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양대웅 / 구로오늘신문	405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전묘순 / 일간대구경북	408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조영규 / THE함안신문	411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현명관 / 제주프레스	418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오근량 / 뉴시스	421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김경회 / 진천군민신문	42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서춘수 / 한남일보	428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우건도 / 대전일보	431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이홍수 / 인천일보	43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김호복 / 동양일보	436
	권 고	2010지선106	박정수 / 경남매일	439
	기 각	2010지선30	정송학 / 한겨레	441
	기 각	2010지선77	김성호 / 함평천지신문	443
	기 각	2010지선104	김부기 / 매일신문	446
	기 각	2010지선140	김용일 / 홍성신문	448
	각 하	2010지선113	송재영 / 군포시민신문	450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evening	경고	2010지선168	263
	강남포스트	경고	2010지선161	251
	강원도민일보	경고	2010지선53	118
		경고	2010지선93	169
	강원리뷰	권고	2010지선87	397
	강원일보	경고	2010지선67	136
	강진고을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84
	거창군민신문	경고	2010지선89	161
	거창신보	경고	2010지선90	163
	경기신문	주의	2010지선60	337
		권고	2010지선34	383
	경기헤럴드	경고	2010지선88	159
	경북일보	경고	2010지선130	215
		주의	2010지선59	336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0지선17	295
		주의	2010지선18	297
	경제풍월	주의	2010지선51	334
	광남일보	주의	2010지선72	343
	광주일보	경고	2010지선94	171
		주의	2010지선2	282
	교육연합신문	경고	2010지선116	194
	국민일보	주의	2010지선138	362
	기호일보	권고	2010지선10	375
	김천문화신문	경고	2010지선117	196
	나주투데이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70
	내외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92
		경고	2010지선32	111
	뉴스저널	경고	2010지선4	98
	뉴스포스트	경고	2010지선160	248
	대구일보	경고	2010지선162	253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대전일보	경고	2010지선69	141
		주의	2010지선81	351
	대한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9	109
		경고	2010지선82	150
	대한투데이	주의	2010지선184	367
	데일리포커스	권고	2010지선33	381
	데일리노컷뉴스	권고	2010지선3	371
	데일리스포츠월드	경고	2010지선6	102
		주의	2010지선12	286
	동국일보	경고	2010지선68	138
		권고	2010지선11	377
	동아일보	주의	2010지선139	364
	마포타임즈	경고	2010지선183	280
	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41	224
	미래교육신문	권고	2010지선47	387
	민주신문	경고	2010지선166	261
	밀양사람들	경고	2010지선174	271
	사건의내막	경고	2010지선179	275
	새만금일보	경고	2010지선84	152
		주의	2010지선83	353
		주의	2010지선102	355
		권고	2010지선111	399
	새전북신문	경고	2010지선54	120
	서경신문	경고	2010지선118	198
	서울신문	경고	2010지선92	168
		경고	2010지선170	265
	서해안신문	권고	2010지선48	389
	성북신문	경고	2010지선101	184
	세계일보	경고	2010지선172	268
		권고	2010지선58	395
	수도권일보	경고	2010지선114	190
		주의	2010지선20	29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수도일보	경고	2010지선35	113
	스포츠동아	권고	2010지선21	379
	시민일보	경고	2010지선55	122
		주의	2010지선36	315
	시사IN	경고	2010지선159	246
	시사뉴스	주의	2010지선45	330
	시사매거진	경고	2010지선5	100
		경고	2010지선66	134
	시사신문	경고	2010지선98	179
		경고	2010지선99	181
	시사저널	권고	2010지선46	385
	시사포커스	경고	2010지선100	183
		경고	2010지선115	192
	아시아경제	주의	2010지선37	317
	아시아일보	경고	2010지선127	211
		주의	2010지선13	288
		주의	2010지선14	290
	아시아투데이	권고	2010지선1	369
	아주경제	경고	2010지선146	236
		경고	2010지선165	258
	여수여수사람들	경고	2010지선145	231
	연합뉴스	경고	2010지선147	237
	영남일보	권고	2010지선52	393
	우리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95
		경고	2010지선142	227
		주의	2010지선38	319
		주의	2010지선39	321
	월간중앙	경고	2010지선143	229
		경고	2010지선182	277
	월요신문	주의	2010지선103	356
	위클리경향	주의	2010지선76	349
	인천신문	경고	2010지선95	173
		주의	2010지선129	358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인천일보	경고	2010지선56	124
		경고	2010지선57	126
		경고	2010지선70	143
		경고	2010지선120	200
		주의	2010지선40	323
	일간 전북타임스	주의	2010지선61	339
	일요서울	경고	2010지선86	157
		경고	2010지선155	240
		주의	2010지선75	347
	전광일보	경고	2010지선157	242
	전국매일	주의	2010지선22	301
		주의	2010지선23	303
		주의	2010지선24	305
	전남매일	경고	2010지선151	238
	전남일보	주의	2010지선73	345
	전라일보	경고	2010지선15	107
	전북일보	주의	2010지선16	292
	전주일보	경고	2010지선43	115
		경고	2010지선85	155
		주의	2010지선41	325
		주의	2010지선42	327
	조선일보	경고	2010지선163	254
		주의	2010지선135	360
	종로저널	경고	2010지선178	272
	주간 강남내일신문	경고	2010지선128	213
	주간 시정신문	경고	2010지선121	202
		권고	2010지선49	391
	주간조선	경고	2010지선122	204
	주간 함양	주의	2010지선50	332
	중구신문	경고	2010지선131	217
	중구자치신문	경고	2010지선132	218
	중도일보	경고	2010지선136	220
		주의	2010지선25	307
		주의	2010지선26	30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중부일보	경고	2010지선109	186
		경고	2010지선110	188
		주의	2010지선27	311
		주의	2010지선28	313
	중앙매일	경고	2010지선7	104
		경고	2010지선62	128
		경고	2010지선63	130
		경고	2010지선64	132
	중앙일보	경고	2010지선173	270
	충남일보	경고	2010지선125	207
	충북일보	경고	2010지선96	175
		주의	2010지선65	341
	충청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89
		경고	2010지선74	147
		경고	2010지선124	206
		경고	2010지선137	222
	충청투데이	경고	2010지선71	145
		경고	2010지선97	177
		경고	2010지선126	209
	파이낸셜뉴스	경고	2010지선80	148
		주의	2010지선9	284
		권고	2010지선8	373
	한겨레	경고	2010지선164	257
	한국시사	경고	2010지선91	165
		경고	2010지선119	199
	헤럴드경제	주의	2010지선144	366
	현대일보	주의	2010지선44	329
	호남매일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75
	호남신문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81
		경고	2010지선158	244

구 분	언론사명/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THE함안신문/조영규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411
	경남매일/박정수	권고	2010지선106	439
	구로오늘신문/양대웅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405
	군포시민신문/송재영	각하	2010지선113	450
	뉴시스/오근량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421
	대전일보/우건도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431
	동양일보/김호복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436
	매일신문/김부기	기각	2010지선104	446
	보령시민신문/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403
	인천일보/이홍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434
	일간대구경북/전묘순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408
	제주프레스/현명관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418
	주간보령/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401
	진천군민신문/김경회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424
	한겨레/정송학	기각	2010지선30	441
	한남일보/서춘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428
	함평천지신문/김성호	기각	2010지선77	443
	홍성신문/김용일	기각	2010지선140	448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 :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 :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 :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 :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2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 : 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 :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 :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 :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 :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 : 064)726-3201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0년 8월 26일

발행일 2010년 8월 30일

발행인 권 성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